

발 간 등 록 번 호

2021 연구보고

12-1371827-000010-0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21. 11. 30.

제 출 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30.

-
- 연구 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자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 공동연구자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최재황(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소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원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은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이 연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의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연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재와 같이 남북 교류가 중단된 시점에서, 도서관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함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획과 준비—① 선행 교류사업 분석, ② 신규 영역 교류사업 기획, ③ 융복합 교류, ④ 남한 내 통일문화 인식제고—를 염두하여, 도서관 영역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 사업 방안, 사업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남북 간 선행 교류사업 및 남북한 도서관 정책, 통일 이전의 독일 도서관 교류협력과 통합정책 사례를 분석함(연구의 내용적 범위)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 및 정책 개발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와 화해협력기를 중심으로 설정함(연구의 시간적 범위)
- 연구 방법은 남북한과 독일 사례 및 정책, 현황자료 및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한 문헌 조사,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경험자 및 연구자, 탈북자, 도서관 관계자, 제안사업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및 자문회의,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3.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주요 사업

- 본 연구는 33개의 주요 사업을 제시하는데, 1차 및 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8년, 2019년), 그리고 남북한 도서관협회 만남에서 남한이 제안한 사업(2000년, 2005년)의 대부분을 다시 제안함
- 사업 분류는 먼저 행위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함
 - 첫 번째는 북한 도서관과 관계없이 남한 도서관이 먼저 준비해야 할 사업이며, 두 번째는 남북 도서관의 직접 교류협력 사업, 세 번째는 남한 도서관이 제3국에서 북한 도서관과 간접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사업임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세 가지 기준(남한 도서관 단독 사업, 남북 도서관 공동 사업, 남한 도서관과 국제기구-제3국 도서관 교류협력)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도서관 기능별로 분류함
- 사업 주체별(3개)-기능별로 분류된 남북 도서관 문화 교류사업의 추진 시점은 다음과 같음

〈표 1〉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점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	○	○
	1-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	○	
	1-1-3.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	◎	
	1-1-4.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	
	1-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	
	1-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1-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		
	1-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		
	1-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	
	1-3.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1-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		
	1-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		
	1-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	◎	
	1-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1-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	○	
	1-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	○	
	1-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	◎	
	1-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	◎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1-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2-1.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2-1-1.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	◎	○
	2-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	◎	
	2-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	
	2-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	◎	◎
	2-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2-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	○	
	2-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	
	2-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	
	2-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	
	2-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3-1.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3-1-1.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	◎	
	3-1-2.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	○	
	3-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	○	
	3-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	○	
	3-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	○	
	3-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	◎	
	3-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3-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	◎
	3-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		

※ 표시[◎ ○]는 사업 진행 시점(始點)을 말하는데,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됨,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지만 관련된 사업의 진행을 의미함

- 단위 사업의 추진 시점을 살펴보면,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은 남북의 직접 교류뿐 아니라 남한 내의 준비작업,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간접 교류를 포함하기에,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현재부터 시작해야 할 사업이 많음
 - 현재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 도서관 교류의 활성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하여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현재 도서관계에서 남북 교류를 위해 할 일을 제시해야 화해협력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음
 - 선행 연구에서는 남북 도서관 교류 사업을 많이 제시했지만, 단위(개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추진 주체를 제시함
- 제안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를 기술했던 것 역시, 현장에서 사업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참여자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임
 - 경색기인 지금 당장 도서관 교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추진 주체를 설정해야 함
 - 제시한 시점과 추진 주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경색기보다 화해협력기 이후에 많을 것이므로, 경색기에 시작할 사업은 바로 착수하는 게 바람직함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6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7
1. 연구 범위	7
1) 내용적 범위	7
2) 시공간 범위	8
3) 연구 대상	9
2. 연구 방법	9
제3절 도서관과 도서관 교류협력의 개념	11
1. 도서관의 개념	11
2. 도서관 교류협력의 개념	13
1)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개념	13
2)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15
3)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16
4) 남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17
제2장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및 동서독 사례 분석	31
제1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분석	33
1.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특징	33
1) 일반적 특징	33
2) 사업 참여 목적: 명목과 실제의 공존	33

3) 2018년 이후 사업의 특징	34
2. 남북 문화기관 및 학술·출판 교류 사례	36
1) 도서관 교류	36
2) 전시시설 및 전시물 교류	42
3) 학술 교류	46
4) 출판 교류	48
3. 남북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	50
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완결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교류	50
2)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교류: 작품 교류를 넘어 메타데이터 구축-기술 교류-원문 이용	51
3) 학술 및 출판 교류: 공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류, 문학의 다양한 콘텐츠화 가능	52
제2절 동서독 도서관 교류사업 사례	54
1. 통독 전후 도서관 교류현황	54
1) 배경	54
2) 동서독 분단 즈음	55
3) 동서독 분단 이후	55
4) 베를린 장벽 붕괴 즈음	57
5) 동서독 통일 이후	58
2. 동서독의 학술 및 출판 교류	64
1) 동서독 학술 교류사업	64
2) 동서독 출판 교류사업	72
3. 남북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	85
1) 동서독과 남북한 관계의 차이	85
2) 남북 문화 교류의 현재 단계: 동서독과 비교	86
제3장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	91
제1절 남한 도서관 정책 및 남북 도서관 교류 기존 제안	93
1. 도서관 정책 행정체계 변화	93
2. 도서관법 개정(2006년)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95

1)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96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98
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100
3. 시기별 남북 도서관 교류 및 연구	105
1) 1945년~2000년	105
2) 2001년~2005년	108
3) 2006년~2010년	113
4) 2011년~2015년	116
5) 2016년~2021년	118
4. 남북 도서관 교류 기존 제안사업 분류	120
제2절 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	125
1. 북한 도서관 관련 법적 체계	12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25
2) 기타 법제와 도서관	128
3) 북한 법체계와 도서 규정	130
4) 불법 도서 처벌 규정	132
2. 북한 도서관의 기능	133
1) 인테리화 거점	133
2) 군중문화사업 기지	135
3) 반제교양사업 거점	136
4) 과학기술보급기지	137
5) 원격교육 전당	138
3. 평양과 지역 도서관 현황	139
1) 평양	139
2) 지역	142
3) 체육도서관	143
4. 시기별 도서관 및 도서 정책	144
1) 김일성, 김정일 시기	144
2) 김정은 시기	146

5. 현재 북한 도서관의 특성	152
1) 정보화의 지역 차이	152
2) 정보통신기술과 교육 환경 개선	152
3) 전문 분야의 국제적 기술 역량의 한계	153
4) 도서관 기술 인력 제한	153
5) 정보화 사업 자체의 지연	154
제3절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자료 보유·프로그램 운영 현황	155
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사	155
1) 조사 개요	155
2) 주요 조사 결과	157
3) 조사 결과의 함의: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169
2. 통일 및 북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사례	172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177
제1절 도서관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사업 제안의 고려 사항	179
1. 남북한 사회의 변화	179
1) 남한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179
2) 김정은 시대의 북한	182
3) 대북 제재와 남북 교류	187
2. 기존 제안사업 검토와 재분류	192
3. 연구과정에서 제시한 시사점 반영	194
제2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도출 및 기본 방향	196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도출	196
1) 남북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도서관 교류 사업 제안	196
2) 기존 정책 및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구체화	197
3)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특징 및 시사점 반영	198
2.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본방향	201
1)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회문화 교류의 허브	201
2)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의미 확대, 공간 재조정	202

3)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 도서관계 역량 강화 203
 4) 남북 도서관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 206

제5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209

제1절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211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13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213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213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214

3) 사업 내용 215

4) 유의 및 고려사항 218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219

6) 전후 추진 사업 219

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220

1-3.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223

1-4.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230

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235

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238

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239

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244

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248

3.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252

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253

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258

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261

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266

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266

* 개별(단위) 사업 제안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3) 사업 내용, 4) 유의 및 고려사항,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6) 전후 추진 사업—로 구성됨. 여섯 가지가 반복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이하 개별(단위)사업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음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272
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276
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281
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285
제2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290
1.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290
1-1.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290
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294
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296
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301
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304
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304
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311
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314
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317
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320
제3절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323
1.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323
1-1.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323
1-2.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329
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335
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338
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341
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344
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348
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349
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353

제6장 맺음말	359
제1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요약	361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주요 사업: 기존 계획(제안)과 비교	361
2.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주요 사업: 단계별 사업과 추진 주체	368
제2절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시점	376
1. 단위 사업의 추진 시점(영역별)	376
2. 제도통합기의 도서관 운영 방향	381
참고문헌	383
부록 1: 남북 도서관 교류 관련 기존 제안 검토	392
부록 2: 북한의 도서관법	402

표 목차

〈표 1-1〉 남북 교류협력 사업 승인 현황(1991~2021)	3
〈표 1-2〉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 사업 승인현황: 분야별(1991~2021)	4
〈표 1-3〉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10
〈표 1-4〉 남북 문화 교류 및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17
〈표 1-5〉 북한과 외국도서관의 교류(2014~2018)	23
〈표 1-6〉 평양과학기술대학(PUST)과 코넬대학 TEEAL 프로젝트	27
〈표 2-1〉 남북 박물관 교류: 박물관이 사업주체인 경우(1997~2006)	43
〈표 2-2〉 박물관의 남북 문화 교류 사업 참여 사례(2005~2015)	44
〈표 2-3〉 남북 출판 교류 사례(1992~1998)	48
〈표 2-4〉 남북 문학 교류 사례(2005~2006)	50
〈표 2-5〉 동서독 연방정부 및 연방주 워킹그룹 구성 주제 및 합의 사항	59
〈표 2-6〉 동서독 통일 무렵 도서관 주요 현황(1989~1991)	60
〈표 2-7〉 통일 전후 동서독 도서관 주요 교류(1900~2006)	61
〈표 2-8〉 동서독 기본조약의 7조 내용(1972.12.)	67
〈표 2-9〉 동서독 문화협정 사업계획으로 추진된 학술 프로젝트	70
〈표 2-10〉 동서독 출판분야 관련 교류협력과 문화협정(1986)	76
〈표 2-11〉 동서독 간 출판물의 교류 현황(1958~1987)	81
〈표 2-12〉 동독으로 반출된 서독의 서적 수량(1961~1989)	81
〈표 2-13〉 동독의 고서적 거래 및 수출 현황 1(1963~1973)	82
〈표 2-14〉 동독의 고서적 거래 및 수출 현황 2(1970~1979)	83
〈표 2-15〉 동독으로 반출된 서독의 서적 수량	83
〈표 2-16〉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의 내독간 협력(1960~1989)	84

〈표 3-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의 시행계획(2018~2023) 102

〈표 3-2〉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1945~2000) 105

〈표 3-3〉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01~2005) 109

〈표 3-4〉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06~2010) 114

〈표 3-5〉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11~2015) 116

〈표 3-6〉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및 보도자료 목록(2016~2021) 118

〈표 3-7〉 2014년 선행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교류협력 전략(협력단계) 121

〈표 3-8〉 2014년 선행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교류협력 전략(통합단계) 123

〈표 3-9〉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 현황: 설문조사 결과 157

〈표 3-10〉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도서 대출현황: 설문조사 결과 159

〈표 3-11〉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가 없는 이유: 자료 비보유 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60

〈표 3-12〉 공공도서관의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행사 진행최근 3년간: 설문조사 결과 · 162

〈표 3-13〉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vs.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설문조사 결과 163

〈표 3-14〉 북한 이해, 북한이탈주민과 통합, 통일문화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적합한 공공문화시설:
설문조사 결과 164

〈표 3-15〉 향후 북한, 통일, 평화 관련 문화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바람직한 주요참여
(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165

〈표 3-16〉 향후 북한 도서관 교류 기회가 있을 시, 참여 의향: 설문조사 결과 167

〈표 3-17〉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vs.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설문조사 결과 169

〈표 3-18〉 마포중앙도서관 통일 관련 프로그램(2018~2020) 173

〈표 3-19〉 파주중앙도서관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 주요 실천내용(2018~2020) 174

〈표 3-20〉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미리 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2019년 길위의 인문학 사업) · 175

〈표 3-21〉 서울도서관 통일 관련 프로그램(2019) 176

〈표 4-1〉	통일의 필요성: 통일외식조사(2007~2020)	179
〈표 4-2〉	통일의 이유: 통일외식조사(2007~2020)	180
〈표 4-3〉	개성공단 재가동 의견: 통일외식조사(2016~2020)	181
〈표 4-4〉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 통일외식조사(2010~2020)	181
〈표 4-5〉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가 시급한가에 대한 의견: 통일외식조사(2017~2020)	181
〈표 4-6〉	UN의 대북 제재 결의 시기와 배경(2006~2017)	187
〈표 4-7〉	UN의 대북 제재 분야 및 내용	188
〈표 4-8〉	남한의 대북 제재 배경과 제재 사항(2010~2017)	190
〈표 4-9〉	남한의 대북 제재 분야 및 내용	190
〈표 4-10〉	UN, 남한, 미국의 대북 제재 분류	191
〈표 4-11〉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2008년, 2019년)	192
〈표 4-12〉	남북 도서관계 인사 만남에서 제시된 교류사업(2000년, 2005년)	193
〈표 4-13〉	남북 문화 교류 및 남북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198
〈표 4-1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2015)	201
〈표 5-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과정(3단계)	212
〈표 5-2〉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vs.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설문조사 결과	214
〈표 5-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 문화 교류 추진기관(2020)	216
〈표 5-4〉	유튜브 채널 'NEW DPRK' 영상 업데이트 목록(2020)	225
〈표 5-5〉	동서독 문화협정과 도서관분야 협력(1986. 5. 6)	235
〈표 5-6〉	통일 및 북한정보 제공 기관 홈페이지	240
〈표 5-7〉	포털 검색기능 재구성의 예	242
〈표 5-8〉	남북 도서관 시스템 메시지 비교표	260
〈표 5-9〉	북한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	262
〈표 5-10〉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vs.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설문조사 결과	267
〈표 5-11〉	통일의 필요성: 통일외식조사(2007~2021)	269
〈표 5-12〉	북한(문화)의 이해: 교과 구성(사서 대상 교육)	307

〈표 5-13〉 북한 도서관의 이해: 교과 구성(사서 대상 교육)	308
〈표 5-14〉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2007~2020)	346
〈표 5-15〉 남북(문화) 교류협력 사업 진행절차	351
〈표 6-1〉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내용: 기존 계획(제안) 비교	362
〈표 6-2〉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점과 추진 주체	369
〈표 6-3〉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단위 사업: 추진 시점(영역별)	379

그림 목차

[그림 1-1] 남북의 경제 협력-사회문화 교류협력-문화 교류협력 관계	15
[그림 1-2] Research4Life 데이터베이스 제공 국가 및 지역	28
[그림 2-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자료 사진(2005~2007)	38
[그림 2-2]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장 등 방북: 북한의 보도내용 ...	40
[그림 2-3]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장 등 방북: 남북관계자 사진 ...	41
[그림 3-1] 북한의 전자도서 이용 학습 자료사진	135
[그림 3-2] 북한의 인민문화선전사업 자료사진	136
[그림 3-3] 북한의 반제교양사업 자료사진	137
[그림 3-4] 북한 인민대학습당 내·외부 자료사진	139
[그림 3-5] 북한 인민대학습당 고전자료실 자료사진	141
[그림 3-6] 북한 황해북도 승호군미래원 실·내외 시설들	149
[그림 3-7] 북한 예술영화 시리즈 내 과학기술보급실 자료사진	150
[그림 3-8] 북한의 도서 활용 사상교양사업 자료사진	151
[그림 3-9] 파주중앙도서관 통일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자료사진	175
[그림 4-1] 남한의 북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사례	205
[그림 5-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안	217
[그림 5-2] 파주 출판도시 남북 문화 교류 행사 '북녘의 책 읽는 풍경'	273
[그림 5-3] 국내 일반도서 분야별 출판 추이(2020년 기준)	277
[그림 5-4] 민족문학작가대회 자료 사진(2005)	279
[그림 5-5]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이용하여 첨단 기술을 배우자는 주제의 북한 영화 <열성독자> ...	282

[그림 5-6] 인민대학습당의 고전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무예도보통지』의 택견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평양날파람> 283

[그림 5-7] 인민대학습당의 문헌실에서 동해와 관련한 자료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행프로그램
 <동해명승을 찾아서>의 도입부 283

[그림 5-8]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홍보하는 북한 영화 <내가 찾은 보물> 284

[그림 5-9] 국제 상호대차 및 국가 상호대차(책바다) 서비스 295

[그림 5-10] 2021년 ICoASL 서울회의 홈페이지 326

[그림 5-11]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 공동학술대회(2019) 331

[그림 5-12] 북한 소설책 『황진이』 국내 판매 사례 355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활성화기(2000~2007), 침체기(2008~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부 시기의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변동성이 심함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증가함
 - 체육 이외 분야에서는 남북 공연단 상호 방문 공연(2018), 만월대 공동조사(2007~2018) 등이 진행됨
 - 2019년 이후 남북 문화 교류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통일부 승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0건, 2021년 0건임
 - 2018년~2019년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9건은 체육 7건, 문화유산 1건, 공연 예술 1건임
 - 참고로 2018년 북한 예술단 방남 공연, 남한 예술단 방북 공연은 승인 사업으로 집계되지 않음

〈표 1-1〉 남북 교류협력 사업 승인 현황(1991~2021)

단위: 건

구분	'9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경제	민간 경협	16	1	2	6	10	4	6	9	1	19	-	-	19	-	-	-	-	-	-	-	-
개성 공단		-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	-	-	-	-	-	308
승인 신고		-	-	-	-	-	-	-	-	12	11	18	22	10	2	7	-	-	-	-	-	-	82
사회문화	23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	6	3	-	-	168	
계	39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	-	6	3	-	-	651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 주요 사업-주요 사업통계-남북 교류협력, 엑셀다운로드(검색일: 2021년 6월 19일)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2019년 5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아서 3건으로 집계했음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도서관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지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함
 - 남북 문화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일반, 국내외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반적 접근을 넘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것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둘째, 기존에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함
 - 문화 영역에서 진행된 교류사업(통일부 승인사업) 143건 가운데, 문화산업(43건), 체육(31건), 문화유산(24건), 공연예술(21건)이 많은 편임

〈표 1-2〉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 사업 승인현황: 분야별(1991~2021)

단위: 건

분야	문 화								교육 학술	기타	총계
	언어 문학	공연 예술	시각 예술	문화 산업	종교	문화 유산	체육	소계			
승인 사업 수 (건)	6	21	7	43	11	24	31	143	12	13	16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1990년 제정되어 이전에는 승인사업이 없음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5쪽

-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개체 수가 많은 도서관 관련 교류는 1건(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불과함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한양대-연세대김대중도서관-성공회대(남)-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김일성종합대학(북)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통일부 승인일은 2006년 8월 9일임
- 한편 비승인사업을 포함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590건 가운데, ‘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2007년 인제대학교의 백인제기념도서관(김학수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하나를 위한 어우러짐: 새로운 시선-북녘그림전’이 유일함
 - 인제대학교에서 2007년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사업으로, 백인제기념도서관 박재섭 관장이 2007년 6월 직접 북한에 들어가 그림을 구입한 뒤 통일부의 승인(반입승인)을 얻어 국내로 반입한 100여점 중 60여점을 전시함. 엄격한 의미에서 도서관 교류가 아니라 미술 교류라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거의 교류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일이

필요함

- 셋째, 단일 영역의 교류협력 사업보다는 문화영역 내에서 또는 문화영역과 타 영역이 융복합화된 사업을 기획해야 함
 - 도서관 교류협력은 학술, 문학 교류와 연계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교류처럼 정보화 교류(김일성종합대학 현대화사업), 미술 교류(백인제기념도서관)와도 연계될 수 있음
 - 넷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남한 내 문화통합 인식 제고까지 포괄하는 사업을 기획해야 함
 - 남북(문화) 교류협력을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남한 내에서 남북 문화통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까지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함
 - 통일과 남북 동질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짐
 - 20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연령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7년 53% 이후 대체로 40%대(2015년과 2016년 30%대)였으나, 2018년에는 54%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음
 - 하지만 2019년에는 42%로 전년 대비 12%p 급락함
 - 이 점은 20대의 통일 인식 변동성이 크기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통일관련(정책)사업이 활발해져야 함을 의미함
 - 통일인식 교육, 남북 문화공동체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협력이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는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임
 - 일부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인문학, 통일문화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획과 준비—① 선행 교류사업 분석, ② 신규 영역 교류사업 기획, ③ 융복합 교류, ④ 남한 내 통일문화 인식제고—를 염두에 두면, 도서관 영역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도서관은 지금까지 교류협력 사업을 실행하지 못했기에(않았기에) 새로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영역으로 유의미하며[②],
 - 도서관 영역과 학술, 문학 출판 등의 다른 영역 교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③],
 -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문화시설로 남북 통일문화 인식제고 사업에 적합하며[④],
 - 기존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①]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 연구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 사업 방안, 사업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지금까지 거의 실현되지 않은 도서관 영역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 제시
 - 중단기 시점(현재 같은 화해협력 이전 단계, 남북관계 개선의 화해협력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제시
 - 장기 시점(화해협력 이후 단계, 통일한국 이전 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지님
 - 도서관 정책의 공간을 국내에서 한반도 전체로 넓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도서관은 물론 다른 문화시설을 활용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서 참조할 수 있음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 선행 교류사업 분석

- 언어문학, 문화예술(공연, 미술), 문화콘텐츠(출판, 영화, 방송), 종교, 체육 등에서 수행된 남북 문화 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선행 연구(특히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재론하고, 문화시설 활용(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교류사업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봄
- 독일의 도서관 교류협력 및 통합정책 사례
 - 기존 연구는 대부분 통독 이후 도서관 통합정책을 다루고 있기에 이를 재정리함
 - 통일 이전 동서독의 도서관 교류협력, 학술 및 출판 교류 사례를 분석함

■ 남북 도서관 정책 및 현황 분석

- 남한 도서관 정책은 제1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 이후를 중심으로 함
 - 하지만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 및 제안 등을 통시적으로 보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략하게 언급함
 - 공공도서관의 통일문화 강좌는 최근 3개년 정도를 분석함(설문조사 포함)
- 북한 도서관 정책은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2012~)를 중심으로 함
 - 도서관 현황은 <로동신문> 및 북한 잡지를 통해 분석하지만, 이전 자료를 포괄함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회환경 분석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 참여, 북한의 과학기술 강조 같은 남북한 정책환경 분석
 - 남북 모두에 적용되는 젊은 세대의 인식, 디지털화 등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에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환경 분석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기본방향 제시

- 선행사례 분석, 정책, 사회 환경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정책방향 제시
- 현재부터 화해협력기(중단기 관점)까지 정책 기본이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정책방안 개발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중앙정부-지역도서관-국제기구 활용 등의 관점에서 개발함
- 타 분야(학술, 출판) 융복합 교류 사업개발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남한 내 통일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개발
- 교류협력 제도화를 위한 법률 및 조직 구조화 방안 개발
- 화해협력기 이후 장기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방향성 제시

2) 시공간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간략 분석함
- 남북한 도서관 정책은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 및 제안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 수립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남한은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차년도(2009~), 북한은 김정은 시대 도서관 정책(2012~)을 중심으로 함
- 독일 사례는 통독(1990) 이전 도서관 교류(학술 교류, 출판 교류 포함) 사례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함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 및 정책사업 개발은 현재(남북관계 경색-화해협력기 이전)부터 화해협력기까지로 함(중단기)
- 화해협력기 이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방향성을 제시함(연합단계, 장기 관점)

■ 공간적 범위

- 남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무리 없이 기술할 수 있음
- 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은 북한 출간 신문과 잡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일부 보완할 수 있음
- 독일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독일이 연구 범위에 포함되고,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 도서

관 교류방안을 제시하기에 국제기구, 현재 북한과 교류가 가능한 몇몇 국가가 포함될 수 있음

3) 연구 대상

- 국립도서관(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관련 정부기구의 직간접 교류협력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기관의 특수자료실 관련 사업 포함
- 관종별 직간접 교류협력 사업
 -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함
 - 특히 공공도서관은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 보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함
-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학술 및 출판 교류가 포함됨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선행 연구, 국내 도서관 정책 및 현황자료
 - 독일사례 및 도서관 국제기구 관련 사업
 - 북한 문헌(신문, 잡지)
- 면담 조사 및 자문회의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경험자 및 연구자, 탈북자, 도서관 관계자, 제안사업별 전문가 등
 - 연구기간 내 총 19명 면담 조사 실시
 - 탈북자 4명(북한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1명, 공공도서관 사서 1명, 도서관 이용자 2명)
 -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자 7명
 -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기관 관계자 5명, 통일교육 및 북한 사회문화연구자 3명
 - 면담 조사 내용은 북한 도서관 현황(탈북자), 공공도서관과 통일문화 거점화(공공도서관 관계자), 남북 도서관 교류의 유의사항(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담당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 등임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설문조사

- 설문조사 대상은 공공도서관이며, 응답자는 해당 기관 사서(관리자)로 설정
- 설문조사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협력(공문발송 및 독려)으로 진행
- 조사방법은 온라인(이메일 발송 등) 자계식 기입방식이며, 분석은 연구진에서 담당

■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을 목차에 따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표 1-3〉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순서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1장	머리말	문헌 조사
제2장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및 동서독 사례 분석	문헌 조사, 면담 조사(자문회의)
제3장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	문헌 조사, 면담 조사(자문회의), 공공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문헌 조사, 면담 조사(자문회의)
제5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문헌 조사, 면담 조사(자문회의), 공공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제6장	맺음말	문헌 조사

제3절 도서관과 도서관 교류협력의 개념

1. 도서관의 개념

- 남한의 「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1호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 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
 -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함
 - 도서관서비스는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함
-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제107호로 채택(1988), 제2838호로 수정보충(2012), 이하 북한 도서관법) 제2조(정의) 1호에 따르면, 도서관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며,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함
 - 출판물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을 말”하는데, “전자출판물도 속”함
- 남한 도서관은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 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북한 도서관은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함
 - 공통점은 도서관 자료(남), 출판물(북)을 공공이 이용한다는 점임
 - 차이점은 남한은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는 ‘문화시설’로, 북한은 ‘사회 교육기관’으로 정의하는 데 있음
 - 남한 「문화예술진흥법」(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에 도서관은 문화시설에 포함됨
 -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문화시설임(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도서관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1994. 3. 24., 제정)에서 분법(分法)

됐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임

- 북한은 도서관이 사회교육기관임을 명확히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남한 도서관의 정책체계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담당하지만, 북한은 노동당의 과학교육부와 내각의 교육관련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도서관법」 52조 및 53조는 도서관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정함
- 제52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영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 제53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당-국가 체계인 북한에서 교육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은 노동당의 ‘과학교육부’이며, 내각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도기관은 “당이나 사회단체의 일정한 단위의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의 구성은 해당 단위의 소속원으로부터 선출되거나 상급조직에서 임명하게” 됨¹⁾
- 남한 도서관은 교육 목적을 지닌 문화기관(시설)으로 분류되지만, 북한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송승섭은 북한의 문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함²⁾
 - 관람형 문화교양건물: 극장, 영화관
 - 학습형 문화교양건물: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 전시형 문화교양건물: 박물관, 전람관
 - 소조운영형 문화교양건물: 문화회관, 궁전
- 구분에 따르면 도서관은 학습형 문화교양건물에 포함됨

1) 송승섭(2008), “북한의 도서관법,” 『북한도서관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292쪽

2) 송승섭(2008), “북한 도서관 운영체계와 봉사활동,” 『북한도서관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60쪽

2. 도서관 교류협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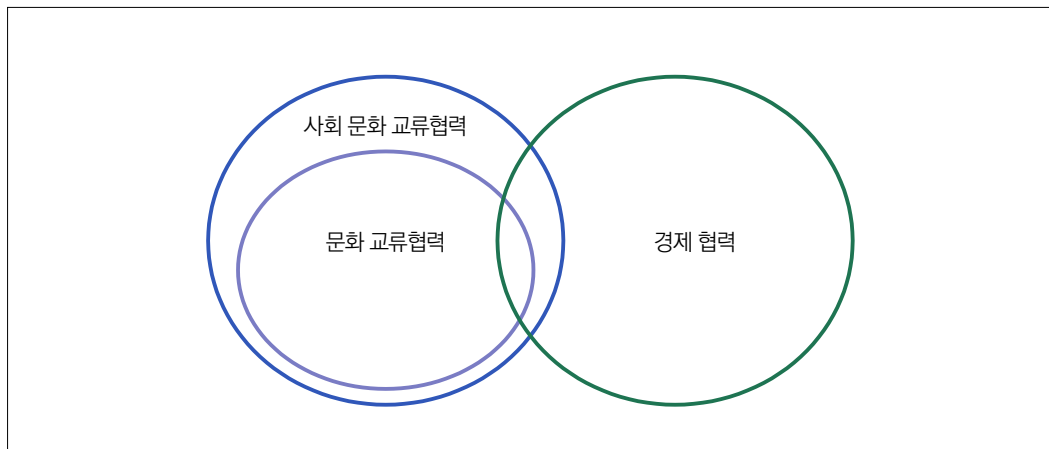
1)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개념³⁾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사회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 주민(단체, 법인 포함)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음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고시 제2015-4호, 2015. 7. 27., 타법 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 협력의 대상(객체)은 문화·체육·학술 등에 대한 제반활동으로 대부분 문화영역임
- 사회문화 협력 사업은 예술(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 문화 콘텐츠(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체육, 청소년, 그리고 연구(학술)에서 공동작업을 의미함
- 학술(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화영역임
- 따라서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예술, 콘텐츠, 체육 등에서 남북한 주민이 행하는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행하는 공동의 행위임
- 통일부 승인 사회문화 협력 사업 168건 가운데 문화분야(언어·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산업, 종교, 문화유산, 체육)가 143건으로 86%임
- 나머지 25건은 교육·학술(12건), 기타(13건)로 분류할 수 있음
- 현재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 협력 사업은 대부분 문화 협력 사업임
- 2005년 발의됐던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⁴⁾에 포함된 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법제·보건 등의 통일부 승인사업(사회문화 협력 사업)이 많지 않은 것은, 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은 경제 협력에, 보건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
- 통일부 승인 경제 협력 사업에는 S/W 공동연구 개발,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의료 S/W 개발, 관광, TV 광고제작이 포함됨

3)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33~37쪽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전재(全載)했음을 밝힘

4) 최성 의원 대표발의(2005.9.23.), 제17대(2004~2008) 국회임기만료 폐기

- 보건의분야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포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영역은 경제 협력인데 반하여 문화영역이 경제 협력이 아닌 것은 문화 협력 사업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임
- 문화 협력 사업(예를 들어 남한 예술단의 북한 공연, 남북 체육단일팀 구성)의 명시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은 아님
-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민간 기획사에서 북한 공연단을 초청한 유료 공연, 민간의 북한 미술 전시회, 남북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사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임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남북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할 필요는 없음
- 문화 협력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화 협력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라면, 경제적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 남북 문화 협력 사업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의 사회문화 협력과 경제 협력의 구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문화영역에서 남북한 주민의 공동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의 공공과 민간이 문화영역(언어·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콘텐츠, 종교, 체육, 문화유산)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공동행위의 목적은 동질성 회복(형성)과 공동체 형성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 창출일 수도 있음
- 공동행위는 실제 계약서에 따른 행위 뿐 아니라 문화영역을 매개로 한 왕래·접촉·교역·협력의 의미함
- 「남북교류협력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문화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그림 1-1] 남북의 경제 협력-사회문화 교류협력-문화 교류협력 관계

2)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 문화영역의 남북 공동행위(남북 문화 교류)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남과 북의 인력이 만나서 문화적 행위를 도모하는 것임
 - 남측 공연단체(인력)가 북측 공연장에서 공연행위를 하는 것
 - 남측과 북측 종교계 인사가 만나서 공동 종교행사를 하는 것
 - 남측과 북측 인력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 표제어를 협의하는 것(겨레말큰사전)
 - 남측과 북측 인력이 문화재 공동개발을 하는 것(만월대조사)
- 두 번째는 남과 북의 문화적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
 - 북측의 도서를 남한 내에서 판매하는 것(예를 들어 북측 소설가 홍사중의 소설 『황진이』 판매)
 - 북측의 시각예술 작품을 남한 내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
 - 북측의 영화 또는 드라마를 남한에서 상영(방영)하는 것(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상영)
 - 이 경우, 첫 번째처럼 대규모 인력이 만나지는 않지만, 대인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세 번째는 남북이 다른 자원(분업형태), 같은 자원(비분업형태)을 투입하여 문화영역의 새로운 생산품을 산출하는 것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분업형태는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남측 기획, 북측 그림, 뽀로로 사례)
- 분업형태의 드라마 공동 제작(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
- 비분업형태의 공동 협력(남북 체육단일팀 구성)
-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인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네 번째는 남측이나 북측에서 문화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일
 - 학술연구 세미나
 -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운영체계 정보 제공하기
 - 문화시설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
 -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인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다섯 번째는 이 같은 공동활동을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또는 제3국과 같이 하는 일
 - 씨름의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유산 공동 등재
 - IOC와 협의하여 올림픽 공동 입장
- 다른 한편으로는 대인 교류, 문화생산물-예술작품 교류, 기술-서비스 기술 전달, 공동 제작(참여) 등으로 나뉘볼 수 있음

3)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 위의 다섯 가지 분류에 따르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남북한 도서관 인력이 만나서 표준서지 작성 등을 논의하는 일
 - 둘째, 남북한 도서관 자료(출판물)를 상호 전시(대여)하는 일
 - 셋째, 남한의 기술로 북한의 원자료(출판물)를 새로운 형태의 자료로 생산하는 일
 - 넷째, 남북한 도서관 서비스(봉사)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에서 시범 적용해 보는 일, 도서관 정보화 기술을 제공하는 일, 남북한 도서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일
 - 다섯 번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제3국 도서관과 협력하여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일

〈표 1-4〉 남북 문화 교류 및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남북 문화 교류의 사업 분류	남북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남과 북 인력이 만나서 문화적 행위 도모	남북한 도서관 인력이 만나서 표준서지 작성 등 논의
남과 북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상대에게 제공	남북 도서관 자료(출판물) 상호 전시
(비)분업형태 투입으로 문화영역의 새로운 생산품 산출	남한 기술로 북한 원자료를 새로운 형태의 자료로 생산
남북에서 문화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일	도서관 학술대회, 정보화 기술 제공
국제기구, 제3국과 함께 문화 교류	국제도서관협회연맹(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제3국 도서관과 협력하여 남북 도서관 교류

4) 남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 남북한 도서관의 각 국제 교류를 살펴보고, 국제 교류 차원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 방향성을 추출해 볼 수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임
- 다만 현실적으로, 국제기구 개최 교류사업, 제3국과 함께하는 교류를 남북 양측의 국제 교류라고 볼 수 있음

(1) 남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 남한 「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제19조) 6호에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항목이 들어가 있음
- 남한의 국립도서관 3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의 국제 교류 최근 사례를 살펴봄

① 국립중앙도서관⁵⁾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협력 활동은 국제기구와 협력, 국제회의 참가, 외국도서관과 양해각서 체결, 외국 도서관과 업무 교류 및 해외 주요 인사 방문, 자료 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 사서 교류 및 연수,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KSLIB: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운영을 들 수 있음
-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교류협력 활동은 196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가입 및 활동이 대표적임
 - 196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가입, 연차총회와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및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립도서관분과 등 2020년 12월 말 기준 23개 전문분과에 가입,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10개 분과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도서관계와 활발한 교류 추진
 - 국제표준관련 전문기구에 참가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한국센터로 국내발행도서의 발행자 데이터 제공,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 데이터 제공,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참여를 통한 웹아카이브 지식 공유와 웹콘텐츠 등록, 2020년에는 IIPC가 진행하는 협업 웹아카이브 컬렉션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공동 컬렉션 구축에 참여
- 외국도서관과 양해각서 체결 및 유지, 업무 교류
 - 2020년 말 기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 16개국 18개 기관,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
 - 1997년 중국·일본, 2007년부터 러시아 등 해외 국립도서관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을 추진해 옴
 - 중국 국가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등과 업무 교류 추진
 - 2006년부터 해외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비스를 위한 사서 양성과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동반자사업으로 해외 사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
- 해외 주요인사의 방문을 통한 교류협력 추진
 -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East Asia Digital Library, 기존 CJKDL)은 실무적 협력

5) 국립중앙도서관(2021),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20』, 144~155쪽에서 발췌 요약함

프로젝트로 2010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계획하고 협정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Initiative)임

- 3국 간 인터넷상 문화적·과학적 유산에 대한 통합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인 협력 추진, 실무자 간 연 1회 순환 정례회의를 개최, 디지털도서관 주요성과 공유, 한·중·일·영 4개국 언어로 된 서지와 초록서비스 제공
- 연대별 시각화 서비스 등 온라인 시범서비스 구축
- 2017년 12월 중국도서관 참여 중단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 2019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으로 명칭과 운영 방향 변경, 비공개 포털 수정·공개, 디지털 컬렉션 추가, 2020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콘텐츠 제공, 시범서비스 오픈 운영
- 제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회도서관 콘텐츠를 포함하는 199종의 디지털원문과 7,914건 서지데이터 통합검색서비스 제공
 - 디지털 원문은 소장기관별, 국가별, 연도별, 시대별로 열람할 수 있으며, 데이터 형식은 Linked Data, SPARQL Endpoint를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포맷으로 활용 가능
- 2020년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구축 및 확대 방안 컨설팅을 진행

■ 자료지원 및 협력

- 국제자료 교환 및 한국학 자료 지원은 1963년 시작 이래 2020년 현재 86개국 244개 기관과 자료협력 실시
- 교환 자료는 각국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해외발행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의 정부간행물, 학술지, 통계자료 등 제공
- 국제 자료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누리집 및 이메일을 통한 수요 파악 후 수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배포 실시

■ 해외 한국학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 및 운영 지원

- 2007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한국 관련 자료 지속 제공
-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설치 후 5년간 매해 200여책 지속 제공
- 2020년 신규 기관인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에 서가, 컴퓨터, 열람용 책상 등 설비비용과

한국관련 자료 3천여 책 제공

■ 외국도서관과 사서 교류 및 연수

- 한중 국립도서관 사서교환연수가 2008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양국 합의, 2009년 사서교환연수 기본사항 최종 합의, 2010년부터 격년으로 90일 이내 연수 실시
-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은 2005년 시작하여 2009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4차례 실시, 2012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단독으로 개최하며 2020년 온라인으로 개최된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해외 사서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국가대표도서관 사서로서 리더십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모텐슨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서 전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KSLIB) 운영

- 2009년부터 운영 중으로 2020년 12월 현재 41개국 256명의 한국학사서와 유관 전문가 참여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누리집(<https://inkslib.nl.go.kr>)을 운영, 누리집 내 '사서가 사서에게 묻는다', inkslib 메일을 통해 한국 관련자료, 참고정보 및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이용 질의응답 제공
- 「해외 한국학 도서관 동향보고서」 발간, 해외한국학 도서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

② 국회도서관⁶⁾

■ 국회도서관의 국제 교류·협력 활동은 국제회의의 참가, 외국 도서관과 인적 교류, 국제자료 교환,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지정, 국제 학·협회 가입, 국외학술정보 협력 협정을 체결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회의의 참가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의회도서관분과(PARL: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온라인 회의로 참여

6) 국회도서관(2021), 『2020년 국회도서관연간보고서』, 111~114쪽에서 발췌 요약함
<https://www.nanet.go.kr/libintroduce/etc/yearReportView.do>(접속일: 2021년 9월 29일)

■ 외국 도서관과의 인적 교류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업무 및 정보 교류로 온라인 공동세미나 개최

■ 국제자료 교환

- 2020년 말 기준 49개국 193개 주요도서관과 자료 교환, 구입으로 입수가 어려운 의회,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간행물을 국제교환을 통해 수집. 국제자료 교환(49개국 193개 주요 도서관과 자료 교환) 운영, 국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주요 도서관에 한국학 관련 자료 지원
- 2016년 6월부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외국도서관 기증자료’를 게시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수집하는 주요 자료를 안내, 자료이용 활성화를 도모
- 2018년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발송한 국제교환자료의 목록데이터(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 제공, 2020년 말 기준 국제교환용 자료(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2,192건의 목록데이터(MARC)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

■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9개 국제기구의 기탁도서관으로 지정(2020년 도서 63책, 정기간행물 3종 11책)

■ 국제 학협회 가입

- 2020년말 기준 5개의 국제 학·협회 가입, 발간자료 19책 수집
- 국제 학협회는 미국 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의회 도서관협회(APLAP: Association of Parliamentary Librarians of Asia and the Pacific),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전문도서관협회(SLA: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 국외학술정보협력협정

- 해외 한국문화원 및 해외 한국학도서관 등과 협정체결을 통하여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자원공유 및 해외한국학 연구자의 연구지원,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0년 말 기준 63개(아시아 21개, 아메리카 27개, 유럽 9개, 오세아니아 6개) 기관과 협정 체결

③ 법원도서관⁷⁾

■ 해외 거점도서관(Overseas Contact Library) 사업 추진

- 해외에 한국과 한국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 문화와 법을 세계에 알리고 연구자료 제공
- 5개국 11개 기관, 한국법 관련 법률도서 45종 423책 지원(2019년)

■ 해외 자료 교환 사업 추진

- 해외 각 법률기관 및 대학에서 발간하는 자료수집
- 중국·일본·대만·미국·독일·오스트리아 등 15개국 51개 기관(동양19, 서양32)과 자료 교환 협정 체결

■ 해외 법률도서관계 동향 파악 및 해외 홍보

- 2015년부터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회원 가입, 연례회의 참석

(2)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① 북한 「북한 도서관법」과 국제 교류: 관련 조항 3개 있음

■ 법률상으로는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관련 조항이 적지 않음

- 제7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21조 출판물수집은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서관들 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41조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 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 실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음

② 북한 자료의 외국 도서관 기증

■ 북한의 국제도서관 교류를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의 북한 편에서 찾아보면 <표

7)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126쪽

1-5)와 같음

- <표 1-5>에서 보듯이 북한 도서 교류는 (구)사회주의권 국가 도서관에 김일성-김정일 저작집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이때 도서기증의 주체는 북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간 교류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2018년 인민대학습당-이란 국립도서관 및 문서고 사이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체결됨

<표 1-5> 북한과 외국도서관의 교류(2014~2018)

<p>2014년 9월 8일~13일 공화국 창건 66돌 기념 사진 전시회(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시도서관)</p> <p>2015년 6월 18일 도서 기증식(로씨야 나흐드까지 무제이 도서관)</p> <p>2015년 12월 24일, 로씨야 아무르주 과학도서관에 평양센터(평양센터)가 개관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5.12.15). 조선중앙통신은 “개관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선군조선 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돼 있다.”고 보도했다.</p> <p>2016년 11월 25일, ‘김정숙도서관’이 쿠바(쿠바) 김일성고등학교에서 개관되었다(로동신문, 2016.12.2.).</p> <p>2017년 2월 2일 김정일 생일 75돌 즈음 북한도서 기증식 진행(로씨야 원동국립과학도서관)</p> <p>2017년 3월 27일 김일성 생일 105돌 즈음 북한도서 기증식 진행(러시아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p> <p>2017년 5월 5일 “위인칭송의 도서, 시집들” 발행식 진행(러시아 세계문명대학, 도서 <인민 사랑의 태양>, <위인들에 대한 추억>, 시집 <사랑의 꽃 진달래>, <조선을 노래하노라> 출판 발행식 진행</p> <p>2017년 12월 6일 김정일 사망 6돌에 즈음하여 김일성 3대의 저작물들(“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북한을 소개 하고 북한 도서 기증식 진행(러시아 사할린주 과학도서관)</p> <p>2018년 2월 12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1월 30일 로씨야 싸할린주과학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김일성 3대의 고전적 로작들 전달)</p> <p>2018년 4월 9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4월 2일 로씨야 아무르국립인문사범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김일성 3대의 고전적 로작들, 불멸의 업적 칭송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반만년 력사와 문화 소개 도서들 전달)</p> <p>2018년 4월 16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4월 4일 로씨야의 울라지보스토크시에서 진행되었다.”(김정은 의 고전적 로작들 전달)</p> <p>2018년 4월 20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4월 6일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김일성 3대의 고전적 로작들 전달)</p> <p>2018년 4월 23일 “우리나라 도서 기증식이 4월 13일 로씨야 싹크뜨-베제르부르그시에 있는 경영경제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김일성 3대 고전적 로작들,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반만년 력사와 문화 소개 도서들 전달)</p> <p>2018년 5월 26일에는 북한 인민대학습당과 이란 국립도서관 및 문서고 사이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테헤란에서 조인되었다(중앙중앙통신, 2018.5.30.).</p>
--

③ 북한 도서관-외국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③-① 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 간 디지털도서관 기술 교류·협력

■ 북한 도서관 국제 교류에서 눈여겨 볼 점은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KCUT: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이하 김책공대)와 미국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 간 디지털도서관기술 교류협력임

■ 추진 경과 및 추진 내용⁸⁾

- 2001년 김책공대(KCUT)와 미국 시라큐스대학 간 도서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수정과 김책공대 도서관의 목록정보의 국제표준식별기준 적용 등이 추진되었으며,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 간 통합정보 기술랩의 운영으로 확장되고, 교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⁹⁾
 - 시라큐스대 토슨(Sturt Thorson) 교수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인 중국, 베트남, 옛 소련 정부의 IT 활용사례 연구가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당시 코리아소사이어티 도널드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로부터 북한 뉴욕대표부와 연결, 이를 통해 김책공대로 연결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필요와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이어짐
- 2002년 공동사업을 본격화하여 북한사절단 시라큐스대학 방문(13번 교류: 북한 → 시라큐스 7번, 시라큐스 → 평양 2번, 중국 베이징 4번)
 - 소장 학자 리더십 개발(JFLD)프로그램으로 김책공대에서 선발된 석사급 이상의 연구사들과 IT 상호연구를 실시하고 양교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서버 등 하드웨어의 북한 반입이 불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짐
 - JFLD 프로그램은 2002~2004년 시라큐스대학에서, 2005~2007년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 평균 12명의 북측 인사들이 1개월간 공동 연구 후 평양으로 돌아가고, 평양에서 후속작업 진행
- 2006년 김책공대 내 디지털 도서관 개관¹⁰⁾

8) 다음과 같은 기사를 요약한 것임

<시사저널>(2005.09.23.), “핵 얼음 밑에서도 ‘IT’는 흘렀다.”; <VOA>(2009.04.16.), “시라큐스-김책공대 교류 소강상태.”; <연합뉴스>(2009.06.19.), “북과 과학교류, 토슨 미 시라큐스대 교수.”; <프레시안>(2010. 12. 28.), “김책공대-시라큐스대 쌍둥이 연구소 만드는 그날까지: 한중우 교수인터뷰 “IT교류 다시 시작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91305000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1542#0DKU>(검색일: 2021년 9월 15일)

9) Chanlett-Avery, Emma & Taylor, Mi Ae,(2010),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6~17쪽

10) <천리마>, 2006년 제5호) 34쪽; <조선중앙방송>(2003.03.22.)을 송승섭(2018),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남북

-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은 북한 전자도서관의 원조 격으로 다른 전자도서관 발전과 원격 교육에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도서관임
 - 평양시 건설총국의 지휘 아래 건축면적 16,000m², 부지면적 4,000여 m²에 지하층과 지상 5층 규모의 전자도서관 건설
 - 12개의 전자열람실과 12개의 도서열람실, 4개의 도서열람홀을 통해 한번에 2천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자-CD 열람실, 인터넷·시청각열람실과 학술토론실, 국제교류실 등이 설치되어 인민대학습당 및 과학기술통보사 등 여러 기관과 컴퓨터 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제컴퓨터 망과도 연결되어 자료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관시점부터 북한 전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되었으며, 과거 인민대학습당을 대신하여 국가적 인사와 외빈의 주요 방문 시설로도 활용됨
- 2007년 미국과 북한 과학자가 참여하는 농업과 정보기술 분야의 컨소시엄 구성
 - 2008년부터 교류사업 중단
 - 오바마정부의 자국 경제위기와 두 개의 전쟁참여로, 남한정부의 기존 교류·협력 중단으로 남북 교류협력 지원 불발
 -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 등 미-북간의 정치적 이유로 일시 교류 중단
 - 2009년 12월, 북한 학술원(North Korean State Academy of Sciences)의 초대 연구진(미국과 북한 과학자)들로부터 시설 관람과 간략한 소개를 받음
 - 생물, 대체에너지, 정보과학, 수문학, 건강 등에 분야의 연구진, 잠재적으로 연구의 우선순위 공유 확인, 학술 교류, 영어, 수학, 생의학 연구방법, 재생에너지, 디지털 도서관, 공동학술출판에 관한 워크숍 개최 등
 - 북한 대학생 9명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세계대학생 프로그래밍 베이징 예선을 통과했고, 학위과정 개설을 통해 김책공대 연구사들이 미국 시라큐스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함
 - 양 대학 간 쌍둥이연구소를 개설하여, 교류사업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 제고 체제 구축 노력
 - 2006년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1차 핵실험 중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재원

- 헨리루스 재단¹¹⁾의 총 50만 달러 지원 등 미국의 민간 및 개인후원

한 전자도서관의 협력 가능성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9(3), 139쪽에서 참조 및 재인용하여 작성

11) 헨리루스 재단은 타임지, 포춘, 라이프 등을 발간하였던 미국인 헨리 R. 루스에 의해 1936년 설립된 재단으로,

- 한국의 민간기관, 개인 기부,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 한국 포항공대, 아름다운 재단 후원 진행

■ 의의 및 시사점

- 비정부기구활동(NGO)으로 이루어진 북한 김책공대와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은 정보기술 협력을 통한 실용적이고 비정치적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2006년 김책공대의 디지털도서관은 미국과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학술 협력으로 의미를 가지며, 시라큐스대학의 컴퓨터 과학자 그룹의 오픈소스 프로그램 사용으로 이후 다른 대학과 시·도의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음
- 정보기술과 교육을 발전의 동력으로 중요시하는 북한으로서는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GEM(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s) 등의 교육정보화와 디지털도서관 기술,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라큐스대학과의 협력은 비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보사회 진입과 국제사회 진입을 돕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김책공대가 시라큐스대학 뿐 아니라, 중국 칭화대학, 한국포항공대 등 해외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정보수집에 사용하는 국제적이고 동일한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바깥세상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북한이 열린사회로 진입하는 데 도울 수 있음
- 시라큐스대학 맥스웰스쿨 내 한반도문제센터(Korean Peninsula Affairs Center) 설립¹²⁾
- 김책공대의 디지털도서관은 미국과 북한 대학 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학술협력일 뿐 아니라 북한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건립이라는 의미를 지님
- 김책공대의 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 강의시스템이 도서관서버에 저장되어 학생들이 쉽게 제목(강의명, 자료명), 강의번호, 강사로 분류된 강의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미디어 이용 공간에서 학생들이 헤드셋을 이용해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함
- 2010년 김책공대는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지방 거주자들에게도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자료들을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원격교육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함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침

자료: 브리태니커 헨리루스 검색결과 재구성,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Henry-Luce>

12) Syracuse University,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 Public Affairs, Korean Peninsula Affairs Center 웹사이트 검색결과 자료 재구성, https://www.maxwell.syr.edu/moynihan/kpac/Director_s_Message/

-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 간 교류·협력의 성공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강점과 한계를 인정, 쉽게 할 수 있는 일에서 찾았고, 교류·협력분야를 정보통신분야 가운데 가장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국한했다는 점과, 민감한 부분을 조율한 한국인 교수의 역할도 주효했음

③-②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의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 평양과학기술대학(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은 국제적 지원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무상 활용했는데, 이것은 코넬대학 필수 전자 농업 도서관 프로젝트(TEEAL: The Essential Electronic Agricultural Library, 이하 TEEAL 프로젝트)와 Research4Life로 나뉘볼 수 있음
- 코넬대학의 Albert R. Mann Library의 TEEAL 프로젝트
 - 평양과학기술대학(PUST)는 코넬대학이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2009년부터 북한에 제공한 TEEAL 프로젝트¹³⁾의 지원으로 농업 및 관련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저렴하게 활용해 왔음
 - 코넬대학의 TEEAL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음¹⁴⁾

〈표 1-6〉 평양과학기술대학(PUST)과 코넬대학 TEEAL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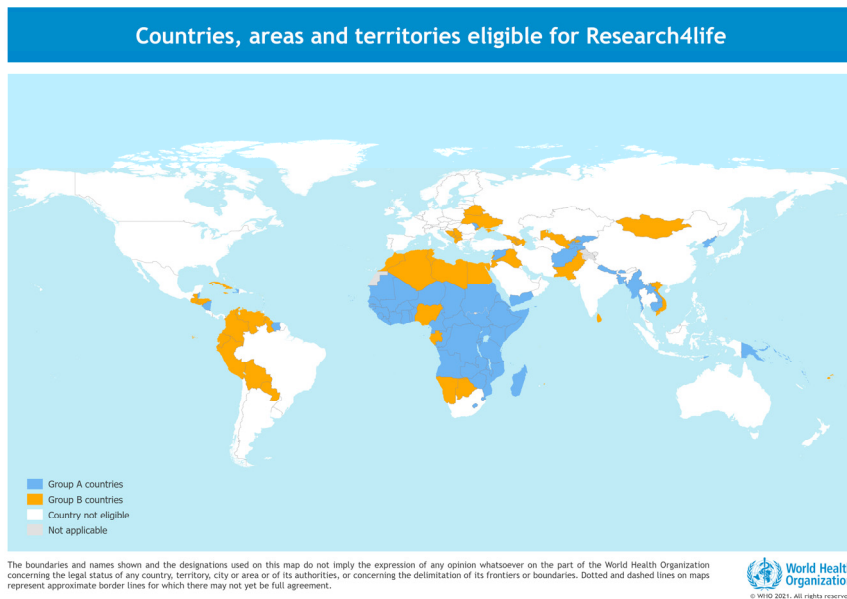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ell University의 Albert R. Mann Library에 위치한 TEEAL Project Office는 소득 적격 국가의 연구 기관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 • PUST 도서관 TEEAL 워크 스테이션은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해 교수진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 • TEEAL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PUST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중요한 연구 라이브러리임 • 디지털 도서관은 또한 WiderNet 프로젝트에서 6TB(테라바이트) 하드 디스크의 eGranary 디지털 도서관을 구입함 • 일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eGranary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장착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PUST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음 |
|---|

13) Haldeman, James(2011), *Cornell-DPRK Educational Exchanges: Assessment and Future Strategies*, 73쪽 (in U.S.-DPRK Educational Exchanges: assessment and future strategy),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14) Cornell University, Albert R.Mann Library, TEEAL Project, <https://www.teeal.org/>(검색일: 2021년 9월 15일)

■ Research4Life 서비스

- 현재는 Research4Life¹⁵⁾로부터 무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있음
- Research4Life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와 동료 평가 (Peer Review) 정보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북한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급임
 - Research4Life는 건강, 농업, 환경, 그밖에 생명, 물리학,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teaching), 연구, 정책수립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제공
 - 12만 9천권 이상의 도서, 3만여건(title)의 학술지, 이외에 155개 이상의 기타 자원 보유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코넬대학교, 예일대학교 등과 과학 기술 분야의 국제적 협회, 의학분야 출판사 및 200여개 국제적 출판사와 파트너십 유지



[그림 1-2] Research4Life 데이터베이스 제공 국가 및 지역

15) Research4Life, <https://www.research4life.org/about/>(검색일: 2021년 9월 15일)

(3) 남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의 특징과 시사점

① 남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특징과 시사점

-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위상에 맞게 국제 교류가 많은데, 그것은 네 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음
 - 첫째, 국제회의의 참석 및 관련 분야 국제기구 가입,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한 도서관 간의 공동의제 발굴과 교류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음
 - 둘째, 한국에 관한 분야별 교류와 홍보 확산을 위한 자료 기증 및 교환
 - 셋째, 거점 도서관 혹은 한국학 자료실 설치와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협력 기반 마련
 - 넷째, 사서 연수 등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도모
- 위의 네 가지 특징을 남북한 도서관 교류와 연관지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남북한이 공통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남북 접근가능한 제3국의 도서관을 통한 교류협력을 시도할 수 있음
 - 둘째, 전자도서관 관련 기술 자료를 북한에 기증할 수 있음(교환 가능)
 - 셋째, 온라인 도서관에 남한의 한국학 자료를 탑재하여 남북한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도서관 사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첫 번째(국제기구, 제3국 도서관에서 남북한 도서관계 인력 교류) 사례를 시도할 수 있음
-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협력프로젝트 등을 시도할 수 있음
 - 2010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계획하고, 협정체결을 통해 한·중·일 3국이 인터넷상 문화적·과학적 유산에 대한 통합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공통의 목적에 대한 실무적인 협력이 추진됨
 - 디지털도서관 주요 성과 공유, 한·중·일·영 4개국 언어로 된 서지와 초록서비스 제공, 연대별 시각화 서비스 등 온라인 시범서비스 구축
 - 중국의 참여 중단에 따른 당초 계획의 변경이 있었지만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이라는 교류·협력의 결과를 산출
 - 공통의 디지털 자원을 기반으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확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②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특징과 시사점

■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짐

- 첫째, (구)사회주의 국가의 도서관에 김일성-김정일 저작집을 제공함(제공 주체는 북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도서관 직접 교류는 아님)
- 둘째, 같은 국제 제재 대상국인 이란(Iran) 국립도서관(문서고)과 양해각서 체결
- 셋째, 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 간 교류처럼 북한은 디지털 도서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넷째,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이 코넬대학 및 Research4Life의 데이터베이스를 무상 활용하는 데서 보듯이 북한(도서관)은 세계적 추세(경향)를 읽으려고 노력함

■ 위의 네 가지 특징을 남북한 도서관 교류와 연관지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남한(도서관)은 북한 도서의 성격과 관계없이(김일성-김정일 저작일지라도) 기증 받을 수 있음을 알림(북한자료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북한과 교류를 하는 제3국 도서관을 활용하여 남북한-제3국의 학술회의 및 도서관 계 인력 만남을 추진할 수 있음
- 셋째, 김책공대 사례처럼 외국(도서관)-북한 도서관이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면 재외 국민 등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외국도서관 사업에 대한 지원형식이 될 수 있음)
- 넷째, 코넬대학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처럼, 남한 자료 및 국제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여 남북한이 모두 이용하도록 함(남한 도서관 국제 교류 시사점의 세 번째와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국제적 자료를 포함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2장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및 동서독 사례 분석

제1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분석

1.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특징¹⁶⁾

1) 일반적 특징

-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많은 데서 보듯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음
- 둘째, 교류협력 주체와 장소에서 보듯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
- 셋째,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두 가지 사업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관하지만, 실제 통일부와 문화재청 지원에 따라 진행됨
 -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은 순수 민간보다는 정부 기관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음

2) 사업 참여 목적: 명목과 실제의 공존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라고 되어 있음¹⁷⁾
 - 남북 모두 이 같은 명목상의 목적이나 동기를 부인하지 않고, 일부 사업에서는 그렇게 진행됨
 -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 예를 들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대표적인
- 북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경제적 필요성’이란 목적에서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경제적 필요성 또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에 참여한 주요한 동기였음

16) 아래 내용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15~223쪽을 전재(轉載), 요약했음을 밝힘

1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고시 제2005-14호, 2005. 12. 13., 일부개정) 제3조 내용임

- 이것은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경험자 및 관계자가 대체적으로 동의함
- 남한의 공공-종교-체육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크게 추구하지는 않으나, 민간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참여함
- 순수 민간기획자(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교류협력 사업 참여의 주된 이유였음
- 공공영역에서는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
- 종교계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 종교 재건이 주된 참여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도 있음
- 체육계에서는 북한의 특별한 조건 요구(경제 지원)가 있으면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함
- 남한에서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북한과 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교류사업을 해야 조직(단체)이 존속(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있음
- 문화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을 단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3) 2018년 이후 사업의 특징

(1) 국가 관여 정도 강화

- 2018년~2019년의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정부 관여 정도가 더 높아짐
- 2018년은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된 시점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됨
- 2018년~2019년 통일부 승인 사회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9건인데, 이보다 규모가 큰 사업들(2018년 북한 공연단의 방남 공연, 남한 공연단의 평양 공연)은 정부 직접사업으로 통일부 승인사업이 아님
 - 2018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서울공연(2월 8일, 2월 15일), 2018년 남한 예술단 평양 공연(봄이 온다, 4월 1일, 4월 3일)은 정부 직접사업으로 승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00년대에는 점차 국가 관여 정도가 줄어들면서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음

- 정경분리, 정부와 민간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직접 주도한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남북 문화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 현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지닌 집단은 지자체, 정부기관, 일부 민간단체, 비공식 중개인인데, 2000년대 중반보다 국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짐

(2) 이벤트성 사업과 국민의 높지 않은 호응

- 2018년 남북한 예술단의 상호공연에 대한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북한 문화예술 자체가 이제는 새로움(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함
 - 둘째, 국민의 북한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북핵 문제이지 문화예술이 아님
 -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음
- 2018년 이후,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의 주된 특징은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음

(3) 사업 참여인력 부족과 노령화

- 2000년대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영역 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분야로 이직함
- 10~20년 전의 문화 교류협력 사업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 하지만 북한 상대방과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음

2. 남북 문화기관 및 학술출판 교류 사례

1) 도서관 교류

(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¹⁸⁾

-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진행된 남북한 도서관의 유일한 직접 교류사업임
- 남측(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성공회대학교)-북측(민족화해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교육현대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됨
- 남북의 사업자
 - 남: 대표사업자(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공동사업자(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성공회대학교)
 - 북: 대표사업자(민족화해협의회), 공동사업자(김일성종합대학)
- 사업내용
 - ①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운영 시스템 및 설비 지원사업
 - 도서관 업무자동화,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용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 / 출입증, 바코드, 학생증 등 부가 소프트웨어 개발 / 부대장비 및 소모품 제공
 - ②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의 목록 및 원문DB 구축 작업
 - ③ 남북 대학 간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
 - ④ 도서관 운영 관련 공동개발 및 교류
- 사업(경과)
 - 2005. 6. 금강산 실무회담(남북한 도서관 실무자 1차회담) 북측 요구사항 접수 및 의향서 채택
 - 2005. 12. 1차 설비(바코드시스템, 책걸상, 케이블 등) 인천항에서 남포항 전달
 - 2006. 4.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양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성공회대)
 - 2006. 6. 실사단 평양방문,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위한 합의서’, ‘부속 합의서 1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부속합의서 2 콘텐츠제공 관련’ 체결

18) 아래 내용은 조왕근(2007),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한양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한독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독일문화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한국도서관협회), 13~21쪽을 요약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일부를 덧붙였음을 밝힘

- 2006. 8. 2차분 설비 전달, 1차 실무작업(항온항습, 마루공사, 네트워크 관련 기술 및 관리인력 6명)
- 2006. 10. 2차 실무작업(출입통제기, 바코드, 학생증, 네트워크, 전원, 서버 S/W 설치, LAS/DL/WEB 개발 관련 기술 및 관리인력 9명)
- 2006. 11 자동화시스템 가동
- 2007. 3. 전자도서관 인수인계 및 오픈행사
- 남북 역할 분담
 - 남: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 비용 부담, 총괄기획 및 기술 제공
 - 북: 구축 서지목록 및 공개 가능한 원문 콘텐츠 제공, 저작권 양도를 통한 구축 서지 및 원문콘텐츠 공동사용, 원문 활용을 위한 미러서버 운영, 서지 및 원문구축 비용 부담
- 남북의 비용 공동부담(남측 부담액이 훨씬 큼), 서지 및 원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최고수준의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임
-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최고의 상징성 있는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정보화를 남측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남측에서 북한 대학의 서지 및 원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큰 사업임
- 상징성과 경제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학술 교류를 포함하는 최고 수준의 도서관 교류 사업이었음
- 하지만 ‘오픈 행사’까지만 진행됐을 뿐, 실제 원문 공동이용에 이르지 못함
- 2007년 ‘오픈 행사’ 이후 사업이 중단됨
- 북한은 남한이 구축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신축함
- 남한은 미러서버를 통한 원문 공동이용에 이르지 못하고, 서지목록을 받음
- 사업의 의미(시사점)
- 남북 공동의 MARC 개발 시도
- 도서관용어 비교표 작성
- 남한에서 사용하는 정보화 시스템의 호환
- 도서관 간 직접 교류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문화시설에 대한 네 번째 유형(도서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정보화 기술 제공)의 교류가 도서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현됨

- 기술 교류는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실현되지 않은 형태의 교류임



자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제공

[그림 2-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자료 사진(2005~2007)

(2) 도서관 교류 시도¹⁹⁾

- 2000년 10월, 일본의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오키나와현 나와시) 진행과정에서 한국도서관협회와 조선도서관협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²⁰⁾

- 남한 도서관협회는 6가지 사항을 제안함

19) 아래 내용은 송승섭(2020), “도서관계의 남북교류: 과거, 현재, 미래,”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독일문화원, 한국도서관협회), 41~50쪽을 요약했음

20) 이두영(2000),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 걸음,” 『도서관문화』, 41(6), 43~47쪽

- ① 심포지엄(남북한 도서관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② 소장 자료 목록 등 서지자료 교환
- ③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 이용
- ④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 ⑤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지원
- ⑥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 이후 남북한 도서관계의 만남이 없어서 제안 사항에 대한 논의 진전 없음
- 2002년 글래스고우(스코틀랜드), 2004년 베를린(독일)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검토단계에서 끝남
- 2006년 한국에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를 맞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에서는 북한 참여를 독려함²¹⁾
- 일자 및 방문지: 2005년 11월 30일 ~ 12월 3일, 평양
- 방문 목적
 -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측 도서관계 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도서관계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
 - 북측 최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참여정부의 일관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설명하고 신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
- 방문자
 -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한상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이현주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 박왕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총괄분과위원
- 주요 면담자
 -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 조선도서관협회 회장 등 도서관계 인사

21) 아래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 내부자료에서 따옴

○ 방북 성과

- 2006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냄
 - 남북한 도서관계 관련 8가지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 ①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 ②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③ 남북한 도서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④ 북한 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古典籍) 및 자료목록전시회
 - ⑤ 남북한 도서관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 ⑥ 북한 도서관 백서 발간
 - ⑦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⑧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 북한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및 제안사항에 긍정 검토한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음



자료: 한국도서관협회 자료 제공

[그림 2-2]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장 등 방북: 북한의 보도내용



자료: 한국도서관협회 자료 제공

[그림 2-3]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장 등 방북: 남북관계자 사진

- 2005년 방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내용
 - 남북한 도서관들이 이미 작성한 서지와 목록교환을 통하여 국내에 없는 북한의 주요한 전적과 관련 문화재 등의 파악
 -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한 전적과 관련 문화재 등을 확보
 - 남북한 공통의 서지 작성 및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확보된 주요한 전적과 관련 문화재 등의 디지털화(Full text 입력)
 - 디지털화 된 정보와 자료의 활용, 보급(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
 - 통일국가 건설을 대비하여 도서관 업무 관련 주요 기술 또는 도구 등의 통일, 기술이전 및 공동작업 추진
- 기대 효과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남북협력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민족의 전적문화재를 포함하는 도서관 정보의 상호 교류와 이용협력은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화적인 과제로 민족 문화의 넓이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
 - 남북한 도서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과 조사활동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전문가 워크숍, 심포지엄, 상호 자료 교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시킴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민간차원의 남북한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하여 통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차원의 남북한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하여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
- 북한의 도서관 현황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남북한 도서관 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법

- 한국도서관협회 내에 <남북한 도서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토록 함
- 구성: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관계자 및 문헌정보학 또는 박물관, 출판, 역사학 등 관련 분야 학자 또는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 남북한 도서관 관계자들간의 실무협의 추진, 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동위원회’ 구성 검토
-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도서관협회 관계자를 통해 대화 추진
- 실무협약에 따른 남북한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방문 조사 등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검토, 실시

2) 전시시설 및 전시물 교류

- 앞서 살펴본 대로, 도서관 교류의 두 번째는 유형의 콘텐츠인 자료(출판물) 교류임
- 문화시설 가운데 유형의 재화 교류는 박물관미술관 교류에 해당함
- 공연시설은 예술작품이란 무형의 콘텐츠 교류에 해당하기에, 도서관 교류에서 시사점을 찾기는 쉽지 않음
- 박물관미술관 전시물 교류협력 실태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봄

(1) 박물관 교류

- 박물관이 사업주체인 경우
- 남북한 박물관(박물관 상호 교류뿐 아니라 한쪽 박물관이 참여한 경우) 교류는 아래 <표 2-1>과 같음
- 조선중앙력사박물관(1997년, 2006년), 조선미술박물관(2002년, 2004년)이 교류사업의 주체로 참여함
-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2004), 고려대박물관(2004), 국립중앙박물관(2006)이 교류사업

의 주체로 참여함

- 이 가운데 남북 양측의 박물관이 직접 교류한 경우는 2006년의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전시(국립중앙박물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로, 북한이 소장한 김홍도, 신윤복, 겸재의 작품이 포함됨
- 이처럼 남북을 대표하는 박물관 간의 직접 교류는 많지 않고, 한쪽의 박물관과 비박물관이 교류한 경우가 많은 데서 보듯이 박물관 간 직접 교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줌
 - 남한의 국공립문화기관은 북한과 직접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콘텐츠 교류가 어렵고, 잘못될 경우 구설수에 오르기에 꺼려하는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1〉 남북 박물관 교류: 박물관이 사업주체인 경우(1997~2006)

사업주체		사업명	성격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장소
남	북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조선 중앙력사박물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유홍준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출판	북한 문화 유적 답사조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및 공동조사 관련 협력, 결과물 출판	1997.9~10 (답사) 1998. 1 (출판)	북한지역 역사유적 (답사) 평양 외 (출판)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조선 미술박물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공동 미술전시회	미술 전시 출품	조선미술박물관이 소장한 이른바 국보적 작품 10점 을 포함, 총 100여점 전시	2002. 08.15.~16	서울 웨라톤 워커히 호텔 무궁화 볼룸
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사회 과학원	개성공업지구 문화유적 조사 및 발굴(1단계)	북한 문화 유적 조사·발굴	북한 사회과학원과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 진행	2004. 4.20.~7.31	개성
한국학술진흥재단, 고려대박물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준비위원회, SBS, 한국일보	조선미술박물관·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일제약탈문화재 반환 공동학술토론회	학술 토론	남북 역사학자 각 3명의 일제약탈문화재 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학술토론,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현황에 대한 영상물 상영	2004. 4.24.~28	평양 조선 미술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 전시	문 화 유 산 및 미 술 품 전시	방북 참가인력구성(6명) (유물선정팀, 기록원, 연구원 등)	2006. 6.13. ~10.26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대구박물관

■ 박물관이 직접 교류주체는 아닌 경우(장소 제공)

- 박물관이 직접 교류의 주체는 아니지만 소장품 전시 교류에 참여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표 2-2>와 같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공예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자신 있다고 여기는 분야이기에 상대적으로 공동전시(2회)가 가능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공동 발굴사업을 진행하기에 교류 실시가 용이함

〈표 2-2〉 박물관의 남북 문화 교류 사업 참여 사례(2005~2015)

사업주체		사업명	성격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장소
남	북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북측 역사학자 협의회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조국광복 60돌 기념 고구려 유물 전시회	문화 유산 전시	북한 소장 고구려유물(작품) 54점 전시 (15점은 국보급 유물)	2005. 5.7.~7.10, 7.23~8.31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 고려대 박물관
한국공예문화 진흥원	북한 대외전람총국	제1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	공예 작품 전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전시	2005. 7.25.~9.20	서울 덕수궁 석조전
한국공예문화 진흥원	북한 대외전람총국	제2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	공예 작품 전시	남한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북한 공훈예술가 1급예술가 전통공예작품 500여점 전시	2006. 7.3~8.16	서울 역사박물관
김학수 기념박물관	-	하나를 위한 어우러짐 -새로운 시선, 북녘그림전	미술 전시	백인제기념도서관 박재섭 관장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구입한 뒤 통일부 승인을 얻어 국내로 반입한 그림 100여점 중 60여점 전시	2007. 10.11~19	백인제기념 도서관 내 김학수 기념박물관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문화 유산 전시	서울, 개성에서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동시 진행	2015. 10.14.~11.6(남) 2015. 10.15.~11.15(북)	국립고궁 박물관· 개성고려 박물관

주: 북측 사업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표기

■ 박물관 교류의 특징

- 남한의 것보다 북한의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공예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의 문화유적 답사·조사·발굴 사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전시
 - 북한의 국보급 유물과 미술품이 전시된 경우가 2회 있었음
- 공예는 남북한 작품 공동전시 형태로 진행되는데, 북한이 공예에 자신 있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남북역사협의회는 공동발굴 뿐 아니라 전시회, 학술회의 등 광범위한 교류활동에 참여함
- 남북한 박물관 교류, 또는 박물관 소장품 관련 교류는 주로 남한에서 진행된 데서 보듯이 일반적 문화 교류와 유사함
- 남북한 박물관 간 교류보다는 비박물관 간 교류(박물관은 교류 장소 제공)가 더 많아서, 박물관 교류라기보다는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성격이 있음

(2) 미술관 및 갤러리 교류

- 남북 미술관이 직접 교류사업의 주체로 진행한 경우는 없음
 - 남북 미술관 교류에서 미술관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었던 경우는 거의 없음
 - 서울시립미술관이 네덜란드 (북한미술) 수집가인 빔 반 데어 비즐 소유의 포스터를 전시한 경우는 특이함
 - 미술관은 남북 문화 교류 사업에서 사업장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음
 - 북한 미술을 대표하는 만수대창작사는 금강산국제그룹과 함께 1993년에는 일본에서 코리아 통일미술전에, 2000년에는 세계평화미술대전 예술의전당 미술관 전시회에 참여
 - 미술 전시는 남북 간 직접 교류보다, 남한의 주요 미술관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북한 미술 작품을 활용한 전시가 많고, 미술인들 간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음²²⁾
- 미술 교류는 대부분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2000년대 활발히 진행됨
 - 남북 미술 교류 사업은 전체 45건 가운데, 남한에서 진행된 비중이 약 90%(39건)인 데서 보듯이 남한 중심으로 이뤄짐
 - 북한에서 진행된 미술 교류 사업이 5건, 일본 및 중국에서 진행된 미술 교류 사업이 1건 정도임
- 광주비엔날레(1995, 1997, 2000, 2018), 청주국제비엔날레(2007) 등에서 북한 미술작품이 전시됨
- 갤러리에서 열리는 북한 미술 전시회는 북한의 상대자 없이, 사업자(남한, 중국, 교포) 소유의

22)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북한미술품 판매의 경우가 대부분임

- 갤러리 뿐 아니라 백화점 전시회장 등에서도 북한 미술 전시회가 열림
 - 민간 갤러리들은 모두 미술품 전시를 개인 소유의 갤러리나 백화점 전시회장에서 진행하였음
 - 무역회사인 하워드 리 인터내셔널이 미국 뉴저지주 리지필드 뉴욕 갤러리에서 개인 소장 북한 그림을 전시하기도 함
- 북한 미술작품 소장자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 중국인, 교포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남북 문화 교류로 볼 수 있을지는 이견이 있음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의 공동행위인데, 이때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임

■ 미술관-갤러리 교류의 특징

- 남북 미술관 교류가 아니라 남북 미술 교류에 미술관이 참여한 것으로, 곧 장소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남북 양측에서 미술관 자체가 교류의 주체가 아니라, 일부 북한의 미술관 소장품을 남한에서 전시하거나, 많은 경우는 북한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미술작품을 소개한 형태임
- 미술관 교류라고 하기는 어렵고, 남북 미술 교류에서 미술관이 활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적합함
-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광주비엔날레 같은 남한 주최 국제행사에서 북한미술전을 열었다는 점, 곧 북한이 참여했다는 것임
- 갤러리의 북한 미술 전시회는 상업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북측 상대가 없음(이미 북한 미술품을 소유한 사람이 남한이나 외국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임)
- 남북 미술관 교류라기보다는 남북 미술작품 교류에 미술관이 장소로 기능하는 것, 또는 상업적 목적의 북한 미술작품이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학술 교류

- 남북 학술 교류는 문화유산 및 언어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고, 일부 컴퓨터 및 역사 분야의 교류도 있었음
 -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학술 교류는 1991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활발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름 아래 남한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실제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했기에, 자연스럽게 학술 교류를 하게 됨
 - 문화유산 학술 교류는 고구려 또는 고려사, 언어·풍속 등 민족 문화, 일제 역사, 유물·유적 발굴을 위한 답사 및 조사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됨
- 2004년 남한의 (사)통일맞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의향성 체결, 2005년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결성, 2006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출범, 2007년 특별법 조성 등에서 보듯이 ‘겨레말큰사전’은 가장 제도화된 남북 교류사업임
- 남북한 언어 관련 학술 교류는 주로 남북한 언어 비교와 표기법 통일안, 컴퓨터 처리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술 교류 가운데 약 35% 정도 비중을 차지함
- 컴퓨터 처리 언어 국제학술대회는 2004년 10주년이 될 만큼 활발한 편이었으나, 이후로는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른 분야의 교류와 달리 북한에서 학술회의가 이뤄진 경우가 60건 중 26건(43%)으로 더 많음
 - 중국(18건), 일본(3건), 러시아(2건), 폴란드(1건), 프랑스(1건), 몽골(1건), 아프리카(1건) 등의 순이었으며, 남한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는 1건 정도임
 - 북한에서 학술행사가 많이 열린 것은 만월대 공동발굴, 고구려 역사 학술행사 등이 개성과 평양에서 주로 열렸기 때문임
- 학술 교류의 특성
 - 남북이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단 이전의 문화유산 발굴과 토론이 활발함(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관련)
 - 남북이 공통으로 또는 상이하게 쓰는 단어를 남북 방식으로 병기(併記)하는 사전 관련 교류가 활발함(겨레말큰사전 관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라는 남북의 공동기구가 있고, 실제로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사업이란 점(문화유산), 남한에는 관련 법률이 있고 북한에는 최고지도자가 승인한 사업(언어)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교류가 가능했음
 - 공통 기억(역사문화유산), 공통 기억의 변이와 변화(겨레말큰사전) 등에 대한 학술 교류가 가능할 것임
 - 마찬가지로 공통의 현실과 미래를 찾는 학술 교류 역시 가능할 것임(초창기 컴퓨터 언어

에 대한 학술회의 추진)

- 분단이전의 근현대사의 현장, 외국 현지에서 공통된 것을 찾아 학술회의를 할 수 있음

4) 출판 교류

■ 남북 출판 교류는 북한 도서의 남한 출판,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의 남한 출판, 북한 소설의 저작권료 합의, 논문집이나 도록 출판 등이 있음

-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북한 도서의 남한 출판으로, 북한 도서인 『리조실록』(1992~1993년), 『동의보감』(1994년), 『고려사』(전자출판, 1998년), 『개성이야기』(1999~2000년), 『조선향토대백과』(2006년) 등이 해당됨
- 도록 및 도감 출판 사례로, 『조선유적유물도감』(2005년), 『분단 66년, 북녘의 불교문화유산』 북한사찰 사진전시회 및 출판(2011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모사도로 본 고구려 고분벽화 도록』(2018년)이 있었음
- 북한소설 『임궽정』의 경우, 남북간 출판 분야 첫 저작권 합의 사례(2005년)임
- 남북 공동 출판사업으로는 1998년 유흥준의 『나의 북한문화유산답사』, 2007년 남북한 공동 논문집인 『강경애, 시대와 문화』, 2008년 6.15민족문학인협회가 창간한 『통일문학』 발행 사례가 있음

〈표 2-3〉 남북 출판 교류 사례(1992~1998)

사업주체		사업명	성격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장소
남	북					
여강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북한서적 『리조실록』 국내 출판	출판	독점적 복제 출판권	1992(계약), 1993(출판)	남한
여강출판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북한서적 『동의보감』 국내출판	출판	15년 동안 한국에서의 판권 넘겨받음	1994	남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흥준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출판	출판	1997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결과물	1998. 1	평양 외

제2장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및 동서독 사례 분석

사업주체		사업명	성격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장소
남	북					
누리미디어	고려민족문화연구원	북한서적 『고려사 CD롬』	전자 도서 출판	1966년 북한 사회과학원 번역본 디지털화 함, 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계약(북한사회 과학원 측의 위임)	1998	남한
푸른숲출판사	북한 사학자 송경록	북한서적 『개성이야기』 국내출판	출판	사학자 송경록(68)씨가 남쪽의 푸른숲 출판사와 계약(최초로 북한의 저자와 직접 출판계약)	1999(계약), 2000(출판)	남한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총5권) 국내 출판	출판	2002년 3월 『조선유적유물도감(2)』 총 4권 출판	2000.4.30	남한
사계절출판사	-	북한소설 『임꺽정』 정식 저작권료 합의	저작권료 합의	1985년부터 사계절 출판사에서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을 출판하고 있었고 2005년에 저작권료 관련 정식 합의(15만 달러), 남북사이 첫 저작권 협의	2005.5	금강산
평화문제 연구소	-	『조선향토대백과』 출판	출판	『조선향토대백과』 초판 발행, 저술기간은 1999-2005, 2쇄 2006년	2006. 1	남한 (서울)
에맥 출판사	-	『북한의 공예』 출판	출판	‘북한의 공예 출판(제1, 2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 자료 이용)	2006.12.28	남한 (서울)
민족문화작가대회 대신문화재단	-	강경애, 시대와 문화 (랜덤하우스) 출판	출판	남북 첫 공동 논문집 출간	2007.1.5	남한
6.15민족문학인 협회	-	『통일문학』 창간 1호 발행	출판	『통일문학』 창간 1호 발행	2008. 2(북한), 5(남한)	남북한
6.15민족문학인 협회	-	『통일문학』 2호 발행	출판	『통일문학』 2호 발행	2008.7(북한), 10(남한)	남북한
봉은사 조계사총무원	-	북한사찰사진전시회 ‘분단 66년, 북녘의 불교 문화 유산’	전시· 출판	전시 작품을 포함한 총 6,300여점을 지역별로 분류해 ‘북한의 전통사찰 (도서출판 양사재)’ 도록을 발간	2011. 8.10.~11	남한 (서울)
문화재청	-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모사도로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도록 발간	출판		2018.11.26	남한 (서울)

주: 북측 사업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표기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남북 문학 교류는 2005~2006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음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회의, 6.15 민족문학인협회가 구성됨
 - 이 과정에서 2007년 『통일문학』을 발간함

〈표 2-4〉 남북 문학 교류 사례(2005~2006)

사업주체		사업명	성격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장소
남	북					
민족문학작가회의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작가 교류	민족작가대회 등을 합의 등	2005. 7.20.~25	평양, 백두산, 묘향산
민족문학작가회의	-	'6.15 민족문학인협회' 출범	작가 교류	'금강산 문학의 밤'을 첫 행사로 공동회장단 및 집행부 구성, 기관지 발간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	2006. 10.29.~31	금강산

주: 북측 사업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표기

- 출판 및 문학 교류의 특성
 - 분단 이전의 공통의 역사서 북한의 『고려사』, 『리조실록』 등을 남한에서 출간함
 - 북한 공예, 향토대백과 등을 남한에서 출간함
 - 문학 분야에서는 남북 문학인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통일문학』을 발간함

3. 남북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

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완결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교류

- 현재까지 남북한 도서관 교류는 1건(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1장 3절에서 언급한 남북 문화 교류유형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임
 - 첫 번째(남북 인력의 공동행위), 세 번째(분업형태), 그리고 네 번째(문화서비스 관련 정보 및 기술 제공) 성격을 지님
 - 남한 인력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직접 가서 북한 인력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에 해당함

- 비용의 공동부담(남: 시스템 비용, 북: 서지 및 원문구축 비용)으로 분업형태인 점에서 세 번째에 해당함
- 남한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네 번째에 해당함
- 원문공동활용이 실현됐다면 남북한 도서관 자료의 대여(두 번째)까지 포함될 수 있었음
- 남북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교류사업(분업형태, 서지 및 원문 공동활용)이었고 오픈행사까지 했으나 남한 입장에서는 실제 활용에 이르지 못함
- 오픈행사 이후, 2007년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남북 교류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되다가도 일시에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 북한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실제 활용했으며, 남한은 원문 공동활용은 아니고 서지목록을 전달받음
- 남북 실무진이 작업을 하면서 각각 사용하는 도서관 용어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함

2)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교류: 작품 교류를 넘어 메타데이터 구축-기술 교류-원문 이용

-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체의 교류는 거의 없었지만, 가장 최상급의 소장품 교류가 될 수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교류사업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2006)은 북한이 소유한 최고의 미술품(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이 전시되어 호응이 좋았음
- 박물관 교류, 미술관 교류는 이처럼 최고의 작품을 소장한 국립시설 간의 교류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도서관 교류에서도 최고의 자료(출판물) 전시 및 대여가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최고의 자료(출판물)는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김일성종합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들 도서관 간의 교류가 가능한 자료(출판물)는 상호 이념 색채가 강한 소장품은 교류하기 어렵고,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것임
- 공동의 관심이 있는 소장품 교류가 현실적인데 그것은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

- 첫째, 분단 77년이 넘는 현재, 공동의 관심 소장품은 분단 이전의 작품
- 둘째, 이념성이 드러나지 않은 (공동의) 정서에 맞는 혹은 오락적 작품
- 셋째, 이념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과학기술 관련 작품
- 넷째, 남북에서, 특히 북한에서 꺼려하지 않는 외국 작품

■ 박물관 및 미술관 교류의 특징은 남북 박물관 교류, 남북 미술관 교류가 아니라 소장품 교류였다고 볼 수 있음

- 박물관 간 교류가 아니라 한쪽의 단체와 다른 한쪽의 박물관 교류가 약간 있고, 대부분은 북한 유물의 전시장으로서 박물관이 활용됨
- 미술관 간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관련 단체 간 교류에서 북한 작품을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 갤러리에서는 중국 등지에서 구입한 북한 미술품 소장자(남한, 중국, 해외교포)가 상업적 목적에서 전시회를 여는 경우가 많음
- 이처럼 박물관 간 교류, 미술관 간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작품이 남한에서 전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 작품의 수준이 높지 않음

■ 제3국 또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교류는 없지만,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품이 지속적으로 전시됨

■ 덧붙여 작품 교류에 한정되었기에 북한 인력과 접촉 빈도가 낮으며, 분업 형태가 거의 없고, 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기술 관련 교류가 진행되지 않음

■ 남북한 도서관 교류는 박물관미술관 교류와 달리 소장품(자료, 출판물) 전시 뿐 아니라 정보기술인력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남북 자료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학술 및 출판 교류: 공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류, 문학의 다양한 콘텐츠화 가능

■ 학술 교류와 출판 교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분단 이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다는 데 있고, 학술 교류는 외국에서도 많이 이뤄짐

■ 초기는 컴퓨터 언어 같은 신기술에 대한 학술논의도 있었고, 문학인 교류를 통해 남북이 공동출간한 『통일문학』을 간행하기도 함

-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서는 자료(출판물) 교류는 분단 이전의 것, 그리고 신기술 관련 자료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음
- 북한 문학 및 역사서를 책자 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콘텐츠 활용 방법을 확대할 수 있을 것(OSMU: One Source Multi-Use)으로 보임

제2절 동서독 도서관 교류사업 사례

1. 통독 이후 도서관 교류현황

1) 배경

- 동서독의 문화 교류 사업을 살펴볼 때,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1972.12.21., 이하 동서독 기본조약), 문화협정(1986), 베를린 장벽 무너짐(1989), 제도통일(1990년)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통독 이후 동서독 도서관 통합 관련 연구가 많은 편임
- 2014년 선행 연구 역시 통독 이후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통독 이전의 연구는 많지 않은데, 통일 이후 도서관 통합과정에서의 갈등과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통독 이전의 자료를 찾기 어렵고, 국내 도서관학계에서도 이 같은 연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함
- “문화협정은 동서독 교류정책 또는 서독의 신동방정책의 과정이자 결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문화협정 자체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²³⁾
- “동서독 문화협정(1986)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독 사민당 정부 신동방정책의 과정이면서 통독 이전 방송협정과 함께 가장 늦게 체결되었기에 신동방정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서독이 동독과 체결한 협정은 우편협정(1970), 베를린협정(1971), 통행협정(1972), 기본조약(1972), 체육·보건협정(1974), 문화협정(1986), 과학·기술협정(1987), 방송협정(1987) 등임”

23)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57쪽. 문화협정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원문은 이우영·손기웅·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을 11~23쪽을 요약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2) 동서독 분단 즈음

- 독일은 1900년 독일 사서들로 이뤄진 독일사서협회를 설립하고, 1913년 라이프치히 독일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서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음
- 1900년 막데부르크에 설립된 독일사서협회(VDB: Verein Deutscher Bibliothekare)는 2차 대전 후 1948년 뮌헨에 재설립되어, 개인회원, 특히, 학술도서관 사서의 이익을 대변하였음²⁴⁾
- 세계 2차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1946년 서독이 프랑크푸르트에 새 국가도서관을 건립하고 별도의 독일 국가서지를 발간했으나, 동서독 분단 이전부터 발간해 온 기존 국가서지를 기준으로 활용했음
- 1913년 동서독 분단 전에 건립된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이 분단 후 동독의 국가도서관으로 기능하고, 1946년 서독이 프랑크푸르트에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을 건립함으로써, 동서독 양국 각각에 국가도서관과 별도의 국가서지(Deutsche Bibliographie)가 존재됨²⁵⁾

3) 동서독 분단 이후

- 동서독은 분단 시기에도, 출판 및 전시 교류, 서지데이터 교환, 도서관 및 사서 간 교류를 했으며, 특히 국가서지 발간을 위해 동독의 라이프치히 도서관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협력하였음²⁶⁾
- 동서독 도서관은 모두 분단 이전에 수립된 기존 국가서지를 동일하게 준수한 편이어서 분단 중에도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였음
- 독일 국가서지는 통일 후, 통일 독일을 빠르고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히며, 실제로 통독 이후 국가서지 통합 작업에 약 3개월이 채 소요되지 않았음²⁷⁾

24)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61쪽

25)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39쪽

26) 노문자(2008), “통독 후 15년간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223~236쪽

27)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64쪽

- 통독 이전 출판 교류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동서독 서적상협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다 단절된 바 있으며, 이후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을 계기로 '문화적 상호 교류'에 도서관 분야가 일부 포함되면서, 도서전시 및 서지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졌음²⁸⁾
 - 특히 1980년 이후 1987년까지는 동독에서 열린 도서전시회에 서독의 출판사 40여사가 단독 부스로 참가하였으며, 약 120여개의 출판사는 도매상을 내세워 공동부스로 참여하였음²⁹⁾
 - 한편 서독에서 열린 도서전시회에도 동독출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일서적수출입 회사가 주관한 바 있음³⁰⁾
- 이러한 교류의 저변에는 도서관 및 사서 협회와 같이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통일 이전에도 협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1963년 독일도서관컨퍼런스(DBK: Deutsche Bibliothekskonferenz)가 도서관계획 73(Bibliotheksplan73)을 편찬하면서 도서관 간 협력 증대 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됨
 - 이것은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무렵 독일도서관협회연맹의 설립 근간이 되었음³¹⁾
- 동서독 사서들 간에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비공식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였음³²⁾
 - 동서독이 분단한 동안, 도서관 간 직접 교류는 미미하였으나, 도서관 사서들간에는 비공식적 교류가 이뤄졌는데, IFLA 회의에서 상호 발표를 통해 양국 도서관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만남을 지속하는 계기가 되었음
 -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을 계기로, 문화적 이슈에 대한 상호 교류 내용에 도서관 분야가 일부 포함되면서, 도서 전시 및 서지데이터 교환 등의 교류가 이어짐
 - 1988년부터는 동서독 도서관 간에도 교류가 사서들 간 교류처럼 활발해져서, 라이프치히 동독 독일도서관이 먼저 연락을 취한 이후 사서들 간 편지, 면대면, 전화 등의 교류로 점진적으로 의견이 교환됨

28) 자우어, 클라우스 G.(2013),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68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국립중앙도서관), 12쪽

29) 자우어, 클라우스 G.(2013),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68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국립중앙도서관), 12쪽

30) 자우어, 클라우스 G.(2013),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68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국립중앙도서관), 12쪽

31)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68쪽

32)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39쪽

4) 베를린 장벽 붕괴 즈음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무렵에는 프랑크푸르트 서독 독일도서관이 라이프치히 동독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목록시스템 및 재정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협력 의지를 표명함³³⁾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는 서독 도서관협회(DBV: the Deutsche Bibliotheksverband, German Library Association)가 정부에 동독의 도서관학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함³⁴⁾
 - 본래 동독 도서관들은 사회주의 교육과 선전선동(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독일 통일 이후 국립 도서관들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문서보급에 노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독 지역 내 도서관들이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중심의 도서관 활동조건을 포함함
 - 사회적 변화 시기에 특별히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도서관 재정립의 중요성이 배가됨
 - 구 동독 시스템상의 종합 도서목록집을 통일된 독일 도서목록시스템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중 핵심적인 것은 외국논문 종합목록집과 정기간행물 종합목록집이었으며, 동독지역의 도서관들은 통일 독일의 새로운 연방주에서 분권적으로 조직되고, 통일 이전보다 더 책임성과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1990년 4월 동독 도서관협회와 서독 도서관협회는 ‘베를린 메모란덤(Berlin Memorandum)’을 작성하고, 동독 도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학습, 공부,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동독 도서관들의 능력 발전
 - 동독 도서관들 기초 컬렉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모든 미디어에서의 자료 추가, 분야별 간행물 업데이트, 최신 신문과 잡지들의 공급 확장 촉진
 - 서독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근대적 수단들과 문헌 정보에 대해 동독 도서관들의 수용에 대응해야하며, 지원을 조직하고, 동서독 도서관 전문가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종합 도서목록을 확장해야함으로써, 구 동서독 국경근처에 있는 서독 도서관들의 부

33)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64쪽

34) Schmidmaier, Dieter(1991). "Libraries in the GDR after November 1989. IATUL Quarterly, Vol.5, No.3, 210~213쪽

답을 완화시키는 일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도서관 통합을 위해 그간 동독도서관의 운영 결과, 현황 및 문제점, 자체평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보고서가 동독도서관협회에서 공식 출판되어, 동독 정부부처에 보고되기도 하였음³⁵⁾
- 1990년 6월에는 본격적인 통일 이후 도서관 준비에 돌입하여, 동서독 사서 및 정치가들로 구성된 ‘동서독 도서관 전문가 그룹(Deutsch-Deutsche Expertengruppe Bibliothekswesen)’이 통일 조약 내 도서관 분야 권고를 만들고, 법제정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였음³⁶⁾
- 이를 기반으로 1990년 9월에는 새로 편입된 동독도서관을 위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권고안에 의해 서독의 독일도서관연구소(DBI: Deutsche Bibliotheksinstitut), 동독의 도서관중앙연구소(ZIB: Zentralinstitut fuer Bibliothekswesen),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MZ: Methodisches Zentrum fü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가 공식적으로 1개 기관으로 통합을 논의함³⁷⁾
- 이때 논의된 동서독 도서관 통합 연구소는 이후 동서독 도서관 통합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2000년 일부 기능의 이관과 함께 해체되었음
- 한편, 동독의 도서관 중앙위원회(Zentralinstitut fuer Bibliothekswesen)와 서독의 독일도서관기구(Deutsche Bibliotheksinstitut)는 동독의 도서관 상황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필요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5) 동서독 통일 이후

-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공식 제도적 통일 이전의 활발한 협력은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주 워킹그룹(the Bunde-Länder-Bibliothekswesen)이 결성으로 이어짐
- 도서관 문제 관련 활동을 위해 도서관 전문가, 지방 공무원, 도서관 협회들과 문화 기구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통일 독일의 합동 도서관 계획 수립 첫 단계로, 1992

35)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30~31쪽)

36)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62쪽)

37)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35쪽; 노문자(2002),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97~126쪽

년 말까지 유지되었음

-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의 워킹그룹(AGs)이 구성됨

〈표 2-5〉 동서독 연방정부 및 연방주 워킹그룹 구성 주제 및 합의 사항

그룹명	주제	합의 사항
AG1	공공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도서관 법적 보호 • 구조적 결정을 위한 장단기 지원 프로그램 • 도서 핵심 컬렉션 재구축 • 예산 모델과 규범의 발전 • 급여 기준 발전 • 교육에 대한 새로운 포맷 • 자격과 고용 등급의 평등성 명확화 • 공공 도서관과 특별 도서관 존재의 보호 • 우산 조직의 협력과 서비스 효율화
AG2	직원과 교육	
AG3	학술도서관을 위한 컬렉션 발전	
AG4	지역과 중앙의 서비스	
AG5	도서관과 정보 기술	
AG6	구조적 문제와 법적 문제	

- 워킹그룹은 구 동독에서 작동가능한 도서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결정과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교육과 도서 선정, 지방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보존 문제를 진행함
 - 교육부문에서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1990년 말에 교육과 학습자료 제공을 위해 15백만 마르크 제공하였음
 - 전문교육은 각 주(州)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음
 - 업무방식에 대한 재교육은 통일 이전의 주들과 새로운 주들의 도서관들과 도서관 협회들 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되었음
- 한편, 통일 이후 동독 고용정책에 대한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동독 도서관 지원이 감소되면서 도서관(인력) 구조조정
 - 동독 지역 도서관 직원 규모가 축소되고, 동독 지역 도서관들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직원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1991년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 자금이 마련되어, 새로 편입된 연방 주 지역 도서관들 중 10%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
 - 파트타임 직원과 고령의 직원들이 우선 정리대상자가 되었고, 도서관 폐쇄로 인하여 많은 정리해고가 진행되어,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동독지역 도서관 직원의 38%가 감소하였음
 - 1991년 행정개혁이 완료되고, 도서관 직원들은 독일 연방정부 급여표(Bundesangestelltentarif,

BAT)에 따라 등급이 정해졌음

〈표 2-6〉 동서독 통일 무렵 도서관 주요 현황(1989~1991)

단위: 건, 개소, 명

구분	1989		1990		1991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도서관 시스템의 수	1,112	1,139	1,143	1,098	1,177	1,000
도서관 수	2,875	6,256	2,905	2,946	2,943	1,972
직원 수	9,709	6,796	9,883	5,908	10,098	4,556

- 직원들의 정리해고 이후에도 여전히 동독지역 도서관 직원 수가 서독지역보다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됨
 - 1992년 도서관 개혁 이후에도 동독지역 도서관 직원 수가 주민 10만명당 27.78명이었으며, 서독지역은 10만명당 15.65명, 도서관 수도 동독지역은 주민 10만명당 11.8개였으나, 서독 지역은 주민 10만명당 4.4개였음
 - 1992년에 주민 5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도 동독지역 도서관 수는 557개였으나, 서독 지역은 45개 밖에 없었음
- 1993년 초에 모든 새로운 주들은 워킹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동독 지역 도서관들이 새로운 행정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 이 방식은 동독지역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추천되었고, 동독시절에는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화된 공공도서관 시스템 하에 있었으나, 통일이 된 이후에는 서독시스템과 같이 주 정부에 이관되어야 했음
 -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된 후 시골지역의 많은 소규모 도서관들은 폐쇄되었고, 1990년에 736개 기관이 있었으나, 1991년에 495개로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동독지역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 직원 수 등이 점차 축소되었음
- 구 동독 도서관은 이데올로기적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컬렉션의 편향성 문제가 컸고, 학술분야 문헌이나, 가벼운 오락물, 대중 잡지들이 부족하거나, 시설 역시 열악한 상황이었음
- 정치이론, 법, 경제학 분야의 도서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졌었으며, 도서 보관공간, 사무용 공간, 도서관 장비 등이 모두 부족한 상태였음
- 학술도서관들의 리노베이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 서독 정부와 서독학술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그리고 폭스바겐재단(Volkswagen Foundation)은 이 리노베

이선에 보조금을 지원했음

- 통일 이후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 재정 감축과 인원 축소를 수반하는 개선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었음
 - 주별로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동독 도서관 관리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리뉴얼 프로젝트와 전문적 문제를 지원함
 - 구 동독 시스템 상의 도서 컬렉션이 통일 이후 바뀐 시스템에 적절하지 않아, 전체의 40% 정도가 새 도서관 시스템에 적용될 수 없었음
 - 도서 장르별로는 픽션과 아동문학이 10%, 논픽션이 15%의 비중을 차지했음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컬렉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구 동독체제에서 금지되었던 작가들의 작품, 서독 문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음
 - 또한 동독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주제들 - 경제, 법, 종교, IT, 컴퓨터, 여행, 과학 픽션, 일반 상식,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콘텐츠 등 - 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했음
 - 출판 활동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구 동독지역에서 1년에 7,000개의 출판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통일 이후 1994년에는 대략 70,000개의 출판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르렀음

〈표 2-7〉 통일 전후 동서독 도서관 주요 교류(1900~2006)

시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내용
1900년	독일사서협회 설립	막테부르크에서 독일사서들로 이뤄진 독일사서협회 설립	-
1913년 (독일 분단 전)	통합 국가서지 (분단 전)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독일국가서지 발간 (분단 후 동독 지역)	•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서적상연합이 참여하여 출판, 납본, 자료 유통 및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도록 자료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준수
1946년	서독 국가도서관 별도 건립	분단 이후, 서독이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건립	• 동서독 각각의 국가도서관 존재
1947년 (독일 분단 후)	개별 국가서지 (분단 후)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독일국가서지 발간(서독 지역)	• 동독과 구분된 별도의 서독 국가서지를 발간한 것이나, 큰 틀에서 분단 이전의 독일 국가서지를 기준으로 함
1948년	독일사서협회	뮌헨에서 독일사서협회 재설립	• 개인회원으로 구성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시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내용
	재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도서관 사서의 이익 대변
1949년	독일 도서관협회 설립	베를린에서 독일도서관협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진흥 및 정보 장려 • 관중 지역 초월 도서관 협력 추진, 지역 초월 공동의사결정시스템 보유 • 모든 도서관을 위한 전문적 표준 도입
1954~57년	출판 교류 (협회)	출판분야 협회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분야 동서독 서적상협회 교류협력이 있었음
1963년	도서관계획	독일도서관컨퍼런스 설립 및 도서관계획 '73'(Bibliotheksplan'73) 편찬	-
1972년	도서관 사서 교류	동서독 기본조약체결(1972년) 이후 동서독 사서 간 비공식 인적·물적 교류 활발	-
1986년	전시·서지데이터 교환 교류	동서독 문화협정(1986년)을 계기로 문화적 상호 교류에 도서관 분야가 일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서지데이터 교환 등으로 교류
1980~87년	출판전시 교류	(동독) 도서전시회 교류 -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서독 출판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전시회를 통해 동서독이 서적 교류를 함 • 동독지역인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도서전에 서독의 40여개 출판사가 단독 부스로 참가하였으며, 약 120개 출판사는 도매상을 내세워 공동부스로 참여함
	출판전시 교류	(서독) 도서전시회 교류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동독출판사들 참여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서적수출입회사가 동독출판사들의 서독전시회 참여를 주관
1988년	동서독 도서관 사서 교류	1988년부터 동서독 도서관 간 교류, 사서들 간 교류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라이프치히 도서관이 먼저 연락을 취한 이후, 사서들 간 편지, 면대면,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의견 교환
1989년	동서독 도서관장 만남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에서 라이프치히 도서관을 방문하여, 양 도서관 간 협력 필요성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도서관장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됨 • 목록시스템 협력 및 재정지원 중심
	독일도서관 협회연맹 설립	독일도서관컨퍼런스(1963)를 계승하여 독일도서관협회연맹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도서관협회연맹 발의로, 동서독 도서관 간의 교류 및 접촉이 성사됨 • 서독신문사에 의뢰하여, 동독 공공도서관에 무료 신문 제공 독려 • 서독도서관계의 동독도서관계 지원 수단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책임기관 대상 지원 호소, 촉구안, 서한 등
1989년~1990년 초	통일 이후 도서관 준비	통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서독연방교육부와 주정부 긴급지원, 독일도서관연구소(DBI), 도서관중앙연구소(ZIB),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MZ) 3개 기관 통합 논의	-

제2장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 및 동서독 사례 분석

시기	구분	주요 내용	상세 내용
1990년	(서독)동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운동 진행	독일도서관정보협회연맹 서독시민 대상, '동독 공공도서관을 위한 마르크 운동'을 벌였으나 성사되지 않음	-
1990년 4월	동서독 도서관협회 대표자 첫 회의	동독도서관협회와 서독도서관협회의 대표자가 모인 첫 회의에서 베를린 각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독일 도서관계가 새로운 협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고, 동독 지역에 새로운 관련 조직을 구성할 것에 대한 내용 • 동독도서관 상황 분석 및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의
1990년 6월	통일 이후 도서관 준비 차원에서 사서 및 동서독 정치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역할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 (Deutsch-Deutsche Expertengruppe Bibliothekswesen) 주도로, 통일조약 내에 도서관 분야의 권고를 만들고, 법제정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은 통일이후 도서관을 준비하기 위해, 사서 및 동서독 정치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임 • 독일도서관연구소가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수행
1990년 9월	통일 이후 도서관 준비	동독도서관을 위한 권고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통일 후 도서관 통합 준비
1990년 10월	독일 도서관 합병	독일 통합 이후(1990년 10월)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동독) 및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서독)이 독일도서관으로 합병 (Die Deutsche Bibliothek, D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 국가도서관 통합 • 이에 앞서 베를린 독일음악도서관(음악아카이브) 및 라이프치히 도서관 통합 • 프랑크푸르트도서관장이 통합도서관장을 맡아 총괄 역할 수행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에 부관장 제도를 둠
1991년 1월 (통일 즈음)	국가서지 통합	독일 국가서지 통합 (프랑크푸르트 독일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 이전 단일한 국가서지가 있었고, 분단 후 서독이 별도 서지를 발간하였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통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한 독일 국가서지로 다시 통합됨 •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이 각자 발간한 서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통일 후 3개월 내에 독일 국가서지를 빠른 속도로 통합할 수 있었음
1993년	도서관 관련 기관 통합	독일도서관연구소(DBI), 도서관중앙연구소(ZIB),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MZ) 3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수행 후 2000년 해체
2006년	독일 국립도서관법 통과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으로 명칭 변경	-

2. 동서독의 학술 및 출판 교류

1) 동서독 학술 교류사업³⁸⁾

(1) 전후 교류 상황

■ 전후 동서독은 극심한 이념대립 상태에 있어 학술분야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음

- 동서독 양측에서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념논쟁 진행
 - 1949년 동서독은 각각 독립적 주권국가로 출발,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집권시절에 서독정부는 ‘서독의 유일대표권’, 곧 동독이 자유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동독에 할슈타인 원칙³⁹⁾을 적용하며 상호간 치열한 이념 경쟁을 지속함⁴⁰⁾
 - 유고슬라비아에서 동독을 승인하여 1957년 서독과의 외교관계가 중단되기도 하였음⁴¹⁾
-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학술 교류는 동독 지도부의 대서독 제한정책 추진으로 인해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짐

■ 베를린 장벽 설치(1961년 6월) 이전까지는 동서독 간 제한적인 교류 존재

- 동독정부는 서독과 접촉과 교류를 제한하였으나 대학, 연구기관, 학회 간 공동 협력이 있었음
- 동독의 제한정책으로 인해 많은 동독 대학 및 연구소 연구 인력들이 서독으로 이주해버렸으며, 분단이전 과학·학술단체가 동서독으로 분열되거나 국제기관으로 독립했음
 - 1963년에는 세익스피어협회가, 1968년에는 에른스트-발라하협회가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음

38) 통일대비정책연수단(1993),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169~175쪽;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550~572쪽; 이석희(2001),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한 학술교류의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15(2), 54~60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39) 서독의 발터 할슈타인이 1955년 9월 22일에 내세운 외교원칙으로,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함

40) <Daily NK>(2014.04.23.),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A%B5%90%EB%A5%98/>(검색일: 2021년 7월 13일)

41)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 토론회), 15~16쪽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에는 아주 제한된 인원만 학술 교류 활동이 가능했음

- 동독의 경우 공산당(DKP: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당원 등 정치적 신념이 강한 선발된 자만이 동독정부의 허가를 얻어 연구협력 활동이 가능했음
 - 1962년 동독 50여명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동독대표단’으로서 당 간부의 인솔 하에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서독에 방문함
- 양독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1960년대 중반에는 동독정부가 다시 학술 교류를 허용
 - 이 시기 『괴테사전』과 『라이프니츠 전집』, 다양한 학술잡지가 동서독 공동 편집·편찬되었음
 - 1966년 본(Bonn)에서는 분단이후 최초로 동서독 통합 총·학장 회의가 개최됨
- 1960년대 말부터는 동독의 공산당 지도부가 동서독 간 통합 학술회의나 연구자들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사실상 학술 교류가 중단되었음
 - 1970년 경제담당 정치국원 미탁(Mittag)은 “동서독 공동의 학술잡지 발간이나 공동의 과학·기술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서독의 ‘전독일적’ 성격을 갖는 모든 제안은 ‘제국주의적인 세계전략’의 일환”이라고 매도하는 등 사실상 양독 간 학술 교류의 중단을 공식화했음

(2) 1972년 기본조약체결 이후 교류

① 기본조약체결의 배경

- 1950년대 할슈타인 원칙을 주장하며 양독간 이념 경쟁을 지속해 오던 중, 1969년 9월 집권한 서독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양독 관계가 진전됨⁴²⁾
- 동방정책은 평화와 안보가 소련과 동독 등 공산주의 동방에 대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정책 기조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내세움⁴³⁾
- 빌리 브란트는 1970년 2차에 걸쳐 동독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 관계의 진전을 꾀함⁴⁴⁾

42) <Daily NK>(2014.4.23.),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43) 노명환(2019), “빌리 브란트와 에곤 바르의 투쟁 연설의 시대적 배경과 동방정책의 사상 및 실천 전략,” 『역사문화연구』, 71, 181~216쪽

44)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16쪽

- 기본조약(1972년) 이전 서독은 소련과 폴란드와 동방협약을 먼저 체결하여 동독과의 기본 조약의 기반을 다짐
- 1972년 6월 15일 분단기간 동안의 동서독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에 관한 협상 시작, 11월8일 조약의 초안 마련하여 12월 21일 기본조약에 양국이 서명함

■ 한편 양국은 협상에 대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⁴⁵⁾

- 동독은 서독의 포괄적인 법적 인정을 받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으며 동시에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음
- 서독은 조약을 통해 독일 국민의 결속을 다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동독을 견제하고자 했음

② 기본조약의 내용과 학술 교류⁴⁶⁾

■ 기본조약은 총 10개항으로, 실질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조약 제7조는 교육, 학술, 문화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본 조항에서도 동독과 서독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후속 규정 마련 의지가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었음
 - 동독에서는 서독으로 출국 신청하는 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인도적 사안들은 피해가지만, 동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임
 - 서독에서는 인간적 고통경감이 협력의 주된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대독일 정책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조약은 인도적 규정 협약, 각 분야의 상세한 협력 규정을 담는 후속협약 의무를 명시함

■ 동독에서는 특히 기술이전 등 자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음

- 이 시기 문화 교류는 학자 교류, 학술정보 교환, 철자법 공동개정노력, 문학인 교류, 서적 판매, 도서관 교류, 영화, TV 프로그램 교환 등이 주를 이루었음⁴⁷⁾

45)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회』(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 토론회), 17~18쪽

46)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회』(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 토론회), 18~31쪽

- 서독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동독 기술자들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협력이 자주 무산되었음
- 동독은 라디오와 TV 등 미디어의 교환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에도 양국 작가들의 서적은 상당히 많이 교환되었음
 - 동독이 서적으로 인한 영향을 다른 미디어에 비해 그나마 덜 우려하였기 때문임
 - 반면 정기적인 인쇄매체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음

〈표 2-8〉 동서독 기본조약의 7조 내용(1972.12.)

조항	소재목	내용
제7조	협력	서독과 동독은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안 및 인도적 사안들을 규정할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서독과 동독은 이 조약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경제, 과학기술, 교통, 법적공조, 통신,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및 기타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장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상세한 사항은 부속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자료: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18-27쪽

(3) 1986년 문화협정체결 이후 교류

① 문화협정체결의 배경

- 1972년 기본조약은 후속협약을 예정한 것이었으나, 1973년 11월부터 시작된 문화협정 체결 협상은 1986년 5월에 결실을 맺음
- 동서독 간 기본조약의 후속 협상으로서 문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은 1973년 11월 27일 개시되었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됨
 - 1981년 호네커-슈미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회담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 1982년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서독의 도시환경 정화에 관한 전시회에서 동독의 서기장은 서독 총리실 장관에게 문화협상 재개를 제의
 - 새로 출범한 서독의 콜 정부는 동독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3년 9월 문화협상을 재개
- 문화분야 교류는 타 분야에 비하여 가장 늦게 시작됨⁴⁷⁾
 - 인도적 차원의 교류, 경제적 교류와는 달리 문화 교류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다

47) 통일대비정책연구단(1993),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170쪽

48) <Daily NK>(2014.4.23.),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분히 포함되었기 때문임

- 서독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민족문화 차원에서의 교류를 바랐으나, 동독에서는 서독의 문화침투를 경계하면서 ‘공동의 민족문화’ 대신,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하였으므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 그러나 동독 측이 문화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협정이 체결되었음⁴⁹⁾

- 동독에서는 학자, 문인 등 주민 일반의 교류욕구를 억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됨
- 동서독이 모두 가입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서명국들 간에 문화 교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독이 이 규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었음⁵⁰⁾
- 이에 동독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취약한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었기에 서독과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게 됨

② 문화협정의 내용⁵¹⁾

■ 문화협정은 문화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협정은 문화협정, 공동의정각서, 공동의정서 선언 등 3가지 문서로 구성됨
- 양국 문화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이긴 하나 협력 분야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개선,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
 - 국가적인 실무계획과 함께 냉전 시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음악, 출판 분야에서의 상업적인 문화 교류도 촉진하도록 함
 - 문화협정 발효 이후 국가나 교회, 공공 및 개인 소유 수집품, 미술작품, 문화재 등이 동서독 간에 반환되었음
 - 문화협정으로 인해 동독의 많은 예술가와 작가가 서독에 방문했고, 이는 동독의 정치·문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문화협정의 많은 조항에서 학술분야 교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분야 등이 함께 다뤄지고 있음
 - 협력의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및 유관분야임을 언급(제1조)

49) 통일대비정책연구소(1993),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172쪽

50) 이찬호(2017),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서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통일부), 22쪽

51) 이찬호(2017),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서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통일부), 24~27쪽

- 협력의 내용으로 상호경험의 교환, 학술정보 교환 및 학술회의 참가, 예술, 영화, 음악, 문학 등의 분야와 협력 확대를 위해 학자, 자료 등의 교환을 명시(제2조, 제3조)
- 가능한 범위에서 상업적 공연, 전시 등에 관해 협력하며 출판 분야 협력 위한 간행물 출판이나 출판권 상호위임 확대 규정(제4조, 제5조)
- 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조항도 별도로 규정한 것은 특이할만한 점
 - 국제적 자료교환, 문헌정보학 영역 교환, 비상업적 도서관 출판자료 교환 등을 통한 도서관 협력 강화를 규정(제6조)

③ 문화협정 이후 학술 교류⁵²⁾

■ 문화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학술, 교육, 문화예술 부문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 문화협정 제12조는 동서독이 각각 2년간 유효한 사업 계획의 수립에 합의하도록 규정함
 - 서독에서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건의한 사항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문화, 교육, 학술 등 제 분야가 망라되어 있음
 - 동서독 양측은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⁵³⁾
- 학술분야에서는 공동프로젝트나 콜로키움 실시, 상대국에서의 연구목적 체류와 안내체류, 객원체류 등이 건의되었음
 - 건의안은 해당 주정부 부서가 연방내독성에 제출하였으며, 연방 각 부의 대표들과 각 주 문화장관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건의안 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연방내독성이 최종적으로 동독과 협상하는 과정이었음
- 1988년 10월부터 89년 3월 사이, 학술 분야는 73건, 교육 분야 106건, 예술 분야 384건 등 총 563건의 교류가 이루어짐⁵⁴⁾
 - 학술분야의 교류는 학술회의 참석, 연구여행, 학자-교수-학생의 교환, 공동연구, 전문서적, 교재, 교육 자료 교환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교류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교류 형태는 강사 초빙이나 학술회의 참가 등의 형태였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중점을 둔 것이라 이는 양독 학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52)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557~56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53)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1990), Das Kulturabkommen, 35~40쪽,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2쪽에서 재인용

54) 통일대비정책연구소(1993),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173쪽

는 부족한 것이었음

〈표 2-9〉 동서독 문화협정 사업계획으로 추진된 학술 프로젝트

분야	건수
언어과학, 문화과학	6
법학, 경제학, 사회학	10
수학, 자연과학	2
의학, 수의학	1
농업, 임업, 식품과학	0
공학	1
미술, 음악, 체육	1

자료: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559쪽

- 국제행사를 통해 맺어진 양독 간의 교류 활동이 점차 동서독 간의 협력 사안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었음
 - 동독은 학술분야에서만 전세계적으로 수백에서 1천여 기관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비정부 기구(NGO)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쌍방 간 교류 확대 계기가 마련되었음
- 한편 전쟁 전부터 존재했던 ‘Grimm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 등 일부 계획 사업들은 ‘공동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독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음
- 문화협정상 사업계획은 물론 연방내독관계성(BMB),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등을 통한 학술 교류 지원도 증가하였음
- 양독 간 학술 교류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교류지원을 통해 연구기관 간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 공동출판 등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음⁵⁵⁾
- 1987년 동독의 라이프치히 대학 언어이론학자 에른스트 아이홀로 교수와 서독의 쾰레겐 데부스 교수, 괴팅겐 대학 슈미트 교수의 공동연구팀이 언어학, 성명학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를 출판함

55) 아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0), 『독일통일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021),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출』, 383~384쪽에서 재인용

- 1988년에는 민헨대학과 칼-막스대학 간 자매결연으로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분야와 어문학, 독문학, 역사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협력이 이루어졌음
- 공학분야에서는 악켄공대와 드레스덴 공대간 자매결연, 슈투트가르트대학과 칼-막스대학 공대 자매결연을 예로 들 수 있음

(4) 1987년 과학기술협정 이후 교류

① 과학기술협정 체결의 배경과 내용⁵⁶⁾

- 문화협정으로 인한 양국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문화협정 다음해인 1987년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됨
- 과학기술협정은 문화협정에 따른 학술 분야 교류협력을 일부 포함하면서도 협력 분야를 달리했음⁵⁷⁾
 - 문화협정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집중했다면 과학기술 협정은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음
 - 문화협정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술적 성과보다는 동서독 주민 간의 접촉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학기술협정은 대형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학술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했음
 - 동서독 연락사무소(BzB)는 연방과학기술성과 에어랑엔 대학 부설 IGW연구소의 위촉에 따라 프로젝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정보 교환, 전문사절단 교환, 공동사업계획 준비와 수행, 개별계획 수행을 위한 학자 교환 등이 이루어짐
 - 동독의 학술발전과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연구정책, 기술정책을 위한 정보 제공 등

56) 아래는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564~565쪽; 이찬호(2017),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서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문서』(통일부), 34~3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57) 이우영·손기웅·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5~26쪽

② 과학기술협정 이후 학술 교류⁵⁸⁾

- 과학기술협정 체결 이후 국가기관은 물론 각 연구재단이나 기업체의 연구소 등이 동서독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였음
 - ① 독일연구공동재단(DFG)을 통한 지원
 - ② 폭스바겐 재단을 통한 지원
 - ③ 괴버 재단을 통한 지원
- 과학기술분야의 학술 교류는 이 분야에 대한 양독의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관심에서 이루어졌으며 양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음
 - 동독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서방으로부터 방대한 산업시설의 도입, 경제발전 부진의 상황에서 연구 및 개발분야 협력으로 전체경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했음
 - 서독에서는 동독이 동구권과의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양독 간 교류가 동독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음

2) 동서독 출판 교류사업⁵⁹⁾

(1) 동서독의 독서문화⁶⁰⁾

① 여가 및 습관으로서의 독서

- 동서독에서 독서는 국민 삶의 습관이자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서점과 도서관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동서독인은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독서에 할애함
 - 1974년 동독의 직장인의 경우, 하루 20분 이상, 일주일에 2시간 20분 이상 독서하는 것으로 조사됨

58) 아래는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565~572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59) Gail P. Hue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40~259쪽;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37~267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60) Gail P. Hue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40~24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 동서독 각각은 서점과 도서관 운영과 협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임
 - 동독에서는 1969년 4,200여개의 출판사와 2,340개의 서점이 있었고, 서점의 경우 주민 7,300명당 1개꼴이었음
 - 서독에서는 1968년 3,378개의 서점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 전역에 1만 여개의 서점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의 서점이 있었던 것임
 - 도서관의 경우 동독의 20,826개의 일반 도서관 중 12,799개는 지역공공도서관, 8,027개는 공장의 무역조합 도서관이었으며 1975년 이들 도서관은 6550여개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음
 - 대학 및 기관과 연결된 820개의 도서관과 2,500여개의 특수목적 도서관이 있었음
 - 서독의 경우 2,500여개의 공공도서관, 대학 및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4,185개의 도서관이 있었음
 - 미국의 경우 8,337개의 공공도서관, 대학 및 전문대학과 연결된 3,421개의 도서관이 있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동독에서 도서관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② 책의 생산량과 가격

■ 동독의 책 생산량은 세계시장에서 비중이 꽤 컸음

- 1980년 동독에서는 연간 6천개가 넘는 제목의 1억 4천만 여권의 책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세계 책 생산량의 1.15%를 차지하는 것이었음
 - 이는 동독일인 1인당 1년에 8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동독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음

■ 동서독 모두에서 책은 아주 잘 팔렸으나 동서독의 가격 차이는 심했음

- 동독에서 책은 저렴한 편이었으나 서독은 훨씬 가격이 높았음
 - 동독의 1978년~1979년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의 카탈로그에 실린 책의 경우 한권에 5~12마르크 수준으로, 페이퍼백은 1.85~2.95마르크 정도로 훨씬 저렴했음
 - 반면 서독에서의 책 가격은 동독보다는 훨씬 높았음
 - 예를 들면, 막시 반더(Maxie Wander)의 책 'Guten Morgen, Du Schoene'의 양장본의 경우 동독에서는 8마르크였으나, 서독에서는 24마르크였는데, 이는 동독의 하드카피는 서독의 페이퍼백과 같거나 더 저렴한 값에 팔렸다는 것을 의미함
- 동독에서 출판하는 것은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과 가격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2) 동서독의 출판산업의 특성⁶¹⁾

① 출판사의 설립과 변동

- 통일 이전, 동독에서 출판사는 대부분 1945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20년에 걸쳐 설립되었음
 - 이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945년~1946년으로, 이시기에 출판사가 집중적으로 설립됨
 - 두 번째 시기는 1956년~1960년으로, 45년 이후 설립된 53개의 출판사 가운데 13개가 이 시기에 설립됨
 - 동독의 출판사들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에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국유화되었고, 특히 기술적인 분야의 출판사들이 국유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 이 시기 설립된 동독 출판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음
 - 자격증 발급 절차가 도입되면서 출판사의 수는 감소하였고 출판사간 합병되었음
 - 동독의 출판사들 간에는 협동이 강조되었으며, 특정 분야에 특화되는 특징을 보였음
- 한편, 동서독의 문학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음
 - 동독에서는 195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1,500개의 출판물이 출간되었는데, 이중 25~30%가 문학 분야였으며, 1965년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여 20%가 채 되지 않음
 - 반면 서독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20~25%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문학 분야가 8~1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양독에서 차지하는 문학분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② 출판 규모와 소유권의 변화

- 통일 이전, 동독에서 출판은 계획경제에 의한 것으로 철저히 중앙의 관리 하에 운영되었음
 - 중앙 행정부는 출판사에 대한 자격인증에 더해 출판 주제도 통제하였고, 종이 부족 등을 이유로 부수 등을 통제하였음
 - 서점의 소유권과 판매량 역시 변화하였음
 - 1960년대 말 1,520여개의 서점이 민간소유였으나, 820개의 국유 출판사가 책 판매량의

61) Gail P. Hue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44~259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80%를 차지하였음

- 이런 차이는 나중에 더 극심해져서 국유 700개의 서점이 900여개의 민간소유 서점보다 훨씬 더 많은, 85%의 판매량을 차지하게 됨
- 이후 개인 소유주들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국유서점은 더욱더 확장하고, 현대화되면서 전체 서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됨

■ 한편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는 사적영역에서의 자기검열을 낳음

- 책의 출간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열 절차를 거쳐야 했음
- 이런 통제 절차는 작가나 출판사가 자기검열을 하도록 부추김

(3) 동서독의 출판 교류⁶²⁾

① 동서독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법적 기초⁶³⁾

■ 베를린 장벽 설치(1961) 이후, 동서독간 문화 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룸

■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은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틀 내에서 추진되었음

-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킨 법적 토대 역시 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합의에 포함되어 마련되었음
- 「문화협정」(1986)은 출판분야를 비롯한 문화 협력을 위한 규정 외에 후속 사업계획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비로소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되기 시작했음
- 「문화협정」(1986)은 출판분야(제5조), 도서관분야 및 역사적 기록문서 교류(제6조, 제7조)를 규정하는 한편 「문화협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년간의 사업계획을 양 독일 작성하기로 규정하였음(제12조)
- 이에 양측이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⁶⁴⁾

62)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37~267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63)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39~244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64)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1990), *Das Kulturabkommen*, 35~40쪽,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2쪽에서 재인용

〈표 2-10〉 동서독 출판분야 관련 교류협력과 문화협정(1986)

구분	조문	조문 내용
문화협정(1986)	제5조	<p>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 보급 및 수입 확대 2. 어느 한쪽이나, 쌍방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3.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 확대 4. 서적견본시장 개최에의 참여
	제6조	<p>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은 이점에 있어서 다음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협력 확대 <p>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교류의 확대 2. 참고서지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제7조	<p>협정당사국들의 문서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국의 법률규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교류 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제12조	<p>협정당사국들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그때 그때마다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합의를 본다. 그러나 협정의 목표에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문화사업 계획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에 대한 장려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p>

자료: 기본조약(1972):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18~27쪽
 추가의정서(1972):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 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2쪽
 문화협정(1986): 이우영·손기웅·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쪽

② 동서독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주체

- 동서독 간 출판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동독의 라이프치히와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했던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독일거래상조합이 대표적인 출판 교류협력 주체였음⁶⁵⁾

- 라이프치히 독일거래상조합은 1825년 경제적 조직체로 출발하여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음
- 라이프치히 조합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체제 홍보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버릴 수는 없었음
-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대동독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에 따라 대서독 관계가 개선되면서 조합의 활동도 변화했으며, 통일 이후 조합은 프랑크푸르트 조합에 합병되었음

■ 서독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독일거래상조합을 중심으로 출판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음⁶⁵⁾

- 프랑크푸르트 독일거래상조합은 라이프치히 조합의 분사 격으로 설립되었음
 - 1945년 동독지역에 거주했던 다수 출판인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라이프치히를 떠나 서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바이스바덴에 라이프치히 조합의 분사 격으로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을 설립하고, 10월부터 조합지를 발간하였음
 - 1946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서부지역 독일서적상’이 설립되었고, 이후 ‘서적상연합’과 같은 명칭에 많은 변화를 겪은 후 1955년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으로 출발하게 되었음
-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처음부터 강력한 각 연방주의 조합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었음
- 활동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도약하고자 노력했음
 - 조합은 1951년부터 문화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서적거래상이 수여하는 평화상을 제정하여 문화정치적 포럼으로 도약하고자 했음
 - 1949년부터는 서독연방주 헤센의 서적거래상연합이 시작한 것을 프랑크푸르트 조합이 넘겨받아 ‘도서박람회’를 개최하였음
 - 동독의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박람회에 참여하려 했으며, 이에 조합은 1956년부터 정치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동독의 서적을 전시하는 공동전시장을 이들에게 할당하였음

③ 동서독 출판분야 교류협력 현황⁶⁷⁾

■ 종전 직후 전승연합국은 정치적 활동, 국가기관, 상품거래 등을 통제함

65)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4~246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66)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7~248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67)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48~26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 그러나 독일이 여러 점령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상이한 통제지침이 혼재하였음
 - 1947년 연합국 관리자문단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문, 잡지, 영화, 서적의 자유로운 교환을 천명하였으나 서적과 출판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정 존재
 - 소련 측보다는 서방연합국의 서적과 출판 관련조치가 더욱더 엄격했음
 - 예를들어 1946년 영국점령군 당국은 소련이 판권을 가진 출판물들의 자국 관할 점령지에의 반입 금지하였으며, 47년에는 관리당국에 검열을 받은 것에 하여 반입을 허용하였음
- 전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각 점령지역 간 서적거래 유지를 위해 양 독 간에 노력함
 - 동독에서는 48년 초부터 물류유통회사 리베로트가 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베를린을 연결하는 서적열차를 운영하여 서방연합국과 소련의 각 점령지 간의 서적 교류가 이어짐
 - 스프링어 출판사, 인젤 출판사 등 동부지역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이는 독일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출판과 인쇄 능력,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임
 - 서독의 경우 동서지역 간 직접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출판사를 방문하여 현금을 주고 서적을 구입한 다음, 이들을 국경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우편을 부치게 하고, 야밤에 국경을 넘어 서적들을 가져오게 함. 서적을 가져오는 일은 각 점령지간 통행증을 소지한 자들이 담당했음
- 1948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의 서적 교류는 차단되지 않음
- 1948년 독일 서부지역에서 화폐개혁이 실시되어 서방 전승국과 서부지역 각 연방주 경제성들이 내독 간 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함
 - 1949년 서방연합국은 서독 당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공산주의 선전물의 서독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간섭권을 유지함
- 1948년 화폐개혁과 이어진 베를린 봉쇄로 인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서적의 교류는 계속됨
 - 동독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전문, 학술적 출판사들이 분단 이후 서독으로 이전하면서 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출판사들은 동독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으므로 이를 서독으로부터 반입함
 - 서독의 경우 역사가 깊은 출판사가 동독보다 적었기 때문에 출판의 노하우를 동독과의 교류를 통해 배울 수 있었음
- 동서독이 내독간 서적 교류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쌍방향협의의 체결로 이해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려 했음
 - 1949년 양 독간 직접적인 협상인 '프랑크푸르트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즉각적인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이후 베를린에서 비밀협상이 지속되었음

- 1950년에는 서베를린 기반의 에른스트 그로비히와 동독의 라이프치히 LKG 간에 학술서적의 교류를 포괄한 경제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실현은 수차례 연기되었음
- 이후 ‘내독간 협정’이 수개월에 걸쳐 논의되었으나 입장차이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였는데, 가장 큰 쟁점은 양 독 마르크화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서적 반출이 과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동독의 차액 부담부분을 청산할 방법에 관한 것이었음
- 이외에도 동독정부가 서베를린에 전기와 식수를 단절한 사건 등도 양 독간 협정 체결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었음

■ 1951년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베를린협정」 체결 이후 내독 간 서적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베를린 협정은 동서독 간 상호거래에 의해 청산되지 못하는 초과분에 한해 동독의 출판사와 인쇄소에게 인쇄주문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후 내독간 서적거래에 관한 통계와 자료가 출판되기 시작함

- 서독이 동독에게 발주하는 이 초과분은 서독내 출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였음
- 그러나 동독은 종이의 부족 혹은 여타 이유로 기일을 빈번하게 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서독의 출판사들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출판사와 인쇄소를 선호하게 됨
- 1952년에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은 조직내 대외무역위원회 산하에 “내독간 거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독간 서적 거래를 추적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조합의 연차보고서에 게재함
- 1952년부터 서적시장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통계가 시작되었지만, 66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출판됨

○ 1955년에는 베를린협정에서 합의된 내독간 서적거래 규모 상한선(청산되지 못한 초과분)이 폐지되고, 문학작품의 거래도 가능해짐

- 이로 인해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적의 반입을 위한 사전 반입 승인은 여전히 존재했음
- 1956년에 서독 내에서 독일공산당 활동이 금지를 기점으로 서독에서는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한 문학작품의 반입은 통제되었으나,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서독반입이 금지된 동독의 서적명을 목록화하여 발간하였음
- 한편 서독의 우편판매망 개방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시사잡지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었는데, 동독의 작품에 대한 홍보와 평론이 부재한 것도 관심의 부족에 일조함
- 동독에서는 정기발간되는 언론출판물을 우편을 통해 배포하는 우편시사잡지판매(PZV:

Postzeitungsvertrieb)가 운영되었는데, PZV는 독일체신부에 속하여 모든 허가된 신문과 잡지 목록이 기재된 우편시사잡지목록을 발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출판물을 검열하고 배포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음

■ 1960년대에는 양 독간 출판과 서적거래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함

- 동독 지도부는 서독의 서적을 가급적 차단하려는 입장을 유지했음
 - 서독의 서적은 자본주의적 계급적대세력의 정신을 표방하며 나치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반동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독일의 대변물로 간주함
 - 동독은 동독에서 출간된 서적의 판매와 유통에 대해 서독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시하며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함
-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는 연합국 점령시기, 공산당 활동 금지시기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독의 서적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었던 1947년에는 서독으로 동독의 정치적 서적의 유입이 금지되었음
 - 1956년 서독 내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위해하는 서적’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반입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주체에 따라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었음
 - 본 기준에 따라 서독에서는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연평균 약 80만 건의 서적송부가 압류되거나 폐기되었음
 - 동독 출판인 귄터 호페에 대한 석방거래 사건이 보여주듯,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 출신 출판인과 작가들은 서독연방기관에 의해 추적되곤 했으며 도서박람회에도 참여 출판사가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
- 1960년대까지 존재했던 동서독의 갈등은 브란트 수상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서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점차 완화됨
 - 각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출판사와 서적의 교류 역시 활성화되기 시작함
 - 이후 1991년 라이프치히 서적거래상 조합은 프랑크푸르트 서적거래상조합에 합병됨

■ 출판분야 교류는 일반출판물, 문학작품, 고서적, 출판사간 교류 등 분야별로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였음⁶⁸⁾

68)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57~26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 일반출판물의 경우 1955년 출판물 교류 상한선이 폐지(문학작품은 제외)되면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출판물 거래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정상화되다가, 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후 동서독간 모든 거래가 일시 중단됨. 이후 64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 30년 동안의 출판물 가격 상승액을 감안할 때 출판물 거래량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① 계획경제체제에서 탄력적이지 못한 동독 출판사들과 서독 출판사들이 출판계약을 증가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점, ② 60년대 중반에 동독이 학술서적까지 이념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독이 이념화된 서적을 반입하지 않았던 점, ③ 동독의 낮은 화폐가치로 서독에 인쇄 초과분을 공급해야 했으나, 초과분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외환이 부족했던 점, ④ 동독이 초과분을 공급하기 위한 기일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줄어들었던 점 등을 들 수 있음

〈표 2-11〉 동서독 간 출판물의 교류 현황(1958~1987)

단위: 1,000VE

년도	동독으로의 반출			서독으로의 반입		
	책	신문/잡지	거래액	책	신문/잡지	거래액
1958	5,953	4,368	10,321	8,135	3,737	11,872
1962	4,266	4,354	8,620	6,880	2,694	9,574
1967	5,910	6,601	12,511	10,581	3,742	14,323
1979	6,343	12,653	18,996	16,869	1,329	18,198
1987	13,987	14,355	28,342	24,200	1,949	26,149

자료: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 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58쪽.

*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카드의 출판물, 악보, 인쇄증명서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술적 저작물, 문학작품, 신문과 잡지간의 명확한 구분에 따른 거래량은 알 수 없음

〈표 2-12〉 동독으로 반출된 서독의 서적 수량(1961~1989)

년도	서적수	년도	서적수
1961	36,477	1976	65,418
1962	38,271	1977	71,395
1963	47,108	1978	69,754
1964	50,388	1979	71,525
1965	46,457	1980	69,938
1966	53,683	1981	73,663
1967	55,704	1982	75,957
1968	52,200	1983	79,182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년도	서적수	년도	서적수
1969	54,568	1984	91,377
1970	54,346	1985	88,414
1971	63,185	1986	90,038
1972	61,838	1987	95,464
1973	59,950	1988	129,103
1974	59,441	1989	103,276
1975	63,415	1961~1989 총합	1,972,535

자료: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59쪽

- 동서독의 고서적 교류는 전 분단기간을 통해 ‘교류’라기보다는 동독의 서독에 대한 ‘수출’의 형태로 이루어짐
 - 동독에서는 수출을 통해 외환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출판물거래를 추구하였음
 - 동독의 박물관들은 외부전시나 내부단장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고서적을 내어놓았고, 고서적 수집가들은 탈세를 통한 수집이라는 비난을 받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됨에 따라 고서적을 내어놓게 됨
 -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가예술거래부’ 또는 ‘예술 및 골동품 유한회사’를 통해 고서적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서독의 상인들에게 판매됨

〈표 2-13〉 동독의 고서적 거래 및 수출 현황 1(1963~1973)

년도	고서적 총거래 (1,000 동독M)	고서적 수출			수출이 총거래에 차지한 비중
		계획(A) (1,000 동독M)	실제 수출(B) (1,000 동독M)	B/A (%)	
1963	5,047.0				
1964	5,323.4				
1965	5,742.9				
1966	6,132.3	1,651.7	2,112.2	127.8	34.4
1967	6,590.4	1,884	2,226.3	118.2	33.8
1968	7,097.0		2,686.5	103.3	37.8
1969	7,446.0	2,825	3,019.5	106.8	40.5
1970	7,940.0	3,100	3,034.5	97.8	38.2
1971	8,129.0	3,500	2,948.9	94.3	36.3
1972	9,325.0	3,190	3,094.5	97.0	33.2
1973	10,0541.0	3,460	3,463.2	100.1	34.4

자료: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60쪽

〈표 2-14〉 동독의 고서적 거래 및 수출 현황 2(1970~1979)

년도	고서적 수출입 총액(A) (1,000 동독M)	대비사회주의 국가고서적 수출총액 (1,000 동독M)	대서독 고서적 수출 총액(B) (1,000 동독M)	B/A (%)
1970	2006.1	1434.0	642.9	32.5
1971	1764.1	1326.6	671.5	38.1
1972	1810.0	1371.8	592.0	32.7
1973	1978.8	1485.2	727.0	36.7
1974	2056.5	1613.8	914.4	44.5
1975		1822.7	1242.7	
1976	2409.2	1771.2	1249.0	51.8
1977	2494.2	1832.2		
1978	2655.9	1857.5	1309.2	49.3
1979	2712.3	1840.5		47.5

자료: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61쪽

- 문학작품은 교류 상한선이 폐지되지 않은 가운데 양 독에서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었음
 - 기술과 문학 분야에 대한 동독의 수요는 높았으나⁶⁹⁾ 양측의 사상적 차이와 검열 과정으로 인해 문학분야에서의 상호간 교류증대로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웠음
 - 동독의 문학작품 가운데 서독에서 출판된 작가와 작품명, 출판권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15〉 동독으로 반출된 서독의 서적 수량

작가	작품명	출판권수
B. Brecht	Mutter Courage Galilei	2.42백만 최대 190만
U. Plenzdorf	Die neuen Leiden des jungen W. Legende vom Glueck ohne Ende Kein runter kein fern	최대 170만 100,000 17,000
B. Apitz	Nackt unter Woelfen	100만 이상
A. Seghers	Das siebte Kreuz Transit	최대 20만 최대 80만
R. Kunze	Die wunderbaren Jahre	625,000
Ch. Wolf	Kassandra Kindheitsmuster Nachdenken ueber Christa T.	500,000 400,000 25만 이상
H. Kant	Die Aula	157,000
E. Loest	Es geht seinen Gang oder Muehen in unserer Ebene	28,000

자료: Egbert Meyer(1994), *DDR-Literatur in Westdeutschland*, 201쪽을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63쪽에서 재인용

69) Gail P. Hue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46쪽

- 동독은 자국 내 민간출판인을 압박하여 많은 출판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서독 내 자국 출판사의 지사를 설립하려 함
 - 1953년 초 많은 출판인들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함
 - 1878년 설립된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독의 예나와 서독의 슈투트가르트에 각각 거점을 둔 두 개의 회사로 분단됐으며, 이들 양사 간에 내독간 협력을 추진하였음
 - 한편 동독 정부의 서독 내 자국 출판사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우프바우 출판사 등이 서독내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음
 - 지사 설립은 ①서독내 진보적 성향의 서적 출판사를 설립하거나, ②기존 출판사를 매입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었음⁷⁰⁾
 - 출판사는 ①부르주아적 출판사에 의해 보류 또는 거절된 동시대 독일 좌파 저자의 책을 출판하고, ②동시대 소련 저자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작품을 출판하고, ③푸쉬킨 등 고전적인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임무로 삼음⁷¹⁾

〈표 2-16〉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의 내독간 협력(1960~1989)

슈투트가르트 피셔 출판사의 총 거래액		그 중						
		예나 출판사의 책·잡지 수입판매액		슈투트가르트 출판사 책·잡지의 동독(라이프치히)내 공동출판과 판매액		예나 출판사 책·잡지의 슈투트가르트내 공동출판과 판매액		내독간의 협력의 비중
년도	백만DM	백만VE	%	백만VE	%	백만VE	%	%
1960	2.0							(33.0)
1965	3.0	(0.15)	5.0	(0.30)	10.0	(0.40)	13.3	(28.3)
1970	4.2	0.21	5.0	0.45	10.7	(0.45)	10.7	26.4
1975	7.8	0.29	3.7	0.378	4.8	(0.60)	7.7	16.2
1979	10.5	0.31	3.0	0.387	3.7	(0.57)	5.4	12.1
1989	16.6	0.63	3.8	0.365	2.2	(0.70)	4.2	10.2

자료: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 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262쪽

* 괄호는 추정치

70) Carsten Wurm(1996), Der Fruehe Aufbau-Verlag 1945~1961, 179~185쪽을 Gail P. Huet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62쪽에서 재인용

71) Carsten Wurm(1996), Der Fruehe Aufbau-Verlag 1945~1961, 179~185쪽을 Gail P. Huet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262쪽에서 재인용

3. 남북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

1) 동서독과 남북한 관계의 차이

- 첫째, 동서독의 도서관 교류를 남북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
- 도서관 교류뿐 아니라 문화 교류, 그리고 모든 교류에 적용되지만, 동서독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음
 - 이에 반하여 전쟁을 겪은 남북한에서 동서독 교류사례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서독은 1969년 집권한 서독의 시민당의 동방정책(접근을 통한 변화)에 따라 1972년 기본조약, 1986년 문화협정을 체결함
 - 동서독 관계는 1972년 이후 약간은 부침은 있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화해협력기’가 지속됨
 - 이에 반하여 남북한은 기본합의서를 1991년에 체결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변화가 극심하여 화해협력기가 지속되지 못함
 - 따라서 남북 간 교류협력(문화 교류, 도서관 교류)은 동서독 간 교류협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둘째, 분단 시기에도 국가서지 유지에 따라 통독 이후 국가서지 통합이 수월해짐
- 1990년 10월 3월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서독 도서관은 구 서독 국가도서관이었던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으로 합병되었는데, 이후 독일 국가서지 통합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짧은 기간에 마무리됨
 - 이는 동서독 도서관이 통일 이전 시기에도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출판 정보나 서지데이터 등 객관적, 공통적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바를 상호 검토하였음
 - 분단 시기에도 출판 및 사서 등 자원의 교류와 공유 가능성을 모색해왔음
- 동서독 도서관이 분단 시기에도 서점, 출판사, 사서, 도서관계 등 다각도로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공유하고자 함
 -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동서독이 표준을 공유한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분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언제든지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음

- 도서관 및 사서 관련 전문 단체나 연구소 등의 통합도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통일 이후 도서관 및 국가서지 통합 작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덧붙여 상호 이해 증진과 더불어 비정치적, 문화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음
- 동서독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서점과 출판사는 서점과 출판사대로, 사서는 사서대로 각기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도서관 생태계가 통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함
- 이 같은 동서독 사례를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통일 이전의 다양한 교류, 표준의 공유란 전제(前提)가 없으면 빠른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 남북 문화 교류의 현재 단계: 동서독과 비교

- 첫째, 현재 남북 문화 교류 수준은 동서독의 기본조약(1972) 이전 정도에 머물
- 동서독의 도서관 교류를 분단이전(1900년)부터 분단시기, 그리고 통일 독일시기까지를 정리한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남북한 도서관 교류는 ① 동서독의 1954~1957년 정도의 수준, ② 기본조약 체결(1972) 이전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동방정책(1960년대 이후) 이전 시기에는 동서독 서적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단절됨
- 1963년 독일도서관 컨퍼런스에서 「도서관계획 73」을 통해 도서관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
- 동서독의 학술 교류와 출판 교류를 보면, 현재 남북 교류는 1950년대~1960년대의 독일 상황과 유사함
- 베를린 장벽 설치(1961.6) 이전 동서독 간의 학술 교류 진행
- 1962년 동독 50여명의 학자와 예술인의 서독방문(동독대표단)
- 1960년대 중반 괴테사전, 라이프니츠 전집을 공동 편찬함
- 1960년대 말~기본조약 체결 이전 학술 교류 중단
- 서독의 도서박람회에 동독 출판사 참여하려 하고, 1966년 이후 비정치적 동독 출판물 공동전시
- 1951년 베를린협정(경제 및 무역에 관한 베를린협정) 이후 동서독 간 서적 교류 원활해짐
 - 1952년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은 '내독 간 거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서독 간 서적 거래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 1956년 서독에서 공산주의 색채가 많은 동독 문학작품은 통제됐으나, 프랑크푸르트조함은 금지된 동독 서적명을 목록화해서 발간
- 1953년 동독 출판인들의 대거 서독으로 이주
- 1960년대 동독은 서독 서적의 가급적 차단율, 서독 역시 동독 서적 수입에 부정적 입장
- 2000년대 초중반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의 교류조차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기본조약(1972), 문화협정(1986) 이후 도서관 교류, 학술 및 출판 교류 활성화됨
- 도서관 교류
 - 기본조약 이후, IFLA 회의에서 동서독 사서 교류하면 상호 양국의 도서관 현황 파악
 - 문화협정에서 도서관 교류를 별도로 규정하여 도서관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됨
 - 문화협정 이후, 도서 전시 및 서지데이터 교환
 - 1988년 라이프치히 동독 독일도서관이 먼저 연락한 다음 편집, 대면접촉, 전화로 도서관 간 교류
- 학술 및 출판 교류
 - 기본조약 이후, 학자 교류, 학술정보 교류, 문학인 교류, 서적판매, 도서관 교류, 영화 및 TV 프로그램 교환
 - 동독이 라디오와 TV에 비해 서적 교환에 관용적인 것은 서적이 다른 대중매체보다 동독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여긴 데서 비롯됨
 - 문화협정 이후 동서독에 각각 거점을 둔 출판사 설립, 동독은 서독 내에 지사 설립
- 셋째, 동서독 도서관은 교류를 꾸준히 시도함
- 동서독은 이해관계와 목적(서독은 공동의 민족문화,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문화)이 다르지만, 교류를 지속함
 -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국민 결속,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독 견제
 -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서독의 포괄적 법적 인정,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협력의 경우, 동독에서는 서방의 산업시설 도입, 연구 및 개발분야 협력으로 전 체경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했음

- 서독에서는 양독 간 교류가 동구권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음
- 문화협정 체결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서독이 모두 가입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서명국 간 문화 교류 포함됨
 - 동독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비난을 받기도 했음
- 넷째, 동서독 교류사업에는 다양한 재원이 활용됨
- 국가기관뿐 아니라 연구재단, 기업체 연구소의 학술지원
 - 연방내독관계성(BMB)은 문화협정(12조)에 따라 행정 및 재정지원
 - 학술 교류(학자 간 교류) 재정지원은 ①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지원, ② 양측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 일환으로 작성된 사업지원, ③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권장하는 대학생과 학자의 교환,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 지원 등이 있음
 - 이밖에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을 통한 지원이 있는데, 동서독 대학생 및 후진학자의 교환을 위임받아 수행함
-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 교류: 독일연구공동재단, 폭스바겐재단, 쾰버재단
 - 독일연구협회(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를 통한 지원
 - DFG는 협정체결 수년전부터 동구권 각국의 학술원과 학술협력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지원 해왔음
 - 교류 과목의 경우 자연과학과 공학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협력은 저조했음
 - 폭스바겐 재단을 통한 지원
 - 폭스바겐 재단은 1989년 초부터 동독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학술협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동서독 공동 프로젝트나 양국간 혹은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지원하기도 함
 - 쾰버재단을 통한 지원
 - 쾰버재단은 재단 설립자인 쾰버의 설립이념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동서독 학술 교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다섯째, 국제기구를 활용한 교류협력 활성화

■ IFLA 회의에서 동서독 사서의 상호 발표

-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사서의 IFLA 참여 및 교류

■ 국제행사를 통해 맺어진 양독 간의 교류 활동이 점차 동서독 간의 협력 사안으로 발전되었음

- 동독은 학술분야에서만 전세계적으로 수백에서 1천여 기관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s)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쌍방 간 교류 확대 계기가 마련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3장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

제1절 남한 도서관 정책 및 남북 도서관 교류 기존 제안

1. 도서관 정책 행정체계 변화 72)

■ 미군정기(1945년 8월~1948년 10월)

- 학무국-예술·종교과-예술계에서 도서관업무 담당, 예술·종교과를 문화과로 개칭
- 학무국-문(교)화과 박물관·도서관계로 확대 개편
 - 도서관 중요성 강조, 교육원조심의회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 한국인 19인으로 구성, 미국에서 파견된 10명의 전문가 중 1명이 도서관 전문가
- 미군정청 학무국이 1946년 3월 29일자로 문교부로 승격되며, 도서관 업무는 문화국 교도과에서 담당

■ 제1·2공화국(정부수립~1961년)

- 1949년 5월 대통령령 제97호에 의거 국립도서관이 문교부 소속 기관으로 발족
 - 언더우드 박사 등 미국인의 조언으로 문교부가 국립도서관, 박물관 관할

■ 제3·4공화국(1961년~1981년)

- 문교부의 「문교재건 5개년 계획」 수립, 1964년부터 교육자치제 부활, 공공도서관 관할 부서가 내무부와 문교부로 이원화
- 1963년 10월 28일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1963. 10. 28., 제정)이, 1965년 3월 26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도서관 정책 법제화의 계기가 됨
- 국립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 1963년 11월 26일 국회도서관법 제정·공포

■ 제5공화국(1981년~1988년)

- 1981년 6월 23일 문화공보부의 「80년대 문화정책」에 군 단위에 1개의 도서관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도서관 설립
- 1986년 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도서관 확충 계획,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도서관 체제 확립

72) 노태우 정부까지는 조현양이재원 (2005),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15~132쪽 참조하여 작성함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수행

- 1987년 11월 28일 24년 만에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개정
- 공공도서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활용, 독서회 구성과 국민독서 풍토 조성
- 국립중앙도서관 이전 계획 수립, 1988년 5월 28일 현 반포동으로 신축·이전
-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 1990년 1월 담화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문화정책전담부서인 문화부 탄생
 - 1991년 3월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 1991. 3. 8., 제정) 제정 공포
 - 교육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 소속으로 이관, 문화부-문화정책국-도서관정책과로 변경
 - ‘도서관발전위원회’ 법제화, ‘도서관발전 기본방안’ 발표
 - 문교부에 도서관정보과, 시도교육청교육위원회에 도서관정보계, 국립중앙도서관장 직급 상향조정과 전문직 부관장제 실시
 - 문화부는 공공도서관을,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도서관 정책의 이원화
- 제6공화국(김영삼, 문민정부: 1993년~1998년)
 -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 개정,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편
 - 1993년 7월 23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대통령령 제14339호) 제정·공포
 - 1994년 ‘도서관정책과’가 ‘박물관과’와 통합,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개편
- 제6공화국(김대중,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 2000년 3월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2003~2011)」 수립
 - 2002년 8월 도서관 발전계획안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 수립⁷³⁾
 -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을 목표로 함
 - 남북한 도서관 협력 사업 계획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최, 남북한 국가서지, 소장목록의 상호교환, 문헌정보자료 DB 구축을 위한 표준방식 개발 추진 포함

73) 문화관광부(2002.08),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 계획(안) 2003~2011』, 89~97쪽

■ 제6공화국(노무현, 참여정부: 2003년~2008년)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
 - 5년 주기의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국가 단위의 도서관 발전 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이를 근거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2006년 10월 4일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분법화하여 「도서관법」 시행
- 5개년 계획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003~2007) 성공적 수행

■ 제6공화국(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년)」 수립⁷⁴⁾

■ 제6공화국(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 수립⁷⁵⁾

■ 제6공화국(문재인 정부: 2017년~현재)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⁷⁶⁾

2. 도서관법 개정(2006년)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법률에 의한 도서관 정책 수립

-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5년 주기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함

7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8),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7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7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도서관법」(제14조의 2항)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됨

(제14조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⁷⁷⁾

■ 비전 및 목표

- 비전: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 목표
 -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서관·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I.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1.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2.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3.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인력 확보
II.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1.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 개선 2.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3.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운영기반 강화 4.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
III.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IV.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	1. 주제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운영

7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9),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47~48쪽, 184~186쪽을 참조하여 정리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위상 강화 3. 국회도서관 입법활동 지원체계 강화 4. 국가 법률정보문화센터로서의 법원도서관 육성
V. 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전문도서관 진흥	1. 대학도서관 연구·교육활동 지원 강화 2. 대학도서관 지원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지원 강화 3. 전문도서관 경쟁력 및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4.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도서관 활성화
VI.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1.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기반 마련 3. 도서관 전문인력의 재교육 강화 4. 도서관 전문인력의 지속적 충원
VII.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1.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지식정보서비스 환경 구현 2. 지속가능한 도서관 지식정보 활용기반 조성 3.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서관 구현 4. 효율적인 도서관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VIII.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1. 전국 도서관 협력체제 강화 2.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3. 국제 정보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9),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48쪽

■ 추진전략 VIII.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가운데, 정책과제 3. 국제 정보 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제고 부분에 남북한 도서관 상호 협력 확대 추진이 포함

■ 현황 및 진단

- ① 남북간 도서관계의 교류는 2005년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및 학술자료의 디지털화 등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간 도서관 교류협력은 미진
 - 남북분단에 따른 조선 이전의 역사에 대한 사료수집의 한계로 북한자료에 대한 교류협력 필요
 - 한민족 역사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확보를 위한 북한 역사자료의 지원이 절실
- ② 북한 소장 귀중 역사자료에 대한 망라적 소재정보 확인 필요
 - 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중요 역사 기록물들의 점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북한 소재 귀중 역사본의 보존 지원(형태적 지원)과 함께 우리 역사본의 콘텐츠(내용적 필요성) 보완 필요
- ③ 남북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 자원 수집 및 가공 표준화 필요

■ 추진 전략

①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단계별 확대 실시

○ 1단계(2009~2011)

- 남북한 도서관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상호 방문(국립도서관, 인민대학습당 인적 교류)
- 남북한 자료 교류협정 체결
- 남북한 국가서지 상호교환을 통한 소장자료 파악
- 비정치적 분야의 자료 및 원문 정보DB 등 교환
- 국가 문화재급 고전적의 복제·영인

○ 2단계(2012~)

- 도서관 관련 각종 표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 도서관 정보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보급
-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 작성
- 남북한 자료 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공동 연구·개발

②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 통합서지용 MARC와 북한서지레코드 구조화 규칙과의 호환을 위한 표준화 규칙 개발
- 북한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KOLAS-II 프로그램 지원
- 남북한 학술전자자원DB 활용 및 공유시스템 구축

2)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⁷⁸⁾

■ 비전 및 목표

○ 비전: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 목표

- 모두가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 구현
-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

7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40~41쪽을 참조하여 정리

■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1.1.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1.2.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2.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2.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2.2. 특수 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3.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3.1. 세계적인 한국지식문화 보고 구축
	3.2. 의회정보 및 입법정보서비스 강화
	3.3. 국가 종합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
4. 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4.1. 학교도서관의 교육·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4.2. 대학도서관의 교수·학술·연구 지원서비스 강화
	4.3. 전문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5.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5.2. 학교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5.3.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 개선
	5.4. 전문도서관 육성 기반 구축
	5.5. 도서관 발전재원 확충
6. 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체계 구축	6.1. 도서관 지식정보의 연계·공유 환경 구축
	6.2. 지역 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6.3.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7. 도서관 법·제도 정비	7.1. 도서관 법·제도 개선
	7.2.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41쪽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남북한 도서관 협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6.3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서도 북한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⁷⁹⁾

■ 비전과 핵심가치

- 비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 전략방향 및 핵심과제

전략방향	핵심과제	추진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서비스 강화 •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공간의 개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도서관 법·제도 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7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32~33쪽, 82~83쪽을 참조하여 정리했음

전략방향	핵심과제	추진과제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도서관 국제 교류의 강화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엑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도서관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33쪽

■ 남북한 도서관 관련 사항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준비 필요’
- 전략방향 네 번째인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핵심과제 4-2.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의 추진과제 4-2-2. 도서관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내에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이 포함됨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의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① 도서관 남북 교류협력체계 구축
 - 남북한 도서관계의 상시적 소통채널 확보
- ②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③ 남북한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연구
- ④ 공공, 민간 도서관계 남북 교류 활성화 지원
 - 학술분야부터 국가서지의 단계적 공동작성
 - 디지털 자료의 교류 확대
- ⑤ 북한 특수자료의 점진적 개방
 - 특수자료의 분류·판단 기준으로서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선
 - 관련기관(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등)과의 협력방안 강구
 -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남북한 도서관 교류⁸⁰⁾

8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0),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 122~123쪽을 참조하여 정리했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사업목표) 남북한 도서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
- (기대 효과) 남북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및 실질적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추진방향 및 내용
 - 남북한 지식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도서관 협력 기반 마련 및 남북한 도서관 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 조성
 - (2020년 추진실적) 통일과 관련한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및 도서관위원회 전략과 실행과제 중 통일 관련 과제 수립 등
-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구분	내용
2020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와 협력 방안 모색 • 제7기 도서관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중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협력세부 과제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의 준비” 수립
▼	
2021 추진계획	남북한 도서관 협력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국제적 협력 등 지지 분위기 조성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 내용
 - (인사 교류) 국제도서관계 지지를 기반으로 한 남북한 도서관 관계자 면담 및 전국도서관대회 북측인사 초청 추진
 -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수행 및 도서관계 남북 교류 추진 계획(안) 수립

〈표 3-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의 시행계획(2018~2023)

성과목표	구분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23
남북한 도서관계 인사 교류	목표	-	2회	2회	2회	2회	2회
	실적	-	-	-	-	-	-
	달성률(%)	-	-	-	-	-	-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협력기반 구축	목표	-	-	-	1식	1식	1식
	실적	-	-	-	-	-	-
	달성률(%)	-	-	-	-	-	-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0),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 123쪽

■ 국립중앙도서관(2019~2023)의 남북한 도서관 협력기반 조성 및 활성화 계획⁸¹⁾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한 국립중앙도서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 사업으로 남북한 도서관 협력 기반 조성과 이에 따라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 인식
- 정연경(2014년) 연구⁸²⁾에 이은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없었으나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약 체결을 계획함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2022년)
 - 남북한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연구(2023년~)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 남북한 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한 국내 TF 구성(2022년~)
 - 남북한 도서관 관계자 공동 참여 협의체 구성(2023년~)
- 남북한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약 체결(MOU)
 - 남북한 대표 도서관 간 교류협약 체결 (2023년~)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따른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모색함
- 남북한 고문헌 공동조사 및 종합목록 편찬(2022년)
 - 남북한 고문헌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 남북한 고문헌 전문용어 조사·연구
 - 고문헌 공동조사 및 남북 고문헌 종합목록 공동 편찬
- 남북한 서지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방안 연구(2023년)
 - 남북한 도서관 서지 표준화 방안 수립
 - 남북한 도서관 서지 및 전거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고문헌 공동조사 및 남북 고문헌 종합목록 공동 편찬
- 북한 지식문화유산 보존·복원 기반 조성 및 지원(2023년)
 - 북한 인민대학습당 소장자료 보존 및 훼손 현황 조사
 - 북한 도서관 보존·복원 지원 및 남북한 협력 방안 마련

81) 국립중앙도서관(2019),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77~79쪽

82) 정연경(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 북한 귀중자료 디지털화 및 디지털 컬렉션 구축(2023년)
 - 북한 주요기관 소장 귀중자료 현황 조사
 - 북한 귀중자료 디지털화 대상 선정 및 디지털화 방안 마련
 - 북한 귀중자료 디지털 컬렉션 구축 추진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2018.4~ 2020.4)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⁸³⁾
 - 제6기 위원회에서 남북 교류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남북한 도서관 교류 추진 노력
 -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교류사업 재개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북측인사 접촉, 의사 타진으로 전국도서관대회 북한대표 초청 등의 노력 시도
 - 55회 전국도서관대회(2018. 10. 24~10.26) 북측 인사 초청 등의 노력 시도
 - ‘남북한 도서관 교류 사업’으로 제시했던 사업 재추진
 - 남북한 도서관 협력방안 워크숍
 - 동북아 도서관 자료 교류협력 국제 심포지엄
 - 남북한 도서관 협력 기반 가치 ‘통일분류법(목록규칙)’ 공동연구
 - 남북한 도서관 고전적 및 소장 목록 조사·교환
 - 북한 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 전시회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이동도서관 지원
 - 남북한 도서관 협력 백서 발간 사업
 - 제7기 위원회를 위한 정책방향 3대 과제 가운데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을 제안
 - ① 평화 공존시대의 도서관 역할 규명 및 정책화
 - 남북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연구
 -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정보문화 교류의 가치 연구
 - 평화 공존 관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운영
 - ② 실질적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의제 발굴
 -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개성공단에 가치 ‘평화도서관’ 건립 등)
 - ‘도서관 통일공감주간’ 신설 운영: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과 병행
 - ③ 평화 통일 이후 도서관 정체성 확립
 - 통일 독일의 도서관분야 통합 사례 연구

8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0),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98쪽

- 통일 이후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도서관 통합 방안 연구
- 통일 시대 대국민 소통·화합을 위한 가칭 ‘평화도서관 열차’ 운영

3. 시기별 남북 도서관 교류 및 연구

1) 1945년~2000년

■ 남북한 도서관 간 주요 교류협력

- 1945년 광복 이후, 남북한 도서관에 대한 주요 교류 및 협력을 다룬 연구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남북한 도서관이나 관련 독일 연구 내용은 1963년 학술지 논문을 시작으로, 주로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1945~2000)

구분	목록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미현(1998), “도서관 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1998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남북교류협력(Ⅳ)』(통일부), 267~318쪽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ang, Key P.(양기백)(1963), “Present Condi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Korean Affairs』, 2(2), 187~198쪽 • 양일운(1982), “북한의 도서관,” 『북한』(북한연구소), 126, 108~119쪽 • 노문자(1986), “서독의 국립도서관,”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자전문대학), 11, 30~49쪽 • 강대훈(1987), “통일운동의 일환으로써 남·북한 도서관 협력,” 『도서관정보논총』, (4) • 노문자(1992), “통일독일의 상호대차제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3집(11월), 303~349쪽 • 김순원(1994), “통일독일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6집(6월), 235~255쪽 • 송승섭(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상),” 『북한』, 1월호, 152~159쪽 • 송승섭(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하),” 『북한』, 2월호, 142~149쪽 •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노문자(1995), “통일 독일의 도서관 통합 과정과 통일 후의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집, 135~165쪽 • 송승섭(1995), “북한의 도서관,”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논집』, (4), 155~186쪽 • 한상완, 김태수, 전현준, 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89~123쪽 • 송승섭(1999), “국가기록물로서의 ‘통일사료’의 관리방안,” 『문헌정보학논집』, 6, 49~94쪽 • 남태우(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71~92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혁(2000), “북한의 도서관,” 『도서관소식』, 13,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한상원(2000),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도서관과 학술정보 교류협력 방안,” 『국회도서관보』, 37(5)
<p>학술발표 및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필모(1992), “통일에 대비한 도서관정책,” 제2회 전국도서관인 큰모임 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3(2), 18~22쪽 • 한상원(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13~32쪽 • 송승섭(2000), “북한의 도서관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273~300쪽
<p>신문 및 잡지 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문자(1987), “서독국가협동수서정책(SSG-Program),” 『국회도서관보』, 24(3), 30~49쪽 • 노문자(1994), “통일독일의 도서관 통합과정,” 『도서관문화』, 35(1), 16~24쪽 • 송승섭(1994), “한국 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문화』, 35(2), 93~124쪽 • 한상원(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4~15쪽 • “남북한도서관교류 운동 펼쳐,” 『오늘의 도서관』(1998. 12) • “북한 인민대학습당, 해외교포기증자료실 운영” 『오늘의 도서관』(1999. 6) • “중국 연변대학중앙도서관 통해 북한자료 구입” 『오늘의 도서관』(2000. 6) • “국회도서관, 통일자료실 개설” 『오늘의 도서관』(2000. 12) • 이두영(2000),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 걸음,” 『도서관문화』, 41(6), 43~47쪽

■ 2000년까지 국내 신문 및 잡지 기사에서 남북한 도서관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도서 교류 운동(1998년), 북한 인민대학습당의 해외교포기증자료실 운영(199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중국 연변대학중앙도서관을 통한 북한 자료 구입(2000년), 국회도서관의 통일자료실 개설(2000년)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었음

- “남북한도서관교류 운동 펼쳐” 『오늘의 도서관』(1998년 12월)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한국출판협동조합, 경인여자대학,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남북한 도서 교류 운동을 펼친다는 기사 내용
 - 첫단계로 12월 초순까지 수집된 컴퓨터와 전문 과학서적, 각종 사전류, 실용잡지 등 비정치분야의 실용과학서적 3만 3천여 책을 '99년 1월 말쯤 북한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때 우리측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측에 요구했던 책을 받아올 계획
 - 학문적 성과가 담겨있는 책을 매개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려는 움직임에 도서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북한 인민대학습당, 해외교포기증자료실 운영” 『오늘의 도서관』(1999년 6월)
 - 북한 인민대학습당은 해외동포들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 1만여권을 ‘애국도서열람실’에 비치하여 별도 운영하며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열람실에는 세계문학대계, 세계역사학대계 등 인문사회과학 도서와 과학 기술, 의학서적이 주로 비치되어 있으며, 책을 기증한 1백50여개 단체와 1천여명의 동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대표적인 도서 기증단체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재일본조선인 신용조합협회, 북미주 도서기증회 등임
- 북한의 국립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은 일반주민 대상의 여러 분야 전문강좌도 마련하고 있는 학술연구공간으로, 1972년 건설에 착공 1982년에 개관하였음
- “중국 연변대학중앙도서관 통해 북한자료 구입” 『오늘의 도서관』(2000년 6월)
 - 국립중앙도서관은 중국 연변대학중앙도서관을 통하여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 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북한자료 약 800책을 연변대학중앙도서관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중국 연변대학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북한자료 목록을 제공받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북한자료를 계속해서 구입할 예정
 -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민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관련자료를 적극 수집할 계획임
- “국회도서관, 통일자료실 개실” 『오늘의 도서관』(2000년 12월)
 - 국회도서관(관장: 최문휴)은 2000년 10월 31일 이만섭 국회의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자료실 개실
 - 국회도서관 2층에 자리잡은 통일자료실은 북한관련자료는 물론 독일 등 평화통일과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비치하여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 확대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통일관련 정책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총 59평에 열람석 18석 규모의 이 자료실에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신문, 북한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등 약 8,500여 점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특수자료로 분류된 정치·이념적 자료 등도 신청하여 열람할수 있음
 - 국회도서관은 “앞으로 통일관련 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물론 국외에서 발행되거나 입수가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 2000년 말, 일본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오키나와현 나와시)의 3차 간담회에 남한의 한국도서관협회와 북한의 조선도서관협회 간부들이 참여하여, 남한의 한국도서관협회가 6가지 사항을 제안한

점은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⁸⁴⁾

- ① 심포지엄(남북한 도서관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② 소장 자료 목록 등 서지자료 교환
- ③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 이용
- ④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 ⑤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지원
- ⑥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2) 2001년~2005년

■ 남북한 도서관 간 주요 교류협력

- 2000년대 초반(2001년~2005년) 남북한 도서관 간에 주목할만한 주요 교류 및 협력 사업 내용은 없다고 파악되나, 교류협력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도서관 관련 내용들이 확인되기 시작함

■ 이 시기동안 북한 도서관이 해외(미국) 도서관과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됨⁸⁵⁾

- 김책공대(KCUT)와 미국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 간 도서관 지원을 위한 교류 (2001~2002년)
 - 오픈소스 프로그램 수정과 김책공대 도서관 목록정보의 국제표준식별기준 적용
 - 미국과 북한 대학 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학술 협력
 - 북한 최초의 주요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건립

■ 2005년에는 국내에서도 한양대학교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여, 2006년 통일부 승인을 받음⁸⁶⁾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등) 방북 및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초청, 8개 교류사업 제안(2005년)⁸⁷⁾

84) [2장-1절-2-1) 도서관 교류-(2) 도서관 교류 시도 참조]

85) [1장-3절-2-4) 남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2)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부문 참조]

86) [2장-1절-2-1) 도서관 교류-(1)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참조]

87) [2장-1절-2-1) 도서관 교류-(2) 도서관 교류 시도 참조]

〈표 3-3〉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01~2005)

구분	목록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상완, 곽동철, 송승섭, 한상길(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귀옥(2002), “통일 사료의 축적과 북한자료의 공개 확대 방안 연구,”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통일부), 제3권 사회, 1~77쪽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미정(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승섭(2001),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에 김일성이 미친 영향: 김일성 저작집을 중심으로 한 사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73~102쪽 • 송승섭(2001), “북한의 학술 정보 유통 체계와 도서관 전산화,” 『문헌정보학논집』(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회), 7, 223~265쪽 • 노문자(2002),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3(2), 97~126쪽 • 송승섭(2002), “북한의 정보화 기반과 과학기술정보시스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96~117쪽 • 송승섭(2003), “북한의 도서관 건축유형과 특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127~149쪽 • 정분희(2005)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과 남북한 통일: 정책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147~166쪽
학술발표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은정, 백진경(2004),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보는 북한도서관 연구,” 『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47~252쪽
신문 및 잡지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승섭(2001), “북한 사람이 본 그들의 도서관,”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56(2), 72~99쪽 • 한상완, 곽동철, 송승섭, 한상길(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도서관문화』, 42(6), 47~54쪽 • “북, 인민대학습당, 100여개국 국가와 교류,” 『오늘의 도서관』(2001. 9) • “북, 평양서 국제과학기술 도서전시회,” 『오늘의 도서관』(2001. 11) • “‘서울국제도서전’ 7일 코엑스서 개막”(동아일보, 2002) • 송승섭(2002), “북한자료의 수집과 관리,” 『국회도서관보』, 39(5), 57~84쪽 • “평양에 독일문화원 도서관 건립,” 『오늘의 도서관』(2003. 3) • “국가정보원, 북한도서 대출 확대,” 『오늘의 도서관』(2003. 7) • “북, 인민대학습당, 운영방식 현대화,” 『오늘의 도서관』(2003. 10) • “MBC느낌표 ‘평양도서관’ 찬반 논란”(동아일보, 2003) • 송승섭(2003), “북한의 관종별 도서관 현황과 특징,” 『국회도서관보』, 40(9), 56~71쪽 • “북평양에 독일문화원 정보센터 개원 예정,” 『오늘의 도서관』(2004. 5) • “신기남 의원, 남북정상회담 ‘北 우호적 분위기 느껴’”(노컷뉴스, 2005) • 송승섭(2005)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연구,”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60(2), 25~61쪽

■ 신문 및 잡지 기사를 통해서도 북한이 이 시기에 해외 100여개 국가와 교류하거나, 평양에서 국제과학기술 도서전시회를 연 사실이 확인되며(2001년), 2003년 독일문화원이 평양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4년 평양에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를 개관하였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음

○ “북, 인민대학습당, 100여개국 국가와 교류” 『오늘의 도서관』(2001. 9)

- 북한 최대의 종합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은 세계 100여개 국가의 1천여 개 도서관과 교류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죤이 7월 29일 보도
- 위성 중계된 중앙TV는 또 이곳의 관계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첨단과학기

술을 제 때에 각지로 전송하기 위한 업무와 함께 ‘근로자 통신대학’ 운영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

- 인민대학습당의 서가는 총 연장 길이가 260km나 된다면서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맞춰 강성부흥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천만 부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고 중앙TV는 전함
- 198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4.15)을 기해 개관된 인민대학습당은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총 건축면적 10만㎡에 10개동의 10층 한식 건물로 이뤄져있으며 하루 평균 8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음⁸⁸⁾

○ “북, 평양서 국제과학기술 도서전시회” 『오늘의 도서관』(2001. 11)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주최로 22일 평양시 인민대학습당에서 <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 개막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서전시회에는 3개 국제기구와 8개 국가에서 14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함
- 개막식에서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는 개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담은 도서가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가 도서 판매, 판권 계약 등을 통해 세계 각국과 도서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크리스틴 대상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표는 축하 연설을 통해 “앞으로 북과 남의 모든 과학도서관 관계자들이 매년 IFLA 총회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관련 단체와 교류·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힘
- 개막식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분야 간부, 과학자, 기술자, 각 대학 교원 등 북측 관계자들과 IFLA 대표단,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원 과학기술대중도서관 대표단, 중국 국제도서무역총공사 대표단, 북한 주재 각국 외교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⁸⁹⁾

○ “평양에 독일문화원 도서관 건립” 『오늘의 도서관』(2003. 3)

- 북한 평양에 시사적이고 검열도 거치지 않는 독일 신문과 잡지, 서적, 컴퓨터 등이 갖춰진 독일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함
- 서울에 있는 독일문화원이 북한 외교부 산하 국제문화교류위원회와 독일도서관 건립을 논의 중이며 이미 평양 시내에 있는 천리마 문화회관 3층에 독일문화원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함

88) <통일뉴스>(2001.07.30.), “북 인민대학습당, 100여개 국가와 교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6>(검색일: 2021년 9월 27일)

89) <NK chosun>(2001.10.23.), “北 평양서 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2>(검색일: 2021년 9월 27일)

- 독일 전국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지난 2월 5일 '시사적일 것, 검열은 없을 것'이라는 기사에서 독일도서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이용 보장을 조건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베 슈멜터 서울 독일문화원 원장의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도
 - FAZ는 북한 주민들에게 독일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이는 "작은 혁명에 버금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비록 언어적인 장애는 있겠지만 현재 독일 동향을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
 - 슈멜터 원장은 "북한은 무엇보다도 이 도서관이 학술 서적의 매개 장소가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에 반해 독일측은 역사, 현대사, 문화, 언어, 법 그리고 경제 관련 서적들도 제외될 수 없으며 독일의 최근 동향과 관련 정보 및 컴퓨터, CD-ROM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 FAZ는 평양 도서관 건립이 독일 외무부와 뮌헨의 독일문화원 본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기와 관련해 문화적 교류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⁹⁰⁾
- “북평양에 독일문화원 정보센터 개원 예정” 『오늘의 도서관』(2004. 5)
- 평양에 외국 문화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독일문화원 정보센터가 6월 3일 개원된다고 우베 슈멜터 주한 독일문화원장이 5월 14일 밝힘
 - 슈멜터 원장은 이날 서울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문화원이 2001년부터 북한과 문화 교류를 해온 데 이어 2002년 북한에 정보센터 설립 의사를 타진했다”며 “지난해 6월 정보센터 개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평양천리마문화궁전에 자리잡을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는 150m² 규모로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도서관임
 - 서적과 최신 미디어 4,500여점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2년 내 8,000점으로 확대할 계획임
 - 북한이 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 중심으로 정보센터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독일문화원은 자료의 절반 가량을 독일의 기술 및 자연과학, 학술 분야로 구성기로 결정
 - 정식 명칭은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독일기술 및 학술서적 중계소’임
 - 독일정부는 이번 정보센터의 자료 및 열람시설을 갖추는데 약 15만 유로(2억원)을 지원했음
- 북한 인민대학습당의 운영 방식이 2003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현대화되었다는 점도 국내

90) <프레스یان>(2003.02.06.), “평양에 독일문화원 도서관 건립,”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2560>(검색일: 2021년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북, 인민대학습당, 운영방식 현대화” 『오늘의 도서관』(2003. 10)

- 평양에 있는 북한 최대의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이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컴퓨터망을 이용해 운영방식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존이 10월 5일 보도
- 조선중앙텔레비존은 인민대학습당이 최근 북한 내부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업, 농업, 의학관련 기관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과학기술지식과 상식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또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에는 물자 교류 홈페이지와 기관, 기업소들의 홈페이지도 개설돼 있으며 "현재 여기에는 수십 개의 업소들이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고 신청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이외에도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에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조선컴퓨터센터, 발명국을 비롯한 다른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이 방송은 덧붙임
- 인민대학습당은 홈페이지 개설 외에도 전자우편을 이용해 성, 중앙기관과 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망을 이용해 도서 및 자료검색 체계도 현대화했다고 중앙TV는 전함
- 북한은 인터넷이 아닌 국가 범위의 인트라넷(Intranet)을 구축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⁹¹⁾

■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을 전후로, 북한 도서관 관련 기사를 통한 사회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국제도서전 7일 코엑스서 개막”(동아일보, 2002)⁹²⁾

- 이 도서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움’, ‘책으로 가는 평양’, ‘세계 속의 우리 문학’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전시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북한 도서 전시인 ‘책으로 가는 평양’에서는 중국의 연변문화사와 북한의 조선출판물수출입사가 『조선대백과사전』, 『리조실록』, 『조선말대사전』 등을 전시

○ “MBC느낌표 ‘평양도서관’ 찬반 논란”(동아일보, 2003)⁹³⁾

- ‘MBC 느낌표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 추진 중인 평양도서관 건립을 둘러싸고

91) <통일신문>(2003.10.13.), “인민대학습당, 운영방식 현대화,”
<https://www.unityinfo.co.kr/2427>(검색일: 2021년 9월 27일)

92) <동아일보>(2002.06.06.), “[책] ‘서울국제도서전 7일 코엑스서 개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606/7828316/1>(검색일: 2021년 9월 27일)

93) <동아일보>(2003.09.05.), “MBC느낌표 ‘평양도서관’ 찬반 논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30905/7980321/1?comm>(검색일: 2021년 9월 27일)

찬반 양론 보도

- “국가정보원, 북한도서 대출 확대” 『오늘의 도서관』(2003. 7)
 -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특수자료취급지침'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자체 보유한 북한 도서자료의 대출을 확대 실시한다고 7월23일 밝힘
 - 이로써 기존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이 명확하고 북한 분야에 관한 연구 및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1인당 10권까지 30일 동안 대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신기남 의원, 남북정상회담 ‘北 우호적 분위기 느껴’”(노컷뉴스, 2005)⁹⁴⁾
 -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방북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한 교류협력에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한 내용이 보도
- 그 외에도 북한전자도서관은 2005년 즈음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전자도서관’ 시범 서비스 시작⁹⁵⁾
 - 남북 교류가 사회 전반에 활성화되며, 비록 사이버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학술논문 6만여 편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는 내용 보도
 - 문화콘텐츠개발회사인 (주)코리아콘텐츠랩이 북한 학술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북한전자도서관’ 시범 서비스 시작
 - 전자책 형태로 북한의 신간 학술지를 남한에서 거의 시간 차 없이 열람 가능하게 됨
 - 북한 출판물 인터넷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

3) 2006년~2010년

-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남북한 도서관 관련하여, 제1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가 시작(2007년), 독일 경험을 통해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음
- 2007년 제1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다”는 독일문화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임
 - 컨퍼런스의 주제는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다”였

94) <노컷뉴스>(2005.12.05.), “신기남 의원, 남북정상회담 “北 우호적 분위기 느껴”,
<https://www.nocutnews.co.kr/news/104025>(검색일: 2021년 9월 27일)

95) 한국도서관협회(2005), 『한국도서관연감 2004년』, 199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고, 목적은 통일 경험을 가진 독일은 도서관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했으며, 실제 도서관 분야 통합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배움으로써 향후 남북한 도서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도서관 분야가 상호 협력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구체적 경험을 가진 비르거트 당커어트 교수(Prof. Birgit Dankert)가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협력에 대한 좋은 방안을 조언
- 또한 실제 남북한 도서관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정분희 통일부 통일사료관리 팀장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의 조왕근 전자정보팀장도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 분야의 남북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⁹⁶⁾

<표 3-4>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06~2010)

구분	목록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욱(2010), “남북한 도서관 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1)』, 37~78쪽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분희(2006),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163~194쪽 • 김정규(2006),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승섭(2007),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 동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397~413쪽 • 송승섭(2008), 『북한도서관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 이종문(2008), “북한 PUST 디지털도서관 모델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43~158쪽 • 이향은(2008), “북한자료 관리와 학술적 활용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선표(2008),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자료 지정기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신은정(2009), “새터민의 북한 군중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연구”(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우영, 전영선(2009), “북한자료 공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2(2), 62~97쪽 •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71~93쪽 • 김성욱(2010), “북한의 도서관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34), 133~154쪽
학술발표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2007. 4. 18~4. 19)

96) Dankert, Birgit(2007), “뜻하지 않은 경험: 협력, 동반자, 그리고 통합(Unforeseen Experiences: Cooperation, Partnership and Integration with Libraries and Librarians of the Former GDR and FRG),”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5~9쪽; 정분희(2007),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도전과 과제,”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10~12쪽; 조왕근(2007),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한양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13~21쪽 등

구분	목록
신문 및 잡지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장 신기남 의원 ‘문화·외교적 국위선양 기회 참가예정 북한 불참 아쉬워’”(중앙일보, 2006) • 책으로 만나는 남북문화유산, 『오늘의 도서관』(2006. 9) • 심효정(2006), “국내 최대 북한·통일 전문도서관,” 『도서관문화』, 47(1), 54-56쪽 • “김일성대 도서관 자료 가을께 인터넷으로 검색”(한국일보, 2007) • 김광진(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2~3쪽

- 이 시기 동안 북한 도서관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국내의 북한자료 이용 관련, 북한 도서관의 현황 및 법제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 편임
- 신문 및 잡지 기사를 통해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이 2007년부터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북한 도서 관련 전시 교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2006년)
 - “조직위원장 신기남 의원 ‘문화·외교적 국위선양 기회 참가예정 북한 불참 아쉬워’”⁹⁷⁾
 - 책으로 만나는 남북문화유산 『오늘의 도서관』(2006. 9)
 -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유적유물도감』 등 북한 문화재 관련 서적과 국내 문화재를 다룬 도서 등 6,000여 점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있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동식)은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남북문화재 도서전’을 개최하고 있음
 - 북한 서적으로는 북한판 『조선왕조실록』(전 400권)과 북한 유적을 총망라한 『조선유적유물도감』(전 20권), 『조선의 회화』, 『조선미술박물관』, 북한판 『악학궤범』, 『승정원일기』 등을 볼 수 있음⁹⁸⁾
 - “김일성대 도서관 자료 가을께 인터넷으로 검색”⁹⁹⁾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은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모색’ 세미나에서 “(2007년) 5월 중 김일성대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자료중 디지털화한 자료 4,000점을 넘겨받아 이르면 (2007년) 9월께 김일성대 도서관 전용검색사이트를 열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힘

97) <중앙일보>(2006.08.15.), “조직위원장 신기남 의원 ‘문화·외교적 국위선양 기회 참가예정 북한 불참 아쉬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8931#home>(검색일: 2021년 9월 28일)

98) <서울신문>(2006.08.17.), “책으로 만나는 남북문화유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17022009>(검색일: 2021년 9월 28일)

99) <한국일보>(2007.04.18.), “김일성대 도서관 자료 가을께 인터넷으로 검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704182387037477>(검색일: 2021년 9월 28일)

4) 2011년~2015년

- 2011년 이후 2015년까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계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 북한 전자도서관, 북한 자료의 디지털화 관련 학술 연구와 세미나가 주를 이루었음

〈표 3-5〉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목록(2011~2015)

구분	목록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연경(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승섭(2011), 『북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한국학술정보(주)) • 송승섭(2012), “디지털화로 넘어 선 북한자료의 한계,” 『톡톡 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121~133쪽 • 송승섭(2013),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과 발전 가능성,” 『디지털도서관』(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72), 3~18쪽 • 송승섭, 정중기(2014),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37~256쪽 • 송승섭, 정중기(2014), “북한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인문학논총』(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6), 295~312쪽
학술발표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도서관 국가도서관 정책세미나 개최(2013. 6. 28)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 한독 국제심포지움 개최(2014. 10. 15) •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2014)
신문 및 잡지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SBS, 2011) • 송승섭(2014), “통일의 인문학! 도서관계의 남북교류를 희망한다!,” 『도서관문화』, 55(9), 2~3쪽

■ 학술발표 및 세미나

- 국회도서관 국가도서관 정책세미나 개최(2013. 6. 28)
 - 도서관의 미래와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상호협약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대표하는 3부 국가도서관 정책세미나를 개최
 - 이 행사에 참석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국회도서관이 입법부를 대표하여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
 - 이에 국회도서관은 이병석 부의장의 의지에 부응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국회도서관법」 개정에 필요한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¹⁰⁰⁾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 한독 국제심포지움 개최(2014. 10. 15)

100) 한국도서관협회(2014), 『한국도서관연감 2013년』, 159쪽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8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 도서관 간 협력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의 진행으로 독일 훔볼트대학교 명예교수인 크라우스 G. 자우어 박사가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이라는 주제 발표
 - 탈북장애인보호협회 김선희 사무국장의 “북한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주한독일문화원도서관 안드레아 바흐 관장의 “평양의 도서관-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송승섭 센터장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과 준비” 발표가 이어짐
 - 이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국·공립 도서관들이 통합된 그 일련의 과정과 현 북한 도서관의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됨
 - 또한 통일 후 남북한 도서관의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남북한 도서관 간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남북한 도서관 통합 관련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¹⁰¹⁾
-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2014)
- 송승섭(2014),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과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 방향”
 -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 방향을 고찰
 - 이를 위해 먼저, 김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의 전자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후, 북한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남북한 도서관 간의 협력 방향 제시¹⁰²⁾
 - 김기현(2014),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음
 - 이 발표는 남북 저작권 교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의 발표임¹⁰³⁾

101) 한국도서관협회(2015), 『한국도서관연감 2014년』, 145~146쪽

102) 송승섭(2014),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과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 방향.”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 259~269쪽

103) 김기현(2014),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 270~289쪽

- 국정원이 2011년 국내의 북한자료 취급 관련, 보안대책을 강화한 내용도 보도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¹⁰⁴⁾
 - 국가정보원이 디지털 콘텐츠 등 북한에서 제작한 특수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해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보도
 - 특수자료는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간행물이나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CD나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해 발행한 정치적, 이념적 자료 등을 말한다고 언급

5) 2016년~2021년

-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2016년 이후에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학술 연구, 세미나, 기사 등이 교류 확인됨

〈표 3-6〉 국내 남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및 보도자료 목록(2016~2021)

구분	목록
연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승섭(2016), “북한 국가도서관의 발전과정과 그 양상,” 『인문과학논총』(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7(1), 479~504쪽 •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17~340쪽 • 송승섭(2018),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전자도서관의 협력 가능성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9(3), 131~160쪽 • Song, Yoo-Seong(2019), “A glimpse into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in North Korea,”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80(2), 82~86쪽
학술발표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금선(2017), “북한의 IT 산업과 전자도서관 현황,”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지방정부학회), 1~20쪽 • 2020 도서관정책포럼(2차) 개최(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11.10.)¹⁰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록스(2020), 통일시대를 위한 도서관의 준비 - 조현성(2020), “21세기의 통일인식과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 송승섭(2020), “도서관계의 남북 교류, 과거, 현재, 미래” - 정진근(2020).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104) <SBS NEWS>(2011.09.23.), “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93075(검색일: 2021년 9월 28일)

구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남북한 도서관정책포럼 개최(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9. 30)¹⁰⁶⁾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한독일문화원, 한국도서관협회는 시대적 과제인 통일에 대한 도서관계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우영(2021), “통일, 가까운 미래, 한민족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¹⁰⁷⁾ -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¹⁰⁸⁾ - 마틴 홀렌더, 다니엘라 뢰핑(2021), “통일이후 독일도서관의 통합과 발전: 베를린 주립도서관에서의 경험”¹⁰⁹⁾
신문 및 잡지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집) “통일시대의 도서관,” 『월간 국회도서관』(2017년 06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승섭(2017), “통일시대의 도서관! 통일한국의 국가사료관을 세우자!”¹¹⁰⁾ - 전영선(2017), “통일준비와 도서관의 역할”¹¹¹⁾ - 김경희(2017),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는 문화와 도서관 통합과정”¹¹²⁾ • <신기남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남북한 도서관 교류, 미래 준비하겠다’>(아주경제, 2020) ¹¹³⁾ •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 출범... ‘우리삶 바꾸는 도서관 만들 것’>(부산일보, 2020)¹¹⁴⁾ •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북한에 있습니다>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 인민대학습당(오마이뉴스, 2019)¹¹⁵⁾ • 김면(2018),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문화교류와 시사점,” 『웹진 문화관광』

105)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주한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는 통일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남북도서관계 교류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포럼 개최

106)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한독일문화원, 한국도서관협회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개최

107) 이우영(2021), “통일, 가까운 미래, 한민족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

108)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109) 마틴 홀렌더·다니엘라 뢰핑(2021), “통일이후 독일도서관의 통합과 발전: 베를린 주립도서관에서의 경험”

110) 송승섭(2017), “통일시대의 도서관! 통일한국의 국가사료관을 세우자!,” 『국회도서관보』, (2017년 06월호), 6~13쪽

111) 전영선(2017), “통일준비와 도서관의 역할,” 『월간 국회도서관』, (2017년 06월호), 14~21쪽

112) 김경희(2017),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는 문화와 도서관 통합과정,” 『월간 국회도서관』, (2017년 06월호), 22~28쪽

113) <아주경제>(2020.05.19.), “신기남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남북한 도서관 교류, 미래 준비하겠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9172056850>(검색일: 2021년 9월 28일)

114) <부산일보>(2020.05.19.),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 출범... ‘우리삶 바꾸는 도서관 만들 것’”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1915161958020>(검색일: 2021년 9월 28일)

115) <오마이뉴스>(2019.11.08.),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북한에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086(검색일: 2021년 9월 28일)

4. 남북 도서관 교류 기존 제안사업 분류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국립중앙도서관)을 들 수 있음
- 연구에서는 통일이전 ‘협력 단계’와 통일 이후의 ‘통합 단계’로 구분함¹¹⁶⁾
 - 통일 이전 협력 단계에서는 2015년 도서관 부문이 명시된 남북한 문화 협정 체결의 전제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남북한 도서관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6개 부문의 16개 대응 전략이 있음
 - ①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부문(3개 전략)
 - 국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5~2016)
 - 국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2017~2018)
 -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2018)
 - ②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부문(2개 전략)
 -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2015~)
 -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2015~)
 - ③ 남북한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부문(4개 전략)
 -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2015~)
 -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2015~)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2015~2016)
 - 북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 추진(2017~)
 - ④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부문(2개 전략)
 -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2015~)
 -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2017~)
 - ⑤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부문(2개 전략)
 - 북한 소장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2017~)
 -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2017~)
 - ⑥ 제도 및 정책(3개 전략)

116)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93쪽, 108쪽

- 남북한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 교류 협정 체결(2015~2017)
- 남북한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 운영(2015~)
- 남북한 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 정보정책 명문화(2015~)

〈표 3-7〉 2014년 선행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교류협력 전략(협력단계)

추진 전략			단기				중장기 2019
			1차		2차		
			2015	2016	2017	2018	
남한내 협력 기반 조성	북한 도서관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화	국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	■	■			
		국의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			■	■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도서관 통일 교육 및 서비스 개발	사서 대상 통일 교육 실시	■	■	■	■	■
		이용자 대상 통일 도서관 프로그램 계획	■	■	■	■	■
남북한 신뢰 구축 및 협력 추진	남북한 도서관 교류 채널 다각화	국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 교류	■	■	■	■	■
		제3국을 통한 북한 도서관계와의 교류	■	■	■	■	■
		국립중앙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 협정 체결	■	■			
		북한 사서 대상 전문 교육 추진			■	■	■
	북한 도서관 지원 강화	북한 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	■	■	■	■	■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지원 사업			■	■	■
	남북 국가도서관 공동 사업 추진	북한 소장 자료 공동조사 및 복원 사업			■	■	■
국가도서관 표준화 사업				■	■	■	
제도 및 정책 정비	남북한 도서관 서지정보 및 자료 교류 협정 체결		■	■	■		
	남북한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준비 및 설립 운영		■	■	■	■	■
	남북한 도서관 협력을 위한 도서관 정보정책 명문화		■	■	■	■	■

자료: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93쪽

- 통일 이후 통합 단계에서는 한반도 도서관계 통합을 선도하는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가칭)’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표로 8개 부문의 31개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음
- ① 조직 및 인력 부문(3개 전략)
 -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통합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1차년도~)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1~3차년도)
- 인력 재배치(1~3차년도)
- ② 장서개발 부문(6개 전략)
 -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1~2차년도)
 - 남북 국가도서관 선정도서리스트 및 서평자료 발간(2차년도)
 -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관련 장서 이관(2~3차년도)
 - 고전적 및 아카이브 수집(2~3차년도)
 - 평양분관의 장서 확충 사업 추진(2~5차년도)
 - 국내외 출판 자료의 수집 역할 분담 및 상호 교환(1차년도~)
- ③ 국가서지 표준화 부문(6개 전략)
 - 한반도 국가서지 작성(1차년도~)
 -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1~2차년도)
 -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1~2차년도)
 - 디지털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2~3차년도)
 - 서지도구의 통합판을 적용한 데이터 구축(3차년도~)
 - 남북한 도서관 통합 시소러스 및 전거데이터 협력 작성(3차년도~)
- ④ 전산화 부문(5개 전략)
 - 기간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1~2차년도)
 -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2~4차년도)
 -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4~5차년도)
 - 도서관 협력망 구성(4~5차년도)
 - 디지털화 자료선정 및 구축(4차년도~)
- ⑤ 정보서비스 부문(2개 전략)
 -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2차년도~)
 - 통일 안정화를 위한 정책관련 서비스 활성화(2차년도~)
- ⑥ 건축 및 리모델링 부문(2개 전략)
 - 건물 리모델링(1차년도~)
 - 건물 신축(4차년도~)
- ⑦ 내적 통합 부문(2개 전략)
 - 순환근무제 실시(2차년도~)

- 직원 대상 워크숍 실시(2차년도~)
- ⑧ 제도 및 정책 정비(5개 전략)
 -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1~5차년도)
 - 도서관 법제 정비(1~5차년도)
 - 한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 정비(1~5차년도)
 - 인력제도 정비(1~5차년도)
 -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차년도~)

〈표 3-8〉 2014년 선행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교류협력 전략(통합단계)

추진 전략		단기					중장기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조직 및 인력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통합을 위한 TF팀 설치,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	■	■	■	■	■
	조직 구조 개편 및 업무 통폐합	■	■	■			
	인력 재배치	■	■	■			
장서 개발	한반도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	■				
	남북 국가도서관 선정도서리스트 및 서평자료 발간		■				
	주체장서 등 이데올로기 관련 장서 이관		■	■			
	고전적 및 아카이브 수집		■	■			
	평양분관의 장서 확충 사업 추진		■	■	■	■	
	국내외 출판 자료의 수집 역할 분담 및 상호 교환	■	■	■	■	■	■
국가 서지 표준화	한반도 국가서지 작성	■	■	■	■	■	■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판 개발	■	■				
	한국목록규칙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남북한 통합판 개발	■	■				
	디지털자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적용		■	■			
	서지도구의 통합판을 적용한 데이터 구축			■	■	■	■
	남북한 도서관 통합 시소र्स 및 전자데이터 협력 작성			■	■	■	■
전산화	기간시설 구축 및 컴퓨터 보급	■	■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	■	■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	
	도서관 협력망 구성				■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추진 전략		단기					중장기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정보 서비스	디지털화 자료선정 및 구축				■	■	■
	한반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		■	■	■	■	■
	통일 안정화를 위한 정책관련 서비스 활성화		■	■	■	■	■
건축 및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	■	■	■	■	■
	건물 신축				■	■	■
내적 통합	순환근무제 실시		■	■	■	■	■
	직원 대상 워크샵 실시		■	■	■	■	■
제도 및 정책 정비	한반도 도서관 통합 기구 설치	■	■	■	■	■	
	도서관 법제 정비	■	■	■	■	■	
	한반도 도서관 운영 체계 정비	■	■	■	■	■	
	인력제도 정비	■	■	■	■	■	
	한반도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자료: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108쪽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관련 기존 연구와 독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음¹¹⁷⁾

-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출판물의 교환을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특수자료(북한자료)의 이용 확대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제도 및 정책적 고려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117) 부록 1 참조

제2절 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

1. 북한 도서관 관련 법적 체계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 「북한 도서관법」 경과

- 1998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7호로 채택하였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 수정보충하였고, 다시 2012년에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8호로 수정보충함
- 북한 도서관법은 5장 58조로 구성됨
 - 구성 체계는 ‘제1장 도서관의 기본’,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제3장 출판물의 수집’,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제5장 도서관봉사’,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임

■ 도서관법의 사명(제1조)

- 도서관법의 사명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함

■ 도서관과 출판물의 개념(제2조)

-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다.”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출판물에는 도서와 같은 자료, 전자출판물이 있음

■ 도서관 조직, 운영 원칙(제3조, 제4조, 제5조)

- 도서관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 규정
- 도서관 운영의 기본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
 -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규정
 - 도서관은 출판물 장서를 늘려서 도서관 이용자의 출판물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이때 국가는

장서의 보존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도서관 봉사 원칙(제6조)

- 도서관 봉사를 바로 하는 것은 “사회적 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 담보”로 국가는 “도서관 봉사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이 도서관을 널리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도서관 분야의 교류와 협조(제7조)

- 국가는 “도서관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도서관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규정함

■ 도서관 조직, 운영(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중앙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도서관을 내야 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해야 함
 - 도서관의 설립은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리용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해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도서관을 만드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중앙도서관 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유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음

■ 도서관일군, 도서관전문가(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도서관일군’에는 도서관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으로 구분
 - 도서관일군의 자격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
 - 도서관전문가 양성은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전망성있게 양성해야 함
-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 운영(제15조)

-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규정
-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 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함

■ 출판물의 수집과 상호 교환 및 수집(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 운영의 기본적 사항으로 “여러 방법으로 출판물을 수집하여 정리”하도록 규정
 - 출판물 수집 계획은 ‘장서 편성 기준표’에 맞추어 진행하며,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공급하는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함
 - 출판물은 주문예약, 기증, 납본, 구매, 복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함
- 출판물은 북한 내의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과 상호 교환을 통해 수집할 수 있음
 - 이때에는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자출판물의 수집과 등록, DB구축(제22조, 제23조, 제24조)

- 전자출판물의 수집은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하며,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컴퓨터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자료기지(DB)의 구축(제24조)

-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DB)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중앙도서관 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해야 함

■ 도서관 봉사(제35조)

- 도서관 봉사와 관련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 이용자의 학습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꾸려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함

■ 통신대출, 이동문고(제40조)

-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 것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함
- 통신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부담”하도록 함
 - 열람, 대출을 요구한 출판물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과 상호 교환을 통한 대출이나 국제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국제대출의 경우에는 정해진 도서관이 할 수 있음

■ 도서관 사업 관리(제52조, 제53조, 제54조)

- 도서관사업의 관리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동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제52조)고 규정함
 -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으로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해당기관”으로함(제53조)
 -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동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함(제54조)

2) 기타 법제와 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의 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6호로 채택되었고, 2015년 12월 23일에 수정보충됨
- 법의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과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는 데 이바지”하는 것(제1조)
- 제27조 ‘고등교육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 조항에 도서관 설치 규정이 있음
 - 고등교육기관은 도서관, 출판사, 실습장, 박물관, 연구소, 중간시험공장, 인쇄실, 부속학교 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두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의 ‘학생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로 채택되었고, 2013년 9월 12일, 2015년 12월 23일 수정보충됨
- 이 법은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에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으로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해당한다고 규정
- 제4조 ‘교육교양조건의 보장원칙’에서 “국가는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학생도서관, 소년단야영소, 유치원 같은 교육교양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의 도서 보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 책임’의 제57조에 도서 보장을 규정
 -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도서, 교수용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의 교육도서, 교육물 보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은 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3호로 채택한 법으로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교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이”(제1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제46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의 제38조에 ‘교육도서, 교육물 보장’을 규정
 -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학년도를 계기로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육도서와 각종 교육물의 수요와 리용실태를 료해¹¹⁸⁾한 데 따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11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2021), 북한말 료해=남한말 이해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결과,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되었고, 2005년 12월 13일, 2007년 12월 11일, 2013년 9월 12일, 2015년 12월 23일 수정보충됨
-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인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 제20조에서는 “과학기술전당,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등을 사회교육기관으로 규정
-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교육용 녹화물)¹¹⁹⁾의 보장’ 조항에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 같은 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출판물 구비 조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시설과 관련하여 도서관과 관련한 조항은 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출판물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의 전자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제4장 ‘컴퓨터망정보봉사’ 제27조에 “컴퓨터망봉사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실시간대화, 전자도서관, 원격교육봉사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
- 컴퓨터망 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해야한다”고 규정(제27조)

3) 북한 법체계와 도서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의 연구 사업 및 체육정보 사업

- 체육과학의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을 규정
 -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 사업조건을 마

119)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어 띄어쓰기법이 다름

련해 주어야 한다”(제38조)

-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수집한 체육정보를 체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제3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의 점자도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에서는 점자와 수화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자매체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제23조)
 -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제2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저작권 예외 조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로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를 명시(제3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의 기밀도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제2조에는 기밀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공개할수 없는 중요사실과 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록음물, 록화물, 유원성자기원판, 생산품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
- 해당 기관에서는 기밀대상을 등록하고, ‘절대비밀’, ‘비밀’, ‘기관인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을 규정
-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출판, 인쇄, 배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포 단위와 부수를 등록”하고, 기밀에 속하는 도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규정(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의 도서 빌리기 계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 관계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를 규정한 법으로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호로 채택되었고, 1993년 9월 23일, 1999년 3월 24일, 2007년 3월 20일에 수정보충됨
-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77조 ‘빌리기계약의 체결’에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
 -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이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는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제178조)

- “국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제17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도서의 상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32조에서는 상속할 수 있는 재산으로 ‘도서’를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의 재산침해 대상으로서 도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제32조에서는 재산침해 보상 규정에 ‘도서’를 포함
 - “상품, 비품, 도서, 농토산물, 집짐승 같은 재산을 침해한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은 재산이 침해되기 전의 소매 또는 구매가격, 판매실현이 가능했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고정재산으로 도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제14조에 ‘도서’를 고정재산으로 분류
 - 사회주의 재산에서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자연부원, 고정재산(고정자산), 류동재산(유동자산)으로 구분하였는데, 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은 자연부원으로, 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설비, 비품, 설계도면, 도서, 문예작품 등은 고정재산으로, 원료, 자재, 미성품, 반제품, 상품, 귀금속, 화폐는 류동재산으로 분류함

4) 불법 도서 처벌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퇴폐문화반입 및 유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83조에 ‘퇴폐문화반입 및 유포’와 관련하여 도서를 포함하여 처벌 규정
 -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유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
-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서는 퇴폐적인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를 보고 들은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퇴폐적인 도서 단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제22조에 ‘퇴폐적인 사상문화류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류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활영기, 반도체라디오, 반도체라디오가 달린 녹음기의 등록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2. 북한 도서관의 기능

1) 인테리화 거점

■ 온 사회의 인테리화

- 북한의 인테리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을 모두 인테리화하여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
 -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¹²⁰⁾

■ 이동도서열람실 활성화

-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건설현장 등에서도 독서 권장

120)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13쪽

-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독서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언제인가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이동도서열람실>이라는 류다른¹²¹⁾ 간판을 보게 되었다. 여러 려단¹²²⁾에서 리용하고 있는 이 열람실들에는 작업도중이나 쉴 참에 책을 볼 수 있게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그 열람실들을 리용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 정말 좋다고 하던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작업의 쉴 참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시간을 아껴가며 학습에 열중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을 방불케 하였다.”¹²³⁾
-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에 대한 이동열람봉사사업도 잘하여나가겠다.”¹²⁴⁾

■ 책임기 기풍

○ 인재중시 정책과 맞물려 전국민적 독서 강조

-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책임기를 장려하고 있다. 책은 인류가 문명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도록 이끄는 안내자이며 추동자이다. 과학과 기술의 힘이 아무리 위력하다고 해도 그 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생산력을 종전보다 몇 십, 몇 백배로 끌어올린다면 그 기계설비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며 다루는 사람의 지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걸음길과 공원,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를 비롯한 곳곳에서 각 계층 사람들이 책을 탐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고상한 문화정서적풍경에는 전민학습의 열풍속에 전진하고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오늘과 더욱 창창할 래일(내일)이 비껴있다.”¹²⁵⁾

○ 종이도서와 독서기풍

- 전자도서들이 보급되고 있지만 독서에서는 종이도서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자도서와 종이도서의 조화로운 결합을 강조
- “최근시기 사람들이 전자도서를 많이 리용하면서 종이도서는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종이도서의 발행을 중지하고 전자도서편찬으로 이행하였다. 그로 하여 종이도서를 보는데 습관 된 사람들의 독서열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종이도서의 문화적

121) 원형은 류다르다, ‘무엇이 어느것과 두드러지게 특별히 다르다’는 뜻의 북한어

자료: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122) ‘여러개의 대대로 편성되는 군사적 연합부대’ 라는 뜻의 북한어

자료: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123) <로동신문>(2020.1.23.) “우리 생활과 독서기풍.”

124) 도서관일군(2016), “미래원관리운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7쪽

125) <로동신문>(2020.04.21.), “책임기와 인류문명의 발전.”

정서를 전자도서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이도서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된 여러 나라에서 풍치 좋은 곳이나 조용한 곳에 종이도서가 들어찬 특색 있는 책장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종이도서들로 도서관들을 다시 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가고 있다. 종이도서와 전자도서의 우점을 살려 인류의 귀중한 문화전통의 하나인 책읽기를 장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¹²⁶⁾



자료: <로동신문>(2021.08.11.), 전자도서를 이용한 학습

[그림 3-1] 북한의 전자도서 이용 학습 자료사진

2) 군중문화사업 기지

■ 군중문화사업

○ 군중문화 사업을 위한 토대로서 도서실을 구축

- “군중문화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시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라지오(라디오)와 유선방송 시설을 정비확장하여 노동자들이 라지오와 유선방송을 정상적으로 청취
- 할수 있게 하며 구락부와 도서실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집합장소들에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을 비치하여놓고

126) <로동신문>(2020.04.21.), “책읽기와 인류문명의 발전.”

누구나 다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독자들이 그것을 빌려다 집에 가지고가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²⁷⁾

○ 인민문화선전 사업으로서 도서 출판과 보급

- “자연과 사회발전의 법칙을 통속적으로 해설한 도서를 많이 출판하여 근로자들 속에 널리 보급하여야 합니다. 문화선전성에서는 과학서적을 많이 출판하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¹²⁸⁾



자료: <로동신문>(2021.5.29.), 화선식도서해설 선전사업

[그림 3-2] 북한의 인민문화선전사업 자료사진

3) 반제교양사업 거점

■ 반제교양사업 거점으로서 도서관

- 북한 도서관의 기능은 지식보급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정치교양으로 반제 교양사업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
 - “우리는 이렇게 하여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반일투쟁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매 시기의 대표적 작품들을 다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

127) 조선로동당출판사(1979), 『김일성저작집3(1947.1~1947.12)』, 442쪽;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1947년 9월 16일)

128)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김일성저작집5(1949.1~1950.6)』, 154쪽;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49년 7월 18일)

다. 앞으로 이런 책들을 출판하여 도서관들에게도 비치하고 책방들에서도 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여러가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¹²⁹⁾



자료: <로동신문>(2021.8.26.), 화선식도서해설 선전사업

[그림 3-3] 북한의 반제교양사업 자료사진

4) 과학기술보급기지

■ 과학기술 발전과 도서보급

- 김일성은 과학기술 분야가 뒤떨어져 있다고 인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외국의 과학기술 도서의 번역을 강조
 - “우리는 아직도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발전된 나라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책을 덮어놓고 못보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도서들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좋은 책들을 번역출판하여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책들을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¹³⁰⁾

129)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김일성저작집25(1970.1~1970.12)』, 29쪽;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0년 2월 17일)

130)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김일성저작집25(1970.1~1970.12)』, 34쪽;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0년 2월 17일)

5) 원격교육 전당

■ 도서관 프로그램

- 과학기술 보급을 중심으로 월별, 주별로 열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과학기술 통보강의를 비롯하여 외국어 강습, 원격강의 등을 진행
 - “월별, 주별 과학기술통보강의, 외국어강습, 원격강의를 비롯한 강의, 강습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더욱더 많은 근로자들을 참가시킴으로써 누구나 최신과학기술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풍이 군안에 차고넘치도록 하겠다.”¹³¹⁾

■ 도서관을 통한 원격 교육

- 지역 거점의 도서관을 과학기술보급실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편리한 학습조건이 마련되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첫 원격교육대학졸업생들이 나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생활력이 과시되게 되었다.”¹³²⁾
 - “모든 시, 군도서관들은 당 제7차대회전까지 과학기술보급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그리고 원격강의와 컴퓨터강의를 비롯한 과학기술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지역내 근로자들이 도서관의 덕을 실지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³³⁾

131)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겠다.”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년 제1호, 6쪽

132) 도서관일군(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도서관사업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도서관 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2쪽

133) 도서관일군(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도서관사업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도서관 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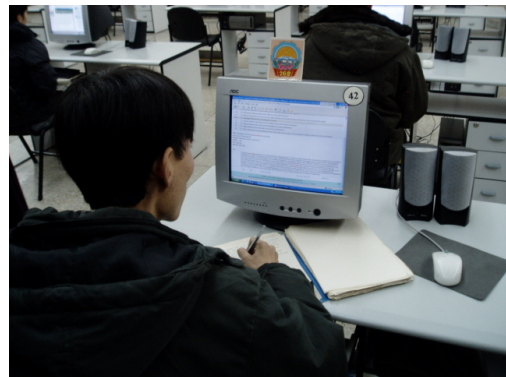
3. 평양과 지역 도서관 현황

1) 평양

■ 인민대학습당의 위상

○ 인테리화의 거점

- “인민대학습당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최신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의 중심기지이다”¹³⁴⁾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소장 자료 활용

[그림 3-4] 북한 인민대학습당 내·외부 자료사진

134)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13쪽

■ 인민대학습당 조직

- 김일성광장에 1982년 개관했으며, 1일 수용능력은 12,000명 정도
- 인민대학습당은 총장, 부총장(10명 내외) 및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인민대학습당의 관련 부서는 ‘과학연구봉사실’, ‘기증도서편성실’, ‘독자접수실’, ‘접수안내실’, ‘국제교류처’ 등이 있음

■ 인민대학습당 보존 고문서 세계문화유산 등록

- 인민대학습당은 2017년 보관하고 있던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 신청하였음
 - “인민대학습당은 『무예도보통지』가 현재 세계 120여개 나라에 보급된 태권도의 원류인 조선의 전통무도 택견의 동작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였다는데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고 세계 기록유산등록을 신청하였다. 조선력사학회 조희승 위원장은 <태권도는 고대시기 형성된 민족무술에 토대하여 나온 고구려의 수박에 사원을 두고 있다. 고구려시기 무덤벽화에도 무도장면의 그림은 있다. 그런데 조선봉건왕조 때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는 태권도의 원류인 택견에 관한 설명글과 함께 매우 과학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의 전통무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 민족고전의 내용을 컴퓨터로 력학적으로 해석한다면 현대의 태권도 발전에도 이바지할 자료로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¹³⁵⁾
 - “『무예도보통지』는 현재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어 있다. 등록신청 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민대학습당 강일순 강사는 <우리가 보존, 관리하는 옛 무술도서가 인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무예도보통지』의 세계기록유산등록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변>이라고 말한다.”¹³⁶⁾
 - “현재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무예도보통지』는 김일성 주석님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에 의하여 주체41(1952)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발굴되게 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당시)에 기증되게 되었다”¹³⁷⁾

135) <조선신보>(2017.11.24.),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인류의 보물고에 등록된 옛 무술도서,”

136) <조선신보>(2017.11.24.),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인류의 보물고에 등록된 옛 무술도서,”

137) <조선신보>(2017.11.24.),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인류의 보물고에 등록된 옛 무술도서,”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 소장 자료 활용

[그림 3-5] 북한 인민대학습당 고전자료실 자료사진

■ 이밖에 주요도서관은 다음과 같음

- 과학원도서관: 1952년 12월 1일 국가과학원과 함께 평양에 설립
- 사회과학원도서관: 1964년 2월 14일 국가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을 분리하면서 같이 분리된 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
-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1946년 설립되었고, 1970년 과학도서관으로 명칭이 개편됨
- 김책공대도서관: 김일성대학에서 분리된 과학기술 전공대학으로, 1992년 9층 건물로 재개관하고, 2006년 전자도서관 개관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도서관: 2013년 7월 19일 준공식 진행. 전자열람실과 다매체열람실,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을 비롯하여 최첨단 과학기술 지식습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 과학기술전당: 2016년 1월 1일 준공식 진행
 - 과학과 관련된 전자도서관, 체험관 등을 갖춘 과학기술 종합서비스센터로 원자구조 모양의 형태임
 - 기초과학관, 응용과학기술관, 첨단과학기술관, 과학기술발전역사관, 어린이꿈관(아동열람실, 과학활동무대, 지혜의 샘 구역, 지능계발교실 구역, 과학의 동산 구역, 자연탐험 구역 등), 전자열람실, 과학탐구관 등으로 이루어짐(과학기술전당은 뒤에서 자세히 다룸)
- 평양철도종합대학 전자도서관: 2016년 9월 13일 준공식 진행.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종합강의실, 외국어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됨

2) 지역

■ 지역도서관 현황

- 행정구역의 도·시·군 단위에 **군중도서관**¹³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문헌에서는 전자도서관 혹은 미래원이 많은데, 지역별(도, 시, 군)로 도서관이 개관(리모델링)했다는 기사를 보면, 전국 군중도서관이 여전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건립 및 리모델링한 도서관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 2월 함경북도도서관: 1층에는 컴퓨터학습실, 다매체열람실, 전자열람홀, 원격강의실, 목록검색홀, 정보봉사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서고들, 종합강의실, 도서열람홀, 학습실이 있다고 소개
 - 4월 평안남도도서관: 도서열람실,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목록검색홀, 종합강의실, 외국어 학습실 등이 꾸려져 있고, 수천 명 수용능력을 가진 도서관
- 2013년
 - 8월 대흥단군도서관: 2층으로 된 도서관으로 도서 목록실, 일반 열람실, 신문잡지 열람실, 컴퓨터자료 열람실, 서고 등이 있음
 - 8월 함경남도도서관: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진 도서 열람실과 강의실들, 목록 검색실, 봉사실, 대출실, 서고 등이 있고, 컴퓨터, 투영기를 비롯한 설비와 비품 구비
- 2014년
 - 5월 룡강군도서관: 3층으로 된 도서관으로 컴퓨터 학습, 전자도서열람, 다매체편집물열람도 할 수 있게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었고, 새로 개설된 <룡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민대학 습당의 전자도서들도 열람할 수 있고 원격강의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광산군 도서관
- 2015년
 - 1월 자강도도서관: 컴퓨터 강의실, 전자열람실 구축
 - 6월 함흥의학대학 도서관: 전자열람실, 다매체열람실, 외국어시청각실,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 국문도서 열람실, 참고서 열람실 등 10여개의 주요기능실과 6개의 보장기능실 등이 갖추어짐
 - 9월 김정숙사범대학 도서관: 9월 5일 개건, 27개의 강의실 및 300여개 비품 구비

138) 북한의 군중도서관은 남한의 공공도서관 격임

- 2016년
 - 청진광산금속대 도서관
- 2018년
 - 12월 함경남도 과학기술도서관: 12월 30일 현지에서 개관식 진행. 여러 가지 열람봉사와 문답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전자도서관으로서, 도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자체 자료기지(DB)와 과학기술전당의 자료기지에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의 과학기술보급 거점

3) 체육도서관

■ 체육중시정책과 체육과학도서관

- 201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축구 강국 건설’을 노동당의 발전 목표로 제시
 - 축구 강국은 김정일이 “축구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체육종목입니다.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내일 수 있습니다.”는 말을 기본으로 축구 발전을 강조
 - “선군조국을 축구의 나라, 축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두 다 당의 부름에 애국의 한마음 다 바쳐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구강국 건설의 장엄한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고 강조¹³⁹⁾

■ 체육과학도서관

- 2010년 연말에 개관한 체육전문도서관
 - 2층 건물로 1층에는 도서 열람실과 종목별 정보연구실이 있고, 2층에는 전자 도서열람실과 컴퓨터실로 구성
- 1층 도서 열람실과 종목별 정보연구실 개요
 - 자료 내용: 체육과 관련한 도서와 신문, 잡지, 번역자료, 종목별 경기 녹화 자료
 - 이용 방법: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 검색을 진행한 다음 필요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 가능
- 2층 전자 도서열람실, 컴퓨터실 개요

139) <로동신문>(2011.01.16.), “(사설) 축구강국을 향하여”

- 전자도서 열람실: 종목별 경기규정, 종목별 국제경기, 최신 체육과학 기술자료, 세계적인 감독, 선수 자료를 포함한 전자도서, 영상자료

4. 시기별 도서관 및 도서 정책

1) 김일성, 김정일 시기

(1) 김일성 시기

■ 군중문화사업사업을 위한 토대로서 도서실 구축

- “군중문화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시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라디오와 유선방송 시설을 정비확장하여 노동자들이 라디오와 유선방송을 정상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하며 구락부와 도서실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집합장소들에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을 비치하여놓고 누구나 다 리용할수 있게 하며 독자들이 그것을 빌려다 집에 가지고가서도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⁴⁰⁾
- 인민문화선전 사업으로서 도서 출판과 보급
- “자연과 사회발전의 법칙을 통속적으로 해설한 도서를 많이 출판하여 근로자들속에 널리 보급하여야 합니다. 문화선전성에서는 과학서적을 많이 출판하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¹⁴¹⁾

■ 반제교양사업 거점으로서 도서관

- “우리는 이렇게 하여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반일투쟁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매 시기의 대표적작품들을 다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책들을 출판하여 도서관들에도 비치하고 책방들에서도 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이 여러가지 책을 많이 읽을수 있습니다”¹⁴²⁾

140) 조선로동당출판사(1979), 『김일성저작집3(1947.1~1947.12)』, 442쪽;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1947년 9월 16일)

141)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김일성저작집5(1949.1~1950.6)』, 154쪽;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49년 7월 18일)

■ 과학기술 발전과 도서보급

- “우리는 아직도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발전된 나라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책을 덮어놓고 못보게 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도서들과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좋은 책들을 번역출판하여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책들을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⁴³⁾

(2) 김정일 시기

■ 체육중시정책

- 201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축구 강국 건설’을 노동당의 발전 목표로 제시
- 축구 강국은 김정일이 “축구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체육종목입니다.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내일 수 있습니다.”는 말을 기본으로 축구 발전을 강조
- “선군조국을 축구의 나라, 축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두 다 당의 부름에 애국의 한마음 다 바쳐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구강국 건설의 장엄한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고 강조¹⁴⁴⁾

■ 체육과학도서관

- 2010년 연말에 개관한 체육전문도서관
 - 2층 건물로 1층에는 도서 열람실과 종목별 정보연구실이 있고, 2층에는 전자 도서열람실과 컴퓨터실로 구성
- 1층 도서 열람실과 종목별 정보연구실 개요
 - 자료 내용: 체육과 관련한 도서와 신문, 잡지, 번역자료, 종목별 경기 녹화 자료
 - 이용 방법: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 검색을 진행한 다음 필요한 자료에 대한

142)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김일성저작집25(1970.1~1970.12)』, 29쪽;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143)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김일성저작집25(1970.1~1970.12)』, 34쪽;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144) <로동신문>(2011.1.16.), “(사설) 축구강국을 향하여”

열람 및 대출 가능

○ 2층 전자 도서열람실, 컴퓨터실 개요

- 전자도서 열람실: 종목별 경기규정, 종목별 국제경기, 최신 체육과학 기술자료, 세계적인 감독, 선수 자료를 포함한 전자도서, 영상자료

2) 김정은 시기

(1)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상징 과학기술전당

■ 과학기술중시 정책과全民과학인재화

- 김일성 시기의 ‘인테리화’는 김정은 시기에 이르면서 ‘全民과학기술인재화’로 나타남
- 김정은의 과학중시 정책을 시대 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으로 규정하면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全民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이라는 것이다.”¹⁴⁵⁾
- 全民과학기술인재화는 단기간 내에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
 - “全民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의 목적은 전체 인민을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들로 준비시켜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의 전열에 올려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는데 있다.”¹⁴⁶⁾

■ 과학기술전당 개요

○ 과학기술전당 위상

- 대동강 축섬에 위치, 2015년 10월 완공한 과학기술 전문 도서관 및 전시관으로 북한 최대의 단일 건축물인 인민대학습당보다 큰 북한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김정은 체제의全民과학기술인재화의 거점
- “全民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이름도

145)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全民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14쪽.

146)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全民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14쪽.

<과학기술전당>이라고 몸소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¹⁴⁷⁾

- 펜촉모양의 과학기술상징탑, 거대한 원구조 모양의 건축으로 전당의 중심에는 지구위성로케트라고 하는 ‘은하-3호 모형’이 있음
- 지열을 이용한 난방체계, 자연채광을 이용한 실내조명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

○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

-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정보화 및 전산화가 중요시되어 인민대학습당보다 과학기술전당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음
- 이에 인민대학습당에서도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과학기술전당과 경쟁체제를 갖추려 함

○ 과학기술전당 주요 자료

- 북한의 주요 과학기술관련 도서, 북한의 최신 과학기술 성과자료, 세계의 최신 과학기술자료를 전자도서화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¹⁴⁸⁾

○ 과학기술전당 구성

-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 10개의 실내과학기술전시장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으로 구성
- 실내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전자열람실, 어린이꿈관, 과학기술발전력사관, 첨단과학기술관, 기초과학관, 응용과학기술관들, 과학탐구관, 응용과학기술관 등의 부문별 실내 전시장이 있음
- 열람과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는 장애자열람실, 동화상열람실, 새책열람홀 등이 있으며, 원격강의실, 과학영화관, 학술문답실, 학술토론회장과 학술토론회실 등이 있음¹⁴⁹⁾
- 과학기술전당 이용객을 위한 청량음료 매대도 있음

○ 과학기술전당 이용 현황

- 올림컴퓨터 및 아리랑 컴퓨터를 갖추고, 북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루 평균 5,000명, 최고 10,0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음
- 전국에 있는 과학기술보급실과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상부 기관으로서 기능
- “온 나라 방방곡곡에 꾸려져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각급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하부구조로 하는 상부구조로서의 과학기술전당”¹⁵⁰⁾

147) <로동신문>(2016.01.24.),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1)”

148) <로동신문>(2016.01.26.),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2)”

149) <로동신문>(2016.01.26.),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2)”

○ 과학기술전당 조직

- 부총장 오정남(2016년 현재), 부총장 하정복(2016년 현재), 처장 박준철(2016년 현재)

(2) 독서진흥정책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독서의 생활화 강조

○ 인재중시 정책과 맞물려 전국민적 독서 강조

-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독서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언제인가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이동도서열람실>이라는 류다른 간판을 보게 되었다. 여러 려단에서 리용하고 있는 이 열람실들에는 작업도중이나 쉴 참에 책을 볼 수 있게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그 열람실들을 리용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 정말 좋다고 하던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작업의 쉴 참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시간을 아껴가며 학습에 열중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을 방불케 하였다.”¹⁵¹⁾
-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책읽기를 장려하고 있다. 책은 인류가 문명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도록 이끄는 안내자이며 추동자이다. 과학과 기술의 힘이 아무리 위력하다고 해도 그 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생산력을 종전보다 몇 십, 몇 백배로 끌어올린다면 그 기계설비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며 다루는 사람의 지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걸음길과 공원,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를 비롯한 곳곳에서 각 계층 사람들이 책을 탐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고상한 문화정서적풍경에는 전민학습의 열풍속에 전진하고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오늘과 더욱 창창할 래일이 비껴있다.”¹⁵²⁾

150) <로동신문>(2016.01.24.),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1)”

151) <로동신문>(2020.01.23.), “우리 생활과 독서기풍”

152) <로동신문>(2020.04.21.), “책읽기와 인류문명의 발전”

(3) 과학기술중시 정책과 지역 거점 미래원

■ 과학기술보급의 지역 거점 미래원

- 전국의 시군 도서관을 ‘미래원’으로 개선하면서 과학기술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전국의 시, 군도서관들이 <미래원>으로 개건 현대화되어 과학기술보급의 지역적거점들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편리한 학습조건이 마련”¹⁵³⁾



자료: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꾸러진 미래원들 - 황해북도 승호군미래원과 연산군미래원, 평안남도 안주시미래원을 찾아서,”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년 제1호 통권 제197호(SKS, 2016), 9~10쪽

[그림 3-6] 북한 황해북도 승호군미래원 실·내외 시설들

■ 미래원의 구성

- 일반도서관과 전자도서관 복합 시설
 - 미래원의 시설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2017년에 개건한 안악군미래원이 있음
 - 미래원은 전통적인 도서관 봉사와 전자도서관 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153) 도서관일군(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도서관사업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도서관 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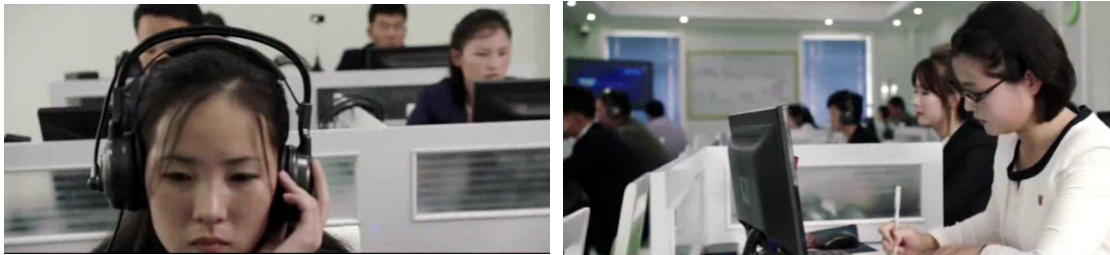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중이도서를 갖춘 전통도서관과 전자도서관으로 구성

- 전자도서관은 주문봉사실, 목록검색실, 전자열람실, 전자열람실, 다매체열람실, 종합강의실 등을 갖춘
- 주요 설비로는 수십대의 컴퓨터, 다매체열람이 가능한 액정 텔레비전이 설치된 전자열람실, 다매체열람실, 과학기술강의를 받을 수 있는 종합강의실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전당 자료를 볼 수 있는 지역 거점

- 지역에서는 미래원을 통해서 과학기술 전당의 자료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거점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도안의 모든 시, 군 미래원들에 대한 홈페이지개설사업을 완성하여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망에 의한 홈페이지열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겠다.”¹⁵⁴⁾



자료: 유튜브 검색결과, 예술영화 <이런현상을 없앤시다> 시리즈의 하나인 <열성독자> 속의 과학기술보급실 <https://www.youtube.com/watch?v=QYNv5CYcp7A&t=3s>(검색일: 2021년 10월 29일)

[그림 3-7] 북한 예술영화 시리즈 내 과학기술보급실 자료사진

○ 도서대출사업, 새책소개선전사업, 이동열람봉사 사업

- “또한 도서대출사업과 새책소개선전사업, 학습조건과 환경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함으로써 날에 날마다 더 많은 독자들이 찾아오게 하며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에 대한 이동열람봉사사업도 잘하여나가겠다.”

154) 도서관일군(2016), “미래원관리운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7쪽



자료: <로동신문>(2021.06.15.), “도서관을 활용한 화선식 사상교양사업”

[그림 3-8] 북한의 도서 활용 사상교양사업 자료사진

■ 미래원의 기능과 의미

- 군중도서관, 기업소 및 공장에 과학기술보급실을 조성하는데, 군중도서관 중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갖춘 공간을 미래원이라고 하거나 도서관 자체를 미래원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를 미래원에서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자자료수합체계’를 2020년 완료했기 때문에 쌍방향 이용이 가능해짐
- 아직까지 자료전송이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이 없는 기업소(공장) 종사자는 미래원을 이용함
 - 북한에서 가정 내에서 인트라넷을 구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래원이 정보화의 거점임
 - 미래원에서 원격수업을 받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다운받아서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학교수업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이처럼 미래원은 각 지역의 정보화 및 전산화된 자료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답봉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직까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사서가 미래원 담당)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함

- 미래원은 일률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과 협의하여 자체의 홈페이지를 만들

5. 현재 북한 도서관의 특성

1) 정보화의 지역 차이

■ 도서관의 지역별 수준 차이

- 도서관의 외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도서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군 단위의 도서관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큼
- 2012년에 12월 3일에 수정보충된 「북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출판물의 수집과 보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음

■ 도서관 정보화의 인프라

- 전자도서관, 미래원 등을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도서관 수준에서 격차가 크고, 실무적인 작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제한적이라 판단되며, 전문 분야에서 정보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있음

2) 정보통신기술과 교육 환경 개선

■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와 정보통신

-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과학과 교육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과학기술축전’ 등을 개최하면서 기술 전문화를 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김책공대 과학기술축전, 평양교통운수대학 과학기술축전 등이 있음
- 과학기술축전에는 대학 일군,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 등이 제한없이 참가하여 새로

은 연구성과를 출판하고, 출판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함

- 2020년 2월 11일에 진행된 제35차 평양교통운수대학 과학기술축전에서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운영, 경제, 기계, 전기, 건설, 정보, 교육과학 분야의 180여건의 연구성과들이 출판되었는데, 이들 기술에 대한 발표회와 전시회가 진행됨

3) 전문 분야의 국제적 기술 역량의 한계

■ 신기술 개발과 국제 교류의 제한

-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 학습의 조직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인민들에게 보급해야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정보 역시 세계적인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자출판물은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외국과의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을 접하고 보급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국제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자료의 공유

- 전문 분야에서 공개된 국제학술지나 국제적인 저널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북한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학술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제한적임
- 다만 국제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함

4) 도서관 기술 인력 제한

■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체계

- 김정은 체제 이후 정보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서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서관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도서관일군의 자격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로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전망성 있게 양성하도록 하였으나 도서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갈 정책인력이나 실무인력의 양성에서 제한이 있음

5) 정보화 사업 자체의 지연

■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 운영을 위한 기간 인프라 제한

- “중앙도서관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가에서 이를 계획하고 보급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제한되어 있음
- 정보통신과 관련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국 각지에 정보기술고급중학교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고급중학교 종류와 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제3절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자료 보유·프로그램 운영 현황

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사¹⁵⁵⁾

1) 조사 개요

- 조사명: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공공도서관 조사
- 조사 목적
 -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 현황 및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 대한 도서관 사서 의견을 통계적으로 파악함
 - 조사 가설(假設)은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해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전국의 공공도서관 전체(응답자는 사서)
 - 조사방법: 웹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진행
 - 조사설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실행: 글로벌리서치(주)
 - 조사시기: 2021. 8. 11 ~ 8. 20
 - 응답도서관: 173개 도서관

155)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 정책포럼(2021. 9. 30)에서 일부 발표됐음을 밝힘.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지향』(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조사 문항

분류	세부 문항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현황	도서 및 비도서 보유량, 대출 빈도, 대출자, 관련 자료 관련 서비스의 어려움, 비보유 도서관(이유, 향후 도서 구비 계획)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최근 3년 간 관련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문화 프로그램과 비교), 프로그램 비진행 도서관(이유)
도서관과 통일문화	북한-통일문화-문화통합 교육행사에 적합한 공공(문화)기관, 통일 및 북한 특화 도서관의 적정 개수,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최 계획(가능성, 주된 참여자, 적합한 강사, 효과적 콘텐츠, 협력체계)
남북한 도서관 교류	북한 도서관 교류 의향, 희망하는 교류 내용, 남북한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과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남북 교류를 위해 도서관이 준비할 일

■ 응답도서관 및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중(%)
전 체		173	100.0
성별	남성	38	22.0
	여성	135	78.0
연령대	30대 이하	59	34.1
	40대	58	33.5
	50대 이상	56	32.4
사서 근무 경력	10년 미만	57	32.9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	34.7
	20년 이상	56	32.4
도서관 설립주체	지자체	105	60.7
	교육청	65	37.6
	기타	3	1.7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0	34.7
	비수도권 광역시	30	17.3
	기타	83	48.0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66	38.2
	동 지역	41	23.7
	읍면 지역	66	38.2

	구분	사례수(명)	비중(%)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50	28.9
	소- 5만 ~ 10만개 미만	56	32.4
	중- 10만 ~ 20만개 미만	40	23.1
	대- 20만개 이상	27	15.6

2) 주요 조사 결과

(1)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현황

- 173개 도서관 중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를 보유한 곳은 82.1%였음
- 수도권-광역시에서 시군 지역보다, 그리고 대도시 구 지역과 일반시의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통일 및 북한자료 보유율이 높음
- 규모(보유자료 수 기준)가 큰 도서관이 규모가 작은도서관보다 통일 및 북한 자료 보유율이 높음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도서관이 읍면 지역에 많을 것이기에,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9〉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 현황: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유	보유하지 않음	
전체	173 100.0	142 82.1	31 17.9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0 100.0	51 85.0	9 15.0
	광역시	30 100.0	27 90.0	3 10.0
	기타	83 100.0	64 77.1	19 22.9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유	보유하지 않음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66 100.0	54 81.8	12 18.2
	동 지역	41 100.0	37 90.2	4 9.8
	읍면 지역	66 100.0	51 77.3	15 22.7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50 100.0	32 76.0	12 24.0
	소- 5만 ~ 10만개 미만	56 100.0	48 85.7	8 14.3
	중- 10만 ~ 20만개 미만	40 100.0	32 80.0	8 20.0
	대- 20만개 이상	27 100.0	24 88.9	3 11.1

- 통일 및 북한자료 도서 보유량 역시 도시 지역과 큰 규모의 도서관이 많았음(평균 224권: 구 지역 302권, 동 지역 238권, 읍면 지역 131권)
- 통일 및 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142개관)에서 도서가 아닌 형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율은 43.0%(전체 도서관으로 환산하면 35.3%)
 - 도시와 도서관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었음
 - 구 지역 42.6%, 동 지역 48.6%, 읍면 지역 39.2%
 - 최소 규모 15.8%, 소규모 37.5%, 중규모 50.0%, 대규모 87.5%

■ 통일 및 북한 도서 대출은 활발하지는 않음

- 도서류의 대출빈도는 가끔 대출(53.5%), 거의 대출 없음(45.8%), 자주 대출(0.7%)의 순서로 나타남
 - 도시 및 도서관 규모에 따른 대출 빈도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자료 보유와 달리 대출은 지역과 규모의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자료 대출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표 3-10〉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도서 대출현황: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없음	가끔 대출됨	자주 대출됨
전체		142 100.0	65 45.8	76 53.5	1 0.7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1 100.0	20 39.2	30 58.8	1 2.0
	광역시	27 100.0	15 55.6	12 44.4	0 0.0
	기타	64 100.0	30 46.9	34 53.1	0 0.0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54 100.0	24 44.4	30 55.6	0 0.0
	동 지역	37 100.0	17 45.9	19 51.4	1 2.7
	읍면 지역	51 100.0	24 47.1	27 52.9	0 0.0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38 100.0	17 44.7	21 55.3	0 0.0
	소- 5만 ~ 10만개 미만	48 100.0	21 43.8	27 56.3	0 0.0
	중- 10만~20만개 미만	32 100.0	15 46.9	17 53.1	0 0.0
	대- 20만개 이상	24 100.0	12 50.0	11 45.8	1 4.2

- 비도서류의 통일 및 북한 자료 대출은 거의 대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없음 90.1%).
 - 통일 및 북한 자료를 대출하는 대상은 성인이 62.0%, 초등생 25.4%, 기타 7.0%, 중고교생 5.6%의 순서임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도서관에서는 초등생의 대출비율이 높은 특성(39.5%)을 보임
- 대출 대상 질문은 학교 과제용으로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대출이 오히려 많을 것이란 가정에서 비롯됐는데, 생각보다 학생 비율(초등생 25.4%+중고교생 5.6%=31.0%)이 높지는 않음
- 일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통일 및 북한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가 학생이 과제를 위해 대출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볼 수 있음

■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는 수요가 없어서 보유하지 않음

-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도서+비도서)를 보유하지 않은 도서관(31개관)을 대상으로 자료가 없는 이유를 질문했는데, 수요가 없어서(67.7%), 수집이 어려워서(9.7%), 예산이 부족해서(9.7%), 기타(12.9%)의 순서로 나타남
- ‘수요가 없어서’란 응답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특성을 보임
 - 수도권 55.6%, 광역시 66.7%, 시군 지역 73.7%
 - 구 지역 58.3%, 동 지역 75.0%, 읍면지역 73.3%
-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도서관(31개관) 가운데 향후 구비계획을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29.0%)만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173개 도서관 가운데 앞으로도 22개 도서관(12.7%)에서는 북한 및 통일자료를 볼 수 없다는 의미임(142개 도서관 보유, 9개 도서관 보유 계획)

〈표 3-11〉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가 없는 이유: 자료 비보유 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가 없어서	기타	수집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31 100.0	21 67.7	4 12.9	3 9.7	3 9.7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 100.0	5 55.6	2 22.2	1 11.1	1 11.1
	광역시	3 100.0	2 66.7	0 0.0	1 33.3	0 0.0
	기타	19 100.0	14 73.7	2 10.5	1 5.3	2 10.5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12 100.0	7 58.3	2 16.7	2 16.7	1 8.3
	동 지역	4 100.0	3 75.0	0 0.0	0 0.0	1 25.0
	읍면 지역	15 100.0	11 73.3	2 13.3	1 6.7	1 6.7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가 없어서	기타	수집이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12 100.0	8 66.7	1 8.3	1 8.3	2 16.7
	소- 5만 ~ 10만개 미만	8 100.0	5 62.5	3 37.5	0 0.0	0 0.0
	중- 10만 ~ 20만개 미만	8 100.0	5 62.5	0 0.0	2 25.0	1 12.5
	대- 20만개 이상	3 100.0	3 100.0	0 0.0	0 0.0	0 0.0

- 통일 및 북한 자료 서비스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견을 수집한 결과, 자료 찾기(공급)의 어려움이 29개관(40.3%), 이용자가 많지 않음이 26개관(36.1%)으로 나타남
 -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서술형으로 질문하여, 72개 도서관에서 응답한 결과임
 - 자료 찾기(공급)의 어려움 29개관(40.3%), 이용자가 많지 않음 26개관(36.1%), 이용자들의 자료 편향성 문제제기 11개관(15.3%),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 4개관(5.6%)과 같은 내용이 기입됨

(2) 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 조사에 참여한 173개 도서관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강좌, 특강)을 진행한 경우는 7개관(4.0%)에 불과함
 -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수도권(10.0%), 구 지역(7.6%), 대규모 도서관(14.8%)의 프로그램 진행경험이 많음
 - 프로그램 주제는 북한(경제, 사회, 문화예술, 일상주민의 삶)보다 통일인 것으로 보임
 - 참여자는 일반성인(42.9%)이며, 만족이 85.7%, 불만족은 없음
 - 행사기획은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71.4%임

〈표 3-12〉 공공도서관의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행사 진행최근 3년간: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행	진행없음
전체		173 100.0	7 4.0	166 96.0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0 100.0	6 10.0	54 90.0
	광역시	30 100.0	0 0.0	30 100.0
	기타	83 100.0	1 1.2	82 98.8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66 100.0	5 7.6	61 92.4
	동 지역	41 100.0	1 2.4	40 97.6
	읍면 지역	66 100.0	1 1.5	65 98.5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50 100.0	1 2.0	49 98.0
	소- 5만 ~ 10만개 미만	56 100.0	0 0.0	56 100.0
	중- 10만 ~ 20만개 미만	40 100.0	2 5.0	38 95.0
	대- 20만개 이상	27 100.0	4 14.8	23 85.2

■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39.2%)가 가장 많음

-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못한) 도서관(166개관)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39.2%), 기획하기 어려워서(21.1%), 정치/이념적 상황 때문에(19.2%), 강사 찾기가 어려워서(4.8%), 도서관에서 관심이 없어서(4.2%), 도서관회원이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2%), 기타(10.2%)의 순서로 나타남
- 도서관에서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수강생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인식함
- 이것은 도서관 일반 문화강좌 기획의 어려운 점과, 북한-통일-평화 강좌 기획의 어려운 점을 질문했을 때도 잘 드러남

- 보통 문화강좌에서는 강사섭외(28.3%), 참여자 모집(28.3%), 프로그램 설계(27.8%)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북한-통일-평화 강좌는 참여자 모집(32.4%), 프로그램 설계(30.1%), 강사섭외(16.2%)의 순서로 어렵다고 응답함
- 후자라고 해서 강사 섭외가 쉽지 않지만, 참여자 모집, 곧 수강생 모으기 그리고 기획 자체가 어렵기에, 강사 섭외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표 3-13〉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vs.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강사 섭외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설계	예산 확보	정보 확보	프로그램 홍보	기타
평소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173 100.0	49 28.3	49 28.3	48 27.8	17 9.8	6 3.5	3 1.7	1 0.6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173 100.0	28 16.2	56 32.4	52 30.1	5 2.9	19 11.0	2 1.2	11 6.4

(3) 도서관과 통일문화

- 북한 이해, 이탈주민과 통합, 통일문화 등에 대한 교육행사에 가장 적합한 공공(문화)시설은 도서관(27.8%)과 주민센터(27.2%) 순이었음
 - 도서관이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고, 응답자가 사서이기에 도서관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음
 - 도서관(27.8%)과 주민센터(27.2%)의 응답률 차이가 0.6%p불과함
 - 광역시와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민센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음
 - 이 같은 응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 교육을 민방위 훈련처럼 주민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행사로 인식함
 - 다른 하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통일문화, 문화통합, 북한이해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것임
 - 앞서 4.0% 도서관만이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서 보듯이 도서관 직원들은 이 같은 주제가 낯설고 진행하기 어렵다고 인식함

〈표 3-14〉 북한 이해, 북한이탈주민과 통합, 통일문화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적합한 공공문화시설: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도서관	주민 센터	문화의 집	문예 회관	박물관	기타	미술관
전체		173 100.0	48 27.8	47 27.2	28 16.2	18 10.4	15 8.7	15 8.7	2 1.2
도서관 소재지 -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0 100.0	16 26.7	14 23.3	14 23.3	4 6.7	5 8.3	6 10.0	1 1.7
	광역시	30 100.0	6 20.0	11 36.7	5 16.7	3 10.0	3 10.0	1 3.3	1 3.3
	기타	83 100.0	26 31.3	22 26.5	9 10.8	11 13.3	7 8.4	8 9.6	0 0.0
도서관 소재지 -도시규모	구 지역	66 100.0	16 24.2	21 31.8	12 18.2	6 9.1	3 4.5	7 10.6	1 1.5
	동 지역	41 100.0	11 26.8	12 29.3	10 24.4	2 4.9	5 12.2	1 2.4	0 0.0
	읍면 지역	66 100.0	21 31.8	14 21.2	6 9.1	10 15.2	7 10.6	7 10.6	1 1.5
도서관 보유 자료 수	최소- 5만개 미만	50 100.0	12 24.0	14 28.0	9 18.0	4 8.0	5 10.0	5 10.0	1 2.0
	소- 5만 ~ 10만개 미만	56 100.0	18 32.1	19 33.9	6 10.7	5 8.9	3 5.4	5 8.9	0 0.0
	중- 10만 ~ 20만개 미만	40 100.0	11 27.5	8 20.0	7 17.5	7 17.5	5 12.5	2 5.0	0 0.0
	대- 20만개 이상	27 100.0	7 25.9	6 22.2	6 22.2	2 7.4	2 7.4	3 11.1	1 3.7

■ 통일 및 북한에 특화된 도서관은 광역에 1개 정도라고 인식함

- 통일 및 북한에 특화된 도서관이 몇 개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 1개 (49.7%)가 서울에 1개(24.9%), 기초지자체에 1개(15.6%), 필요하지 않음(9.8%)보다 훨씬 많았음
- 도서관에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 북한자료는 북한 주민의 삶(53.2%), 북한 사회(45.1%), 북한 정치외교(44.5%), 북한 문화예술(43.4%), 북한 경제(13.9%) 등이라고 응답함(복수응답 종합 검토 결과)

■ 향후 북한, 통일, 평화 관련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계획의 가능성은 21.4% 정도로

낮은 편이며,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78.6%에 이릅니다

- 현재 프로그램 진행률 4.0%보다는 훨씬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북한 자료 보유(의향)을 87.2%보다는 훨씬 낮음
- 북한 및 통일 자료는 제공하겠지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함
- 관련 프로그램 개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도서관(136관)을 대상으로 이유를 서술형으로 질문한 결과, 지역주민 관심 없음(32.1%), 참여자 모집 어려움(27.6%), 프로그램 기획 어려움(15.7%)이라는 응답이 많음
- 앞서 현재 시점에서 질문한 관련 강좌가 없는 이유와, 미래 시점에서 관련 강좌 계획이 없는 이유가 동일함
-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북한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서 참여자를 모으기 힘들고, 도서관에서 기획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임
- 도서관이 북한, 통일, 평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대상은 초등생 중심, 효과적 콘텐츠는 영화라고 인식함
 -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초등생(69.9%), 일반 성인(57.8%), 중고생(51.4%), 북한이탈주민(19.1%), 학교밖 청소년(1.2%)이라고 인식함(복수응답 종합 검토 결과)
 -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규모가 작은도서관에서 초등생 중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표 3-15〉 향후 북한, 통일, 평화 관련 문화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바람직한 주요참여(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 학생	일반 성인	중·고등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기타
전체		346	121 69.9	100 57.8	89 51.4	33 19.1	2 1.2	1 0.6
도서관 소재지 -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0	40 66.7	39 65.0	27 45.0	14 23.3	0 0.0	0 0.0
	광역시	60	19 63.3	18 60.0	14 46.7	8 26.7	1 3.3	0 0.0
	기타	166	62 74.7	43 51.8	48 57.8	11 13.3	1 1.2	1 1.2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 학생	일반 성인	중·고등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기타
도서관 소재지 -도시규모	구 지역	132	42 63.6	31 62.1	0 47.0	41 27.3	18 0.0	0 0.0
	동 지역	82	30 73.2	18 68.3	0 43.9	28 14.6	6 0.0	0 0.0
	읍면 지역	132	49 74.2	40 47.0	2 60.6	31 13.6	9 3.0	1 1.5
도서관 보유자료 수	최소-5만개 미만	100	36 72.0	23 48.0	1 46.0	24 32.0	16 2.0	0 0.0
	소-5만 ~ 10만개 미만	112	45 80.4	28 53.6	0 50.0	30 16.1	9 0.0	0 0.0
	중-10만 ~ 20만개 미만	80	25 62.5	21 65.0	1 52.5	26 15.0	6 2.5	1 2.5
	대-20만개 이상	54	15 55.6	17 74.1	0 63.0	20 7.4	2 0.0	0 0.0

- 적절한 강사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강사(67.1%),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 연구자 및 교수(20.8%), 북한이탈주민(2.3%), 통일 및 북한 주제 사서(0.6%), 일반사서(0.6%)의 순서로 나타남
- 프로그램을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진행하자면 문화와 통일(32.4%), 인문학과 통일(24.3%), 평화와 통일(22.0%), 역사와 통일(8.1%), 국제관계와 통일(6.9%), 경제와 통일(5.2%)의 순서로 나타남
 - 도서관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형 및 중형 도서관에서는 인문학과 통일을 선호하고(중형 30.0%, 대형 37.0%), 소형 도서관에서는 문화와 통일을 선호함(소형 33.9%, 초소형 44.0%)
- 프로그램 진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문화 분야는 영화(50.9%), 남북언어(39.9%), 문학(37.6%), 방송(36.4%), 미술(23.7%), 음악(8.7%)의 순서로 인식함
 - 상대적으로 구 지역에서는 문학(47.0%)을, 동 지역에서는 영화(56.1%)와 방송(48.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협력체계는 통일부 지원(39.3%), 문화체육관광부 지원(17.9%), 관내 초등학교 연계(15.6%), 통일관련 시민단체 연계(15.6%), 지자체 연계(5.2%), 관내 중고교 연계(3.5%), 다른 도서관 연계(1.7%), 관내 대학 연계(0.6%)의 순서로 나타남

(4) 도서관과 남북 교류

■ 46.2% 도서관이 남북한 도서관 교류 의향이 있음

- 이것은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 계획여부(21.4%)보다 2배 이상 많은 결과임
- 도서관은 직접 북한 도서관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
- 도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대체로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향이 많음
- 도서관 속성이 아니라 응답자 속성이 개입될 수 있기에, 응답자 속성을 살펴보면, 50 대 이상(62.5%), 사서경력이 20년 이상(53.6%)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교류 의향이 많음

〈표 3-16〉 향후 북한 도서관 교류 기회가 있을 시, 참여 의향: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73 100.0	80 46.2	93 53.8
성별	남성	38 100.0	19 50.0	19 50.0
	여성	135 100.0	61 45.2	74 54.8
연령대	30대 이하	59 100.0	25 42.4	34 57.6
	40대	58 100.0	20 34.5	38 65.5
	50대 이상	56 100.0	35 62.5	21 37.5
사서 근무 경력	10년 미만	57 100.0	29 50.9	28 49.1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 100.0	21 35.0	39 65.0
	20년 이상	56 100.0	30 53.6	26 46.4
도서관 소재지-지역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0 100.0	32 53.3	28 46.7
	광역시	30 100.0	14 46.7	16 53.3
	기타	83 100.0	34 41.0	49 59.0
도서관 소재지-도시규모	구 지역	66	36	3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100.0	54.5	45.5
	동 지역	41 100.0	19 46.3	22 53.7
	읍면 지역	66 100.0	25 37.9	41 62.1
	최소- 5만개 미만	50 100.0	23 46.0	27 54.0
도서관 보유자료 수	소- 5만 ~ 10만개 미만	56 100.0	20 35.7	36 64.3
	중- 10만 ~ 20만개 미만	40 100.0	18 45.0	22 55.0
	대- 20만개 이상	27 100.0	19 70.4	8 29.6

- 도서관 문화 교류(32.1%), 도서자료 공유(28.2%), 프로그램 교류(26.9%)를 희망함
 - 남북한 도서관 교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80개관)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류내용을 서술형으로 질문했는데, 문화 교류(32.1%), 도서자료 공유(28.2%), 프로그램 교류(26.9%), 도서관 운영시스템 환경 교류(6.4%), 인적자원 교류(2.6%) 등을 희망함
 - 도서관이기에 자료 공유와 프로그램 교류의 빈도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움
 - 하지만 이보다 문화 교류 응답빈도가 더 많은 것은 도서관 직접 교류(자료와 서비스) 이전에 문화 교류를 통해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임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 구성, 그리고 국제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채널 확보가 중요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 향후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서 중요한 사업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각각 질문했는데,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 구성(중요성 34.1%, 실현가능성 30.6%), 국제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채널 확보(중요성 33.5%, 실현가능성 27.2%)라는 응답이 많았음
 - 남북한 도서관자료 종합목록 구축은 실현가능성에서는 19.1%였지만 중요성에서는 8.7%로 차이가 있음
 - 나머지(북한 전문사서 교육프로그램,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남북한 자료통합 정보시스

템 구축)는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에서 10% 미만임

〈표 3-17〉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vs.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북한도서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 구성	국제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 협력 채널 구축	북한 전문서서 교육 프로그램 추진	남북한도서관 자료 종합목록 구축	북한도서관 디지털화사업	남북한자료통합 장비시스템 구축	기타
남북한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173 100.0	59 34.1	58 33.5	16 9.2	15 8.7	12 6.9	10 5.8	3 1.7
남북한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173 100.0	53 30.6	47 27.2	15 8.7	33 19.1	14 8.1	8 4.6	3 1.7

-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해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자료수집(22.8%)이라고 인식
-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해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서술형으로 질문함
- 다양한 자료 수집(22.8%), 남북 양측의 수용성 필요(13.9%), 남북 자료 교류(13.3%), 도서관 직원 교육(10.8%), 이용자 흥미유발(6.3%), 남북한 문화 교류(6.3%)가 응답자 수 10명 이상인 사안임

3) 조사 결과의 함의: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공공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해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가정(假定)에서 조사를 실시함
- 현재 공공도서관은 그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미래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보유율은 82.1%이지만 거의 대출되지 않은 비율이 45.8% 정도이며, 최근 3년 간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률은 4.0%에 불과함
- 도서관이 이 같은 교육행사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27.8%), 주민센터(27.2%)와 격차가 거의 없음
- 개별 도서관에서는 ‘북한과 통일’ 자료 보유가 어려워 자료 보유율이 낮은 편이며, 프로그

램 기획과 진행 단계에서도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통일 필요성과 민족 동질성 의식이 희석되는 현실이기에 도서관에서도 관심 있는 이용자가 없으리라고 예상함
- 도서관 관계자는 북한 이해, 이탈주민 통합, 통일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여김
- 주민센터(동사무소)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인지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같은 교육이 민방위훈련이나 안보교육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임
- 의무이거나 따분한 교육이라고 이해(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류 기회가 있다면 북한 도서관과 교류할 의향은 46.2%로, 북한 이해 및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설 의향 21.4%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은 편임
-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 도서관에 대한 호기심은 상당함
- 교류 기회는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도서관계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 이 아님
- 하지만 교류 기회가 생겼을 때, 성공적인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음
- 북한 문화와 통일한국의 지향성에 도서관 자체가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함
- 북한 이해 및 통일문화 프로그램 개설 의향(21.4%)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 기획은 앞서 보았듯이 참여자 모집(32.4%)과 프로그램 설계(30.1%)가 쉽지 않음
- 도서관이 통일친화적 문화기관이 되려면, 곧 도서관이 통일문화교육의 주체가 되려면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통일문화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17822호, 2021. 1. 5.,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통일교육 수강이 의무임
- 도서관에서 화상강의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 1시간 교육으로 도서관이 통일문화교육의 주체가 되는 일은 불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일문화교육은 문화예술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문화 이해, 남북 문화통합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는데, 이 같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도서관 통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다른 도서관 사례를 실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파주중앙도서관의 사례, 마포중앙도서관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실행된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의 ‘미리 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 사례 등을 도서관별로 실행해 볼 수 있음
- 도서관 자체에서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음
- 통일 자체만을 다루기에 부담스럽다면, 조사결과처럼 ‘문화와 통일’(32.4%), ‘인문학과 통일’(24.3%), ‘평화와 통일’(22.0%) 등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개별 공공도서관의 위와 같은 노력은 도서관 정책 체계 내에서 실현하는 게 바람직함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주관처에서 통일과 북한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사업 실시가 포함됨
 - 연구에서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을 남북 직접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남한 내에서 북한 도서관 이해하기’와 ‘국제기구와 남북이 함께 교류하기’ 등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 같은 정책사업이 실현되어야 화해협력기에 남북이 직접 구체적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음
 - 종합계획에는 설문조사의 가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 곧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해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이 되어야 함
 - 개별 도서관에서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서 중요한 사업과 실현가능한 사업의 첫 번째를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 구성’을 꼽고 있음
 -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야 할 일이 바로 공공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사업임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조사

에서 보듯이 도시 규모와 도서관 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프로그램 개발의 협력체계에서 응답한 대로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관내 초등학교-통일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2. 통일 및 북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사례¹⁵⁶⁾

-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4% 정도인데, 이 같은 프로그램은 문화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음
 - 북한 관련 도서 전시(서울도서관, 파주중앙도서관), 영화와 언어(마포중앙도서관), 영화와 문학(파주중앙도서관), 도서·건축언어영화(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 마포중앙도서관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자 연령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함
 - 2018년 평화 1번지 사업은 마포를 평화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북한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함
 - 남북 간 서로 다른 언어 중심의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통일·평화에 대한 인식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 구축 사업을 진행함
 - 북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오프라인 서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하며, 중요한 강연도 진행
 - 파주중앙도서관은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을 지향하면서 통일준비소위원회, 공존평화통일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함¹⁵⁷⁾
 - 북한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북한의 일상, 도서 이외의 음악, 영상자료 수집, 북한 원자료, 접경지대 파주 관련 사진과 편지, 통일운동 자료, 정전협정 등 근현대 전쟁과 평화기록)
 - 수집된 자료를 시민과 공유(주제별 컬렉션, 관련 전시, 북콘서트, 전문가 포럼을 통해 일상의 북한 이해)
 - 북한이탈주민과 접점을 만들어 이웃으로 함께 살기 위한 다양한 활동

156) 아래의 내용은 개별 도서관 관장과의 면담결과를 정리한 것임

157) 아래의 내용은 윤명희(2020), “공존, 평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독일문화원, 한국도서관협회, 『2020 도서관정책포럼(제2차)』 자료집, 75~76쪽 참조

- 협력 거버넌스 구성(파주시 평화협력과, 남북 교류협력을 연구하는 파주시 의회, 주한독일 문화원 등)
-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은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는데, 북한 및 통일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기획하여 프로그램의 구조가 튼튼하고 강사들도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됨
- 북한의 문화, 남북 교류사업, 그리고 평화체제 등을 강연과 답사를 통해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았음

〈표 3-18〉 마포중앙도서관 통일 관련 프로그램(2018~2020)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비고
[평화로가는길] '선을 넘어 생각한다' 저자 강연 - 북한, 우리가 아는 딱 한가지는?	2018.08.31	청소년 및 성인	-
[평화로가는길] 스크린에 비친 북한, 환상과 현실 사이 (한국 영화 속 북한의 모습 변천사)	2018.09.28	청소년 및 성인	-
[한반도 평화 초대석1] 요즘 북한 말, 북한살 안내서 「문화어 수업」 한성우 저자와의 만남	2019.09.17	청소년 및 성인	-
[한반도 평화 초대석2]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9.09.24	청소년 및 성인	-
[한반도 평화 초대석4]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2019.09.25	초등 1~3학년	-
[한반도 평화 초대석3]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사회 통합	2019.10.01	청소년 및 성인	-
[평화1번지, 마포]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 그리고 통일	2020.09.10	초등 4~6학년	코로나로 인해 잠정연기
[평화1번지, 마포] 한민족의 역사와 평화통일	2020.09.10	성인	코로나로 인해 잠정연기
[평화1번지, 마포] 한민족의 역사와 평화통일	2020.12.15	성인	코로나로 인해 취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표 3-19〉 파주중앙도서관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 주요 실천내용(2018~2020)

행사명	주요 내용
도서관 운영위원회	[통일 준비 소위원회 구성](2018.10.26)
공존·평화·통일위원회	2018년 격주 1회 회의(2018.10~12)/2019년 4회(3, 8, 10월)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2018.10.22)	[류명성 통일방집/박경희 저/뜨인물(2013)] 책읽고 모둠별 토론 발표: 관내 중학교 90명
이슈&월드+만남 (2018.12.6~12.12)	[우리학교/김명준 감독] 영화상영 조선학교이야기: 김명준 감독과의 만남
파주DMZ를 둘러싼 전쟁과 평화의 기록 포럼 (2018.12.13)	발제: 전갑생-파주에서 평화와 통일을 걸어올리다 패널: 명연파(평화를 품은집 집장), 서상일(디어교하편집장) 송재술(경기도사이버도서관팀장), 윤지미(파주중앙도서관 시민채록단)
한반도 100년의 봄, 그리고 도서관 (2019.2.1~3.31)	[사전행사] 공존·평화통일 컬렉션 100권 전시(김성신+허화+사서) 통일, 평화 질문 접수/통일 준비하는 도서관에 바란다 코너 운영 [발대식] 공존·평화통일 소위원회 소개 [북콘서트] 진행: 출판평론가 김성신 1부: 주승현(탈북민, 통일학 박사) 대담 2부: 김탁환(『나, 황진이』 저자) 대담
파주에서, 제주 4월을 만나다 (2019.4~5 / 9월)	[공동추치]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시] 국가기록원 기록물 및 사진, 도예 및 맥간 공예품 [컬렉션] 통일서가 내 제주 4.3 도서컬렉션 [지역연계] 평화도서관 '나무도장' 원화전시 및 제주4.3관련 자료 [시민참여] 다큐멘터리 상영, 맥간공예체험, 시민 한마디 [현장탐방] 제주4.3투어(작은도서관 평화활동가와 동행)
2019 공존·평화·통일 주간 (도서관 통일을 준비하다) (2019.12.9~12.15)	[전시] 작은도서관, 평화통일을 준비하다 [낭독공연]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영화+토크]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박영이 감독, 손미희대표) [토론] 통일시대,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명지대 송승섭 교수)
공존·평화·통일 북버킷 챌린지(2020.7)	공평통 위원 영상 촬영 및 송출, 공평통 릴레이 도서 추천 챌린지 시민 대상의 공존평화통일 주제 도서 추천

자료: 윤명희(2020), “공존, 평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독일문화원, 한국도서관협회, 『2020 제2차 도서관 포럼: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77쪽



자료: 파주중앙도서관 제공

[그림 3-9] 파주중앙도서관 통일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자료사진

〈표 3-20〉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미리 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2019년 길위의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 미리 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		2019.07.11~11.08	성인
1차 문화와 생활			
강연	남북의 언어문화	2019.7.11	성인
	사는 것이 다 똑같디요	2019.7.25	성인
	도서와 건축으로 만나는 북한 문화	2019.8.1	성인
	남북이 예술로 소통한다	2019.8.8	성인
답사	강화도 동북부의 근대문화유적	2019.9.7	성인
2차 사회통합			
강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2019.8.29	성인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국경: 북중 국경(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다	2019.9.5	성인
	대북지원활동의 생생한 이야기: 대북지원 NGO가 만난 북녘사람과 북녘사회	2019.9.19	성인
답사	철원지역 평화누리길(평화 일상으로의 전환)	2019.9.21	성인
강연	선을 넘어 생각한다: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2019.9.26	성인
3차 평화를 향한 여정			
답사	강원도 강릉 바다부채길(철책선을 걷고 평화관광으로)	2019.10.12	성인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강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2019.10.18	성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어떻게 귀결시킬 것인가	2019.10.25	성인
	독일 통일리더십	2019.11.1	성인
후속 모임	북한 영화 감상 및 <담대한 여정> 독서토론	2019.11.2	성인
강연	전환의 시대: 탈분단, 탈군사화, 탈자본을 향하여	2019.11.8	성인

〈표 3-21〉 서울도서관 통일 관련 프로그램(2019)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비고
<함께 놀자, 동무야>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2019.12.6. ~ 12.29	전체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도서 100여 권 전시

- 이 같은 프로그램의 주된 성공요인은 도서관 담당자의 관심,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파주중앙도서관의 ‘공존·평화·통일소위원회’ 구성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20명 중 지원자, 출판평론가, 문학평론가, 기자들로 구성됨(임기 2년)
 - 파주는 총 9개 도서관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근현대 자원들이 매우 많아 기록, 통일 준비 도서관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음
 - 파주시 교육청과 작은도서관 인력 등이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공존·평화·통일 주간(1주일)’을 운영함
 -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가 협력하여 소주제를 선정하고, 최상급의 강사를 소개받음
- 이 같은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민관협력체계와 경험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마포중앙도서관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연간 4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2년째 사업을 운영 중임
 - 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통일부 보조 새터민 대상 사업도 2년 정도 진행한 바도 있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제1절 도서관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사업 제안의 고려 사항

1. 남북한 사회의 변화

1) 남한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¹⁵⁸⁾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07년(63.8%)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50%대에서 등락을 거듭함
 - 2018년에는 59.7%였으나 2019년에는 53.0%, 2020년에는 52.8%, 2021년에는 44.6%로 나타남
 - 통일 필요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4-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인식조사(2007~2020)

단위: %

의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필요하다	63.8	51.6	55.8	59.0	53.7	57.0	54.8	55.9	51.0	53.3	53.8	59.7	53.0	52.8	44.6
반반(그저 그렇다)	21.1	23.4	23.6	20.4	25.0	21.6	21.5	22.5	24.2	22.0	24.1	24.1	26.5	22.5	29.4
필요하지 않다	15.1	24.9	20.6	20.6	21.3	21.4	23.7	21.6	24.8	24.6	22.1	16.1	20.5	24.7	26.0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74쪽 재인용
 2021년 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1),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에서 인용함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령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
- 20대와 30대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2020년 기준, 20대(33.9%), 30대(43.0%)
- 50대와 60대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2020년 기준, 50대(62.5%), 60대(61.4%)

15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인식조사』임. 이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며,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74~179쪽을 요약하고 보완했음을 밝힘

- 통일이유에서 2020년 처음으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미세하게 많은 특성을 보이고, 연령별 차이가 커짐
 - 20대는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은 특성을 보임
 - 30대와 50대는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민족 동질성'이란 의미가 희석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2〉 통일의 이유: 통일의식조사(2007~2020)

단위: %

의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같은 민족이니까	50.6	57.9	44.0	43.0	41.6	45.9	40.3	42.1	40.7	38.6	40.3	44.5	34.6	37.3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8.9	6.8	8.5	7.0	7.2	9.1	8.3	9.1	12.3	12.9	10.5	6.7	10.6	7.4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19.2	14.5	23.4	24.1	27.3	25.3	30.8	27.0	26.2	29.7	32.5	31.6	32.6	37.9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1.8	2.8	4.2	4.0	4.9	4.4	5.5	3.9	6.2	5.2	4.0	3.5	3.0	1.9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7	17.1	18.6	20.7	17.6	14.5	14.3	17.6	14.0	14.2	12.5	13.5	18.9	15.3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75쪽 재인용.

원자료는 『2019 통일의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집, 2019), 12쪽, 2020년 결과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 『2020 통일의식조사』, 37쪽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당위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북한 인식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회문화 교류 자체는 반대하지 않음
 - 남한 이익이 되는 남북 교류, 혹은 평화를 위한 정책을 원함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표 4-3〉 개성공단 재가동 의견: 통일외식조사(2016~2020)

단위: %

의견	2016	2017	2018	2019	2020
찬성	47.4	41.4	59.1	56.2	53.1
반반	24.3	29.2	30.7	27.9	27.5
반대	28.3	29.4	10.3	15.9	19.4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76쪽 재인용.

원자료는 다음과 같음 『2019 통일외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집, 2019), 50쪽 재구성. 2020년 결과는 『2020 통일외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370쪽

〈표 4-4〉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 통일외식조사(2010~2020)

단위: %

의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찬성	60.2	61.3	62.5	57.4	49.9	55.5	50.8	44.8	63.6	63.5	58.7
반반	26.8	25.2	25.2	29.2	34.5	30.7	25.9	26.8	27.2	23.1	24.0
반대	13.1	13.5	12.3	13.2	15.6	13.8	23.3	28.4	9.3	13.4	17.3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76쪽 재인용.

원자료는 다음과 같음 『2019 통일외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집, 2019), 51쪽 재구성. 2020년 결과는 『2020 통일외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371쪽

〈표 4-5〉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가 시급한가에 대한 의견: 통일외식조사(2017~2020)

단위: %

의견	2017	2018	2019	2020
시급함	54.4	67.7	71.8	65.1
시급하지 않음	45.5	32.3	28.2	34.9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2020 통일외식조사』

2) 김정은 시대의 북한

(1) 사회주의 문명국¹⁵⁹⁾

■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의 키워드는 ‘사회주의 문명강국’”임

- “2016년 5월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함
-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대한 언급은 2016년 7차 당 대회가 정점인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사회주의 문명국’은 2013년, 2015년, 2017년에는 언급됨
- 2018년부터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2021년 8차 당대회(2021. 1. 5~ 1. 12)에서는 ‘새 세기 우리식 문명’ 또는 ‘새로운 조선식 문명’이란 표현이 등장하나, ‘사회주의 문명국’은 언급되지 않음
-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현재와 미래
- 2021년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 첫째,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언급했던 문화여가시설 공급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임
- 둘째, 대북 제재와 북미 관계의 부침이 심해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정책목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결정서¹⁶⁰⁾(2019)의 키워드인 ‘정면돌파’에서 보듯이 북한은 자강력 강화에 역점을 둬
 - ‘정면돌파’는 ‘자생적’ 경제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화가 아니라 과학임
- 셋째,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언급할 처지가 아님
 - 실제 8차 당 대회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계획의 수립임

159)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83~191쪽을 요약하고 보완했음을 밝힘

160) ‘일정한 문제에 대하여 회의에서 결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적은 글’이라는 뜻의 북한어 자료: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 사회주의 문명국은 기존 문화정책과 동질성(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사상 통제)과 상이성(세계화를 통한 외화획득)을 지님
-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대북 제재-미국과 긴장 관계-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은 사상 통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지속할 여유가 없을 것임
- 언급한 대로,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제한된다면 사회주의 문명국은 다시 명명되기 어려울 것 같음

(2) 과학기술 정책 강조¹⁶¹⁾

■ 과학기술 중요성 강조

- 9차 전국과학기술자대회(2013. 11. 13~14)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 강조
- “과학기술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2014년 1월 국가과학원 본원 시찰)

■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자 우대

- 원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근로자의 전문지식 제고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해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 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살림집, 김책공대 교원살림집 등을 조성, 지원

■ 첨단산업육성과 수익사업화

- 기존 이동통신은 체신성(조선체신회사)-이집트 오라스콤(Orascom) 합작 고려링크가 독점
- 체신성-정보통신연구소 내 고소득자 발생
- 태블릿 PC 및 전자상거래 확산

■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정책의 키워드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식경제, 현대 첨단기술 국제동향 반영, IT 산업 강화 등임

161)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91~192쪽을 다시 요약했음을 밝힘. 원자료는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제173호(2015. 9. 1)임

(3) 교육정책: 세계적 추세와 과학기술교육 강조

■ 학제개편과 교육과정 동향¹⁶²⁾

- 12년제 의무교육 실시(2012년 학제개편안)
-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특징
 - 특수교과: 3개 과목(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에서 1개 과목(김정은) 추가
 - 기본소양교육 강조: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교육 기본소양 강화
 -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기초지식과 창의성 강조
 - 정보기술 강화: 소학교부터 정보기술 2년간 필수
 - 영어교과 강조: 소학교 4학년부터 영어 필수, 고등(중)학교에서는 국어보다 영어시수가 많음
- 이것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국제 표준에 맞춤(소학교 5년제, 중고등학교 분리, 후기 중등교육 강화, 영어교육 강조, 통합과 융합 강조)
 - 국민교화 및 체제안정 도모(김정은 교과 추가, 국가의 일률적 기준 제시)
 - 새로운 교육적 실험(교육과정 통합, 세분화되었던 과학과목이 자연과학으로 통합, 자연과학 내 사회영역 포함 등)

■ 과학기술교육 강조¹⁶³⁾

- 교육의 중요성을 과학기술과 연계(제14차 전국교원대회, 2019. 9. 3)
 -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 징표라면 과학기술의 어머니는 교육”
 - 교육 ↔ 과학기술 → 경제발전이란 논리
- 원격교육과 ICT 교육 강화
 - 2018년 7월 기준으로 50여개 대학, 200개 이상의 원격교육학과 설치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김형직사범대학 등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고등교육 참여

162)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92~193쪽을 다시 요약했음을 밝힘. 원자료는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인

163)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193쪽을 다시 요약했음을 밝힘. 원자료는 조정아, “전국교원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 정책과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20(통일연구원, 2019),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0581/1/%ec%98%a8%eb%9d%bc%ec%9d%b8%2019-20%20%28%ec%b5%9c%ec%a2%85%29.pdf>(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 정치사상 교육보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교육 강조
 - 체제안정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교육 강조
 -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됨
- 김정은 시대, 북한교육의 키워드는 국제표준, 과학기술 강조에 따른 경제발전이란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음

(4) 북한 주민의 IT·정보통신 활용¹⁶⁴⁾

- 유니세프(UNICEF)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전체 가구의 69%가 휴대전화를 보유함”
 -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컴퓨터를 사용”¹⁶⁵⁾
 - “2018년부터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만큼 정보화가 크게 진전”
 - 『2019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료집』에 따르면, 탈북자의 북한 거주 당시 휴대전화 보유율은 62.9%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장사 또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젊은층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¹⁶⁶⁾
 - 『2020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료집』에 따르면, 탈북자의 북한 거주 당시 휴대전화 보유율은 56.0%로 줄었음
-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인터넷)는 개방하지 않고, 인트라넷에서 한정된 정보를 제공함
 - 국가망(광명)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전국의 전자도서관 및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인트라넷과 연결됨

164)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202쪽을 다시 요약했음을 밝힘. 원자료는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통일연구원, 2018), 151쪽~155쪽; 정은미,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 No. 2.(통일연구원, 2019)임

165) 정은미,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 No. 2.(통일연구원, 2019), 2쪽; 원자료는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June 2018, p.31이라고 함

166) 『2019 통일의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19), 21쪽

- 실제 근거리 무선망(Wi-fi)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이 조성되기도 함¹⁶⁷⁾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한 오락과 커뮤니케이션이 급속하게 증가함

(5) 코로나19와 북한

-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¹⁶⁸⁾
 - “2017년부터 강력한 UN경제제재로 인해 북중 무역량은 급감”
 - “2018년과 2019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약 86%, 21% 감소, 반면 수입은 약 31% 감소, 16% 증가”
 -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북한-중국의 무역은 2019년 대비 약 80.7% 감소한 5.4억달러
 - 북중수출 77.0% 감소, 북중수입 81.0% 감소
 -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은 더욱 위축됨
 -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은 지속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중국 상품 유입이 대부분 중단되어, 북한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해짐
 - 주민생활의 질 악화, 국가세수 감소, 기업소 수입 감소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중 무역 침체로 심각한 경제거래 감소와 외환부족 현상 발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통제의 불안감 증대
 - 생필품 부족, 시장에서의 상품거래 단절, 기업소 운영 중단, 코로나19 등으로 대규모 인력 동원의 차질이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감 확산이 예상됨

167) <조선신보>(2019.08.29.), “wi-fi로全民학습환경을 개선: 무선망평형컴퓨터가 호평.”

168) 이 부분은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3~204쪽을 다시 요약했음을 밝힘. 원자료는 양운철,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06 (세종연구소, 2020)임

3) 대북 제재와 남북 교류

(1) UN의 대북 제재

① 과정

-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결정하며 결의는 의장국이 회원국을 소집한 회의에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함¹⁶⁹⁾
- 결의안 상정 배경은 주로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한

〈표 4-6〉 UN의 대북 제재 결의 시기와 배경(2006~2017)

결의	일시	배경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06.10.9)
1874호	2009. 6.12	2차 핵실험(09.5.25)
2087호	2013. 1.22	장거리 미사일 발사(12.12.12)
2094호	2013. 3. 7	3차 핵실험(13.2.12)
2270호	2016. 3. 2	4차 핵실험(16.1.6)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16.9.9)
2356호	2017. 6. 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8. 5	ICBM급 미사일 발사(17.7.4/28)
2375호	2017. 9.11	6차 핵실험(17.9.3)
2397호	2017.12.2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7.11.29)

- UN 결의는 UN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회원국 준수의 의무가 있지만 각 국가에 소속된 개인 및 단체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움
- 각 회원국은 기존의 국내법 활용, 결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 수권법률¹⁷⁰⁾ 제정 등을 통해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함

169) 제재 결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5개 상임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중 한 국가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기타 4개 상임이사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10개 비상임이사국에 회람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1년 기준 10개 비상임이사국은 니제르, 튀니지, 케냐, 베트남, 인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멕시코, 아일랜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임

170)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 권한을 행정부 등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법률

② 특징

- 기존의 제재(2016년 2270호 이전)는 주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재래식 무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제재대상임
- 2016년 2270호 이후에는 수출, 수입, 근로자파견, 경제 협력 등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재로 확대
- 현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될 수 있는 품목과 활동에 대한 제한금지가 이루어짐
- 또한 북한의 외화 획득이 무기 개발 등 부과된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북한산 물품의 수입,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역시 제한금지됨

③ 대상

〈표 4-7〉 UN의 대북 제재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핵, 재래식 무기,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 금지, 관련된 거래·훈련·자문·역무 금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경제자원 동결, 송금 및 지원 금지 • 북한에 대량현금 등 금융·자산·자원 제공 및 대금 정산 금지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수출 신용/보증, 보험 제공 등) 금지 •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계약 체결 금지 및 기존 계약 축소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품, 일반물품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화물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행/발의·북한국적의·북한(주민)이 통제·이용하는 항공기·선박·철도·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화물 검색(개인화물 및 위탁화물 포함) • 금지품목을 적재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해 이착륙(입항)·영공통과 금지 • 금수 물품에 대한 압류와 처분 • 금수품과 관련된 선박간 이전, 선박 나포·검색·동결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선박·항공기에 대한 유류, 물품, 기타 편의 제공 금지 • 북한에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 북한에 자국 국적 선박·항공기 임대·전세·승무원 서비스 제공 금지 • 자국 국민의 북한에서 선박 등록 및 북한 국기 사용 금지 •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임대·용선·운영·선급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보험 보장 금지 • 대북 제재 위한 관련 선박일 경우, 선박 등록 취소, 선급 서비스 제공 금지, (지정한 항구로의 입항 유도 및) 자국 입항 금지 • 금수품 운송 및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화물 이전 금지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협력체 설립 금지, 기존 합작사업·협력체 폐쇄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보증·보험 등) 금지 • 조업권(어획권) 판매·이전 금지

분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 금지, 본국 송환 •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운영 금지 • 북한 내의 대표사무소·자회사·은행계좌 폐쇄 조치 • 북한 은행과의 신규 합작투자·지분 매수·입·환거래 관계 설립·유지 금지 • 제재 대상자 관련 사무소 폐쇄 및 사업 참여 금지
교육·과학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에 대한 핵 관련 교육·훈련 금지 • 북한 관련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의료분야 제외) 금지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사절 및 영사 인원 감축 • 북한 외교공관·영사관 및 외교관의 계좌 수 1개로 제한 • 북한 외교관의 영리적 활동 금지 • 북한 소유/임대 부동산 외교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의 입국·경유 금지 및 추방 • 북한의 은행 및 금융기관 관련자 추방

(2) 남한의 대북 제재

① 과정

- 대북 제재의 배경은 북한의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
- 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문 및 고시 등의 형식으로 독자 대북 제재 부과, 무력도발에 따른 UN결의가 있는 경우 외교부가 해당 결의안을 관련 부처에 공유
- 대북 제재 부과 시, 해당 부처는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재가 시행됨을 알리고 직접 또는 해당 영역의 전문 공공기관 및 협회를 통해 국민·기업·단체 등의 민간에 안내, 이행 협조를 요청함

② 특징

- 영역별로 제재
 - 반출입통제: 집중관리대상품목 확대 및 watch-list 발표
 - 해운통제: 북한 소유 선박 및 북한 기항 외국선반 입항 금지
 - 금융통제: 제재대상 개인·단체 지정
 - 출입통제: 금융제대 대상 제3국인 입국금지

〈표 4-8〉 남한의 대북 제재 배경과 제재 사항(2010~2017)

일시	배경	제재 사항
2010. 5.24	천안함 사건	반출입 통제, 해운 통제, 출입 제한, 투자금지, 대북지원보류
2016. 2.10	4차 핵실험(16.1.6)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16.2.7)	반출입 통제, 출입 제한
2016. 3. 8		반출입 통제, 해운 통제, 금융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2016.12. 2	5차 핵실험(16.9.9)	반출입 통제, 해운 통제, 금융 통제, 출입 제한
2017.11. 6	6차 핵실험(17.9.3)	금융 통제
2017.12.11	ICBM급 미사일 발사(17.11.29)	금융 통제

③ 대상

〈표 4-9〉 남한의 대북 제재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조치일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제재 대상 지정(개인 109명, 단체 89개)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금융거래 금지, 국내자산 동결 	2015. 6.26 2016. 3. 8 / 12.2 2017.11. 6 / 12.11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북한 기항 외국 선박의 1년 이내 국내 입항 불허 	2010.5.24 2016.3. 8 2016.3. 8 2016.3. 8 / 12.2
물품 반출·입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집중 관리대상 품목 확대(22개→33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감시대상 품목 발표 	2010.5.24 2016.12.2 2016.12.2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주민과의 접촉 제한 금융제재 대상 제3국인 국내 입국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WMD 관련 북한 방문자 국내 재입국 금지 	2010.5.24 2016.12.2 2016.12.2
대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 유지)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10. 5.24 2010. 5.24 2010. 5.24 2016. 2.1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국민의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2016.3. 8

(3) 미국의 대북 제재

① 과정

- 의회를 중심으로 한 법률¹⁷¹⁾을 제정하여 제재

- UN참여법(수권법률)을 통해 UN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행정부처가 위임입법을 통해 필요한 집행조치를 취함
-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 등 비상시 대통령이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형태

② 특징

- 다양한 사유와 법률의 중첩적 작용
 - 안보위협(국가비상사태), 공산주의, 테러지원, WMD 확산 및 인권이슈 등의 사유로 북한을 제재하는 20여개의 법률 존재
 - 북한의 특정 상황이 개선되어 어느 한 법률에 의한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에서 유사한 형태의 제재가 유지되어 실질적인 완화해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
 - 미국의 제재는 미국 국내법 차원에서 운용되지만 구속력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줌¹⁷²⁾
 - 2016년 이후 발효된 법률 및 행정명령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¹⁷³⁾ 도입

〈표 4-10〉 UN, 남한, 미국의 대북 제재 분류

제재 종류(채택 및 제정 시기)		내용	사유
UN 안보리 제재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2397호(2017)	이중용도품목 이전 통제 원유, 기계류, 전자기기 등 대북 수출입 제한 대북 합작 금지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도

171) 대북 제재 관련 주요 법률로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1977), 「수출관리법」(1979), 「북한 위협 감소법」(1999),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2006), 「대북 제재 강화법」(2016),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2017), 「오토웹비어 대북금융 제재법」(2017) 등이 있음

172)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통해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통제하며 이는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품목에도 적용되고 적용대상에 속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재수출 승인을 받아야 함. 이중용도품목이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함.

173) 제재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재방식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재 종류(채택 및 제정 시기)		내용	사유
남한의 제재	<5.24조치>(2010)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향해 불허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단, 인적 교류 등 부분적 허용)	천안함 피격(5.24 조치)
미국 제재	「적성국교역법」(1917) 「수출입은행법」(1945) 「브레튼우즈협정법」(1945) 「대외원조법」(1961) 「무기수출통제법」(1968) 「무역법」(1974) 「국제금융기구법」(1977) 「대외경제비상조치법」(1977) 「수출관리법」(1979) 「핵확산방지법」(1994) 「북한위협감소법」(1999) 「무역제재개개혁법」(2000)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2000) 「대외활동수권법」(2006) 「대북제재강화법」(2016) 「대북제재현대화법」(2017)	이중용도품목 수출입 금지 IMF 원조 금지 수출입은행 보증 등 금지 대북 상업지원 수출지원 금지 대북제재강화법은 사실상 전면적 금수조치 및 제3국 제재 근거 명시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지원국 지정, 안보위협, 공산주의 국가 또는 비시장경제 국가 등

자료: <머니투데이>(2020.01.17), “금강산관광은 정말 대북 제재에 저촉이 안 될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616017683540>(검색일: 2021년 10월 5일)

2. 기존 제안사업 검토와 재분류

■ 종합계획 및 남한 도서관계에서 제안된 사업의 재분류 및 실현 가능성 검토

<표 4-11>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2008년, 2019년)

1차 종합계획	3차 종합계획
①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단계별 확대 실시 1단계(2009~2011) - 남북한 도서관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상호 방문(국립도서관, 인민대학습당 인적 교류)	① 도서관 남북 교류협력 체계 구축 - 남북한 도서관계의 상시적 소통채널 확보 ②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③ 남북한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 연구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1차 종합계획	3차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자료 교류협정 체결 - 남북한 국가서지 상호교환을 통한 소장자료 파악 - 비정치적 분야의 자료 및 원문 정보DB 등 교환 - 국가 문화재급 고전적의 복제·영인 <p>2단계(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 각종 표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 도서관 정보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보급 -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 작성 - 남북한 자료 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공동 연구·개발 <p>②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서지용 MARC와 북한서지레코드 구조화 규칙과의 호환을 위한 표준화 규칙 개발 - 북한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KOLAS-II 프로그램 지원 - 남북한 학술전자자원DB 활용 및 공유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공공, 민간 도서관계 남북 교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분야부터 국가서지의 단계적 공동작성 - 디지털자료의 교류 확대 ⑤ 북한 특수자료의 점진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자료의 분류·판단 기준으로서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선 - 관련기관(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등)과의 협력방안 강구 - 특수자료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표 4-12〉 남북 도서관계 인사 만남에서 제시된 교류사업(2000년, 2005년)

2000년 10월 일본 오키나와 한국도서관협회-조선도서관협회 간담회	2005년 12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 관계자 방북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포지엄(남북한 도서관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② 소장 자료 목록 등 서지자료 교환 ③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류와 공동 이용 ④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⑤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지원 ⑥ 2006 IF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우리 민족 도서관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②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③ 남북한 도서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④ 북한 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古典籍) 및 자료목록전시회 ⑤ 남북한 도서관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⑥ 북한 도서관 백서 발간 ⑦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⑧ 통일 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 선행 연구의 재분류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여러 가지 기준으로 기존연구를 재분류하여 교류사업의 유형 도출에 참조하였으며, 최재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함¹⁷⁴⁾
 -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출판물의 교환을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174) 부록 1 참조

- 특수자료(북한자료)의 이용 확대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제도 및 정책적 고려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
- 선행 연구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업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 방안 모색

3. 연구과정에서 제시한 시사점 반영

- 남북 문화 교류사업 분류에 따라 도서관 교류사업 도출
 - 1장 3절 2. 2)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분류 틀을 활용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방법 유형화
 - 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유형화
 - 남과 북 인력이 만나서 문화적 행위 도모
 - 남과 북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
 - (비)분업형태 투입으로 문화영역의 새로운 생산품 산출
 - 남북에서 문화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일
 - 국제기구, 제3국과 함께 문화 교류
- 남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및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를 차용한 남북 간 도서관 교류사업 도출
 - 1장 3절 2-4)-(3) 남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방안 추출
 - 남한 도서관 국제 교류는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외국 도서관 자료 기증 및 교환, 외국 내 거점 도서관 혹은 한국학 자료실 설치를 통한 장기 교류, 인적 교류 등임
 - 북한 도서관 국제 교류에서 보듯이 북한은 디지털 도서관(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 도서관 자료를 통해 세계적 추세(경향)를 읽으려고 함(평양과학기술대학-코벨대학, Research4Life 데이터베이스 무상 활용)
- 남북 문화기관 간 교류-학술 및 출판 교류의 특징에서 교류사업 도출
 - 2장 1절 3.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에 근거한 사업 도출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완결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교류
 - 박물관이나 미술관 간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의 작품 교류 시(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 국민 호응도 높음
 - 문화시설 간 교류가 아닌 경우 교류 수준이 높지 않음

- 남한 주최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품 지속적으로 전시됨
- 학술 및 교류는 초기 컴퓨터 및 언어 분야가 많았으며, 문학인 교류를 통해 남북 공동 잡지(『통일문학』) 3회 간행
- 학술 교류는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많이 열림

■ 동서독 도서관 교류의 시사점에 근거한 사업 도출

- 2장 1절 3.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위한 시사점에 근거한 사업 도출
- 현재 남북 문화 교류 수준은 <동서독 기본조약>(1972) 이전 정도의 수준
- 동서독은 목적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지속적 교류 시도
- 동서독 도서관 교류에서는 출판사(서적상)의 역할이 큼
- 동서독 교류에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지원이 역할을 함
- 문화협정 이후 도서관-출판-학술 교류가 활성화됨

■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에 근거한 사업 도출

- 3장 1절 2. 도서관법 개정(2006)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제시된 남한 도서관계의 대북 교류 제안사업 실현가능성 및 연속성 검토
- 3장 3절 1-3) 설문조사 결과 및 3장 3절 2. 통일 및 북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남한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사업 도출
- 현재 공공도서관의 4%가 통일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46% 도서관은 북한 도서관과 교류의향 있음
- 3장 2절 5. 현재 북한 도서관의 특징을 참조하여 대북 교류사업 제안
- 북한 도서관은 정보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 전문 인력 부족, 국제적 수준의 기술 부족을 겪고 있음

제2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도출 및 기본 방향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도출

1) 남북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도서관 교류 사업 제안

- 남한사회 변화 대응: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남한에도 이익이 되는 교류
 - 통일 필요성 및 같은 민족이란 인식이 옅어지고 있으므로, 도서관을 활용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 당위(통일 인식은 낮아지지만)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북한을 인식하는 데서 보듯이 남한에도 이익이 되는 도서관 교류 진행
 - 예를 들어, 북한 도서관 고전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출판물 제작 등을 통해 남한의 이익 추구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에서는 일방의 지원이 아닌 상호주의 견지(현물, 현금 지원은 제재 상황에서 불가함)
- 북한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 중심의 도서관 교류 진행
 - 도서관을 활용한 기술 교류, 미래원에서 보듯이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류 시도
 -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과학기술(교육)이며, 북한주민은 정보화 기기를 많이 이용함
 -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제3국,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도서관 교류 시도
 -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와 사상은 배격하지만(2020년 「반동사상배격법」 제정),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반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므로, 도서관 건립 시 기술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도서관 교류 방안 도출
 -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도서관 교류 방법 찾기
 - 온라인상에서 남한 도서관 자료의 공개를 통해 북한이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인적 교류-기술 교류-북한 원자료의 콘텐츠화-학술 교류-정보화 기술 교류 등에서는 상호주의 방법으로 진행

- 북한에 비용 지급 없이 진행하고, 기술 교류에서는 제재물자(컴퓨터, 전자기기) 없이 교류하는 방안으로 진행
- 남한 도서관계 역량 축적(사서의 북한 도서관 이해, 특수자료실 전문인력 양성 등)

2) 기존 정책 및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구체화

- 종합계획 및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계획 및 사업에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1차 종합계획 및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의 구체화 방안 제시
 - 2000년 및 2005년 남북한 도서관계 인사 만남에서 제시된 사업의 구체화 방안 제시
 - 남한 도서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 사업의 구체화 방안 제시
- 단위 사업 제안은 ① 사업 필요성 및 배경, ② 사업목적 및 기대 효과, ③ 사업내용, ④ 유의 및 고려사항, ⑤ 추진 주체 및 기간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구체성 확보
 - 예를 들어, 사서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존 제안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추진 주체를 기술하여 사업진행 시, 신속한 진행과 관련 부처 협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 교류사업의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
 - 당위로서의 도서관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사회환경 변화, 대북 제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방안 제시
 -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것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덧붙임
-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은 위의 두 가지(구체화 방안, 유의 및 고려사항) 틀 내에서 적극 활용

3)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특징 및 시사점 반영

(1) 도서관 교류사업의 유형 분류

■ 남북 문화 교류사업 분류에 따라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아이디어 추출

〈표 4-13〉 남북 문화 교류 및 남북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남북 문화 교류의 사업 분류	남북 도서관 교류의 사업 분류
남과 북 인력이 만나서 문화적 행위 도모	남북한 도서관 인력이 만나서 표준서지 작성 등 논의
남과 북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상대에게 제공	남북한 도서관 자료(출판물) 상호 전시
(비)분업형태 투입으로 문화영역의 새로운 생산품 산출	남한 기술로 북한 원자료를 새로운 형태의 자료로 생산
남북에서 문화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일	도서관 학술대회, 정보화 기술 제공
국제기구, 제3국과 함께 문화 교류	국제도서관협회연맹(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제3국 도서관과 협력하여 남북한 도서관 교류

■ 사업도출 방안이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누락된 사업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음

(2) 국제적 시각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사업 제안

■ 남한 도서관 국제 교류 사업 활용

- 남북한이 공통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남북 접근가능한 제3국의 도서관을 통한 교류 협력을 시도
- 전자도서관 관련 기술 자료를 북한에 기증할 수 있음(교환 가능)
- 온라인 도서관에 남한의 한국학 자료를 탑재하여 남북한이 공동 이용
-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도서관 사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제기구 및 제3국 도서관에서 남북한 도서관계 인력 교류 시도

■ 북한 도서관 국제 교류 사업 활용

- 남한(도서관)은 북한 도서의 성격과 관계없이(김일성-김정일 저작일지라도) 기증 받을 수 있음을 알림(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북한과 교류를 하는 제3국 도서관을 활용하여 제3국에서 학술회의 및 도서관계 인력 만남 추진
- 남한이 외국도서관을 지원하고, 외국도서관이 북한 도서관과 교류하는 방안 제시
- 남한 자료 및 국제 자료를 온라인상에 탑재하여 북한이 이용하도록 함

(3)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최고 수준의 교류, 출판 및 학술 교류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인민대학습당 등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자료 교류 시도
 - 국립중앙박물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교류사업(2006)처럼 국가 단위 문화시설의 최고 작품을 교류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음
- 서울 국제도서전 등의 행사에 북한 도서관 출판물 전시 기획
 -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품이 지속적으로 전시되듯이 남한 내 국제 행사에 북한 도서관 소장 출판물이 전시되도록 함
- 학술 교류는 현재처럼 제3국에서 진행할 수 있음

(4) 동서독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시사점 활용

- 현재 남북 문화 교류 수준은 <동서독 기본조약>(1972) 이전 정도의 수준이므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제안하며, 제안 사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 동서독처럼 목적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지속적 교류를 시도했듯이, 남북한 도서관도 지속적 교류 시도 노력
 - 동서독의 이해관계의 차이
 - 서독은 공동의 민족문화,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표방함
 -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국민 결속,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독 견제
 - 동독은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서독의 포괄적 법적 인정,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함
 - 남한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민족주의 성격이 다르지만, 도서관 교류에서는 다름을 수용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
 - 도서관을 통일문화 거점으로 하여 통일 및 북한 인식 제고

- 서독 출판사(서적상)의 역할에서 보듯이 도서관 교류는 출판 교류와 협력하여 진행함
- 서독에서는 학술 교류에서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재단이 참여했듯이, 도서관 학술 및 기술 교류에서 남한 내 민간협력 시도
- 독일의 문화협정에서 보듯이 남북한 문화협정 연구에서는 도서관 교류 포함
 - 박영정 외(2015),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협의회 체결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협정(합의서)에 도서관 교류가 포함된 바 있음
 - 문화협정 내 도서 및 정보분야 포함(남북문화합의서 안)
 - 제5조(도서 및 정보분야) 남과 북은 출판, 도서관, 정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의 교류 사업을 장려한다.
 - ① 주요 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서지 정보 등의 교환
 - ② 출판물의 교환 및 온라인 출판 협력
 - ③ 도서관 현대화(정보화)를 위한 협력
 - ④ 사서와 정보전문가의 상호 교류
 - ⑤ 국제도서전 및 국제도서관대회에 공동참가 및 정보 교환
 - ⑥ 도서관의 공동 이용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⑦ 도서관 및 정보분야 공동기구의 조직
 - ⑧ 기타 도서 및 정보분야 공동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5) 남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에 근거한 사업 도출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 도서관종합계획(1차, 3차) 및 남한 도서관계의 대북 도서관 교류 제안사업의 실현성 및 타당성 검토
- 기존 연구에서는 제안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도서관 교류의 의미(공간)를 남북 직접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도서관 역할까지 포함
 - (공공)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사업들을 제안함
 - 남북한 도서관의 직간접 교류 이전에 남한 도서관(계) 및 도서관 정책 체계 내에서 교류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 제안
- 북한 도서관 정책 및 현황의 특징인 정보화와 관련된 교류사업 제안

- 미래원으로 대표되는 북한 도서관의 변화(정보화, 원격교육의 거점)에 걸맞은 정책 교류 사업 제안
- 인민대학습당뿐 아니라 과학기술전당까지 포괄하여 국가단위 도서관의 교류방안 제안

2.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본방향

1)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회문화 교류의 허브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은 사회문화 교류사업 틀 내에서 진행함

- 현재 남북사회문화 교류는 다음과 같이 목적과 내용이 규정됨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제2015-4호)
 - 사회문화분야 협력 사업을 문화, 체육, 학술 등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규정함
 - 사회문화는 예술(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 문화콘텐츠(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체육, 그리고 연구(학술)를 의미함

〈표 4-1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20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라는 목적 모두를 충족시키되, 전자뿐 아니라 후자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함
- 동질성 회복이란 사회문화 교류의 보편적 목표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지만, 공동체 형성과 이질성 수용을 도서관 교류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도서관 교류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중심축 또는 허브가 되도록 함

-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도서관 교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북한 도서관 교류는 ①호, ⑤호를 포괄함(학술 교류 및 출판 교류)
- 기록보존이란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은 위의 ② ③ ④호와 관련될 수 있음
- 덧붙여 전자도서관 교류 등을 통해 남북 기술 교류의 출발점으로 진행

2)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의미 확대, 공간 재조정

■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남북한 도서관의 직접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남한 내 사업 그리고 국제 사업으로 의미와 공간을 확대함

■ 도서관에서 북한 문화 알기, 통일문화 및 남북 문화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 통일교육 내에서 '통일문화 및 문화통합' 교육 적극 실시

- 현재 통일부 소속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17822호, 2021. 1. 5.,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을 실시함
- 통일부 소속 남북문화통합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작은도서관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문화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도서관 대상 설문조사에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통일문화교육을 도서관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응답함(도서관 27.8%, 주민센터 27.2%)
- 이처럼 아직 도서관은 통일문화 및 문화통합에 익숙하지 않지만(현재 관련 프로그램 진행 4%), 향후 21%의 도서관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응답함
- 정책적 측면에서도 공공 문화시설 가운데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에서 통일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임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등을 활용하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문학 접근을 시도함

■ 도서관에서 북한 문화 알기, 통일문화 및 남북 문화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 통일교육 내에서 '통일문화 및 문화통합' 교육을 적극 실시

■ 국제기구 및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2018. 11),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2018. 2) 및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2018.8)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은 국제기구와 남북한의 공동 작업 결과임

- 유네스코(UNESCO),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한 교류 시도
 - 국제기구(UNESCO, World Bank 등), 도서관 관련 국제협회(IFLA, SLA),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등과 협력
- 제3국 교류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행
- 시라큐스대학, 코넬대학 등 북한 도서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과 협력 사업 진행
- 일본 조선대학, 중국 연변대학 등과 공동으로 남한 도서관-북한 도서관-조선대학 도서관, 남한 도서관-북한 도서관-연변대학 도서관 등과 학술회의 개최
- 이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외국 대학(도서관)-남한 도서관-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유형(직접 교류형)
 - 외국 대학(도서관)-남한 도서관 교류협력 + 외국 대학(도서관)-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유형(간접 교류형)
- 본 연구 부문별 시사점으로 가장 많이 추출된 것이 외국과 함께하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였음
- 국제 교류 측면에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접근해 보는 발상의 전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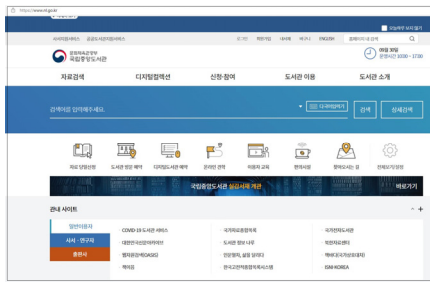
3)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 도서관계 역량 강화

- 현재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남한 도서관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사업 진행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도서관은 아직까지 통일문화교육의 주체보다 대상에 가까움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재국면에서는 남한 도서관계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예를 들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 실시
 - 도서관 사서의 북한 문화 및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제도화
-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개선
 - 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 대표성을 지닌 추진체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략적 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관종별 도서관, 민간기업(단체)등을 포괄하는 실무 추진 TF구성, 관종과 목적에 따른 현장중심 이슈 및 협력의제 발굴과 실행으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 인민대학습당,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과학기술전당 등을 시작으로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적 교류협력 준비
- 남한 도서관계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서관 직무와 사업으로 연락처 노력
 - 도서관계, 도서관내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중심 의제 발굴과 추진
 - 사서 및 이용자 대상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체계적·전문적 연구 개발로 도서관 현장의 부담 경감과 홍보를 통한 활용 활성화 도모
- 북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교류기반 마련
 - 북한 도서관의 최근 동향, 특히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MARC) 및 분류규칙 적용 현황, 원문디지털화와 형식, 전자도서관시스템, 사서 및 이용자 교육 현황, 디지털화에 따른 공간 및 시설, 자료수집(특히 해외학술DB 등), 참고봉사(정보서비스) 등 공통되는 요소에 대한 통합을 고려한 비교 연구와 가상시스템 설계 연구 등
- 남한 내 도서관 교류의 거버넌스 구축
 - 도서관 교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간-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 첫째,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통해 자료 활용과 학교 교육 및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활용 및 홍보
 - 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일반이용자를 위한 안내사이트 중 하나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단순 링크되어 있어, 통일과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도서관 소장 북한과 통일 관련자료 및 특수자료(북한발행 자료) 종합목록 구축
 -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 북한정보포털,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연구DB,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 등의 종합 포털 구축 시도
 - 덧붙여 종합포털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대상별, 주제별, 목적별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재조직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제4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도출 방법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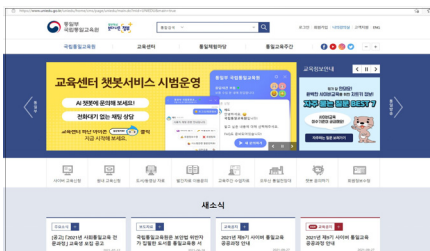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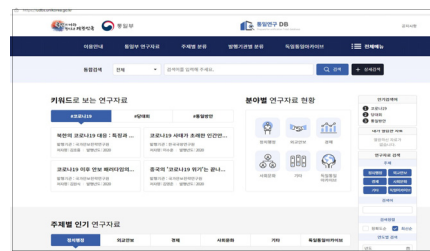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북한정보포털내 북한테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연구DB



통일부 UniTV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북한과학기술네트워킹

[그림 4-1] 남한의 북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사례

- 둘째, 도서관의 북한과 통일 관련 각종 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통일부의 각종 콘텐츠와 파주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등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통일과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홍보활용 도모
- 셋째, 도서관 연계 학술 교류에서는 민간 재단 등이 일부 재원을 부담하여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음

4) 남북 도서관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

- 현재까지 남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은 단기적으로 보면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음
- 남한 주민의 인식변화, 국제제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개발이 필요함
- 북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류에 관심이 많을 것임
 - 개별 문화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세계적 기준(실제 필요한 기술 및 경영 방법)에 관심이 많기¹⁷⁵⁾ 때문에 도서관 경영, 도서관 관련 기술 등을 북한과 교류하면 이것 자체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
 - 2020년 3월 24일자 <로동신문> 보도에서는 과학기술전당에서는 180여만 건의 자료를 구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구축한 자료는 ‘농촌에서 에너지를 효과적리용’, ‘석탄의 회분과 류황 제거를 위한 초음파처리’와 함께 선진관학기술자료 ‘분자생물학기술’, ‘현대 로보트공학’, ‘강냉이재배 및 가공’ 등으로 매우 다양함
 -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산림분야, 기후환경분야, 식품제조분야, 화장품이나 신발 등의 일상분야, 차재배와 가공, 바다양식, 농업 분야에서 작물재배, 미꾸라지 양식 등의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 남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관 교류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방 이전 자료로 북한에만 있는 자료, 남한과 판본이 다른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류사업 진행
 - 덧붙여 남북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신규 문화콘텐츠화 가능한 자료 교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175)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339쪽

■ 보건의료 분야의 도서관 교류로 한반도 생명공동체 실천

-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비상방역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국가 방역체계를 점검함
-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질병과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남북은 의학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한반도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음
- 북한 의학 분야의 연구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연구원 등이 있음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서관 운영 및 방역 사례 등 공통 현안 대처 방안 상호 교류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5장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제1절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주요 사업을 제시하는 5장은 행위 주체에 따라 3개 절로 구성함
 - 1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직접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지 않지만 남북 도서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② 북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반 구축, ③ 북한 도서관 연구 사업 활성화, 그리고 ④ 남한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절은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① 자료 및 정보의 공유와 콘텐츠화, ② 사서 간의 정보서비스 협력인데, 보통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임
 - 3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과 함께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국제화, ② 학술 교류-출판 교류와 함께하는 도서관 교류연계임
- 5장은 검색기에 준비해야 할 사업, 그리고 화해협력기에 시행할 사업이 거의 대부분임
 - 남한 도서관의 준비(1절), 실질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2절), 그리고 제3국과 함께하는 남북 도서관 교류(3절)로 구분되어, 검색기 및 화해협력기 일부(1절, 3절), 화해협력기(2절)에 진행할 사업이 많음
 - 화해협력기,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 시기 구분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¹⁷⁶⁾에서 통일의 과정으로 발표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임

176) 통일부, 통일정책→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 참조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표 5-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과정(3단계)

화해 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 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 (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 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 참조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검색일: 2021년 10월 30일)

- 이것은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뿐 아니라 모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의 직접 교류뿐 아니라 남한 내의 준비와 통일인식 제고(통일 문제의 공간 확대)와 국제 무대에서 교류협력이 진행(역시 통일 문제의 공간 확대)되어야 함을, 그리고 화해협력기 이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음을 보여줌
- 1절(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은 앞서 언급한 대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단위(개별) 사업의 ① 사업 필요성 및 배경, ②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③ 사업 내용, ④ 유의 및 고려사항, ⑤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⑥ 전후 추진 사업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함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임
 - 교류협정 체결 제안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도 정부의 실현 의지가 뒷받침 되면 당장 현실화할 수 있음
 -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과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은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란 동일한 목적을 지니지만 방식이 다르기에 각각 제시했음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현재까지 남북 도서관 교류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류협력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2000년 일본, 2005년 북한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한 주체는 한국도서관 협회였음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한양대도서관-연세대 김대중도서관-성공회대가 수행했음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도서관 교류협력의 전문조직이 아니라 문화 영역을 비롯한 남북 교류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
- 남북 도서관 교류를 준비하는 조직이라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 남북교류소위원회가 가장 가까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전략기획, 법·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적용, 남북 교류, 지식정보격차해소 등 5개가 운영 중임
 - 도서관계에서 남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하지만 소위원회는 실행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류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함

-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 영역 전체에서 남북 교류(준비)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담조직이 없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조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문화재청은 2019년 3월 TF 형식으로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구성하고,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함
 - 교류사업단장은 문화재청 차장이며 교류협력팀(문화재활용국장)과 조사연구팀(남북문화재연구소장)으로 구성됨
- 남북 도서관 교류의 준비부터 실행까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실제 교류시점이 오더라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
- 도서관 사서들은 남북 도서관 교류를 위해 중요한 일,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전담조직 구성으로 인식함

〈표 5-2〉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vs.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사례수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 구성	국제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채널 구축	북한 전문 사서 교육 프로그램 추진	남북 도서관 자료 종합목록 구축	북한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	남북 자료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중요한 사업	173	59 34.1	58 33.5	16 9.2	15 8.7	12 6.9	10 5.8	3 1.7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173	53 30.6	47 27.2	15 8.7	33 19.1	14 8.1	8 4.6	3 1.7

자료: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40쪽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 교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 준비, 효율적 수행,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금까지 한 번밖에 수행되지 않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구성이 요구됨

- 체계적 준비는 북한 도서관 연구, 북한 도서관 조직체계,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최근 북한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기능 연구를 의미함
- 효율적 수행은 현재의 대북 제재를 고려한 실무적인 수행능력을 의미함
- 지속적 교류 역량은 선행 교류 성과분석, 국제정세에 걸맞은 교류 기획력을 의미함
-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전담조직 구성은 변동성이 심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 남북관계 경색 시점에서는 북한 도서관 연구,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행사 기획·수행, 향후 계획 등의 업무 수행
- 남북관계 화해·협력기에는 경색기에 준비해 온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실제 교류사업을 진행함
- 남북관계 화해·협력기 후반, 연합단계 초반에는 북한 도서관계와 협정체결, 공동추진위 등을 구성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은 몇 가지 차원으로 기획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남북 도서관 교류 관련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하고 연구하는 조직임
- 두 번째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실무를 담당할 조직임
- 세 번째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같은 조직임
 -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할 수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은 당장 실현될 수 없지만, 조직구성은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함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을 문화 영역의 일부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독립 영역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조직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첫 번째 문화영역 내 하위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보고서인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조할 수 있음
- ‘문화영역 남북교류준비단 네트워크’에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등

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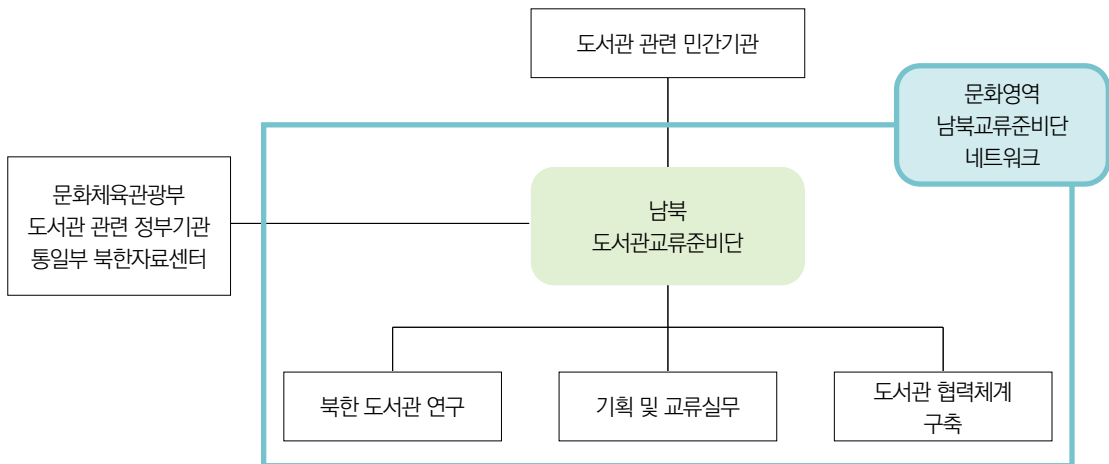
-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북한자료 분석 및 연구 분야에서 활동함
- 종합분석 및 사업기획은 네트워크 내 주무기관(소속 및 유관기관 중 1개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 1단계), 남북문화교류추진단(문화체육관광부 내 조직, 2단계),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3단계), 남북문화교류진흥원(4단계)에서 추진함
- 이 경우,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될 수 있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나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은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됨
- 두번째 도서관계(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또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등)는 ‘문화영역 남북교류사업 준비단 네트워크’는 참여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주무기관(1단계), 문화체육관광부 내 부서인 남북문화교류추진단(2단계)과 협력하지만 별도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것임
- 문화영역 가운데 도서관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교류기획 업무를 타 기관에서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남북 도서관 교류 전담조직은 네트워크 개별기관으로서 역할(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기획 및 실행기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함

〈표 5-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 문화 교류 추진기관(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유관기관이 ‘문화영역 남북교류준비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전문(주무) 기관을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역별 북한자료 분석은 네트워크 내 개별기관이 담당 - 네트워크 주무(전문)기관은 종합분석 및 사업기획 ■ 2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남북문화교류추진단’을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의 주무(전문)기관이 해체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식조직(추진단)에서 담당함 - 네트워크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역할 수행 ■ 3단계는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을 구성하고 진흥원 내 문화부서가 2단계의 추진단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은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가칭) 제정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며, 이 법률에는 진흥원 구성은 물론 남북사회문화교류공동위원회까지 포괄함 - 2단계에 구성된 남북문화교류추진단(문화체육관광부 내 조직)은 타 부처 협력 같은 대외 업무 담당 - 네트워크는 1~2단계와 마찬가지로 역할 수행 ■ 4단계는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이 분리되어 남북문화교류진흥원이 신설되고 진흥원이 3단계의 문화부서(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의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에 구성된 남북문화교류추진단(문화체육관광부 내 조직)은 타 부처 협력 같은 대외 업무 담당 - 네트워크는 1~2단계와 마찬가지로 역할 수행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549~550쪽

- 전담조직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남북 문화 교류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은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사업이었음
 - 전자는 남북거래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후자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됨
 - 전자는 통일부가, 후자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가 예산과 일부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임
- 정부기관이 직접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가 더욱 안정적일 수 있음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내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을 구성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연구부터 사업기획, 기회가 되면 사업수행까지 주관하도록 함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의 역할은 연구, 기획, 교류 실무, 타 기관 협력 등 남북 교류사업 전체에 해당함
- 먼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은 ‘문화영역 남북교류준비단 네트워크’ 내에 속한 단체로서 북한 도서관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해야 함



[그림 5-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안

- 현재 북한 도서관 연구자는 문헌정보학계에는 1~2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데,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민간 기관 및 대학(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이 여기에 속함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은 연구 사업으로 북한 도서관 총서 시리즈를 기획할 수 있음
- 초기에는 문헌정보학 석박사학위자 가운데 북한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 3명을 충원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 도서관 자료를 읽힘
-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내에서 북한 도서관 연구를 수행함
- 기획 및 교류실무 담당자는 5명 정도가 담당함
 - 기획은 도서관 국제 교류 경험자, 교류실무는 도서관 사서, 도서관이 아닐지라도 남북 교류사업 담당자, 정보화 교류 담당자 등이 필요함
 - 국제 교류 경험자 및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남북 교류사업 담당자와 정보화 교류 담당자는 직접 고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별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타 기관 및 국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은 2명 정도가 담당할 수 있음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다른 문화영역과 달리 독자적 활동을 취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구성 ‘남북문화교류추진단’에 참여함
 - 추진단에 참여해야 도서관 교류뿐 아니라 학술 교류, 출판 교류, 문학 교류 등과 연계할 수 있고, 정부의 남북 문화 교류 틀 내에서 도서관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음
 - 남북 도서관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개별 도서관과 협력, 공공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이 필요함
- 전담조직은 문화영역 내에 하나로 포함되든 그렇지 않든 문화체육관광부 구성 ‘남북문화교류추진단’에 참여하므로 학술·출판·문학 교류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고, 또한 도서관계 및 민간단체와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하나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의 4단계에서 현재 가능한 것은 1단계와 2단계이므로 이에 맞춰 사업기획을

하는 게 현실적임

- 3단계(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4단계(남북문화교류진흥원) 관련해서는, 2005년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남북교류협력법」과 차별성, 당시 남북교류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임기만료로 의안폐기됨
-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업은 2단계(문화체육관광부 내 남북문화교류추진단 설립)까지로 한정함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문화영역 남북교류 준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내 ‘남북문화교류추진단’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단순히 도서관 교류를 넘어선 교류(학술, 출판 등 연계 교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내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을 포함해서 ‘문화영역 남북교류준비단 네트워크’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이 주된 사업기관이지만,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추진 기간(시점)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내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구성은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연구 사업, 사업기획, 타 기관 협력 등은 2년 이내로 수행할 수 있음
- 이 같은 사업은 경색기부터 화해협력기 초반까지 수행함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은 화해협력기에 ‘남북도서관교류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

■ 연합단계

- 연합단계에서는 ‘남북도서관교류공동추진단’이 구성되어 남과 북의 도서관 관계자 동수로 참여하여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

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현재 지방에서 북한 연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서비스를 받거나 서울로 올라와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 지역 대학에 특수자료실이 있더라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운영 자체가 활발하지 않음
 - 대학교 내 특수자료실, 곧 교육부가 감독하는 특수자료실(주로 대학도서관)이 통일부 감독 특수자료실, 문화체육관광부 감독 특수자료실보다 개체 수가 훨씬 많지만,¹⁷⁷⁾ 대학 특수자료실은 거의 이용되지 않음
 - 북한연구자는 “우리 대학 특수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특수자료실이 귀찮은 거죠. 담당자 지정, 시건 장치, 감사 같은 업무는 많은데, 이용자는 거의 없고 해서 아마 없애려고 하기도 했을 거예요”라고 말함
 - 통일 및 북한 연구자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 내 특수자료실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을 위한 북한 소개 및 통일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내 특수자료실 특화가 필요함
- 통일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지역 분관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통일부 내 북한자료센터 위상을 고려하면 지역 분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북한 및 통일자료실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임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정보에 대한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북한 정보·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177)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75쪽

북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김정은 사망설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 정보들이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유통되는 등 현재의 북한 관련 정보 제공 상황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음
- 북한 정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함
- 특수자료실은 어감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내 통일자료실이라면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음
- 물론 통일자료실은 법률상 특수자료실이지만 통일자료실이라고 명명함

3) 사업 내용

- 지역별로 북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북한 자료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일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나 통일플러스센터, 통일교육선도대학 등을 통일·북한 자료에 대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지역 통일교육센터는 대부분 대학 내에 위치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음(서울 국민대, 경인 아주대, 영남 경남대, 호남 사단법인 우리민족, 충청 서원대학, 강원 한라대, 제주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 통일 플러스센터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통일교육, 교류협력, 탈북민 지원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지역 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관임
 - 2018년 9월 인천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호남과 강원권에 통일플러스센터 1개소 설치 예정임
- 통일플러스센터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용 등을 고려하면¹⁷⁸⁾ 지역 대표도서관이 규모에 맞추어 통일자료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178)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비는 약 80억원인데 국비가 31억 5천만원임.
<한국경제>(2021.04.23.), “통일부, 80억원 들여 목포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39604i>(검색일: 2021년 8월 2일)

- 지역 대표도서관 내 통일자료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
 - 통일부 통일자료관과 협력하여 도서구비 등의 도움을 받음
 -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전담기구가 될 수 있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받음
- 지역 대표도서관의 통일자료실은 도서뿐 아니라 북한 영화, 드라마, 공연현황 영상물, 미술작품을 고루 갖추도록 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사업운영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인력의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력 전문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기존 사서 가운데 북한학 전공 대학원(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함
 - 두 번째는 북한학 전공자(석사)에게 사서교육원 교육을 통해 사서 자격증 확보하게 하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북한 도서관 이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특수자료인 북한자료뿐 아니라 통일문화, 문화통합 같은 주제의 도서까지 완비하여 지역 대표도서관에 오면, 북한과 통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사업기획을 실시하고, 이후 운영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대표도서관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2~3군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여 전국의 지역 대표도서관 전체에서 운영함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도 사업 진행 가능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지역 대표도서관 시범사업 1~2년, 전체 지역 대표도서관 내 통일정보실 운영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통일자료실 설치를 원하는 기초지자체 단위 도서관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연합단계

- 평양에 통일정보문화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중 수교 초기 중국 연변대학교에 한국연구중심 거점을 설립하여 검증된 자료들을 교류 하였던 것과 같이, 평양에 통일문화와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보문화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전문 분야 문헌자료를 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1-3.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 자료는 북한의 정책을 판단하고, 북한 주민 사회의 양태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음
- 남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 정세 동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남북의 사회문화 통합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자료로서 활용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분희(1994)는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함¹⁷⁹⁾

- 이우영과 전영선(2009)은 특수자료의 이용과 관리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공개기준 세분화, 이용편의 확대, 북한자료에 대한 종합적 정보구축, 남북 교류 대비 종합센터 설립, 전문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¹⁸⁰⁾
- 송승섭(2010)은 특수자료의 이용과 취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기구로써 ‘북한정보자료교류협의회’의 구성과 이를 통해 전국의 ‘특수자료취급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모형을 제안한 바 있음¹⁸¹⁾
- 현재 북한 도서 및 자료 대부분이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관련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전국적으로 20여개 부처 산하 170여개 기관이 취급하고 있음¹⁸²⁾
 - 「특수자료취급지침」은 “정치적·이념적 자료”,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정하는 내용”을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 판단자의 주관에 배제하기 쉽지 않은 까닭에 특수자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
 - 대체로 ‘이적표현물’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관리한 것¹⁸³⁾으로 이들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북한 관련 연구자 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거의 접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는 북한 주요 기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완전한 정보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에서 북한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음
 - 국내에서도 외국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으로 북한 사이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중국인이라면 중국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주요 사이트 접근이 가능함

179)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65쪽

180) 이우영, 전영선(2009), “북한자료 공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2(2), 62~97쪽

181)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71~93쪽

182)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74쪽

183)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76쪽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통제 중심의 정책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의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북한 영상자료의 경우 1950년대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 방송편집물 등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기도 함
 - 북한 자료 접근을 통제한다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지침과 방향을 잡아주고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임

〈표 5-4〉 유튜브 채널 'NEW DPRK' 영상 업데이트 목록(2020)

구분	업로드 날짜	제목	내용
EP.01	2019.10.12.	What It's Like To eat Burgers In North Korea	모란봉서광식당
-	2019.10.15.	Teenagers in North Korea: Blue sky blue sea blue dream MV	조총련우리학교
EP.02	2019.10.17.	How much is North Korean Smartphone ?	중앙정보통신기재판매소
EP.00	2019.10.28.	Chinese Greeting from DPRK Today	평양국제영화회관
EP.03	2019.10.29.	What is a North Korea haircut looks like ?	창광원
EP.04	2019.11.05.	Golden Autumn in PyongYang	평양의 가을
EP.05	2019.11.09.	What Does Traditional North Korean Cold Noodle Like?	옥류관
EP.07	2019.11.25.	Phungsan Dog in Pyongyang	국견품평회장
EP.08	2019.11.28.	Visiting a retired fabric worker in Pyongyang	어머니날(11.16.)
EP.09	2019.12.03.	Visiting Famous North Korean Actor	피바다극단
EP.10	2019.12.08.	Visiting Pyongyang Normal University	평양교원대학
EP.11	2019.12.11.	Visiting a North Korean Shooting Range	메아리사격장
EP.12	2019.12.16.	Go skating in Pyongyang	인민야외빙상장
EP.13	2019.12.25.	How to make Traditional Kimchi? Episode1	김치만들기1
EP.14	2019.12.28.	How to make Traditional Kimchi? Episode2	김치만들기2
EP.16	2020.02.26.	Winter in Pyongyang	평양의 겨울
EP.17	2020.02.29.	Wonderful Experience in Pyongyang Horse Riding Club	미림승마구락부
EP.18	2020.03.14.	Inside a North Korean home: Daily life of Pyongyang	북한 가정 방문
EP.19	2020.03.28.	Dreams come true in DPRK	유명음악인 소개
EP.20	2020.04.01.	North Korea Taekwondo Classes	태권도전당
EP.21	2020.04.11.	We plant a tree in Pyongyang	나무심기
EP.21	2020.04.26.	North Korean children's Daily Life Vlog	북한 어린이의 하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업로드 날짜	제목	내용
EP.22	2020.04.29.	Students return to classes in Pyongyang: New semester begins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EP.23	2020.05.12.	Primary School Preparation: Nomal North Korea Family	소학교 등교준비
EP.24	2020.05.20.	Visiting Stamp Museum in North Korea	조선우표박물관
EP.25	2020.05.23.	Daily life of kids in Pyongyang	집에 있는 수진이
EP.26	2020.05.25.	Go to supermarket with me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보통강백화점
EP.27	2020.05.30.	The Oceanarium in Pyongyang	릉라곰등어관
EP.28	2020.06.09.	Primary School: New semester begins	학교에 가요
EP.29	2020.06.27.	Fish farming in DPRK	대동강이동식그물 우리양어장
EP.30	2020.07.04.	Dental Checkup in DPRK	병원에 간 수진이
EP.31	2020.07.15.	Primary School in DPRK	소학교의 공부시간
EP.32	2020.07.22.	2020 DPRK fashion Style	종로양복점
EP.33	2020.08.05.	I Sent A Letter To Pyongyang Hospital	평양종합병원건설
EP.34	2020.09.09.	Celebrate the National Day in DPRK	건국절(9.9.)
EP.35	2020.09.15.	The growth record in DPRK	평양산원
EP.36	2020.09.18.	DPRK Korean Silk: Korean Silk Factory in Pyongyang	김정숙평양제사공장
EP.37	2020.09.25.	Let's see reconstruction from typhoon in DPRK	대청리수해복구

자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2021), 『2020 북한 동향과 분석』

- 북한 및 통일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접근성에 제한이 큰 북한 특수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현재 수준보다 증대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학술연구와 통일교육 등에 관련 자료 활용도를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음
 - 북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문헌자료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학술연구, 정책개발,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영상자료 4,780편 가운데 북한 영화심의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 서비스되고 있는 영화는 약 800여 편으로 보유 자료에 비해 활용

도가 낮음

- 통일부 소장 미공개 자료 대부분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어, 특수자료로 관리하는 의미가 크지 않음
- 북한 특수자료를 세분화하고, 특수자료 취급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을 활성화 함
 - 특수자료 분류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특수자료의 일반자료화)
 - 특수자료 취급 주체 간 보유자료 상호교환, 자료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북한자료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북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개방을 통해, 북한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 유통을 촉진함

3) 사업 내용

- 특수자료 이용 기준 세분화 및 통일사료로 개념 확대¹⁸⁴⁾
 - 현재 특수자료는 정치적·이념적 자료를 통한 체제의 찬양과 선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용자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제약함
 - 특수자료로 분류하는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더 많은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통일사료’ 곧 통일 실현과정에서 생산·수집되는 자료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개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이 같은 관점 전환을 통해 특수자료 상당수를 일반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네트워크 및 분야별 특성화를 위한 협의체 형성¹⁸⁵⁾
 -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특수자료 취급, 이용과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정원이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주축으로 협의체 구성

184)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91쪽

185)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92쪽

- 기관 간 특수자료 상호 교류와 공동활용, 특수자료 분류기준 재정립, 기관 종사자 간 워크숍과 세미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개최 등 특수자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작업 수행

■ 북한 자료 정보화 및 DB구축

- 북한 자료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공개에 앞서, 북한 자료에 대한 성격과 개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DB를 구축해야 함
- 북한 자료 자체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고,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음
- 통일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등의 각 분야별 자료가 공공 DB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김광진(2007)은 남북한 주민이 도서관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¹⁸⁶⁾, 이 때 북한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침과 가이드가 필요함

■ 북한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북한 정보의 단계적 개방에 대비하여 정보 제공을 체계화

-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주요 문화예술 작품들을 중심으로, 줄거리와 기본 정보, 잡지나 논문의 기사와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로동신문>의 기사제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상자료의 경우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기본 정보와 줄거리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음
-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보의 올바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함

186) 김광진(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2쪽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 직접 교류사업이 아니므로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고 통일 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업
- 북한 자료 관리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
 - 북한 자료에 대한 관리는 북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련 자료 관리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 자료 관리자는 단순한 자료 관리 차원을 넘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도 갖추어야 함
- 이러한 북한 자료 관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높음
 - 홍선표(2008)는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 바 있음¹⁸⁷⁾
- 북한 자료의 개방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언급한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특수자료취급지침 변경 및 완화)'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임
 - 전자가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는 뒤에서 다시 언급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특수자료취급기관 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대학도서관 등 관련기관이 협력함
 - DB구축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담당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의 남북 경색기(북한 제재기)부터 화해협력기 초기까지 지속 진행

187) 홍선표(2008),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자료 지정기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사업 수행 기간은 1~2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특수자료와 일반자료 구분의 정확한 규정을 통해 상당부분을 일반자료로 분류

■ 연합단계

- 극소수의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자료로 분류

1-4.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 정보 자체에 대한 통제로 인한 남북 교류 장애요인 해소

- 현재 특수자료취급지침은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8519호, 2021.10.19., 일부개정) 제4조 및 「정보 및 보안업무 기화·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 제6호 및 제5조에 따라 특수자료 감독부처 및 취급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현실적으로 ‘특수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여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와 관련한 전반적 통제로 인해 남북 교류 전반에 차질이 있음
- 특수자료취급지침은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에서 내용상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남북 교류에 필요한 정보 접근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북한 자료로서 관리의 현실적 난맥 및 북한 정보의 대외 의존성 심화

- 북한의 정보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전세계에 유통되지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임
- 전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에는 북한이나 친북 단체에 올리는 자료를 포함하여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올리는 영상을 비롯하여 북한 영화, 노래, 드라마, 뉴스 방송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해외로 나가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은 북한의 공식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특수자료취급지침으로 북한 정보가 제한되면서 북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의존성이 높아짐
- 학술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인해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해외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의 북한 연구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북한자료 개방은 두 가지 방법, 곧 바로 위에서 제시한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특수자료취급지침 변경 및 완화)’ 방법과, 특수자료취급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전자는 단계적으로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화하는 것으로 특수자료실을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지속 운영함(북한자료를 열람 대출할 수 있는 공간, 곧 취급기관 인가 해제·지도감독은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함)
 - 후자 역시 북한자료를 단계적으로 일반자료화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환경만 조성하면 북한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게 하고, 북한자료를 열람대출하는 공간에 대한 인가해제·지도감독은 통일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담당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자료의 연구 및 정책 자료로서 활용성 제고
 - 북한 연구가 정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도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 문제에 치우쳐 있음
 - 북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해도 북한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 학문적 진입 장벽이 되고 있어, 특수자료취급지침을 뛰어넘는 법률((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
-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정보·자료의 하나로서 북한자료가 포함되어,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체계를 유지하지만, 관련부서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통일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으로 변경하여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국가 법률로 북한자료를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음

3) 사업 내용

- 특수자료취급지침을 폐기하고 북한 자료로서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가칭)「북한자료관리법」으로 대체함
 -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기존 특수자료(북한자료)의 일부를 조기에 일반자료로 변경함
- (가칭)「북한자료관리법」과 특수자료취급지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북한자료(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는 해당 감독부처의 장(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결정하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는 통일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취급기관 인가를 담당함
 - 현재는 특수자료 분류를 취급기관의 장(특수자료실 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하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는 통일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제시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은 국정원장이 관계부처와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결성 운영할 수 있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통일부 장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음
 - 특수자료취급지침은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특정 내용을 포함한 것을 포괄한다면,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북한자료에 한정함(반국가단체는 제외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특수자료 보안관리 및 취급을 위한 자체 내규를 취급기관과 감독부처에서 수립하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취급기관이 해당 감독부처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 공개 및 일반자료 재분류할 수 있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특수자료 공개 및 일반자료 재분류의 목적 및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 바 통보 과정이 불필요함
- 한편 (가칭)「북한자료관리법」은 현재의 특수자료취급지침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속 유지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특수자료를 출입통제가 가능한 보관실에 보관하고, 분실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도 동일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자료대출 시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도 동일함
 - 특수자료취급지침에서는 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미반납 또는 분실사유를 확인하고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하는데, 이것은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서도 동일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국가보안법」(법률 13722호, 2016.1.6., 타법개정)과의 연관성
 - ‘북한자료’의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보안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북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특수자료취급 지침 변경 및 완화)에서 언급한 것과 유의 및 고려사항은 유사 동일함
 - 남북 직접 교류사업이 아니므로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고 통일 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임
 - 북한 자료 관리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북한 자료 관리자는 단순한 자료 관리 차원을 넘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도 갖추어야 함
- 북한자료를 현재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열람 대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의 선전내용에 대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우려, 북한의 대남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만 북한 자료를 공개하고, 북한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주체는 통일부가 적합하며, 세부 사업 추진 주체안은 다음과 같음
- (1안)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북한자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방안으로 북한 자료의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별 거점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료를 관리할 수 있음
- (2안) 통일부(북한자료센터)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공동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임
 - 북한 자료의 구입과 관리의 노하우가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관리 주체가 되는 방안임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자료의 수집과 특수자료에 대한 관리 경험이 많으나 지역 거점이 없어서 지방에서의 관리에 취약점이 있음

■ 추진 기간(시점)

- 현재부터 준비하여 화해협력기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특수자료실 현황 파악, (가칭)「북한자료관리법」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실시

■ 연합단계

- 극소수의 북한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자료로 분류

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 도서관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고, 세부 교류 과제를 합의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기 위한 협정 체결이 필요함
- 독일의 문화협정(1986)은 동서독 교류를 문서화하여 협정 체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교류가 수행되었고, 교류 자체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됨
- 남북 도서관 분야 협정체결은 선행 연구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된 바 있음
 - 첫 번째는 남북문화협정 내에서 도서관 교류를 하나의 조문으로 포함시키는 것
 - 두 번째는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임
 - 현재와 같은 경색기가 지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기 초반의 교류사업이 진행된 다음 문화협정이든, 도서관협정이든 체결이 가능함
 -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도서관분야에서 별도 협정체결이 쉽지 않고, 문화영역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면에서는 문화협정 내 도서관분야를 하나의 조문으로 포함시킴
 - 독일의 문화협정(1986)에서도 도서관분야의 협력은 제6조에 포함됨

〈표 5-5〉 동서독 문화협정과 도서관분야 협력(1986. 5.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약의 토대 위에서, 상호간에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그럼으로써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속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규정들을 마드리드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관련시켜,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실행한다는 결심하에 문화 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제1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이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 사이에서, 또한(이 협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질서에 상응하고 조약의 실현을 위한 것과 관계되며) 각 조직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또한 쌍방이나 여러 측면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특히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前文)에서 완성된다. 협정당사국들은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승인한다.

제6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은 이점에 있어서 다음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협력 확대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

1. 대출 교류의 확대
2. 참고서지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 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제14조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다. 협정당사국들중 어느 한 쪽이라도 최소한 협정만기 6개월 전에 문서로 통고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유효성은 그때마다 3년씩 연장된다.

제15조 협정을 합의하는 시점에 대해 상호통첩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독간의 전제가 있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선언적 의미이든 실제적 의미이든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도서관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도서관 교류가 진행되면, 개별 교류협력 사업에서 세부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또 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도서관 교류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음
 - 공공도서관 간의 교류, 민간 도서관 및 도서관을 통한 관련 학술·출판 교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려면 도서관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정 체결이 요구됨
- 남북 도서관의 현황과 실태, 교류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서관 교류의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문화협정 내 도서관 분야를 하나의 조문으로 포함시킴

3) 사업 내용

- 문화협정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남북문화협약서(문화협정) 제5조에 도서관 교류를 포함시킴¹⁸⁸⁾

제5조 (도서 및 정보분야) 남과 북은 출판, 도서관, 정보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장려한다.

- ① 주요 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서지 정보 등의 교환
- ② 출판물의 교환 및 온라인 출판 협력

188) 박영정 외,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협약서 체결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5), 90쪽

- ③ 도서관 현대화(정보화)를 위한 협력
- ④ 사서와 정보전문가의 상호 교류
- ⑤ 국제도서전 및 국제도서관대회의 공동참가 및 정보 교환
- ⑥ 도서관의 공동 이용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⑦ 도서관 및 정보분야 공동기구의 조직
- ⑧ 기타 도서 및 정보분야 공동발전을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

■ 도서관 교류에 대한 합의서 내용은 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등에서 협정 내용 개발 및 검토
- 협정에 표기된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남북 도서관계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함
 -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안된 바 있듯이, 도서관 분야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화 함
 - 각급 도서관의 남북 교류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각급 도서관들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중복 사업을 피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공동 사업을 통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
 - 남북 도서관 정보 공유 시, 연구 및 사서인력 교육 정보, 도서관 시설 관련 정보, 출판물의 교환, 대중 교양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 점진적으로 민간 도서관의 남북 교류 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아니면 별도의 남북 도서관 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문화협정 내 도서관이 포함되는 게 적절해 보임

4) 유의 및 고려사항

- 도서관 교류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전 학문분야의 개별적 교류 사업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도서관이 구심점으로서 도서관 분야만의 독자적인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설계함
- 법률적으로 체결한 교류 협정으로서 지위를 보장하고, 남북 도서관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문화협정 내 도서관이 포함되면 문화체육관광부(남)-문화성(북) 또는 로동당 선전선동부(북)가 문화협정 체결(1안)
- 도서관 교류에 한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남)-교육위원회(북) 또는 로동당 과학교육부(북)가 문화협정 체결(2안)

■ 추진 기간(시점)

- 화해협력기 내에 제안하고 협정을 체결함

6) 전후 사업추진

■ 검색기

- 본격적 남북 도서관 교류가 수행되기 전에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국내외 북한자료 수집 및 목록화,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도서관 교류를 수행함

■ 연합단계

- 문화협정은 광범위하므로, 세부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을 개발하여 진행

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은 세 가지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은 북한 도서관과 교류하기 이전에 남한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임
- ‘국내외 북한 자료 목록 구축’은 ‘남한 중심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의 선행작업 성격이 있으며, 남북 교류 이전에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되면 교류시점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종합목록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본 연구의 공공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 및 북한 자료 서비스가 어려운 점은 관련 자료의 제공과 프로그램 진행으로 나타남
 - 통일 및 북한자료 서비스의 어려운 점으로 ‘자료 찾기(공급) 어려움’(40.3%), ‘이용자가 많지 않음’(36.1%)을 꼽음
 -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이 최근 3년간 약 4%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39.2%), ‘기획하기 어려워’(21.1%), ‘정치/이념적 상황 때문에’(19.2%) 등을 꼽음
 - 이처럼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 진행은 도서관과 사서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음
 - 공공도서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가 아래 <표 5-6>와 같이 운영 중이지만,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단순 링크되어 있고, 관련 기관의 북한 관련 분야별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정보자료가 제공되나 일반 시민 또는 도서관 담당자가 기관별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근하기 쉽지 않음
 -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부처나 기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제공하는 산재한 자료를 종합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학술 연구는 물론 학교 등 교육 현장,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일반 국민의 정보 활용에 이르기까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표 5-6〉 통일 및 북한정보 제공 기관 홈페이지

사이트명	제공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링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자료검색(연속간행물, 신착자료, 기사색인, 인가자료) - 원문서비스(통일부 발간자료, 통일연구원 발간물, 학술DB) - 자료실(북한영화, 북한교과서, 북한어린이도서, 북한용어사전) - 참여서비스(북한영화신청, 사전예약 신청, 견학 및 이용자 교육, 신문고 민원신청 등)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개황(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문화) - 북한동향(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일일·주간·월간 동향, 대외동향) - 북한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북한 용어 사전, 남북한 언어 비교, 남북한 IT 용어 비교, 북한 은어, 당정 기구 영문 표기, 남북관계 지식사전, 북한 지식사전 · 인물: 북한인물 · 통계: 남북한 비교통계, 김정은 위원장 동향 분석, 북한무역통계, 북중무역통계, 북한지속가능 발전목표 · 영상·이미지 · 기타 - 전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기본도서, 주제별도서, 기타자료. · 북한무역: 전문보고서 및 월간브리프 · 법령: 북한법령 · 신문: 북한신문 기사목록 - 북한지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통일교육원(새소식, 자료마당, 주요 사업 등) - 교육센터(교육안내, 원내교육, 사이버교육 등) - 통일체험마당(수유산책, 학교통일교육, 평화의 길 통일 걷기, 통일웹툰, 자료실) - 통일교육주간
통일부 통일연구DB https://udbs.unikorea.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연구자료 - 주제분류(정치통합·통일방안, 정치과정, 정치엘리트, 행정통합, 치안·통치, 기타) - 발행기관별 분류 - 독일통일이카이브(독일통일백서·정책보고서, 민간연구자료, 독일정부이관문서)
통일부 UniTV https://unitv.unikorea.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방송프로그램 및 기획콘텐츠 - 영상자료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 TECH) http://www.nktech.ne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문헌DB(학술지, 국제학술지, 발명특허, 단행본, 산업규격, 프로그램, 기술정책, 기술법령, 과학백과) - 북한과기자식(북한연구자료, 북한과학기술, NK테크 브리핑, 과학기술용어, 남북전문용어, NKTechTV) - 인물 & 기관(과학기술인물, 과학기술기관, 과학기술일지) - 테마콘텐츠(백두산의 자연, 북한의 천연기념물)
통통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평화통일 안내 - 초등수업자료, - 중등수업자료

사이트명	제공 내용
	- 연구·연수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탈북학생 교육 - 지원 사업 안내(학생 지원, 교사 지원, 학부모 지원) - 자료실(센터발간 자료, 맞춤형 멘토링, 법령·정책·통계, 기타 자료) - 알림/소식
마포중앙도서관 https://mplib.mapo.go.kr/mcl/index.do	평화1번지 마포 - 소개, 온라인정보원(평화시대와 북한) - 소장자료 검색(평화로 가는 길)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자료 확인과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최소화로 효율적 이용 가능
 - 일반 시민이 북한 및 통일 정보를 자연스럽게 쉽게 취합할 수 있음
 - 종합적인 활용체계 구축은 정보공유 및 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제고와 북한 이해의 일상화에 영향을 미침
- 도서관(또는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북한 도서 정보 뿐 아니라 북한 일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치·사회·환경과 도서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북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는 <로동신문>인데, 포털 사이트 내 북한자료실에서는 <로동신문> 기사색인 검색이 가능함
 - 북한 연구자 또는 도서관 연구자들은 북한 도서관 연구(원문 중심)의 첫걸음을 <로동신문> 기사색인 검색부터 시작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통일 및 북한 관련 종합포털을 구성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분석과 협력이 필요함
 - 현행 관련 시스템 조사와 유관 기관 담당자 협의 및 현황 분석 및 구축 계획 수립
 - 이용자 요구와 필요 사항 조사 및 분석

■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홈페이지 구축 및 확대 개편

- 남한 내 북한 관련 정보의 이해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포털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
 -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와 사업 결과를 포함한 북한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털 홈페이지 구축
 - 확장성을 가지고 가용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조직하여 자료와 정보의 활용 활성화와 교육·홍보 효과 도모
 - 사업추진 여건과 정책에 따라 유관기관 간의 협력으로 대북사업 활성화에 활용

■ 전반적인 포털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 설계

- 검색 등 포털 홈페이지의 기능 요구 사항 및 HW/SW 등 인프라 구축
- 현행 통일 및 북한 정보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쉬운 확인과 활용 체제 구축
- 기관별·주제별·대상별·유형별·목적별 등 정보 자료 재조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점 다양화

〈표 5-7〉 포털 검색기능 재구성의 예

구분	내역
기관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포털대상 기관 등
주제별	통일 및 북한 관련, 분야별 주제 영역 분류표 개발 (향후 남북간 확장 가능성 고려)
대상별	학생 (유·초·중·고), 대학생 이상, 교사, 일반인 등 (교육청, 학교도서관 등 관련기관)
유형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목적별	교육용, 연구용, 프로그램용 등

■ 종합포털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함

- 포털 홈페이지 구축 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관계 부처 협의, 법·제도적 문제 해결
- 포털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 설계
-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 홈페이지 확장개선 및 협력 유도

■ 사업 및 운영 주체와 참여 기관의 역할 분담 공식화

- 사업 및 운영 주체 체계화: 통일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등

- 포털 구축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추진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포털 참여기관협의체 구성과 참여 기관 간의 역할 분담 공식화

4) 유의 및 고려사항

- 종합 포털 구축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종합 포털 내에 북한 도서관 자료가 포함될 수 있고, 북한 연구 일반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도서관 연구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덧붙여 자료의 집적이란 면에서 보면, 도서관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1안)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리더십 발휘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 직제 및 규정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이 포함돼야 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남북소위), 북한 연구자,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정책자문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한 정보의 소비자와 운영자를 포괄하는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리더십 발휘
 - 통일부 산하 기관의 ‘북한정보 포털’을 통일 및 북한관련 종합 포털로 확대 구성
 -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는 관종별 대표도서관과 참여도서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문별 협력 추진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남북소위), 북한 연구자,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정책자문

■ 추진 기간(시점)

- 경색기에 교류협력 준비를 위해 추진할 수 있으며 약 2년 정도 소요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1차년도: 종합계획 수립과 시스템 구축 계획 동시 추진
- 2차년도: 시스템 구축 운영, 확장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기능 개선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종합포털 홈페이지의 북한관련 협력 사업 소식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관련 정보 및 추진 상황, 교류협력 사업을 홍보용으로 활용

■ 연합단계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종합정보포털로 확대

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한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북한 자료의 종합목록(union catalog) 구축

- 현재 북한 자료는 북한자료센터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기관으로는 통일연구원 자료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자료실, 세종연구소 자료실이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음
- 북한자료를 구매하는 곳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 도서관 별로 중국에서 들여온 자료, 연구자가 기증한 자료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실에는 1950~1960년대 폐기한 북한 소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일부 북한 문학연구자들이 찾음
- 현재 도서관별로 북한 자료 보유 여부는 검색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함

■ 2010년 기준 남한 내 북한 자료는 22개 부처 173개 기관에 산재되어 있음¹⁸⁹⁾

- 북한 관련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국책 연구기관, 북한 관련 출판업체 및 연구소 등

189) 정연경(2014), 81쪽; 송승섭(2010), 74쪽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기관¹⁹⁰⁾
 -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한글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등
-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재단 등
- 관련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료들에 대한 목록은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관 소장 북한 자료의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자료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도서관 및 연구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 도서 목록화 작업에는 외국에 있는 북한 자료도 포함함
- 이때 북한자료는 도서뿐 아니라, 번역물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등을 포괄함
 - 북한은 출판, 교육 자료를 급속하게 전자화하고 있어, 최근 자료는 인쇄물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음
 - 또한 북한에서 번역한 외국 작품, 외국어로 번역된 북한 작품도 포괄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현재 남한이나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는 열람 가능한 북한자료(도서,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등)를 목록화하면, 추후(화해협력기)에 시도할 수 있는 북한 도서관의 소장 자료 목록화 작업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 덧붙여 외국의 북한자료 목록화작업을 진행하면, 외국도서관과 관계 설정으로 관련 학술 회의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국립국악원 사례(일본인 소장자료부터 북한 자료 1만여점 기증 및 구입)처럼 숨어있는 북한자료를 찾을 수 있음
- 북한 관련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북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190) 이성우 외(2021), 『남북 문화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문화체육관광부), 433~435쪽.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기관이 아닌 경상북도 출연기관임

- 남한 도서관 내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에 특수자료실 간 협력, 남북 도서관 교류 거버넌스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국내 북한 관련 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북한정보포털내 북한 테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연구 DB, 통일부 UnitTV 등의 소장자료 목록 취합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중 특수자료실의 북한자료 목록 취합
- 국내·외 공공·민간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북한 관련 시청각 기록물을 우선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북한자료센터, 한국영상자료원,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도서관, 기업,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에 분산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

■ 외국에서 소장 중인 북한자료 목록 구축

- 일본 조선대 도서관 소장 북한 자료 목록 취합
 - 조총련계 대학인 일본 조선대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자료목록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음
 - 자료량 자체는 많지 않으나 북한이 1950~1960년대 없앤 책들(중간에 잘려나간 부분 포함), 남한에 없는 잡지 등을 소장하고 있음
- 중국 연변대 도서관 소장 북한 자료 목록 취합
 - 연변대는 북한 자료를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목록화되어 있음
 - 남한 연구자들의 북한자료 요구가 많아서 시건 장치가 있어 열람하려면 서류작업을 거쳐야 함
- 기타 외국대학 도서관, 연구소, 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자료 목록 취합
 - 최근에는 외국대학 도서관에 북한 자료가 많지 않아 남한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저널 같은 유통사에서 북한자료를 구함
 - 다만 조선대 도서관처럼 예전 북한자료 등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함
 - 동유럽 국가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북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국 북한 연구자, 외국인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자료 목록 취합

- 국립국악원은 특수자료실 설치 인가를 받고(2016), 일본인 수집가에게 북한 자료 1만여 점을 기증 및 구매함(2017)
-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북한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자료 소장여부 파악
- 북한이 외국에 제공하는 도서(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를 포함하여 수집
- 국내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이외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북한자료 목록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한 사례를 지급하고 목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의 간접적 효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국내 특수자료실 간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연구의 활성화가 가능함
- 특수자료실 간 네트워크는 정부기관은 부처별 네트워크, 대학도서관 내 특수자료실 간 네트워크, 정부출연 연구기관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음
- 총괄적인 주무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실이 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주관기관이 국내외 북한자료를 취합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어디에서나 북한자료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함
- 주관기관 내 홈페이지뿐 아니라 자료를 협조한 개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목록을 검색할 수 있음
- 북한 연구자가 자료 수집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북한관련 특수자료 소장 기관 간 공감 형성이 중요한데, 이 같은 작업이 개별 도서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함
- 특수자료이지만 상호대차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영인본 출간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이 경우 저작권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함)
- 외국 도서관과 교류에서는 사업의 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변대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부처 간 네트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는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통일연구원내 사무국 있음), 특수자료실 있는 대학도서관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 기존 협의체 활용
- 네트워크 간 협력 및 사업 총괄은 통일부 북한자료실,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공동으로 수행함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 추진할 사업임
- 착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1~2년 소요 예상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북한 내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원문 전자문서화 작업 시도(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검색기에 수집한 국내외 북한 자료 가운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폐기한) 자료는 구매해서 모든 책자를 수집해야 함

■ 연합단계

- 남북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연구기관 등에서 북한 및 남한자료 원문서비스를 볼 수 있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을 통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함)

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 도서관 간 학술정보를 비롯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교류 대상 도서관의 소장자료 확인이 전제되어야 함

- 단위 도서관 간 협력에서부터 국가대표도서관 간 협력, (구축된) 종합목록시스템 간의 협력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 수 있음
 - 단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시 반입된 목록데이터를 참고
 - 남북 단위 도서관 간 종합목록과 남북한 언어차이 해결을 위한 전거DB의 실험적 사례가 될 수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함
 - 국가 수준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을 추진한다면, 남한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중심 협력시스템인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¹⁹¹: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들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자료의 규모를 고려하면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들 수 있음
- 북한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통해 북한 관련 국내외 자료를 포함하는 남한 내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 종합목록구축에 있어 남한 도서관은 KORMARC을 북한 도서관은 KPMARC을 적용하여 MARC이라는 공통 규칙에 의한 데이터의 통합이 비교적 용이할 것임
- 하지만 검색과 공통 분류표 개발 등 남북 종합목록 구축과 활용에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남한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 추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 간 협력의 기본이 되는 추진 기반 구축
 -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남북 도서관 간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협력이 가능하며, 남북 연구 발전에도 기여
 - 관종별, 주제별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협력의 기초자료가 되며, 나아가 분야별, 기관별

191)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1,700여개 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DB이며, 도서관 간 정보공유 및 상호대차 협력 시스템

도서관 협력으로 심화 확대 가능

- 후속협력인 상호대차, 전거사전 등 제한적 환경에서도 협력기관 간 전거DB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 용어 샘플을 획득하고 협력이 활성화되면 전거DB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음
 - 남북 언어연구 및 북한 관련 연구의 기본이 되는 정보제공
 - 남북 용어 간 전거 DB구축으로 통합 검색 등 학문연구와 자료 활용의 용이성 제고
 - 북한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하면서, 북한 정보 이용의 활성화 가능

3) 사업 내용

- 남한 주도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남한 주도의 국내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이 선행돼야 함(1절-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 구축된 종합목록 DB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에 통합하는 남한 주도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전거DB 구축
 - 남한 주도의 종합목록 DB를 활용한 남북한 용어의 상이함에 따른 전거DB 구축 및 관련 연구 수행
 - 북한자료 전거사전의 기초로 활용, 분야별로 연구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
 - 기존에 구축된 '겨레말큰사전'과 분야별 각종 남북용어사전, 북한자료센터의 '로동신문 DB'를 비롯한 기존의 북한자료 DB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
- 연구와 개발은 문헌정보학 전문가와 현장 사서, 남북한 언어전문가, 북한전문가, 탈북민,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해야 함
 - 남북 도서관 간 상이한 규칙 적용에 대한 적용 방안 모색
- 선행 사례 검토와 연구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경험: 남한의 기개발된 전자도서관 시스템 적용 및 DB

구축 사례 등

- 남북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평양과학기술대학(PUST) 디지털도서관 모델 개발 연구¹⁹²⁾
-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구축 사례 등을 종합하여 기술적 문제를 비롯한 종합목록 구축의 제반 고려 사항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
- 화해협력기 이후 협력 의제 개발
 - 종합목록을 통해 제기된 현안에 대해 향후 화해협력기 이후 남북 대표 도서관간 종합목록 확대 발전과 분야별 종합목록 구축 등 협력 의제 개발과 협력 사업 추진
- IT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분야, 역사분야 등 분야별 종합목록 구축 추진과 확장
- 남북 도서관이 MARC라는 세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목록데이터의 통합에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통합 DB의 검색을 위한 용어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시소러스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 도서관 간 종합목록은 대표적인 종합목록 DB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이나 분야별 특성화된 기관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 구축 대상 자료 파악과 시소러스 개발, 분류기준 개발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세부적 조사 및 연구 추진
- 남한 내 구축된 북한자료 종합목록과 남한 주도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의 지속적 질 관리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국가수준의 종합목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

192) 이종문(2008), “북한 PUST 디지털도서관 모델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23~158쪽

■ 추진 기간(시점)

- 검색기에는 국내외 북한자료 종합목록 구축(1절-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 구축된 종합목록과 남한 내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합하여 남한 주도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단계별로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확대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남한 주도로 구축한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검색기)의 북한 도서관 소장 정보 통합 점검, 분류, 시소러스, 표준의 점검 및 보완 개발 적용 방안 협의

■ 연합단계

- 남북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3.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는 세 가지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가칭)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등은 남북 교류 이전에 남한 도서관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문인력 양성’은 남북 문화 교류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하고,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현재 입수 가능한 북한 자료를 대상으로 남한 도서관 연구자들이, ‘분류표 개발’은 북한의 분류표 입수(구입)를 통해 남한 도서관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 연구자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과 마찬가지로 본격적 남북 교류 이전에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되면 교류시점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음

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현재 북한 도서관 연구자는 극히 소수인데, 전문 연구자 육성을 통해 북한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이 교류협력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교류사업의 효과성 제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북한 도서관’으로 검색하면 81건의 학술논문이 검색되는데, 북한 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논문은 30편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¹⁹³⁾
 - 학술정보포털(DBpia)에서 ‘북한 도서관’으로 검색을 하면 13편 정도의 논문이 있으며, 특정 저자가 6편을 작성함¹⁹⁴⁾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북한 도서관’으로 검색하면 40건의 학위논문이 검색되는데, 북한 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논문은 5편 정도임¹⁹⁵⁾
- 북한 도서관계 현황, 그리고 특히 현재 관심 분야에 대한 익숙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교류협력을 준비할 수 있음
 - 최근 북한 도서관계의 변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관심을 갖는 사서 및 연구자도 극소수임
 - 예를 들어, 2013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창성군을 시찰할 때 각지에서 현대화 전자도서관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각지에 건설하는 도서관의 이름을 ‘미래관’으로 통일하라고 지시함
 - 이를 근거로 황해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에 소속된 시, 군 등지에서 새로 건설한 도서관을 모두 ‘미래원’으로 이름을 수정¹⁹⁶⁾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음

19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1년 10월 24일)

194) DBpia, <https://www.dbpia.co.kr>(검색일: 2021년 10월 24일)

1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1년 10월 24일)

196) 차금선(2017), “북한의 IT 산업과 전자도서관 현황,”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2쪽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도서관계의 이해와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향후(현재) 구체적인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을 제시할 수 있음
 - 북한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¹⁹⁷⁾ 지엽적이더라도 최근 북한의 도서관 정보를 취득하는 게 필요함
 - 현실적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북한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최대한 관련 자료를 취득하고 연구해야 실질적인 도서관 교류를 수행할 수 있음
- 북한 도서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남북 도서관 교류의 효과성 제고
 - 문화영역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북 문화 교류 전문인력 규모와 전문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함¹⁹⁸⁾
 - 전문인력의 규모
 - 전문가: 부족(89.0%) > 적당(8.0%) > 충분(3.0%)
 - 일반인: 적당(52.0%) > 부족(35.0%) > 충분(13.0%)
 - 인력의 전문성
 - 전문가: 부족(56.0%) > 적당(37.0%) > 충분(7.0%)
 - 일반인: 적당(63.0%) > 부족(20.0%) > 충분(17.0%)
 -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북한 도서관 연구자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스스로 공부하여 전문성을 쌓고 있음
 -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관심이 있더라도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주전공으로 북한(도서관)을 삼기 어려움
 - 참고로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은 연구자와 사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서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단기 교육을 제시한 바 있음
 -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서 북한 도서관 연구 전문가 육성을 통해 남북 도서관 교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함

197) 예를 들어, 북한 도서관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표준분류체계를 1964년 국립중앙도서관[북한, 인민대학습당 이전의 북한 대표도서관]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로 인식함. 남태우(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90쪽

198)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북한 도서관 연구는 화해협력기를 대비한 주요 논의대상 이슈를 선점할 수 있으며, 문헌정보학 전 분야에서의 학술 교류 토양을 제공함

3) 사업 내용

■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연구자 양성은 문헌정보학 전공 석사 이상, 북한학-통일학 전공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전자는 북한학 석사과정, 후자는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현실적으로 보임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이상 졸업생 가운데 연간 1~2명을 선발하여 국내 북한학과의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전액 재정 지원
- 북한학 박사과정 진학 시,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전문 연구인력 양성은 북한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및 통일문화 전반을 포함하여 문화영역 전반에서 사업을 진행함

■ 북한 도서관 연구 주체

- 초기(전문인력 양성 이전)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문헌정보학 연구자-북한 사회문화 연구자들이 팀을 이뤄서 연구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전문인력 양성 이후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 진행(이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연구자-북한 사회문화 연구자 협력 지속)
- 북한 자료에 관심이 많은 사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들은 연구뿐 아니라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 북한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및 실무분야 잡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한에 '도서관학과'는 김일성종합대학 1곳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에는 여러 다른 학문 분야와 함께 분기별로 3~5편의 도서관학 분야 학술논문이 게재됨
- 북한의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는 분기별로 『도서관일군: 참고자료』를 발행하고 있으

며, 호당 8~10개의 도서관 실무 관심 기사 게재

- 덧붙여 도서관계 현황을 기사로 신는 <로동신문>도 분석함
- 이 같은 분석자료는 연 1~2회 (가칭) 『원문으로 보는 북한 도서관 현황』이란 책자로 간행함
- 책자 간행을 초기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점차 재정지원을 통해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이 소속된 (가칭) ‘남북도서관교류추진단’에서 담당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 부문별 목록 개발
- 남북 도서관 업무의 분석을 통해 공통 업무 및 현안 업무 등의 중요성과 남북 협력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남북 도서관 교류 시 업무부문별 목록 개발
- 업무를 중심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우선되는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단계 설정
-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한 우수사례 등 조사
-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도서관 협력과 공감대 형성
- 전국도서관대회, 분야별/기관별 사례 등에서 미래지향성(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남북 도서관 교류), 현안해결(남북 도서관 교류 시 발생할 돌발 상황 대처)의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연구 전문인력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 문화 교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함
- 연구자료는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서 상당한 정도로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님
- 북한 도서관 교류는 다양한 돌출변수가 있기에 현안 대응력이 있는 도서관, 그리고 미지의 교류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 도서관, 그리고 문화가 다른 외국과 교류활동이 활발한 도서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남북도서관교류추진단’에서 추진하고(특히 일자리 창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후원
- 초기 공모사업 진행 시에는 문헌정보학 교수와 협력이 필수적임
- 남북 도서관 업무 분류 목록개발은 현재 도서관계에 북한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자료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서, 문헌정보학계 교수, 북한연구자 등이 참여해야 함

■ 추진 기간(시점)

- 검색기에도 수행할 수 있음
- 착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은 1년 소요 예상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관련학과-국내 문헌정보학과와의 정기 세미나 개최
- 검색기에 북한 도서관 연구의 일환으로 발간한 『원문으로 보는 북한 도서관 현황』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 『북한 도서관 백서』를 북한 측의 협조를 받아 작성
- 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대상 업무에 대한 업무목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 추진 사업 협의

■ 연합단계

- 남북 공동관심 주제 발굴에 따른 문헌정보학 관련 남북 공동연구 수행
- 남북 공동으로 학술지 가칭 『남북 도서관 연구』 책자 발간
- 남북 도서관 공통 업무 분담 및 사서 및 도서관간 협력, 미래지향적 도서관 발전 방안 등 공통의 목표와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추진

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 간의 생활언어뿐만 아니라, 학술 용어의 이질화 현상이 점차 심화됨
 - 이 같은 상황에서 차이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향후 남북 간 오해 없이 도서관 교류가 가능함
 - 민족통합의 차원에서도 용어 비교는 중요한 일임(‘겨레말큰사전’ 사업에서 학술용어의 비교까지는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 동서독 간 공동학술연구에서도 분단국가 간 대표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Grimm 독일어사전』 편찬 작업이 있었음¹⁹⁹⁾
 - Grimm 형제는 19세기 초 중부 유럽에 흩어져있던 독일어원형 및 파생 형태를 연구하고 구전설화, 민담 및 신화 등을 수집·정리하여 독일민속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 동독 측 학술원 산하 언어학 중앙연구소 내, 독일어사전 사업부와 서독 측 괴팅겐 아카데미 독일어사전 사업부가 Grimm 형제의 이름을 붙인 공동학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체제 이념에 따라 독일어가 이질화가 되어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착수하였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었음
- 남북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는 이미 학계에서 다수 진행되어 온 바 있음
 - 남북 간, 이미 2004년 북한 과학원, 남한 통일교육원, 남한 산업자원부, 그리고 일부 대학이 참여하여 남북 정보화 관련 IT용어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를 발간함
 - (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수행한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또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²⁰⁰⁾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기간 중에 이미 실무자들이 용어 비교표를 만들었음
 - 약 3,000개의 실무용어 비교표가 작성되어 있음

199) 김면(2018),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문화교류와 시사점”, 『웹진 문화관광』, 2018년 4월호

200) 그 외에도 이연숙·한영선·정민영(2016), “통일 대비 남북한 가정생활 용어 비교 분석: 소비자·가정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2), 119~140쪽; 박정호·이원규·이태욱(2007),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내용 및 용어에 관한 남북한 비교 분석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0(3), 9~17쪽 등의 관련 학술연구 성과도 있음

- 실무자뿐 아니라 도서관학계가 참여하여 용어비교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도서관계와 연계하는 범위 확대가 필요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향후 남북 국가서지 통합을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술 교류 사업임
- 한글 문헌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남북 도서관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남과 북의 학술용어 차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임
- 도서관 분야는 아니지만 남북 언어를 비교한 선행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거례말큰사전편찬위원회(남측) 의견 수렴이 필요함

3) 사업 내용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기간 중에 작성한 실무용어 비교표를 도서관계에서 검토하여 신뢰도를 높임
 - 언어학자, 문헌정보학자, 북한연구자, 그리고 탈북자(북한 사서 경험자) 등이 실무용어표 내용을 검토함
- 북한 문헌정보학 학술자료 및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의 용어 분석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에 실린 문헌정보학 관련 논문 분석(약 70여편)
 - 『도서관일군 참고자료』에 실린 문헌정보학 관련 논문 분석(약 100여편)
 - <로동신문> 등에 실린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 도서관 용어 관련자와의 면담 및 검증·확인
- 국내 북한 도서관 관련 학술지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등 분석
 - “‘로작’이라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등의 저작을 말하는 것으로...”²⁰¹⁾
 - “사서의 명칭을 전문일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²⁰²⁾

201) 송승삼정종기(2014),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43쪽

〈표 5-8〉 남북 도서관 시스템 메시지 비교표

김일성종합대학 시스템	남측시스템
락칭을 입력해 주십시오.	약칭을 입력해 주십시오.
기본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대표자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조종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제어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회람중인 검사가 없습니다.	회람중인 확인이 없습니다.
보관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장할 내용이 없습니다.
패턴 완료일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패턴 종료일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회람대상으로 선택해 하십시오	회람대상으로 체크하십시오
총 분배권수가 읽기권수보다 많습니다.	총 분배권수가 구독권수보다 많습니다.
항목에 제목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항목에 서명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발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약 사용을 설정해 주십시오	예약 사용을 세팅해주세요.

자료: 송승섭(2017), "통일시대의 도서관 통일 한국의 국가사료관을 세우자," 『국회도서관보』, 448호, 9쪽

4) 유의 및 고려사항

- 가치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문헌정보학자, 북한 전문가, 탈북 사서, 북한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탈북자 등과 협업해야 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본 사업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문헌정보학계와 협력을 주도하고,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후원할 수 있음
- 추진 기간(시점)
 - 현재 같은 검색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착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음
 - 사업 수행 기간은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2) 송승섭·정종기(2014),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43쪽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이 사업은 화해협력기에 진행할 남북 도서관 자료 분류표 및 종합목록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음
- 남북 직접 학술대회에서 언어로 인해 불편함은 없을 것임

■ 연합단계

- 남북 문헌정보학계 공동연구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

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사례를 통해 북한 도서관이 당시 중국의 MARC을 사용하고 있어 서지데이터의 반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KPMARC²⁰³⁾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MARC이라는 표준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남북의 서지데이터 통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이 상이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의 수집이 곤란한 상황임
 - 분류표 수집(구입) 또는 교환을 남북 도서관 간 협력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분류표 수집(구입) 및 교환을 통해 학자 간의 인적·학술적 교류와 실무적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통 분류표의 개발과 검토를 통해 남북 도서관 간 직접 교류 추진
- 국내에서 북한 분류표의 수집과 비교 분석은 현행 분류표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한의 자료 분류체계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법은 관종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인민대학습당이 개관되기 이전까지 북한에서 국가중앙도서관 역할을 한 북한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펴낸 ‘균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년), 북한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 간행한 ‘성인공공도서관용 도서 및 서지분류표’(1986년), ‘학생도서관용 학생도서관분류표’(1983년),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이 발표한 ‘도서분류표’(1980년)가 있음²⁰⁴⁾

203) 이종문(2008), “북한 PUST 디지털도서관 모델 개발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47쪽

- 북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펴낸 1964년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와 남한의 한국 십진분류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4판을 비교 분석한 강미정의 논문을 보면 남북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은 10진 분류가 아닌 100진 분류를 응용하며, 류문은 43개²⁰⁵⁾와 4개의 보조기호(공통구분기호, 지리보조기호, 관계보조기호, 분석보조기호)를 사용 분류하고 있음²⁰⁶⁾
 - 따라서 상이한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표 5-9〉 북한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1964)

11/15 맑스-레닌주의, 김일성 동지의 저작	54 인쇄 및 사진 기술 공학
21/23 맑스-레닌의 당, 조선 로동당	55 수산업, 수렵업
30 자연과학 총기	56 건설, 건설 공학
31 수학	57 운수, 운수공학
32 력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33 물리학	61/62 농산
34 화학	63 과수 원림
35 천문학	64 산림업, 산림학
36 지질, 지리과학	65/66 축산, 수의
37 생물학	67/69 보건, 의학
40 응용과학 총기	70 사회 과학 총기
41 공업, 공학 총기	71 력사, 력사 과학
42 동력 및 전기공업, 동력 및 전기공학	72 경제, 경제 과학
43 전자 및 자동화 공업, 전자 및 자동화 공학	73 사회 정치 생활
44 광업, 광업 공학	74 국가와 법, 법률 과학
45 금속 공업, 금속공학	75 군사, 군사과학
46 기계 공업, 기계공학	80/82 문화, 과학, 교육 과학
47/48 화학 공업, 화학공학	83/84 언어학 문학 작품
49 립업, 목재 가공 공업	85/87 예술, 예술 과학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89 철학, 철학 과학, 심리학, 종교, 무신론
52 식료 가공 공업	90 종류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자료: 강미정(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40쪽

- 남북한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언어의 표현이 달라 키워드 검색 등에 있어 용어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전거사전의 구축과 함께 공통 분류표의 개발 필요함

204) 남태우(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72쪽

205) 강미정(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쪽

206) 강미정(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공통분류표 개발은 남북 도서관 간 협력을 위한 종합목록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로 검색과 확인, 상호대차를 비롯한 도서관 협력의 기반이 됨
- 공통분류표의 개발은 남북의 상이한 언어 사용에 따른 전거사전이 구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주제의 자료에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공통분류표의 개발과 검토, 시스템 적용 등의 과정은 남북 관련분야 학자 및 연구자, 사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와 연구 및 회의, 적용 및 운영의 종합적인 활동이 포함되기에 다양한 도서관 교류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북한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와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에 대한 전문적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공통 분류표를 개발하는 것임
- 남북 공통분류표 개발을 위한 북한 분류표 수집(구입)
 - 남북 공통 분류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사용 중인 분류표의 수집과 체계적인 비교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등
- 남북 공통 분류체계 연구 개발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통합에 있어 공통 분류체계의 개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개발이 있어야 함
 -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통합을 위해 주제분류 디렉토리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남북 통합 분류표 개발
 -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인 경우, 남한의 한국 십진분류법(KDC)

과 다른 북한 분류체계 분석 연구를 통해 공통분류표를 개발하여 서지데이터의 체계화를 통한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남북 주제 분류체계(디렉토리 분류) 개발

- 우선적인 교류협력 대상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인 경우 남북이 동일한 심진분류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전거사전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검색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대안적인 방법으로 남북 공통 주제분류 디렉토리를 개발하여 계층분류와 함께 주제 분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주제어의 전거에 있어서도 해당 분류표내의 주제명에 대한 전거 사전 또는 남북이 상이한 용어에 대한 주제명 안내를 동시에 제공하여 쉬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전거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주제 분류표의 용어에 한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전거사전 구축 부담이 적음
 - 용어 재확인과 공통 이해를 위한 기준으로 영문주제명을 동시에 제공하여 남북 상호용어 간 소통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남북 양측의 분류표와 주제분류표에 대한 연계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양측의 전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직관적인 주제 분야 접근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남북 주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개발 추진

- 남북 공통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남한 도서관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류체계개발 연구가 경쟁기에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 공통 분류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의 수집(구입)이 선행되어야 함
- 분류표는 기관의 성격이나 대상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성을 지니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함
- 남북 공통 분류체계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있어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통합에 있어 공통 분류체계의 개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 개발된 분류체계의 시스템 적용까지 연구에 포함하여 향후 남북화해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화해기 이전에도 학술 포럼을 비롯한 국제대회를 통한 교류협력 의제로 제안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북한 분류표 수집(구입)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함
 - 북한에서 사용하는 분류표, 우선적으로 인민대학습당에서 사용하는 분류표 수집을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구입 및 교환) 노력
- 공통분류표 연구개발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문헌정보학계에서 연구 개발 용역
 - 도서관계 현장, 북한 언어 연구자, 탈북자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분류표 개발

■ 추진 기간(시점)

- 검색기에는 북한의 분류표 수집(구입) 및 분석 연구 및 공통 분류표(안)개발
-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화해협력기에 남북 양측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공통분류표개발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를 통해 남한에서 연구 개발한 ‘남북공통분류표(안)’의 검토
 - 남북의 도서관 관계자(예: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및 과학기술전당 관계자, 문헌정보학계, 도서관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토
- 본격적으로 남북 양측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분류체계 개발 전문 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분류표 확정

- 남한 내 또는 북한 공동 시스템 시범 적용

■ 연합단계

- 남북 종합목록 DB 구축(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우선)
- 남북 양측 데이터의 반입과 분류표 적용, 시스템 반영

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 남한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는 다섯 가지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등은 현재 같은 검색기에도 실현가능하며,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의 공간을 남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북한 도서, 북한 문학 작품, 북한 영화를 활용하여 북한 문화의 이해를 돕고, 접경지대 역사문화 기록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적 통일문화 형성사업 진행

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현재 공공도서관 가운데 통일(문화), 북한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음²⁰⁷⁾

- 공공도서관은 자료 열람 및 대출 이외에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진행하지만 3장 3절에서 보듯이 최근 3년 동안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공도서관은 4.0%(73개 관 가운데 7개관)
 -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이 적어서 일반화가 어렵지만, 프로그램 주제는 북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 아니라 통일인 것으로 보임

207) 아래의 내용은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을 인용한 것임을 밝힘

- 참여자는 주로 일반 성인이며 프로그램 기획은 해당 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음
-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수강생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인식함
-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못한) 도서관(166개관)에게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기 없을 것 같아서(39.2%), 기획하기 어려워(21.1%), 정치/이념적 상황 때문에(19.2%), 강사 찾기가 어려워(4.8%), 도서관에서 관심이 없어서(4.2%), 도서관회원이나 주변 시민이 부담스러워서(1.2%), 기타(10.2%)의 순서로 나타남
-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은 도서관의 일반 문화강좌 기획의 어려운 점과, 북한-통일-평화 강좌 기획의 어려운 점을 질문했을 때도 드러남
- 보통의 문화강좌에서는 강사 섭외(28.3%), 참여자 모집(28.3%), 프로그램 설계(27.7%)가 어렵다고 인식함
- 북한-통일-평화 강좌는 참여자 모집(32.4%), 프로그램 설계(30.1%), 강사섭외(16.2%)의 순서로 어렵다고 응답함
- 후자라고 해서 강사 섭외가 쉽지 않겠지만, 참여자 모집, 곧 수강생 모으기 그리고 기획 자체가 어렵기에, 강사 섭외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표 5-10〉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vs.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사례수	강사 섭외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설계	예산 확보	정보 확보	프로그램 홍보	기타
평소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173	49 28.3	49 28.3	48 27.7	17 9.8	6 3.5	3 1.7	1 0.6
북한-통일-평화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운 점	173	28 16.2	56 32.4	52 30.1	5 2.9	19 11.0	2 1.2	11 6.4

- 하지만 공공에서 통일문화 확산, 북한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공도서관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공공 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개체 수가 많은 기관이 공공도서관임(기초지자체 단위에서 2개 이상인 문화시설은 도서관이 유일함)
- 현재 도서관은 도서 열람 및 대출기능을 넘어서 실제 다양한 문화강좌가 이뤄지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종의 통일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통일교육을 안보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접경지대 탐방을 안보관광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사서들은 통일-북한-평화교육 담당기관으로 도서관(27.8%), 주민센터(27.2%)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관련 프로그램을 민방위훈련 같은 형태로 이해한 결과임
-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향후 통일-북한-평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할 의향은 21%로 높지 않은데,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 공공의 통일교육(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및 학교통일교육), 민간단체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통일이카데미의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보다 시민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통일문화 강좌 개설이 필요함
 -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은 1회성이며, 문화교육의 성격이 강하지 않음
 - 통일이카데미는 주로 서울지역에서 이뤄져 그 외 지역에서는 이를 접하기 쉽지 않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공공도서관 진행 문화 프로그램, 또는 인문 프로그램 가운데 평화-통일-북한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통일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공공에서 역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시민의 통일 감수성이 증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일-평화-북한 등에 대한 강좌를 통해, 통일과 평화 등을 자신의 삶과 연관된 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통일인문학 사업, 도서관의 통일문화 강좌 사업의 목적임
- 현재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통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은 44.6%로 2007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음
 - 더욱이 40%로 나타나서 향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 같은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통일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통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표 5-1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인식조사(2007~2021)

단위: %

의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필요하다	63.8	51.6	55.8	59.0	53.7	57.0	54.8	55.9	51.0	53.3	53.8	59.7	53.0	52.8	44.6
반반그저그렇다	21.1	23.4	23.6	20.4	25.0	21.6	21.5	22.5	24.2	22.0	24.1	24.1	26.5	22.5	29.4
필요하지 않다	15.1	24.9	20.6	20.6	21.3	21.4	23.7	21.6	24.8	24.6	22.1	16.1	20.5	24.7	26.0

자료: 『2019 통일인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집, 2019), 12쪽
 2020년 결과는 『2020 통일인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33쪽, 2021년 결과는 『2021 통일인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의 세대에 앞에 서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12쪽

3) 사업 내용

- 현재 도서관 상황에서 곧바로 북한-통일 관련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도서관(사서)대상 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간 관련 프로그램 개설 4%, 향후 의향 21%라면, 도서관은 통일문화 거점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에 가까움²⁰⁸⁾
 - 앞서 언급한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사서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장에 대한 교육을 별도 실시함
 - 먼저 도서관에서는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의 공공기관 통일교육(연 1회)을 북한의 문화, 북한의 도서관 등으로 특화된 교육으로 실시함
 - 사서 이외에 관장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사서 교육 가운데 ‘북한 도서관 이해’ 그리고 현재까지 제안된 ‘남북 도서관 교류 연구’, 동서독 사례 등을 총 10강의 온라인 교육 실시
 - 이 교육은 관장뿐 아니라 일반 사서 및 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실무 팀방으로 도서관 가운데 통일-북한 관련 교육에 특화된 도서관, 예를 들어 파주중앙도서관 등을 탐방함
 - 프로그램 구성뿐 아니라 자료수집 및 전시까지의 과정을 견학함
 - 덧붙여 파주중앙도서관의 지역 사회 내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살펴봄

208)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독일문화원·한국도서관협회,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42쪽

- 두 가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북한 및 통일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유도함
 - 예를 들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통일-평화 등을 개설하여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의 예산부담이 없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수준높은 특강을 듣고, 탐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도서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수 있음
 - 실제 2019년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미리보는 통일, 준비하는 미래’, 2021년 파주 중앙도서관의 ‘한국전쟁 속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는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실행했는데, 기획부터 강의까지가 짜임새 있고, 강의의 밀도가 높은 편임
-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뿐 아니라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프로그램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차이 등을 검토함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개별 도서관 평가를 통해 장관상, 한국도서관협회상 등을 수여하는데,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수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한편, 강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사업 진행
- 첫째, 도서관에서 북한 도서 전시회, 북한문학 작품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책자를 접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²⁰⁹⁾
- 둘째, 도서관에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일상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²¹⁰⁾
- 셋째, 접경지대의 도서관, 특히 수복지역 등에서는 ‘지역과 마을의 역사쓰기’, 곧 일제 강점기-북한 점령기-수복 이후의 지역 주민의 삶과 도시변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역사를 구술해줄 수 있는 고연령대 주민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이 사업은 즉각 수행해야 함
 - 구술과 역사자료를 통합하여 『지역과 마을의 역사』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강좌를 개최함²¹¹⁾
- 설문조사에서 사서들은 북한 및 통일 특화도서관이 광역지자체에 1개 정도 있는 게 적절하다고

209)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내용 참조

210) 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내용 참조

211) 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내용 참조

응답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지역 대표도서관의 통일정보실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문화 강좌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함

- 현재 도서관의 여건을 고려하면 공모사업으로 광역지자체별로 2~3개씩의 기초지자체 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함
- 다만 접경 지역 내 도서관은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과 마을의 역사쓰기’에 필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4) 유의 및 고려사항

- 현재의 도서관 상황을 고려하여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민간단체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
- 통일정보실을 갖춘 광역지자체 대표도서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도서관에 인적-물적 지원을 실시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용역 수탁기관이 진행하므로, 길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특정 주제(북한과 통일, 그리고 평화)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도서관 참여를 유도함
- 강좌사업 이외에 접경지대 역사쓰기, 북한 도서 전시회, 북한 영상물 활용 등은 각자의 주체가 있음

■ 추진 기간(시점)

- 경색기부터 화해협력기 초기까지 사업 진행
- 사서 및 관장 교육은 약 1년 내에 끝내고,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통일-북한 강좌는 다음해부터 즉각 실시함
- 지역과 마을의 역사쓰기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접경지대 시군 도서관이 참여한다고 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북한 도서 전시회, 북한 영화 상영 등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바로 수행할 수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도서관 간 교류 실시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지역 내 문화역사 자원을 주제(소재)로 하므로, 곧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남북 도서관 교류 실시
 - 초기에는 남한 도서관 사례(주된 장르: 역사물, 디지털화 자료)를 보여주고, 점차 북한 도서관의 유사사업을 남한 도서관에서 보여줌

■ 연합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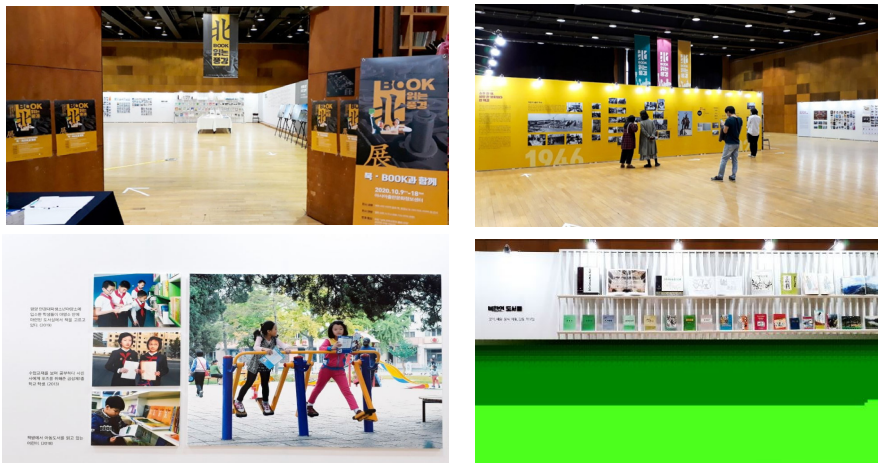
- 남북 공동주제의 프로그램 공동개발(예를 들어, 남한지역의 탈춤, 북한지역의 탈춤 같은 형태적 유사성이 같은 지역을 묶어서 프로그램 개발, 또는 남북에서 모두 활동한 역사 인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활용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동서독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도서 교류는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임
- 동서독은 분단 전후로 서적상을 통하여 그 규모와 주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적을 교류해왔음
 -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독일거래상조합, 서독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독일거래상 조합을 중심으로 출판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음
 - 동독에서는 동독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을 서독으로부터 반입하였으며, 서독의 경우 동독이 가진 출판의 노하우를 교류를 통해 학습하였음
- 일반출판물, 문학작품, 고서적 등의 도서 교류가 이어졌음
- 민간에서는 북한 도서 전시, 판매를 위해 몇몇 행사가 개최된 바 있으나 지속되지 못함

-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민간에서 북한 서적의 전시, 판매 등이 이루어진 바 있음
 - 2001년 교보문고에서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북한도서전시회’가 개최되어 140여종의 북한 책이 전시되었음²¹²⁾
 - 특수서적취급증을 받은 민간인이 북한책 전문서점을 열어 전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음²¹³⁾
 - 서울국제도서전(2018)에 참여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도 부스를 설치해 북한서적과 사진 전시, 북한말 비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2020년 10월에는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파주에서 ‘북녘의 책 읽는 풍경’을 개최하여 북한관련 도서, 사진을 전시한 바 있음
 - 하지만 남북관계에 따라 행사의 규모나 개최여부 등이 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웠음
- 특수자료실을 운영 중인 도서관 주관으로 북한 도서전을 운영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북한 도서 전시회를 운영할 수 있음



자료: <파주뉴스>(2020.10.14.), “북녘의 책 읽는 풍경’ 보러 오세요.”²¹⁴⁾

[그림 5-2] 파주 출판도시 남북 문화 교류 행사 ‘북녘의 책 읽는 풍경’

212) <NK chosun>(2001.06.18.), “도서교류 통해 남북 이해심 높아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4>(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13) <한국일보>(2001.03.12.), “북한전문서점 연 김주팔씨 ‘책구입에 8억...남북화해 도움됐으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103120089046867>(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14)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2&newsSeq=234(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도서는 대부분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일부 민간의 도서전시회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 도서관에서 북한 도서 전시회를 주관하여 일반 시민들이 북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현재 북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 5층), 특수자료실 운영 기관(공공기관, 대학도서관 등)이어서 일반 시민이 북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음
-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의 북한 도서 접근을 통해 시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음
-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화의 거점, 통일문화교육의 지역핵심기관으로서 역할 담당

3) 사업 내용

-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가운데 특수자료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북한 도서전을 연례행사로 개최
- 예를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특수자료실을 운영 중인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북한 문학도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대구경북 지역 도서관 가운데 특수자료실을 운영 중인 다른 도서관에서 북한 어린이도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지역별 연례행사는 통일교육주간(2013년부터 5월 마지막 주에 운영) 또는 도서관 주간(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 기간 내에 개최할 수 있음
- 행사는 지역별로 진행하지만, 도서전시회 주제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방식이 타당함
- 공공도서관에서는 북한 도서와는 별도로 남한 내 북한소개 책자, 통일 관련 책자 등을 도서관에서 월간 및 주간 책자 홍보 도서로 선정할 경우,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거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등은 하나의 부스(북한 및 통일도서)를 구성하여 운영함
- 이밖에 국제도서전 등에 한국 및 외국 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도서를 전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북한 도서전, 예를 들어 2020년 파주의 ‘북녘의 책 읽는 풍경’ 등과 같은 행사를 접경 지역 도서관과 공동 주관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접경지대 평화관광과 연계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 직접 교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어서 현재도 가능함
 - 다만 특수자료실이 아닌 도서관,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승인 등이 필요함
- 도서판매의 경우는 저작권료 등의 문제와 도서관 내 자료전시이므로 판매하지는 않음
- 2절의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과 유사하지만 다름
 -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프로그램은 남북 도서관 사이의 교류로 특별히 전시행사를 하지는 않음
 - ‘도서관의 북한도서 전시회 개최’ 지원은 특수자료실 운영 도서관에서 통일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북한자료를 전시하는 것임
- 3절의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와 유사하지만 다름
 -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출판사 간 교류협력으로 도서관 납본 이전에 전시회를 여는 것임(전시회 장소는 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북한 도서 전시회 주최단체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또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이 될 수 있으며,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적절한 역할을 함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의 남북 경색기(북한 제재기)부터 화해협력기 초기까지 지속 진행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북한 도서 판매까지를 포괄할 수 있으며, 남북 출판사 간 가칭 『남북 도서로 보는 한반도 (조선반도)의 산하』와 같은 책자(시청각물)를 공동으로 발간하여 판매 및 남북 도서관 비치 가능할 것임

■ 연합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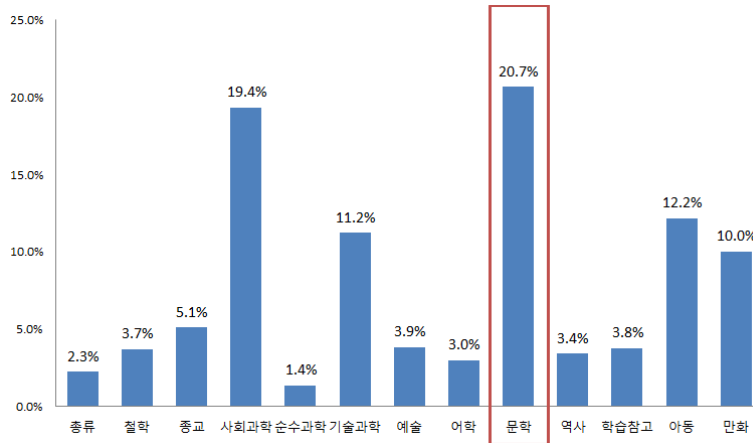
-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도서전에 참여하고, 남북 도서관에 상호 발간 책자(전자자료) 비치

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출판 교류 내에 문학도서 교류가 포함될 수 있지만, 문학(도서)의 특성(감수성, 대중성 등)을 감안하면 문학(도서) 교류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출판된 일반도서를 분야별로 분류할 경우 문학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은 결과에서 보듯이,²¹⁵⁾ 남북 교류시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류의 필요성이 높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허브로서 기능도 있음

215) 도서관 소장 책자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통계 또는 전국 도서관 통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자료 모두 최신 자료가 2019년 기준이며 연도별 도서 출판 추이를 함께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2020년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발행 비중을 분야별로 파악하였음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20년 출판통계, 2020년 일반도서 신간 발행 종수 분류 결과(2020.1.1~12.31) 재구성
http://member.kpa21.or.kr/kpa_bbs/2020%eb%85%84-%ec%b6%9c%ed%8c%90%ed%86%b5%ea%b3%84/

[그림 5-3] 국내 일반도서 분야별 출판 추이(2020년 기준)

- 남북 문학 교류는 역사물로부터 시작하여 아동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다양한 독자층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를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함
-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북한 도서 전시회가 주로 특수자료실이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된다면, 도서관 내 통일 및 북한자료 섹션 마련은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및 통일 문제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접근하는 데, 도서관이 주요한 역할 담당
 - 통일문화교육이 강사의 강의(시청각 자료 포함)만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문학책 읽기, 영화보기)로 진행하면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단계별로 수행하고 후속모임(토론회)을 개최하면 참여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임
- 도서관이 통일문화교육의 지역 핵심기관으로서 역할 담당

3) 사업 내용

- 남북 통일문화 관련 문학도서를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함

■ 1단계에서는 남한 작가의 관련 문학작품을 비치함

- 먼저 국내 문학작품 가운데 북한과 통일을 다룬 문학작품 선집을 구성하거나, 개별 작품을 선정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함
 -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설문조사에서 통일 및 북한자료 보유율은 82.1%인데, 대출 빈도는 가끔 대출(53.5%), 대출 없음(45.8%)였음
 - 관련 자료 보유율은 높는데, 이용률은 낮은 상태임
- 상대적으로 대출빈도가 많은 문학작품을 보유하고 적극 홍보하면 대출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북한 및 통일 관련 문학작품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한국출판문화진흥원)
 - 남한 작가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삶을 다룬 소설은 『국가의 사생활』(이응준, 민음사, 2009), 『우리의 소원은 전쟁』(장강명, 예담, 2016) 등이 있음

■ 2단계에서는 2003년에 제작된 「통일문학전집 CD롬」을 비치함

- 200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5년 작업 끝에 완성한 전집에는 194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남한작가 746명과 북한작가 258명 등 1,004명의 작품 5,378편(남한 4,406편, 북한 972편)이 담겨있”²¹⁶⁾
- “시, 소설, 희곡, 평론 장르로 나눠 개별 작품과 해제를 포함해 200자 원고지 41만여장 분량”임
- “문예진흥원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대학 및 연구소, 국·공립 도서관 등 전국 158개 기관에 CD롬을 배포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문학전집』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문학장르별로 『북한문학선집』을 발간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통일문학전집』(2003)보다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

■ 3단계에서는 국내 도서관이 소장 중인 북한의 모든 문학작품을 대출가능도록 함

- 남한 작가 작품, 『북한문학선집』, 『통일문학전집』, 모든 북한소설 등은 도서관에서 문학(800)코너와 구분된 별도의 북한문학, 북한자료 섹션을 마련할 수 있음

216) <조선일보>(2003.11.18.), “통일문학전집 CD롬 5년만에 완성,”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11/18/2003111870392.html(검색일: 2021년 11월 7일)

- 단계별로 독서 이후 후속모임을 통해 남북한 비교, 북한의 현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함
- 남북의 문학작품을 비교하거나 책을 중심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도서관 프로그램에 북한 문학읽기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함



[그림 5-4] 민족문학작가대회 자료 사진(2005)

4) 유의 및 고려사항

- 1단계 남한 작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도서 읽기는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어서 진행 가능함
- 『통일문학선집』 구성, 그리고 『통일문학전집』 CD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선집을 새롭게 구성하는 형태로 저작권 협의가 필요함
 - 전집은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데²¹⁷⁾ 재확인 필요
- 특수자료실이 없는 공공도서관에 별도의 섹션으로 『통일문학선집』 또는 『통일문학전집』을 비치하려면, 북한 문학작품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개별 도서관에 남한 작가의 작품 보유여부는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공통책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주최 전문가 회의에서 정함
- 『통일문학선집』은 국문학계, 북한학계, 도서관학계에서 공동으로 정함
- 『통일문학전집』, 『통일문학선집』에 포함된 북한 문학작품의 일반자료 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이 협의할 수 있음
 - 선집이나 전집의 제작과 활용은 ‘6.15 민족문학인협회’의 재가동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임
 - 남북 문학 교류는 공동잡지인 『통일문학』을 세차례 간행할 정도로 2000년 초중반에는 활발했음
 - 2005년 7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평양, 백두산, 묘향산)
 - 2006년 10월 남북 작가모임인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 남북한 문인이 함께 만드는 『통일문학』 1호, 2호, 3호(2009. 3) 발행

217) 2002년 12월 중개인에게 저작권료(1.8억원)를 지불했으나, 이것이 곧바로 북측에 전달되지 않았고, 2003년 10월 판권을 위임받은 연변문학월간사에 지불했다고 알려짐.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음

<조선일보>(2003년 11월 18일), “통일문학전집 CD롬 5년만에 완성,”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11/18/2003111870392.html(검색일: 2021년 11월 7일)

■ 추진 기간(시점)

- 1단계 사업은 검색기에도 가능함
- 2단계 및 3단계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화해협력기 이후 진행돼야 함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1단계에서는 통일과 북한을 주제(소재)로 한 남한 작가 작품 읽기

■ 화해협력기

- 『통일문학선집』 발간, 『통일문학전집』 저작권 문제 해결을 통해 도서관에서 선집과 전집을 열람할 수 있음
- 특수자료 문학작품의 일반자료화 추진

■ 연합단계

- 북한의 모든 문학작품 대출 가능

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도서관이 통일문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북한 자료 열람 활성화, 다양한 북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 북한 문화프로그램 진행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도서전시회가 가능하고,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북한 영화를 관람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또는 12개 지역의 통일관²¹⁸⁾에 신청하여 볼 수 있음
 - 북한자료센터는 서울에 있고, 통일관은 전국에 12개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높지 못함
 - 물론 유튜브에서 북한 영화를 볼 수도 있음

218) 현재 통일관은 경남, 고성,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양구, 오두산, 인천, 제주, 청주, 충남 12개 지역에 위치함

-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만큼, 영화 내용 중 도서관이 포함된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단계적으로 북한 영화 종류 및 장르를 확대하겠지만 주민 일상생활을 그린 영화로 시작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공공도서관에서 북한 영화 상영을 도서관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북한 영화 상영
 - 특수자료실 운영 도서관이 아니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서 진행
 - 도서관전시회처럼 ‘통일교육주간’, ‘도서관주간’ 등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광역 및 일부 지자체 내 도서관)에서 동일한 영화 상영
 - 영화상영 이후에는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 1차적으로는 일상생활, 특히 도서관을 소재로 한 영화를 선택하여 독자 친화적 통일교육
 - 북한의 최근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3) 사업 내용

- 도서관과 일상, 그리고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영화상영
 - 북한에서 최근 정보화 사업 및 과학기술보급을 강조하는 영화 <열성독자>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도서관 현황을 알 수 있는 영화임



자료: 유튜브 검색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QYNv5CYcp7A&t=3s>(검색일: 2021년 10월 29일)

[그림 5-5]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이용하여 첨단 기술을 배우자는 주제의 북한 영화 <열성독자>

- 북한 영화 중에서 인민대학습당 고전자료실에 있다는 고서 『무예도보통지』 내용을 영화로 만든 <평양날파람>이 있음
 - <평양날파람>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민족전통 무술인 택견을 없애려고 했던 것에 맞서서 민족 전통무술인 택견을 지키려 했던 평양의 택견인들의 이야기임
 - <평양날파람>은 북한 영화에서는 많지 않은 액션물로 대중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화임



자료: 유튜브 검색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6X7TrJnyH6U>(검색일: 2021년 10월 29일)
 [그림 5-6] 인민대학습당의 고전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무예도보통지』의 택견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평양날파람>

- <동해명승을 찾아서> 영상물은 인민대학습당에서 자료를 찾는 데서 시작됨



자료: 유튜브 검색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8VrRLfVb9Hc&t=653s>(검색일: 2021년 10월 29일)

[그림 5-7] 인민대학습당의 문헌실에서 동해와 관련한 자료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행프로그램 <동해명승을 찾아서>의 도입부



자료: 유튜브 검색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ovEEapn6buE&t=4s>(검색일: 2021년 10월 29일)

[그림 5-8]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홍보하는 북한 영화 <내가 찾은 보물>

- 영화 <내가 찾은 보물>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재자원화를 알 수 있음
- 이처럼 북한의 전자도서관(과학기술정보실) 관련 영화, 북한 최신 정보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영상물을 이용한 통일문화교육이 가능함
- 일상 및 도서관 관련 영화 상영 이후에는 남북이 동일한 주제(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
 -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북한의 영화 <월미도>(1982)와 남한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을 상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 원작소설 『황진이』를 남한에서 영화화한 <황진이>(2007)를 북한 소설과 함께 읽기
- 영화 상영 이후,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토론 시간 마련
 - 남한에서 오해할 수 있는, 잘 모르는 북한 문화에 대한 설명
 - 가령 북한의 ‘일 없습니다’는 우리의 ‘괜찮습니다’에 해당함을 설명
 - 영화 <열성독자>에 나오는 과학기술보급실에 대한 설명
 - 북한 도서관 및 북한 영화의 특성을 남한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영화 관람자들이 자유롭게 영화 본 소감을 말하는 시간 마련

4) 유의 및 고려사항

- 특수자료실 미보유 공공도서관의 북한 영화 상영은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함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관련 영화를 신청하면 북한자료센터에서 영화(파일 형태) 제공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과 기획을 협력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개별 공공도서관이 북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와 같은 경색기부터 화해협력기까지 추진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화해협력기 후반에는 북한을 대표하는 영화(<꽃파는 처녀>, <조선의 별>, <민족과 영웅> 등) 상영, 북한 도서관에서 남한의 일상을 그린 영화 상영
 - 연합단계: 남한 도서관에는 북한 영화 종사자(배우, 감독), 북한 도서관에는 남한영화 종사자(배우, 감독)가 참여하여 교육 진행

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도서관이 통일문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분단, 평화, 통일 등이 지역 주민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
- 위의 소재(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삶, 마을의 삶을 기록화하는 작업을 도서관에서 시행하

여 개인과 마을 역사를 도서 및 시청각 매체로 제작함

-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개인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화하는 작업은 해당 연령층의 주민이 생존했을 때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도서관이 구술 기록 사업, 집안-마을의 자료찾기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기록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실제 파주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사가 근무하는 기록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기록물관리, 참여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전시함²¹⁹⁾
-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접 책자를 발간하기도 함
 - 임종업(2021), 『대성동: DMZ숨겨진 마을』(파주중앙도서관)
 - 파주중앙도서관(2021), 『파주 모던타임즈: 1950~1980』(파주중앙도서관)
 - 파주중앙도서관 한국민속학회(2021), 『파주 DMZ 의 오래된 미래, 장단』(파주중앙도서관)
 - 장경선 외(2020),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파주중앙도서관)
 - 이영복 외(2020), 『제1회 파주 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숨겨진 파주를 만나다』(파주중앙도서관)
 - 신민경(2020), 『파주 DMZ를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파주중앙도서관)
- 파주가 접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파주시-파주시 도서관 관계자의 노력의 결과임
- 파주중앙도서관의 사례를 모범삼아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지역 기억의 역사, 그리고 전문가팀이 만드는 ○○지역 역사를 결합시켜 관내 시민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의식 제고를 꾀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부 기존에 진행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화함
- 기존 자료는 표준 분류에 따라 정비하고, 향후 기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접경 지역의 생애사(구술사), 사건사, 지역학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기록 문화 사업으로 추진함

219) 파주에서는 시민채록단을 운영하기도 함. 파주중앙도서관 공식블로그(2020.08.07.), “기획전시-기록하는 사람들: 파주시중앙도서관 시민채록단,” <https://blog.naver.com/pajulibrary/222053908345>(검색일: 2021년 9월 21일)

- 도서관을 주축으로 기록물의 수집, 가공, 축적(데이터베이스화), 콘텐츠 개발 등에 이를 수 있도록 함

3) 사업 내용

- 일제 강점-분단-전쟁, 그리고 평화-통일을 개인의 역사, 마을의 역사로 재구성하기는 남한 내 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접경지대에서 비교적 관심이 많을 것을 것으로 보임
 - 파주와 같은 접경지대, 그리고 특히 수복지구²²⁰⁾ 내에서 구술사 작업 및 마을 역사 찾기 사업을 진행하면, 매우 다양한 정보를 소집할 수 있음
 - 일제 강점-해방-북한지역-남한지역의 역사를 개인은 어떻게 느끼고, 마을에는 그 같은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봄
 - 파주중앙도서관처럼 직접 해당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펴낼 수도 있지만, 전문 출판사와 협력하여 발간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음
- 관련 기록물, 책자를 도서관 내에 상시 전시하고,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여 작업을 널리 알림
- 책자 및 동영상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몇 회씩 ‘○○ 지역 사람들의 통일이야기’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함
- SNS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
- 접경 지역 내 도서관 가운데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한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도서관의 소장물, 책자, 전산화자료를 공유함
- 초기에는 접경지대 도서관에서 작업을 수행하지만, 비접경 지역에서도 전쟁, 평화, 통일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구술사 기록을 수행하여 도서관에서 활용
 - 예를 들어, 전국에 산재한 전쟁 피난민 수용소가 소재한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최근 문헌학자 김시덕은 피난민 수용소 답사기를 신문에 실으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김
 - “최근 답사한 파주와 청주의 피란민 수용소 건물은 원형이 남아있는 사례로서, 현대 한국의

220)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해방 후 북한 행정조직이 있었지만(북한 지역)이지만, 휴전에 따라 남한 지역이 된 곳으로 연천, 포천, 가평,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춘천, 속초, 고성 등임

탄생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피란민들의 역경을 증언하는 귀중한 도시화석이다. 이들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들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되기 전까지 더 많은 한국 시민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고 기록되어, 분단·전쟁·국제원조를 통해 탄생한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경에 가득찬 탄생 초기 과정을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²²¹⁾

- 분단과 전쟁의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도서관에서 문헌학자-기록사들과 함께 이 같은 자취를 기록하고, 근대사를 몸으로 겪은 노인들의 생애사를 기록하여, 통일문화교육의 자료로 활용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파주시의 경우, 중앙도서관이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파주시의 지원이 상당했기 때문에 접경지대 시군에서 이 같은 작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사업이 가능함
- 문헌학자, 학예연구사들이 작업에 참여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같은 비용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받고,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지역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재원은 시군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음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수행하여 재정 지원
 - 실무행정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담당할 수 있음
 - 기록화 사업 참여자는 문헌학자, 학예연구자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 일반인

221) <한국일보>(2021.11.13.) “해방촌 희망촌 토막사...이름으로만 남은 ‘역사의 아픔’ 피란민 거주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11160003853?did=NA>(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 추진 기간(시점)

-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공모사업(안)을 기획하여 바로 수행할 수 있으며 책자 발간까지는 1~2년 소요됨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북한의 남한 접경지대,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도서관의 자료수집을 남한 도서관이 공동 연구로 수행

■ 연합단계

- 북한 접경지대의 자료 수집(예를 들어 북강원도, 북철원군의 관련 자료수집)을 남북 도서관이 공동작업으로 수행하여 가칭 『(남북)강원도』, 『(남북)철원군』의 역사이야기 도서 발간

제2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 2절은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두 가지 항목, 곧 ①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②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으로 구성됨
- 2절(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은 1절과 마찬가지로 단위(개별) 사업의 ① 사업 필요성 및 배경, ②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③ 사업 내용, ④ 유의 및 고려사항, ⑤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⑥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함

1.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은 네 가지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는 남북 도서관의 직접 교류사업으로 대체로 화해협력기에 진행되는 사업임

1-1.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 도서관의 자료 부족, 특히 사회과학 분야와 해외자료 부족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술연구가 수월하지 않음
 - 자연과학, 기술 분야의 남한 책, 외국 도서 등을 제공하면 북한의 학술연구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음
 - 먼저 남한이 북한에 기증을 하면, 자연스럽게 북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곧 교환체계를 성립을 기대할 수 있음

- 북한 논문(『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참고문헌 등을 살펴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²²²⁾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기증 자료 목록 작성
- 교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남한 도서관 주도의 자료 기증이 우선되어 향후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자료의 기증교환은 자료 부족을 겪는 북한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가짐
 - 해외 학술자료의 부족에 따른 국제적 학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북한학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증자료와 함께 MARC 교환은 업무상의 협력은 물론 향후 남북 도서관 데이터 공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국내 도서관 소장 자료 복본 및 미등록 자료 등 ‘대북기증자료코너’ 상시 운영, 수집체제 운영을 통한 대북기증 및 교환 자료 확보 관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종도서보급사업’의 대상기관으로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등 북한 도서관을 포함할 수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참고문헌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외국도서 및 남한도서 목록 작성
- 대북 출판물 기증교환 전담 기관 지정: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 도서관교류준비단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협력하여 사업 진행
 - 대북 기증 또는 교환 대상 자료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자료를 대상에 포함
 - 기증 자료의 수집 및 취합, 선정자료 검토, 발송대상자료 확정, 발송 등 일련의 과정 관리 운영

222) 도서 뿐 아니라 출판사에서 취급하는 전자책 등을 모두 포함

- 북한 도서관의 기증·교환 전담 창구는 검색기에는 중국 연변대학이나 일본 조선대학이 가능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이 될 수 있음
- 자료기증 또는 교환시 MARC 정보 필수 제공으로 남북 종합목록DB 구축 기반 마련
- 미국의회도서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료 기증·교환 프로그램 참고 또는 참여 유도
 - 미국의회도서관의 자료교환프로그램(DMEP: Duplicated Materials Exchange Program), 유네스코(UNESCO) 등 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해외출판물 수집 및 도서관 협력 참여
- 남북 도서관 자료가 거의 모두 교환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교환으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디지털화 함

4) 유의 및 고려 사항

- 북한과의 상호 자료 교류의 수요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서관 교류 대북 창구(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를 통해 북한 도서관의 수요 파악, 북한이 발행하여 남한에서 교환을 희망하는 자료를 확인
 - 전담 기관은 기증·교환대상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관리와 물리적 관리 추진
- 남한이 일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상호 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추진
- 기증대상 자료에 대해 남한 내 관련기관(국가정보원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침
- 1절 4. 남한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의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와 유사하지만 다름
 - ‘북한 도서관 대상 기증·교환 프로그램’은 남북 도서관 사이의 교류로 특별히 전시행사를 하지는 않음
- 1절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는 특수자료실 운영 도서관에서 통일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북한자료를 전시하는 것임
- 3절 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의 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와 유사하지만 다름
 - ‘북한 도서관 대상 기증·교환 프로그램’은 남북 도서관 사이의 교류임

- 반면에 3절 2-2의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남북 출판계의 교류로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함(이 경우, 도서관은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출판사에서 관련 책자를 납본 받아 도서관이 소장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자료 기증·교환 전담기관 지정: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과 협력
- 전담기관에서 자료 수집 및 기증

■ 추진 기간(시점)

- 화해협력기, 곧 지속적 남북 협력관계를 유지한 후 본격적으로 기증, 자료 교환 시도

6) 전후 추진 사업

■ 경색기

- 경색기에도 기증교환 대상 자료 수집 전담기관 지정, 운영 방안 등 제도적 준비
- 국내외 교류 창구를 통해 자료 기증 및 교환 의사 전달: 일부 도서의 경우 제3국을 통해 기증할 수 있음
- 남한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소장 자료 목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료 교환 본격화

■ 연합단계

- 남한 또는 북한에서 각기 미소장하고 있는 고전적 영인본 작성 및 교환 포함

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의 학술정보 특히 국제학술정보 수집 한계로 학술활동에 한계 존재
- 북한 도서관 실태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의 콘텐츠 부족이 교육 및 학술 활동, 기술개발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국내 도서관간에도 제한된 예산과 인력, 자료 소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남북 학술 및 교육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대안적 교류 방법인 동시에 상호대차를 통해 도서관간 실용적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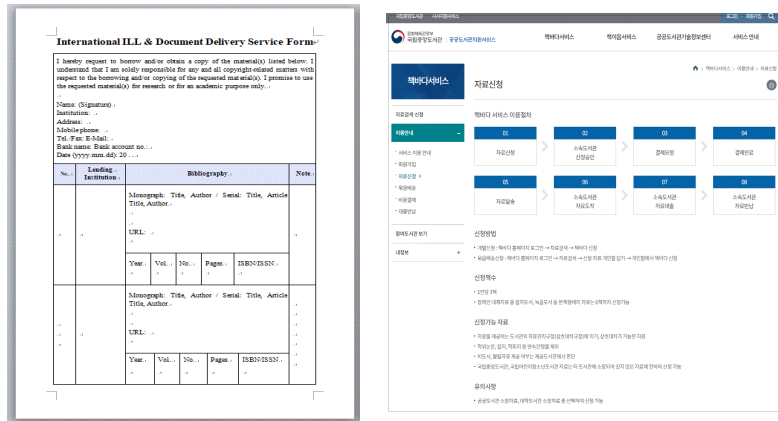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공통의 필요 정보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추진 가능
- 상호대차에 대한 국가 내 혹은 국제간 협력 차원의 수요와 인식을 실무에 적용시켜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게 함

3) 사업 내용

- 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 상호대차 서비스나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 적용
 - 북한을 해외국가의 하나로 포함하여 국제 상호대차 서비스 적용
 - 남한 공공도서관간 운영 중인 ‘책바다서비스’를 활용, 북한과 상호대차 시스템을 활용하며, 시스템 설차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곤란할 경우 대안적 신청 절차를 통해 상호대차를 시행, 향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상호대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
-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 도서관 관련 부분은 국제 교류협력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북한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도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은 인민대학습당이 창구가 되어 운영
- 접수 및 제공 채널, 제공 형태, 비용 처리 등 실무적인 협의 또는 우선 서비스 제공의 시범 운영 후 비용 부분 처리방안 논의
- 소장정보에 대한 상호간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요청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 상호대차 서식 검색결과, <https://www.nl.go.kr/NL/contents/N30302000000.do>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서비스 검색결과, <https://books.nl.go.kr/PU/contents/P10206000000.do>
 [그림 5-9] 국제 상호대차 및 국가 상호대차(책바다) 서비스

4) 유의 및 고려 사항

- 현재 다른 나라와 국제 상호대차를 운영하므로 남북 간에 적용 방안 모색 후 검색기에도 우선 적용해볼 수 있음
- 실질적인 제도운영 방법과 시행상 예상문제 중심으로 교류협력 협의시 논의 구체화 필요
-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수요를 기존 국제 간 상호대차의 틀에서 해석 적용하거나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 제도 내에서 적용해보려는 시도임

5) 추진 주체 및 기간

■ 추진 주체

-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호대차 시스템 활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 북한의 과학기술 전당과 학술 교류

■ 추진 기간(시점)

- 검색기에도 준비단계로 제안할 수 있으며, 상호 필요성 공감 시에는 시범 운영할 수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실시

■ 연합단계

- 남북 개별 도서관 단위의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

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도서 이외에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여 남북한 도서관에서 활용

- 최근 북한은 급속하게 전자도서관(미래원 포함)으로 전환되고, 도서관은 원격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음
- 북한은 상대적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므로, 일찍이 교육방송이 발전한 남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북한이 상대적으로 제작을 잘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남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교류를 대면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이처럼 비대면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음

- 남북 교류 성과 확산 및 체감을 위해 비교적 정치·사상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청소년 대상, 분야별로는 전통문화나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OSMU)할 수 있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문학의 경우, 2006년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을 통해 북한동화 130여 편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책 정가의 6%가 북한 작가에게 인세로 지급되었던 바 있음²²³⁾
 - 뿐만 아니라 남한 작가들도 남한 어린이를 위한 북한 전래 동화를 출간하기도 했음²²⁴⁾
 - 콘텐츠 교류는 문화 교류인 동시에 체제 유지 속에서도 경제적 이윤 획득이 가능하여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모델로서 의미가 있는데,²²⁵⁾ 이를 도서관 교류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
- 남북은 공통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북한에서도 영상 콘텐츠(전래동화, 과학동화의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많아 콘텐츠 상호 제공을 시도할 수 있음
 - 아동영화는 북한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TV를 통해 아동방송 시간에 방영됨²²⁶⁾
 - 고구려를 지키는 꼬마 장군들의 이야기인 <소년장수>, 수학과 과학을 이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령리한 너구리> 등이 대표적인 작품임
 - 북한에서는 최첨단 시대 담론이 대두되며 과학환상동화를 통한 교양이 강조됨²²⁷⁾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아동문학』에 수록된 과학환상동화 <동굴섬의 새전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는 식량난과 같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 적합한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사상교육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23) <The JoongAng>(2009.08.29.), '[어린이 책] 북한 아이들은 어떤 동화 읽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49742#home>(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24) 이상배·백명식(2018), 『북한 전래동화』(좋은꿈); 박상재(2019),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북한 전래 동화』, 함께 자람(교학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25) 전영선(2008), “북한 아동영화의 창작적 특성과 남북교류 방향,” 『한국문화콘텐츠학회』, 1, 343쪽

226) <매경프리미엄>(2020.12.18.), “북한 어린이들의 아동영화 사랑,” <https://www.mk.co.kr/premium/behind-story/view/2020/12/29427/>(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27) 이정현·김유미(2017), “북한 과학환상동화 ‘동굴섬의 새전설’에 나타난 북한의 정치사회화 맥락과 아동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69~87쪽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어린이가 수학과 과학 부문에서 남한의 콘텐츠를 향유하고, 남한 어린이는 북한의 애니메이션을 향유하도록 하여 동일 세대의 공감 형성을 이루기
- 북한은 수학, 과학 분야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수업 방식은 아직까지는 교사가 학생에게 내용을 깨우치도록 하는 전달형 학습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²²⁸⁾
- 북한도 김정은 시대 글로벌 표준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 등의 분야는 문제풀이형에서 점차 질문형, 토론형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적절한 원격교육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향후에는 도서를 비롯하여 이를 활용하여 만든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음원·공연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남북 교류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래동화를 남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서관을 통한 이 같은 콘텐츠 제공은 향후 문화콘텐츠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도서관의 남북 어린이 콘텐츠 시범 교류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계에서는 교류 콘텐츠의 방향 설정이 가능함
- 남북 간 교류 콘텐츠 공동 제작이 가능해질 수 있음
- 교육용 콘텐츠의 공유에 따라 남북 공동의 교육·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남북의 교육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이미 제작된 콘텐츠의 대북 교류협력 활용 및 협조 가능성 타진
- 교육방송(EBS)의 학교 및 평생교육용 콘텐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 및 학위논문, 시도교육청 및 에듀넷 등의 현장교육용 콘텐츠, 기타 공개된 각종 콘텐츠를

228) 변희현(2013), “북한 수학 수업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3(2), 297~311쪽; 정세종·나지연(2020), “북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내용지식(PCK) 요소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0(4), 415~427쪽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은 생산기관의 협조와 협력을 받아야 함

- 이후 메타 및 원문(동영상) 연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 기술적 보완
- EBS의 수학교육, 과학 교육용 콘텐츠와 같이 공통 원리 등을 다루는 내용은 약간의 가공(남한 강사가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이 필요함
- 참고로 EBS가 1997년 제작한 ‘시베리아, 잃어버린 야생동물을 찾아서’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음²²⁹⁾
- 북한 애니메이션(전래동화, 과학) 역시 전문가들(북한 전문가, 아동 교육 전문가)의 1차 관람 이후 적절한 가감을 할 수 있음
- 남북 상호 도서관 교류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교환하고, 공공도서관과 미래원에서 각각 활용함²³⁰⁾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남북 도서관 선정
 - 도서관에서 시청각교재 뿐 아니라 관련주제의 책자를 제작하고 전자파일형태로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같은 콘텐츠 교류를 위해 남과 북에서 각각 협의체 구성
- 남북 공동 참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
 - 공동 제작 대상 상호 협의 및 역할 분담을 통한 디지털 자원 확보 방안 마련
 - 북한 보유 자원의 디지털화 사업에서는 결과물의 공유 및 메타데이터, 디지털화 기술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

4) 유의 및 고려 사항

- 교육 및 학술용 콘텐츠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남북의 필요에 기반한 콘텐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류 가능 자원과 제공가능 자원 목록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229) <자유아시아방송, RFA>(2004), “멸종위기의 시베리아 호랑이의 삶과 죽음,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남한교육방송 EBS-TV 방영,” https://www.rfa.org/korean/in_focus/112973-20030816.html(검색일: 2021년 11월 7일)

230) 전영선(2008), “북한 아동영화의 창작적 특성과 남북교류 방향,” 『한국문화콘텐츠학회』, 1, 343~373쪽 참조하여 재구성

- 향후 본격적인 콘텐츠 교류, 공동 제작 등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 관련 협의가 필요함
 - 초기 목록을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목록을 갱신 관리하며, 남북 협의시점에 협의 대상으로 제시
 - 저작권 관련 내용 검토를 거친 후 결정
- 남한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으로 유아·초등학생 교육 콘텐츠를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수 있음
- 남북 경색기에는 확보 가능한 아동·청소년용 수학·과학 기술분야 도서, 애니메이션 실태 파악 등 선별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남북한의 수학, 과학 개념에 있어서도 용어가 다를 수 있고, 교육 커리큘럼 진행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 측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협의체 구성: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은 물론 출판, 영상 등 콘텐츠 구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참여
 - 북한에서도 조선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한 제작 콘텐츠 교류 방법 도출
- 추진 기간(시점)
 - 남북이 상호 콘텐츠를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시점은 화해협력기가 될 것임
 - 다만 경색기에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북측에 콘텐츠 제공을 제안할 수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경색기
 - 교류대상 콘텐츠 확보 및 수요조사
 - 북한의 전래동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어린이, 청소년용 콘텐츠의 현황 파악

- 남한의 과학 및 수학 등의 동영상 강의 가운데 북한에 제공하기 적합한 콘텐츠 파악
- 공동도서관을 대상으로 북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상영에 대한 수요조사
- 전래동화보다 과학기술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교류된 만큼, 과학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

■ 연합단계

- 화해협력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남북 공동 교육용 또는 어린이용 영상물 제작

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 도서관 소장자료 총 목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조선대-중국 연변대 또는 국내외 북한연구자들을 통해 대략적인 목록은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북한 도서관 소장 고전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음
 - 특히 고전적은 학술적 측면, 민족문화 측면 뿐 아니라 콘텐츠산업 측면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남한 사례에서 보듯이 드라마와 영화 등이 시나리오와 희곡에만 비롯되지 않고, 웹툰, 만화, 고전문헌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재까지 남한 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고전적이 북한에 있다면, 그것은 영상콘텐츠, 게임 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북한 고전적 목록 파악은 학술·민족문화 측면도 있지만, 콘텐츠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전적 또는 풍속 등이 북한 도서관에 있다면, 이것은 통일교육 측면, 그리고 콘텐츠산업 측면에서도 참조할 수 있음

- 물론 남한의 고전적 가운데서도 문화콘텐츠 상품의 소재(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을 것임
- 남한 콘텐츠 제작자가 고전적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이고, 콘텐츠화 할 것은 이미 콘텐츠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음
- 북한에만 있는 자료라면 새로운 소재(주제)를 통한 콘텐츠 상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북한 도서관 소장자료 총 목록, 그 가운데서도 고전적 등 북한에만 있는 책자(또는 목록이라도) 입수
 - 남한의 경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서 국내외 도서관의 고전적 검색이 가능함
 - 국내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이 망라됨
 - 외국도서관은 영국 국립도서관, 중국 상하이도서관, 중국 북경대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동경대연합도서관, 일본 동양문고, 러시아 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버클리대 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하엔칭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등임
 - 따라서 북한 문헌학자 등은 남한 도서관이 소장 중인 고전적을 모두 알 수 있음
- 검색국면인 현재로서는 북한이 소장한 고전적을 남한이 단독으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 고전적을 파악해야 함
 - 외국의 대학, 외국의 북한 연구자, 주북한 대사관이 있는 국가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하게 고전적 목록을 파악하고자 노력함
 - 외국 도서관, 외국의 연구자가 만약 목록이나 실물을 입수한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에서 소장하도록 함
 - 국내 다른 고전적과 마찬가지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본을 출간하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함(현재 고전번역원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전자책 형식 등으로 보여줌)
- 이 같은 자료(고전적 원문, 번역문)를 소재(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공모사업 진행

- 영상물(드라마, 영화), 만화(웹툰), 출판(축약본, 번안 등), 게임 같은 상품을 개발하는 공모전 진행
-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에는 콘텐츠상품화까지 일정 부문 지원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제3국을 통해 목록이나 실물을 입수하더라도 북한에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는 게 향후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함
- 북한 도서관 소장 고전적이 남한에도 있을 경우, 비교 연구를 실시해 볼 수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목록(실물)을 찾고,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콘텐츠화 공모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
- 추진 기간(시점)
 - 목록(실물) 입수를 제3국을 통할 때는 경색기이며, 화해협력기 이후에는 남북이 직접 교류함
 - 번역 및 공모사업은 화해협력기와 연합단계에서 진행

6) 전후 추진 사업

- 경색기
 - 제3국을 통한 목록(실물) 입수 및 번역을 준비하는 단계임
- 화해협력기
 - 남북 직접 교류를 통한 목록(실물) 입수, 번역, 콘텐츠상품 공모전(남북 모두 참여 가능, 외국인 참여 가능), 공모전 수상작 콘텐츠상품화 지원

■ 연합단계

- 공모전 수상작 콘텐츠 상품화 지원

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은 다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사업’임
- 이 가운데 ‘남한 사서 교육’은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사업(2절)이 아니라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과 체계 구축(1절)의 내용에 속하지만, 사서와 관련되어 포함시킴
- ‘남한 사서 교육’(경색기)을 제외하고는 화해협력기 사업들임

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남한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82.1%) 북한 및 통일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문화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되지 않음(3년간 약 4%)
- 북한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인기 없을 것 같아서 (39.2%), 기획하기 어려워서(21.1%), 정치/이념적 상황 때문에(19.2%), 강사 찾기가 어려워서(4.8%), 도서관에서 관심이 없어서(4.2%), 도서관회원이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2%), 기타(10.2%)의 순서로 나타남
 - 이처럼 도서관에서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사서들은 수강생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인식함
 - 또한, 향후 북한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 진행 의향은 21.4%로 낮은 편인데, 사서들은 그 이유로 지역주민 관심 없음(32.1%), 참여자 모집 어려움(27.6%), 프로그램 기획 어

려움(15.7%)이라고 응답함

- 이처럼 현재 도서관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워 보임
- 현재 도서관이 통일문화 확산의 플랫폼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북한 도서관-통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이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서관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서들은 적합한 강사에 대하여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강사(67.1%),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 연구자 및 교수(20.8%), 북한이탈주민(2.3%), 통일 및 북한 주제 사서(0.6%), 일반사서(0.6%)의 순서로 인식함
- 사서(통일 및 북한 주제 사서 + 일반 사서)를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강사로 꼽은 비율은 1.0%에 불과함
- 도서관 사서 대상 북한 도서관의 이해, 남북 도서관 교류의 의미 등을 교육하여, 사서의 북한 도서관 이해도 및 통일친화적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 게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이르지 못함
- 정연경 외(2014) 연구에서는 사서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주체, 그리고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제시한 바 있음
 - “북한 및 남북관계, 통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남한 사서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이후 통합된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북한 및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거나, 향후 설립 예정인 국립사서교육원(가칭)의 교육 프로그램에 북한과 통일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북한 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특성, 통일 후 도서관계 통합 시나리오, 사서 대상 통일 대비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²³¹⁾
- 박미향(2017)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안정화와 발전은 참여자들의 역량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서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는 “도서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은 통일을 대비하여 교육 학술문화 영역의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도서관 정보관리 전문 분야의 인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도서관

231)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83~84쪽

변화를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임²³²⁾

- 한상완(1996)은 “통일 도서관의 정책과 제도개념으로서 정보사회개념과 민족도서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할 때, 앞으로의 도서관계를 책임질 주체로서 전문직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²³³⁾
- 그러나 교육내용(커리큘럼), 교육주체, 교육대상 등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되기 어려움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관종별 도서관 사서들에게 북한-북한 문화-북한 도서관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사서의 북한 및 통일 인식을 제고하고 도서관계에 북한 및 통일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나아가 도서관계에서 통일 친화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을 받은 사서들은 개별 도서관 내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 도서관에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역단위에서 통일지향 도서관의 확산을 꾀함
- 교육받은 사서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 및 통일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진행하여 남북 도서관 교류의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음
-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도서관 교류가 재개될 경우,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이러한 사서들이 전문인력으로 참여하여 도서관 교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2021년 설문조사를 대학·전문도서관까지 확대하고 공공도서관의 응답수를 높이는 한편, 도서관의 통일 및 북한 자료 및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서들의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함
- 사서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사서들의 북한-북한 문화-북한 도서관에 대한 이해

232)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35쪽
233)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20쪽

및 관심 정도, 그리고 통일-북한주제 전문사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함

■ 확대된 설문조사 계획을 통해 사서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교육

- 교육대상자 수, 교육내용(커리큘럼), 교육 기간, 교육 방법을 기획하여 계획서 작성
- 계획서에 따라 관중별·지역별 할당을 통해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시범교육 분석 이후 본 사업 수행

■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교육대상자는 지역 대표도서관,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 진행도서관 담당자,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의 국제 교류관련 부서 담당자 등으로 설정함
- 교육내용은 ① 북한 및 북한 문화의 이해, ② 북한 도서관의 이해 등으로 구성함
- 시범사업 강사는 기존 북한 도서관 연구자, 북한 문화연구자, 특별 강사(사서 및 이용자로서의 탈북자, 교류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음
- 북한(문화)의 이해는 5차시로 구성할 수 있는데, 북한 정치사회 및 북한의 문화정책을 간략히 소개함(1차시는 2~3시간 기준)
- 북한 도서관의 이해는 북한 도서관의 관련 법률, 역사, 기능, 종류, 최근 변화, 남북 도서관 교류 등을 5차시로 구성함(1차시는 2~3시간 기준)
- 교육 기간은 1주간(월~금)으로 진행하되, 추후 ‘북한도서관(A)’과정과 ‘북한도서관(B)’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수강자 상황과 기간에 따라 ‘북한’의 이해와 ‘북한 도서관’의 이해 영역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음
-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 거리두기 이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서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

〈표 5-12〉 북한(문화)의 이해: 교과 구성(사서 대상 교육)

차시	강의 주제
1차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
	북한 역사와 정치의 이해 해방과 북한정권 수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차시	강의 주제
	김일성 집권기 김정일 집권기 김정은 집권기
2차	북한 사회의 주요 사건 이해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1967) 고난의행군 시기(1990년대 후반) 핵개발과 국제사회 제재
	북한사회의 작동 원리 집단주의(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3대 세습의 논리 전통과 북한사회의 연관성
3차	북한사회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유일사상 체계 정마당(시장경제)과 북한 주민의 삶 정보화 및 과학기술 중시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 북한 민족문화정책의 흐름 - 북한의 민족문화 관련 법제 - 김정은 시대 민족문화 정책 특성
4차	북한의 문화예술 생산과 유통 - 북한의 문화정책 방향 - 북한의 문화유통 구조 - 북한의 문화산업
5차	북한의 문화시설 관람형 문화교양건물: 극장, 영화관 학습형 문화교양건물: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전시형 문화교양건물: 박물관, 전람관 소조운영형 문화교양건물: 문화회관, 궁전
	북한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표 5-13〉 북한 도서관의 이해: 교과 구성(사서 대상 교육)

차시	강의 주제
1차	북한 도서관의 역사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북한 도서관의 종류와 주요 도서관 북한 도서관의 분류

차시	강의 주제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 군중도서관-미래원 사례
2차	북한의 문화정책과 도서관 북한 도서관 관련 법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의 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의 '학생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의 도서 보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출판물 구비 조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의 전자도서관
3차	북한 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 특강 사서출신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 도서관 북한도서관 이용 탈북자가 말하는 북한 도서관
4차	북한 도서관의 기능 인텔리화 거점 군중문화사업 기지 반제교양의 거점 과학기술 보급기지 원력교육 장소
5차	북한 도서관의 최근 변화 과학기술 증시 과학기술전당 미래원 북한 도서관의 남북 교류사례 특강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등

■ 시범사업 이후 정규사업

- 현재로서는 시범교육 실시 이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정규사업 교육내용은 시범교육 커리큘럼 심화, 평화 및 통일(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 도서관의 국제 교류, 남북 교류의 실제(성과와 한계), 동서독 도서관의 교류사례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정규사업 교육은 커리큘럼이 4개(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정도로 예상되므로,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정규사업 교육 대상자 및 강사는 추후 기준을 설정함

■ 시범교육 및 정규사업 교육을 이수한 사서의 업무와 인센티브

- 시범교육 또는 정규사업 교육을 마친 사서들은 개별 도서관에서 문화 특강 프로그램으로 ‘북한 도서관을 말한다’를 1~2차시 정도 실시

4) 유의 및 고려사항

■ 이러한 사업 내용은 도서관이 통일문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한 것으로, 도서관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함

■ 남북 직접 교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에서 ‘북한 도서관 과정’을 기획하여 진행(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협력)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의 남북 경색기(북한 제개기)부터 화해·협력기 초반까지 지속 진행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화해협력기 후반에는 위의 교육뿐 아니라 남한 사서 대상 심화교육, 북한사서 대상 교육도 실시함

■ 연합단계

- 연합기에 남북 개별 도서관의 교류대상이 설정되면 해당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실무 참여(1주일 이내)

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한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가 다르고 사서/도서관일군의 인식과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양측의 제도와 서비스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남북한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정보화, 디지털화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서/도서관일군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
- 사서와 도서관일군을 대상으로 공통(공동)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연합단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남과 북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게 현실적임(일부 시범 교육은 가능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사서/도서관일군의 양측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를 기획 실행해야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남북 각기 상대방의 도서관 제도,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남북 각기 상대방의 사서/도서관일군의 진입체계와 업무를 이해하여, 실제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음
- 남북 도서관, 남북 도서관의 사서/도서관일군에게 공통된 과제인 디지털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실시로 남북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
 - 북한은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남한은 기존 도서열람에서 전자책, 시청각 자료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음
 - 양측은 이러한 도서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공유함
- 결국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업무상 필요성과 도서관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북 도서관 공동 업무의 표준화, 직무수행의 체계화, 시스템 통합 등에 사서/도서관

일군이 어렵지 않게 적응하는 것을 기대함

3) 사업 내용

- 남북의 사서/도서관일군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사서/도서관일군 자격 취득에 대한 설명 및 시범교육
 - 남북의 사서/도서관일군의 업무 영역 및 진입 방법 등 소개
 - 상호 자격 취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 시범 교육(일주일 이내)
- 북한 도서관에 도서관 직무단위 매뉴얼 모듈화를 제작하여 제공(다양한 매체 활용)
 - 직무단위 매뉴얼을 모듈화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에 적용된 신기술, 정보시스템, 콘텐츠 안내와 활용 방법 등 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 활용 매뉴얼 제작
 - 전자도서관, 전자저널, 웹자원, 빅데이터,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적용 등 시스템과 콘텐츠의 신기술과 콘텐츠 활용 방법 등
 - 남북 공통적으로 변화와 현안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역할 다양화에 따른 관심 주제, 현안 대처능력 교육 필요
 - 기본 운영 프로그램과 현장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필요에 따라 모듈별로 제작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남북의 사서/도서관일군을 상호 초청하여 시범교육 진행
- 남한 도서관 사서에게는 북한 도서관의 현황과 변화를 알려주는 교육용 교재를 북한 당국에서 제작하여 남한에 제공
 - 북한 도서관 운영, 서비스의 기본원칙 및 단위 도서관별 이용자 특성
 - 북한 도서관의 최근 변화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추진

4) 유의 및 고려 사항

- 제공 내용 및 시범교육 강사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남북한의 도서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 내용이 없는지 사전 협의를 실시함
 -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남북한의 도서관 강사들 대상 사전 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남북 양측의 교재는 시의성을 잃지 않도록 도서관 관련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재에 반영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남한의 북한 도서관일군용 교육교재 개발은 사서 양성 및 현직 사서 연수를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 담당
 - 북한의 남한 사서용 교육교재 개발 주체는 개발 이전에 남쪽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기간(시점)
 - 화해협력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임

6) 전후 추진 사업

- 경색기
 - 화해협력기 이전에는 남한 사서의 북한 도서관 이해 교육을 실시
 - 화해협력기를 염두에 두고 남북 도서관 체제 비교 및 사서/도서관일군 업무 비교 등을 수행함
- 연합단계
 -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의 지속적인 버전 관리로 최신성 유지
 - 남북한의 사서/도서관일군 대상 공동교육 실시

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 개별 도서관은 남한 도서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평양의 도서관(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움
- 남한 개별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북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북한(도서관)에 대한 정보 부족
- 따라서 남북한 대표도서관에 개별도서관이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함
 - 도서관 간 협력형 정보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음
 - 남한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단체 등에 쉽게 문의할 수 있지만,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움
 -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측의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또는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학기술전당)에 문의하여 관련 답변을 제공해야 함
 - 북한 도서관은 북한 내 도서관 현황 및 서비스 개설 시에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에 문의하고, 또한 남한과 도서관 교류를 기획할 때도 문의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초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의 기획으로 교류사업이 이뤄지겠지만, 점차 단위 도서관 간의 교류가 이뤄질 때 적절한 정보제공으로 개별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함
- 질의 응답 서비스 경험에 따라 북한 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이 강화되고, 남북 도서관 전반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음
- 요구에 기반한 소통으로 남북 도서관 교류의 실용화가 가능하고, 남북 도서관 모두 상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도가 제고됨
- 주제정보서비스, 연구정보서비스 등 전문화된 경험 공유를 통한 정보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3) 사업 내용

■ 남북 도서관 간 정보서비스 협력창구 개설

- 국립중앙도서관-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이 남북의 전담 창구역할을 함(온라인 웹페이지 개설)
- 가칭 ‘남북사서/도서관일군의 창’을 개설하고, Q&A 운영(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수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사례 적용)
- 남한 도서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뿐 아니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에게 문의
- 북한 도서관 관계자는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뿐 아니라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
-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한 도서관 관계자가 인민대학습당에, 북한 도서관 관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하기 쉽지 않고, 의사소통 역시 수월하지 않음
- 따라서 남한 도서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북한 도서관 관계자는 인민대학습당에 문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인민대학습당이 협력하여 답변을 제시할 것임
- 이용자의 질의에 대한 정보서비스뿐 아니라, 동료로서 사서 간의 직무와 관련된 멘토링서비스, 남북한 사서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같은 종합적인 협력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형 지식정보온라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전국 633개 도서관이 협력 운영²³⁴⁾,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당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도우미서비스’, Springshare의 플랫폼 등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례 참고

■ 서비스 전담 이메일 계정 개설

- 남북 공통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여기에서 상호 질의응답 서비스 및 도서관 업무관련 협력, 상호 질의응답 협력,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함
- 남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 간의 협력형 정보서비스 전용 이메일 계정 개설
- 온라인 전담창구와 비교하여 공통 이메일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장하며, 복잡한 도서관 실무영역(예를 들어 연구정보서비스, 주제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 실시

234)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107쪽

4) 유의 및 고려사항

- 전담창구를 통한 질의접수와 응답 처리의 체계적 관리, 기존 공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야별 질의응답 전담기관(전담자) 배정, 협력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협력형 서비스를 통한 질의응답은 담당자를 지정 제한된 창구에서 우선 추진하며 협력이 확대 될 경우 확장 제공
- 추후 원문 제공 같은 후속적인 서비스 지원(상호대차 등)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후속처리에 대한 지침 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남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북한은 인민대학습당 또는 과학기술전당이 사업의 추진 주체임
 - 남과 북이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데, 남한의 경우에는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추진 기간(시점)
 - 남북 온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가능할 것이므로, 화해협력기 중반 정도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남북 도서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북한 도서관 현황 연구, 도서관일군의 업무 등 파악
- 연합단계
 - 분야별 전문사서로 구성된 남북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 정보 질의에 대응
 - 남북한 도서관의 사서들이 팀을 이뤄(남한 사서들-북한 사서들이 하나의 팀) 공동 프로그램 진행(경연형식으로 진행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음)

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북한은 2001년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개관 이래 전자도서관 건립에 주력하여, 전자도서관은 원격교육 거점의 역할을 하도록 했지만 지역 간 격차와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자도서관 고도화 사업과 휴대 전화 확산에 따른 모바일전자도서관 구축 등에서 기술과 자원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임
- 덧붙여 지역 간 격차가 있어서, 지역 단위 ‘미래원’에서는 홈페이지 제작도 어렵다고 함 (자문회의 결과)
- 따라서 북한 전자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남한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에서 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단위 도서관 전산화와 데이터 공유를 추진 해온 경험이 있음
- 초기 단계인 북한 전자도서관의 시스템 활용 지원과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면 (북한 전자도서관의) 업무 효율화와 도서관 현장의 현안 대응력이 높아질 것임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한이 북한에게 선진적인 운영 및 경영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 교류가 될 수 있음
- 2000년대까지 북한이 남북 교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경제적 이익(실리)이었음
- 최근 북한은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사업진행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함
- 국제적 표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 아니라 운영 노하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임
-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 및 도서관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은 실용적 협력 기반이 됨
- 교류의 지속성은 교류 자체가 이해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때 가능함
- 북한은 전자도서관을 위해 시라큐스대학교와 협력, 한양대 도서관 등과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임

3) 사업 내용

■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플랫폼 관리 노하우 전수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 간의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및 운영,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리 및 이용자 교육 등의 노하우를 알려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기술정보센터’ 같이 도서관시스템 운영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술센터에서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것
 - 도서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건이 열악한 도서관들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지원 방법
 - 전자도서관 및 운영 시스템이 다른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필수 공통 업무 사항 및 현장 사례 중심 지원체제
 - 도서관 공통 업무관리 시스템의 하나인 KOLAS시리즈와 같이 공공도서관용 업무 모듈과 지원시스템 등 도서관 전산화와 운영 관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험과 사례
 - 현재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사업, 모바일 전자도서관 및 태블릿 PC 사용 등에 따른 콘텐츠 관리와 이용 서비스 지원 등
 - 국립중앙도서관은 종합목록시스템 참여 도서관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동영상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제공함²³⁵⁾
 - 사서대상 관리자 교육, 이용자대상 이용교육 같은 전자도서관 관련 교육사례 공유

■ 남한이 이 같은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상황에 따른 신속한 협의와 지원이 가능한 남북 실무 창구 개설

■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은 원문 공동이용 등을 제안해야 함(지원이 아니라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안이 필수적임)

235)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구축시스템
<https://kolis-net.nl.go.kr/KolisNet/LoginPage>(검색일: 2021년 11월 9일)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의 전자도서관 및 운영시스템, 도서관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지원 프로세스 중심의 플랫폼의 우선 적용이 필요함
- 최근 세계적 표준, 그리고 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북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운영 노하우, 서비스체계 같은 경영기법 지원을 원하기에 적합한 사업이지만, 자칫하면 정보 누출이 가능할 수 있기에 사업진행에 특별한 주의력이 요구됨

5) 추진 주체 및 기간

■ 추진 주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공유 및 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원 조직을 보유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
- 총괄적인 추진 주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맡는 게 적절함

■ 추진 기간(시점)

- 경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일종의 기술 전수이므로)
- 화해협력기에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류를 시작함
 - 유지보수 등 도서관 시스템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도서관 현장 교차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운영 지원 등 기술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 연합단계

- 남북 양측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차방문 확인
- 양측의 노하우에 대한 상호 교류 및 동일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공유를 위해서 남북 종합운영기관 간 헬프 데스크 운영

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최근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통해서 도서관 공간의 변화가 나타남
 - 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라 미디어 창작실(스튜디오, 미디어 편집실, 미디어자료 이용석 등), 디지털자료실(디지털열람실, 원문DB석, 세미나실, 노트북/모바일이용석), 실감서재(실감 콘텐츠체험관), 기록매체박물관 등 설치
- 『2020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2019년이 리모델링의 해’라고 할 정도로 도서관 리모델링은 2018년 3개관에서 2019년 61개관으로 대폭 증가함²³⁶⁾
 - 통합자료실, 정보 공유, LIP 환경 구성, 전문멀티미디어 영역 구성, 디지털 북 체험 공간, 큐레이션 운영, 북 카페, 그룹스터디, 커뮤니티, 디지털자료실, 복합문화 공간 등
- 북한도 김책공대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대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에서부터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과 지역단위 ‘미래원’에 이르기까지 전자도서관 구축과 정보자원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됨
 - 멀티미디어자료실(다매체자료실), 전자열람실, 학술교류실, 학습교류실, 목록검색실, 종합강의실, 원격강의실, 컴퓨터강의실, 과학기술강습실, 인터넷시청열람실, 전자도서열람실 등
- 따라서 전자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공간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공간과 시설의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이 도서관 건축과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경험과 사례 공유,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 모색
- 남북 디지털 도서관을 상호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시도하지만, 자관의 약점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236)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208쪽

3) 사업 내용

- 도서관 공간 구성과 기능에 대한 정보 교환
 -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공간 구성 기획 의도, 정확한 공간 구성 내역, 공간의 기능,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전당의 공간 구성 의도, 내역, 기능에 대한 정보를 받음
 - 공공도서관-미래원의 공간 구성에 대한 정보 교환
- 디지털도서관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 물리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정보 교환뿐 아니라 디지털도서관 공간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 운영이 수월한 서비스, 불편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정보 교환
-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 남한에서 최근 신축한 공공도서관과 북한에서 새롭게 개원한 미래원의 공간 및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 남한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사례, 군중도서관에서 미래원으로 리모델링 한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남북 도서관의 정보 교환은 이처럼 공간구성, 시설 및 기기, 관리 및 활용, 공간별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자를 간행하여 교환하는 게 적합함
-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
 - 국립디지털도서관, 신축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 및 불편한 점 파악
 - 북한에도 이 같은 조사를 권유할 수 있음
- 화해협력기에 상호 도서관 방문 이후
 - 방문자가 근무하는 (전자)도서관 체계에 적합한 공간구성, 서비스 체계를 구상
 - 국립중앙도서관-과학기술전당에 보고하여 자관의 리모델링 그리고 신규 도서관 건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 유의 및 고려사항

- 도서관 공간과 기기, 시설 운영 등은 사서와 기술직의 공통업무이므로 조사 과정부터 협력
- 공공도서관의 디지털공간에 중점을 두지만, 향후 정보화되어야 할 영역까지 조사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

■ 추진 주체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도서관 리모델링 등에 따른 제반 정보를 조사하여 파악함
-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북한 조선도서관협회에 이 같은 조사가 수행하도록 권유
- 정보공유는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담당

■ 추진 기간(시점)

- 화해협력기에 수행할 사업임
- 다만 경색기에 남한에서는 관련 조사 결과를 ‘전국도서관대회’ 등에서 발표할 수 있음

6) 전후 추진 사업

■ 경색기

- 남한에서는 북한 도서관과 교환해야 할 정보조사를 통해서 책자 발간
- 현재와 미래 도서관의 공간과 기능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 화해협력기

- 이 사업은 화해협력기 사업임
- 남북 도서관의 정보 교환 및 상호 방문하여 장단점 파악

■ 연합단계

- 화해협력기에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한에 적합한 공동도서관-미래원을 신축하여 개원하고 도서관 간 직접 교류 실시

제3절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 3절은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제3국과 함께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①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②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임
- 3절(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의 단위(개별) 사업은 1절과 마찬가지로 ① 사업 필요성 및 배경, ②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③ 사업 내용, ④ 유의 및 고려사항, ⑤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⑥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함

1.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는 여섯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을 진행함
 - 이 가운데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화해협력기)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경쟁기부터 화해협력기 초반에 진행 가능한 사업임

1-1.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2000년 10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일본도서관협회의 제8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남북한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²³⁷⁾ 이후, 남북 도서관관계의 만남은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유동적임

237) 이두영(2000),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걸음,” 『도서관문화』, 41(6), 43쪽

- 국제적 수준에서 외국과 북한의 도서관 교류가 일부 이뤄지고, 이때 재외동포가 참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국제단위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는 없었음
 - 시라큐스대학과 김책공대의 협력에서 보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므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우회적 교류협력 장이 필요
 - 2000년 일본, 2005년 평양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조선도서관협회 등에 교류협력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는 제3국,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도서관 간접 교류가 현실적임
- 북한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제표준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남한은 물론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협력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음
 - 교류협력 의제로는 국제적 표준에 관한 사항,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한 사항, 지속가능한 협력이 필요하거나 시급성을 가진 사안 등이 될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국제적 데이터 교류를 위해 국제표준 준수와 관련 국제기구 가입이 필요
-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을 통한 남북 도서관 교류는 이미 제안되고, 일부 실현된 바도 있음²³⁸⁾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분과 참여 및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 참가를 통한 교류
 - 씨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이 큼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 등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를 시도할 수 있음
 - 중국의 연변대학이나 일본의 국제고려학회 등에서 남한과 북한이 참석하는 형태로 학술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긴 바 있음
- 북한이 지향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참가를 계기로 활용
 -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학술 역량 제고와 국제적 위상으로서 학술역량 강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 학술 교류를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 네트워크 계기로 활용함
 - 학술포럼의 주제 설정에서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제로 설정하여 참여를 유도함

238) 한상완·곽동철·송승섭·한상길(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도서관문화』, 42(6), 47~54쪽

-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남한, 북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동포, 기타 각국의 교포들로도 그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 이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도서관이 국제기구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세계 여러나라들과 공통된 의제를 나눔으로써 향후 남북 직접 도서관 교류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
 - 공통 현안 논의에 대한 남북한 사례의 제시 등이 이뤄지면, 향후 필요한 부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수 있음
- 국제기구 회의 참석을 통한 북한(도서관계) 만남은 남한 도서관계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음
 - 도서관계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의 인식이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보다 오히려 국제기구 회의 참석과 남북 도서관인의 만남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임
 - 북한의 국제기구 회의 참여는 북한 도서관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이에 따라 향후 남북 도서관 교류의 의제 발굴 등이 수월해질 수 있음
- 북한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외국 대학도서관(중국 연변대, 일본 조선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도서관계가 만나, 간접적 형식으로 자료를 교류하고 후일 직접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국제회이나 표준기구 참여 등은 우회적인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남북 도서관 협력의 상징적인 효과를 가짐
-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학술대회에 남북한 참여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제재국면에서 간접 교류를 통한 비공식 자료 교환
 - 자연스럽게 남북(도서관) 교류는 남북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아, 남북 교류를 국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학술 교류로 확대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분과 참여 및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 참여 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교류
- 도서관계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연차총회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여
- 국제전문도서관협회(SLA) 아시아지부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²³⁹⁾ 학술대회 참가를 통한 교류



자료: ICoASL 서울회의 홈페이지 <https://connect.sla.org/asia/events/icoasl2021>

[그림 5-10] 2021년 ICoASL 서울회의 홈페이지

239)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국제컨퍼런스로 한국,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시아 지역 7개국 111명의 사서들이 회원으로 도서관의 현안과 미래 기술 등을 논의함

■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교류협력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분과 중 23개 분과에 가입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 정부도서관, 보존·복원, 족보·지역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류·색인, 리터러시·독서, 교육연수, 도서관이론연구,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10개 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함²⁴⁰⁾

■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보존복원(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분과에 참여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센터가 한국지역센터 역할을 하는데, 북한이 보존복원(PAC)분과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남북 도서관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KOREA(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O27729) 가입을 통해 국내 창작자의 국제식별 기호부여 등 국제표준을 적용하는데, 북한이 참여하면 남북 도서관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음

■ 북한의 국제표준기구 가입 필요

- 학술정보의 국제 교류를 위해서는 북한 도서관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해야만 함
- 북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밖에 다른 국제표준기구에도 가입해야 국제적인 도서관 교류(간접적 남북 교류)가 가능함
- 남한은 클라우드, SaaS 등 전환 추세에 따른 국제적인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를 반영해야 향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이 용이해짐

■ 몽골 사례의 시사점

- 도서관 국제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도서관 상황은 열악하나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짐
- 북한도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도서관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몽골처럼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장비와 물품 등의 공식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240) 국립중앙도서관(2021),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20』, 143~144쪽

4) 유의 및 고려사항

- 국제기구 가입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인지해야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에, 북한이 단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예를 들어 제3국 학술대회에서 만나 표준화의 중요성 강조) 조성
 - 중국-일본을 통한 남북 만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중국 정부는 연변지역 조선족이 남한과 북한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 순수한 학술정보 교류가 목적임을 밝히고,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면서 국제학술행사로서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서도 국제기구와 협력하면 북한의 표준화 및 국제기구 가입은 가능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에서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ICoASL) 개최 계획 수립 시 관련 의제 개발
 -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교가 주도하도록 함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후원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학술대회 자료(발표문, 참고문헌) 수집
 -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외국도서관을 통한 남북 도서관 간접 교류는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담당함
- 추진 기간(시점)
 - 경색기에는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외국과 의제 개발,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한 협의
 - 화해협력기 초반에는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회의에서 남북 간 직접 접촉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중반

- 화해협력기에도 제3국을 통한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은 추진 가능하며, 화해협력기 중반부터는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사업 및 한반도(학)에 대한 국제 교류 계속 진행

■ 화해협력기 후반

- 남북 도서관 사서가 아시아지역 회의 및 국제회의에서 공통 의제로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 연합단계

- 남북 도서관계 협력으로 세계도서관대회 같은 국제수준의 도서관 대회를 남북에서 자주 개최함
- 이를 위해서 화해협력기 내에 도서관계(문헌정보학계)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별해야 함

1-2. 연변대학교 · 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 학술 교류를 위한 접점 공간으로서 연변

- 남북 직접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거점으로 한 교류는 남북의 정치적 상황을 우회하는 접점이 될 수 있음
- 연변지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접근이 어렵지 않음

■ 제3국을 통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은 이미 제안되고 일부 실현된 바 있음²⁴¹⁾

- 중국 연변대학이나 일본 국제고려학회 등에서 남한과 북한이 참석하는 형태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긴 바 있어서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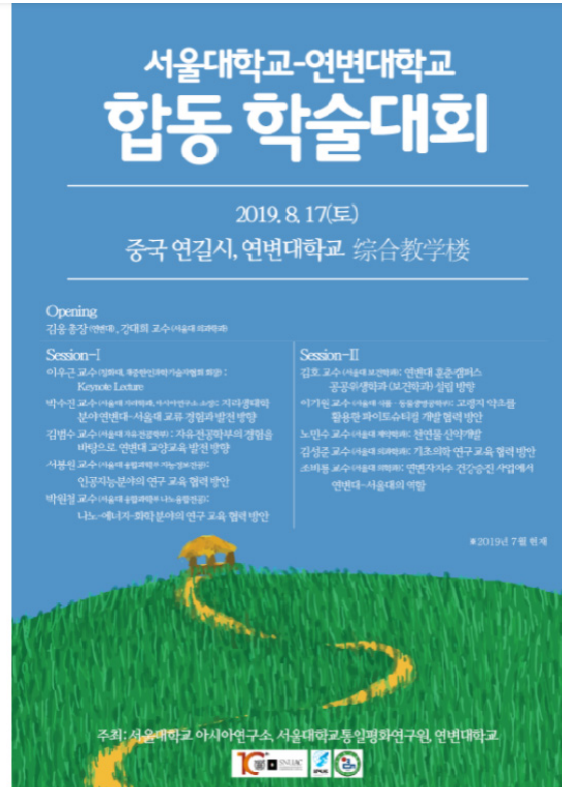
241) 한상완·곽동철·송승섭·한상길(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도서관문화』, 42(6), 47~54쪽

- 실제 남북 학자들이 연변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두만강포럼(Tumen River Forum)’,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중심에서 개최한 ‘조선(한)반도 학술포럼’ 등을 통하여 학술 교류의 경험이 있음
- 중국 연변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내의 대학들이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나 한국학관련 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도 있음
- 중국을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는 한국학연구재단의 사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연구 사업이 있어서 교류협력의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는 중국에서도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연구의 전문학술거점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자 함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검색기에는 한반도(조선반도) 연구의 거점 대학인 연변대학교와 함께 남북 학술 교류 및 남북 도서관 교류를 시도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는 중국 소수민족 특화대학으로 조선민족의 민족교육 거점으로 설립되어 운영됨
- 연변대학교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학술연계 사업을 진행하였음
- 서울대학교는 2016년, 2019년(8월, 11월) 세 차례 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 2016년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이 연변대학교를 방문하여 박영호 총장과 대학간 학술 교류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북한 대학들도 참여하는 연구팀 구성을 논의하였음
 - 2019년 8월 17일 연변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²⁴²⁾
 - 2019년 11월 13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연변대학교가 공동으로 ‘한반도의 사회생태적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²⁴³⁾
- 연변대학교 교수 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있으며, 연구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다

242) 아래의 인용문은 <SNU AC>(2021.10.27.),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 합동 학술대회,”
https://snuac.snu.ac.kr/?u_event=%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EC%97%B0%EB%B3%80%EB%8C%80%ED%95%99%EA%B5%90-%ED%95%A9%EB%8F%99-%ED%95%99%EC%88%A0%EB%8C%80%ED%9A%8C(검색일: 2021년 10월 27일)

243) <SNU NOW>(2019.11.20.), “아시아연구소, 서울대-연변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https://now.snu.ac.kr/past/50/2/1519>(검색일: 2021년 10월 27일)

녀오기도 함



자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검색결과, https://snuac.snu.ac.kr/?u_event=%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EC%97%B0%EB%B3%80%EB%8C%80%ED%95%99%EA%B5%90-%ED%95%A9%EB%8F%99-%ED%95%99%EC%88%A0%EB%8C%80%ED%9A%8C

[그림 5-11]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 공동학술대회(2019)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국제학술대회에는 반드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분야를 포함시켜 진행하여 남북 도서관학계 교류를 시작하며, 북한 도서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를 매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자료집을 확보하여 향후 남북 문화 교류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분야의 학술 교류에서 연변대학도서관은 북한 학자의 발표문, 참고문헌 등을 취합하여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학술대회 이외에 연변대학교 도서관이 보유한 북한 문헌목록을 받고, 관련 북한 도서를 기증 및 구매하여 국내에 없는 북한자료를 입수함

3) 사업 내용

- 연변대학에서 주최하는 두만강포럼, 한반도(조선반도) 포럼에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세션을 구성하여 남북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연구들이 발표 및 토론함
- 이 같은 포럼을 계기로 이미 남한 학계는 북한 사회과학원이나 김일성종합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였음
- 국제학술대회(포럼)는 회를 거듭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분야도 다양해졌으므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여 남북 도서관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함
- 두만강포럼은 두만강 유역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과 주변 국가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연변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2019년 제12회 대회가 2019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었음²⁴⁴⁾
- 두만강포럼의 주제는 참가 범위에 따라서 확장되었는데, 2019년 대회에서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남한 건국대학교 등 남과 북,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재일 조선대 교원이 참가하여 6개의 세부 영역에서 포럼을 진행하였음
 - Sub-forum 1: 경제 (기회와 도전: '일대일로' 시각에서의 두만강 지역 경제 협력)
 - Sub-forum 2: 법학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두만강 지역의 국가 경제개발 법률 제도)
 - Sub-forum 3: 철학 (동아시아 사상 문화 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
 - Sub-forum 4: 문학 (동아시아 문학 교류와 근대성 구축)
 - Sub-forum 5: 문화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새로운 가치 탐구)
 - Sub-forum 6: 여성 (두만강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의 역할)
- 북한에서는 조선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주로 참여했으며, 대외경제성 인사들과 재일본조

244)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되지 않음

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학교의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남한에서는 교통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등이 참석하였음

-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대회’는 두만강포럼과 별도로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중심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2018년에 제1회 대회를, 2019년 7월 26일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하였음
- 국제학술대회에서 열린 도서관학(문헌정보학) 이외 분야에서도 발표문, 토론문, 그리고 참고문헌을 수집하여, 남북이 실질적으로 도서 교류를 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 도서관이 보유한 북한 출판물 목록을 협조 받아 취합하고, 남한 내 없는 자료, 특히 고문헌 등을 중심으로 기증 및 구입하도록 함
 -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서는 연변대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는 방식을 통해 실제 북한자료 입수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하는 남북 도서전시회를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국제학술대회(두만강포럼, 한반도포럼)와 별도로 연변대학교 도서관이 주최하는 남북 도서전시회를 개최함
 - 연변대학교 도서관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대학 도서관과 조선수출입출판사를 비롯한 출판사와 연계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신규 자료를 전시할 수 있음
 - 매년 분야별로 도서전시회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남북 간 도서 교류를 할 수 있음
- 연변자치주 주정부도서관 협력 사업
 - 연변에는 자치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북한의 도서자료와 남한의 도서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함
 - 연변대학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남한 내 없는 북한자료를 기증하거나 구입하고, 국내 도서를 여러 권 비치하도록 하여 북한에서 남한 도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 같은 사업은 국내 광역지자체의 대표도서관 1곳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여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
 - 연변대학교 주관 학술 교류 사업에서는 중국 당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

당국은 남북한의 직접 교류가 소수민족 자치주로서 (한민족의) 민족성을 자극하는 문제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남북이 참여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형태로서 형식을 갖추어 추진해야 함
- 연변대학교 도서관은 최근 남한 측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북한 자료에 시건 장치를 갖추고 서류작성 이후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듯이 남한에 북한 자료를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음
- 연변대학교 도서관이 남한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적당한 수준의 반대급부를 마련해야 함
- 연변대학교 도서관에 국내 최신자료를 많이 제공하거나, 도서관 기자재 및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
- 한편 연변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길림대학교 외국어학원처럼 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지 않은 대학과도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음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연변대학교 주관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교가 주도하도록 하며,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후원하여 학술대회 자료(발표문, 참고문헌)를 수집함
 - 독자적인 구성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기존의 학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폭넓은 교류가 될 수 있음
 - 도서관 세션은 도서관계 학회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함
- 연변자치주 도서관과의 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광역지자체 대표도서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 남북도서전시회는 출판문화협회 등에서 주도하고, 공공에서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 추진 기간(시점)

-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추진
-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협력기 초반에도 남북 교류를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기에 가능함

6) 전후 추진 사업

- 이상에서 제시한 사업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에 추진 가능
- 화해협력기
 - 초기까지 남북 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를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음
 - 한편 연변을 거점으로 한 남북 학술 교류 및 도서관 교류를 심양, 장춘, 단둥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
 - 연변 주변에 조선족들이 집단 거주하는 심양, 장춘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히 북중 교역의 핵심 도시인 단둥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향후 북중 교류 사업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화해협력기 중반부터는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사업을 수행하며, 한반도(학)에 대한 국제 교류는 계속할 수 있음
- 연합단계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 공동연구 수행
 - 이를 위해서 화해협력기 내에 도서관계(문헌정보학계)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별해야 함

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남북 도서관 협력을 위한 매개 공간으로서 일본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북한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국과의 학술적인 교류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북협력의 공간으로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조선대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조총련계 소속의 민족학교인 조선고급학교 출신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일본 고등학교 출신임

-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민족학교가 많이 줄어들었고, 조선대학교가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도서관과 조선대학교와의 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도서관과의 간접 교류 효과가 있음
-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를 남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음
- 조선대학교는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조선대학교를 지원하여 향후 (조선대학이) 남북 교류 촉매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한에서 부족한, 조선대학교 보유 역사교육 교재 활용을 통한 고구려 관련 교육교재 활용
- 조선대학교는 남한에서 실물을 접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도의 역사교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남한에서는 학교교육이나 고대사, 고구려 관련 교육자재로도 활용
- 조선대학교 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남한에 없는 북한자료를 기증 받거나 구입하여 북한자료 확보
- 향후 남북 공동연구의 기틀 마련
- 조선대학교와 남한 학회, 대학의 재일동포-조선적 일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민족 이민사 자료 재구성
- 이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향후 남북 공동연구의 토대 마련
- 연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제학술대회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하여 남북 학회(도서관계 포함)의 간접 교류 실시

3) 사업 내용

- 조선대학교 보유 학습기자재 디지털화 사업
- 조선대학교에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는데, 교내에는 실물 크기의 고구려 광개토왕비를 비롯하여 박물관 내에는 고구려 고분벽화 실물 모형, 발해시대의 유물 등의 역사유물 모형이 있음

-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실물자료들을 3D로 촬영하여 디지털화 한다면 조선대학교에서도 수업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역사교육이나 통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조선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구재를 비롯한 학습도구와 민족 예술활동에 필요한 악기나 체육기자재, 교육용 도서 등을 지원함
- 조선대학교 소장 북한자료 구입
 - 지원의 댓가는 아니지만, 조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자료를 기증 및 구입, 전산자료화 할 수 있음
- 도서관을 주제로 한 남북일중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제3국의 남북 교류를 추진함
 - 학술 교류는 연변대학 학술 교류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표문, 토론문, 그리고 참고문헌을 실제 남북이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일본 조선대학교와 국내 대학교, 학회가 재일 한국인의 삶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함
 - 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조선적)의 일본사회에서의 삶을 다루는 사회학적-인류학적 연구 진행
 - 연구과정에서 찾아낸 각종 문헌 등은 현재는 남한 내 대학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북한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4) 유의 및 고려사항

- 남북관계의 영향
 - 조선대학교는 북한의 영향 아래 운영하는 대학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정치적인 행사 지향하고 민족교육 사업으로 추진
 - 일본 조총련의 정치적 민감성과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순수한 학술 교류 사업을 추진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조선대학교 도서관 보유 자료(특히 북한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대학 연합체-디지털 관련 기업이 수행
- 국제학술대회 및 공동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교가 주도하며, 도서관 관련 정부 기관은 이를 후원하여 북한 관련 자료 수집

■ 추진 기간(시점)

- 현재와 같은 경색기에도 지속 사업추진 가능하며, 화해협력기 초반까지 수행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중반

-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조선대학교가 참여하도록 유도
- 화해협력기 중반 조선대학교 사업에 이어서 고급중학교 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연합단계

- 남북학계의 공동연구(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의 삶) 수행

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국제고려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북한 학계가 참여함

- 국제고려학회는 1990년에 창립, 일본 오사카의 본부를 비롯하여 ‘아시아분회’, ‘일본지부’, ‘유럽지부’, ‘북미지부’, ‘서울지회’, ‘평양지부’, ‘대양주지부’를 갖춘, 한국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학술단체임
- 국제고려학회는 한국학 관련 국제 학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평양에 지부를 둔 학회로

북한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국제고려학회는 지부별로 순환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평양지부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연됨
- 북한의 국제학술에 대한 열망
 - 김정은 체제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학술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국제 학술지 투고가 늘어남
 - 국제고려학회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참여하기 용이한 국제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음
- 국제고려학회는 남북한 학자들을 포함하여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인 교류가 가능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한국학 전문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정기적인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서관이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함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부를 특정 도서관 내 설치하여 국제고려학회 보유 북한자료의 수집
 - 국제학술대회에 중앙도서관이 일부 후원하여 관련 북한자료 수집
 - 향후 글로벌 한민족 학술연대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남북 도서관 자료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
- 글로벌 한민족 학술연대 사업으로 발전
 - 한국학 연구의 국제연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남한, 북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동포, 기타 각국의 교포들로도 그 범위를 넓혀 추진하여 학술연구에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3) 사업 내용

- 특정 도서관 내 국제고려학술정보센터 서울지회 사무실 개관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부는 회장에 따라서 학회본부가 이동하는데, 국제적인 학술발전을

고려한다면 남한 내 특정 도서관에서 국제고려학술정보센터 서울지회의 사무업무를 맡아서 도서관이 학술대회의 거점이 되도록 함

■ 국제고려학회의 평양학술대회 개최

-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제고려학회의 평양학술대회가 개최되면 남한이 참여할 수 있음
- 국제고려학회 평양지회 대회에서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학술대회의 세션으로 설정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

■ 국제고려학(코리아학)의 정보 DB구축

- 국제고려학회에서 제기된 학술정보들을 구축하고, 이를 정보화하면서 이를 다국어로 번역하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국제고려학회 주최 학술대회의 세션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함

-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제를 우선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학회에서 추진하는 학술대회이므로 해당학회가 주체가 됨
- 고려국제학회 평양대회는 코로나 19가 완화되면 국제고려학회 서울지부와 논의하여 참가를 타진
- 도서관은 후원자의 역할을 통해 관련 자료수집에 역점을 둠

■ 추진 기간(시점)

- 고려국제학회 평양대회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현재와 같은 경색기부터 화해협력기 초반까지 수행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중반~연합단계

- 남북 도서관-남북 주요학회가 공동으로 국제 한국학대회 개최

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유럽에서 활성화된 한국학 학술대회를 남북 학술 및 도서관 교류의 계기로 활용

-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학술 역량 제고와 국제적 위상으로서 학술역량 강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함
- 앞서 살펴본 일본, 중국 중심의 학술대회 및 도서관 교류를 넘어서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남북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북한관련 자료는 도서관에서 취합하여 학술 교류와 도서관 자료수집을 수행함

■ 광범위한 한국학 국제네트워크 활용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세계 한국학 관련 학회들이 주최하는 세계한국학대회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한국학 관련 학술대회를 계기로 활용하여 추진
- 한국학연구원은 200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한국학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20년에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하였음
- 세계한국학대회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가함
- 2020년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30개의 패널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 남북 학술 교류에 민감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유럽을 통한 학술 교류는 해당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유럽 국가 중에서 남북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학술 교류협력의 공간으로서 유럽의 거점 확보

-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북한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남북협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음

■ 세계사적 시각에서 남북 교류를 포함한 남북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음

- 연변대학교 도서관 교류, 조선대학교 도서관 교류,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비교하여 한국학 학술대회는 공간적 범위가 넓어짐
- 유럽 내에서 열리는 한국학대회는 남과 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는 동아시아 국가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음

■ 국제학술대회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일부 지원(후원)하여 학술대회에 참여한 북한학자의 자료를 취합하여 북한자료 확보

3) 사업 내용

- 유럽에서 열리는 한국학 학술대회에 도서관학-문헌정보학 등의 세션을 구성하여 남북 도서관의 간접 교류 실시
- 도서관학-문헌정보학 등의 세션에 특화된 학술 교류를 통해서 남북 도서관을 남북한 학자들이, 그리고 제3국 학자들이 비교분석하면 구체적 교류방안을 추출할 수 있음

■ 유럽 대학 및 문서관리소의 한반도 자료 발굴

- 동유럽의 대학 중에는 북한과 교류하면서 받은 북한 자료가 있음
- 이들 자료 중에는 한반도 현대사의 학술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 북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유럽의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학술대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함

- 유럽 대학 및 연구소가 소장한 북한 자료의 전산화를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실시
- 한국학 전문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정기적인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서관이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함
- 북한의 국제 학술활동 촉진을 통해 북한 자료의 개방을 이끌 수 있음
 - 북한도 국제적인 학술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적인 학술연구 흐름을 따라가려고 함
 - 국제적인 학술 교류사업은 북한의 학술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참고 문헌 등에서 북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남한 도서관에서 취합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남한 자료는 북한 도서관에서 취합할 수 있음
- 대학을 통한 도서관 사업 및 예술사업
 - 김책공대 도서관 사업에 미국의 시라큐스대학이 참여했듯이, 유럽 대학의 북한 도서관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음
 - 미국의 쾨즈대학에서 남북영화제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유럽대학에 적용하여 통일한국학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비용의 부담이 있으므로 여러 기관이 참여
 - 유럽을 거점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은 중국을 통한 협력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듦
 -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진흥 사업, 한국문화보급 사업 등의 사업을 조사하여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과 연계하여 유럽에서 통합한국학 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적인 사업 마인드가 필요함
-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선정
 - 유럽 한국학과를 통한 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선정이 사업의 관건임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학술대회 참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공공 교육 및 연구 영역뿐 아니라 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함
- 도서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후원자 역할 담당

■ 추진 기간(시점)

- 유럽에서 열리는 한국학대회 및 유럽대학 협력은 2022년부터 실시할 수 있음
- 경색기부터 화해협력기 초반까지 가능함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세계한국학대회를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
- 동북아, 구미, 러시아 등의 전지역에서 한국학자들이 모여서 대규모 행사 개최

■ 연합단계

- 남한-북한 도서관 회귀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세계학술대회 개최

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북한 방문 시, 남측은 8가지 도서관 교류사업을 제안함
- 남한에서는 신기남(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한상완(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집행위원장, 한국도서관협회장) 등이 참여
- 북한에서는 김영남(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종현(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조선도서관협회 회장, 인민대학습당 총장)이 참여함

- 8가지 교류사업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동도서관 지원이 포함됨
-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북한의 마을 단위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정보 격차,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은 독일이 통일 이후 독일도서관협회연맹을 주축으로 1993년 향후 20년간 도서관 구조와 기능을 재정의하면서 제1수준에서 제시된 내용임
 -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이, 분관 규모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활동과 함께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남한 도서관계는 국내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과 함께 ODA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함
 - 북한 도서관은 지역적 격차, 도서관 접근 불편 등 지역사회 도서관의 물리적 이용이 곤란한 환경이며, 작은도서관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함
 - 최근 북한은 구단위 도서관, 기업소 도서관들도 원격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됨
 - 북한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ODA 사업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 ※ 이때 이동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군소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순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원격 교육이 가능한 지역과 기업소 내의 공간을 의미함
- 국제개발협력, ODA 활동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신형 컴퓨터 등을 반입하는 것은 국제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작은도서관 ODA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의 한계를 ODA사업의 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임
 - 남한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국 133개관의 공공(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²⁴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 이하 국제개발협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이하 작은도서관

245) 아래의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53쪽에서 따옴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외 공공(작은)도서관을 조성에 참여함

- 사업 내용은 해당 국가가 제공한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화 도서관 리모델링, 이외에 PC 및 서가 등 도서관 기자재, 도서를 포함한 콘텐츠 지원 등임
-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학습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남한의 인지도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함

〈표 5-14〉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현황(2007~2020)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천원)	비고
2007	가나(2)	2개관	30,000	복권기금
2008	모잠비크(5)	5개관	150,000	문예기금
2009	가나(4), 탄자니아(4)	8개관	300,000	관광기금
2010	가나(2)	2개관	70,000	관광기금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개관	500,000	일반회계
2012	가나(5), 몽골(3), 에티오피아(2), 탄자니아(3)	13개관	861,000	일반회계
2013	가나(3), 에티오피아(3), 잠비아(3), 케냐(1), 탄자니아(3)	13개관	860,000	일반회계
2014	가나(5), 르완다(3), 몰도바(2), 에티오피아(4), 캄보디아(5)	19개관	930,000	일반회계
2015	가나(3), 르완다(3), 에티오피아(6), 캄보디아(3)	15개관	900,000	일반회계
2016	가나(3), 몽골(3), 베트남(4)	10개관	720,000	일반회계
2017	몽골(3), 베트남(3), 탄자니아(4)	10개관	550,000	일반회계
2018	몽골(4), 베트남(3), 탄자니아(4)	11개관	630,000	일반회계
2019	몽골(3), 베트남(3), 탄자니아(3)	9개관	507,000	일반회계
2020	베트남(1)	1개관	479,000	일반회계
합계	-	133개관	7,487,000	-

자료: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54쪽

-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모델을 북한 도서관 지원 사업에 변용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남북 도서관 교류를 실현하고자 함
- 북한에 대한 UN, 미국 등 국제사회, 남한의 제재로 인해 기존 ODA 사업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PC 반입 금지, 교육 및 과학 협력 금지 등에 따라 다른 국가 지원과는 내용과 형식을 다르게 해야 함

3) 사업 내용

- 남한이 ODA를 통해 직접 북한 도서관을 지원하기는 어렵기에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색함
 - 국제기구 또는 제3국과 북한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항목) 가운데 국제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 파악
 - 제재 항목이 아닌 지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점검
 - 제재 항목이지만 사전 양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포함
 - 남한의 ODA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조사 연구
- 위 사항을 고려한 다음 북한 내 (작은) 도서관 수요 파악
 - 국제기구 또는 평양주재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파악
 - 국제기구 또는 공여국 회의에서 지원 가능한 북한 도서관 개체 수 확정
- 위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 도서관 ODA 참여국가 선정 및 ODA 사업 진행
 - 공여국 가운데 북한 내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
 - 남한은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ODA 도서관 관련 사업(타 국가 개발지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제기구 또는 평양주재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파악

4) 유의 및 고려사항

-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기틀마련 목적으로 추진되는 ODA사업 대상에 북한 도서관 포함 여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다른 국가의 반대가 예상될 수 있는데, 북한사회에 필요한 도서관의 역사와 기능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하는 일이 필요함

- 남한의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3세계 도서관 ODA의 대폭 확대 의지 표명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하여 진행

■ 추진 시기

- 화해협력기의 사업임
- 유형별, 지역별 등 특성을 반영한 작은(이동) 도서관 모델 개발, 작은(이동) 도서관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특성화된 작은(이동)도서관 조성 지원
-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제3국의 ODA 가능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검색기에도 관련 법,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연구 가능

■ 연합단계

- 남북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통해 원격교육 활성화

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는 두 개의 단위(개별) 사업으로 구성됨

-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는 화해협력기 및 연합단계 사업이며,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검색기에도 진행 가능한 사업임

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동서독의 학술분야 교류는 문화협정(1986) 이후 크게 상호 방문 교류와 공동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학술회의 참석, 연구여행, 학자-교수-학생 교환, 전문서적이나 교재, 교육자료 교환과 같이 일회성 행사 성격이 짙은 것부터 공동연구까지 이루어짐
 - 전쟁 전부터 이루어졌던 'Grimm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 등 일부 계획 사업들은 분단 이후, 독일 통일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음
 - 공동연구는 학술회의나 학자 교환과 같은 행사들이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교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공동의 성과를 만드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학자, 학생 간 교류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음
- 동서독 학술 교류가 학교와 학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남북 학술 교류는 도서관이 중간 매재자 역할을 담당하여 교류의 지속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 경색기 남북 학술 교류는 국제도서관 기구, 일본과 중국 도서관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음
 - 화해협력기 남북 학회 공동학술회의, 남북 대학 간 학술 교류 등에서도 초기에는 도서관을 매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함
 - 도서관을 매개로 하면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자료집 등을 도서관에서 발간하면 교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남북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남북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한 학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

- 남북이 한국학 분야에서 공동성과를 거두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서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회-대학의 남북 학술 교류에 참여(매개)하여 관련 성과물(자료집)을 보존하고 책자 등으로 발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를 알리고 통일 한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3) 사업 내용

■ 남북 학술대회 개최 및 상호 교류여행 지원

- 문화유산, 언어, 컴퓨터 등 분야에서 남북 학술대회 개최 지원
 - 검색기에는 남북간 상호 방문이 어려운 만큼, 중국이나 일본 등 제3국에서 개최함
 - 이후 관계 완화 국면에서 남북한 지역, 특히 접경시대 도서관에서 학술대회 개최
- 교류 대상 분야를 대표하고 상호 방문 교류를 희망하는 학자에게 교류 여행 지원
 - 일주일 이하 정도의 초단기 방문여행 지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간과 교류 분야를 늘려가도록 함
- 접경 지역 혹은 양국의 대표 도서관, 추후 학자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대학 도서관 등을 대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방문여행 학자들은 지역 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을 방문하도록 유도함

■ 남북 학술대회가 열리는 도서관의 역할

- 남북 문화 교류의 경우, 사업자(남북 교류사업을 진행하려는 개인, 단체, 지자체 등)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서 대체로 중개인(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함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이 남북 학술 교류의 전문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조선도서관협회와 직통 라인을 통해 학회, 대학 간 학술 교류의 중개인 역할 담당
-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북 교류사업은 계획-실행-보고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개기관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많은 부문에 참여함
- 왜냐하면 실제 사업자는 대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개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 중개기관은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 사업자가 되기도 함(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실제 사업자 역할을 담당함)

〈표 5-15〉 남북(문화) 교류협력 사업 진행절차

추진절차	주요내용	관련 기관
사업구상 및 검토	- 남북 사회문화이해 및 분야별 여건확인 - 전략물자 대상품목,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여부 확인	통일부 중개기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		
사업계획 수립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중개기관
↓		
북한주민접촉신고 (필요시 북한방문 승인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중개인을 통한 간접접촉 등 모두 포함 - 방문 시 북한 방문증명서 신청 및 방북 안내 교육 이수	-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 통일교육원 - 중개기관
↓		
거래를 위한 접촉 및 협의	- 접촉수리(방문수리)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제3국 등
↓		
계약체결	- 사업협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제3국 등
↓		
승인대상여부확인 반출 반입 승인신청	- 예비검토 - 승인 및 통보	-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중개기관
↓		
화물운송 및 관련 서류 준비	- 남북간 선박, 항공기, 철도, 자동차 등의 수송장비를 운행하려는 자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중개기관
↓		
통관	- 반출 반입 신고서 서류 구비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사업 수행	- 남한, 북한, 제3국에서 협력 사업 진행	- 통일부
↓		
결과보고	- 반출 반입 승인 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자료: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52쪽 재인용. 원자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5), 『남북교역 실천 핸드북 100문 100답』(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8쪽이며 이를 재구성한 것임. 이 책자에는 관련 기구에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가 있었으나,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가 2010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2018년 9월 14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기에,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수정했는데,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

4) 유의 및 고려사항

- 본격적인 학술 교류를 위해서는 양쪽의 교류 수요가 먼저 파악되어야 함
- 화해협력기까지는 도서관을 매개로 학술 교류를 수행하도록 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학술 교류는 대학, 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
- 다만 화해협력기에는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이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 추진 기간(시점)

- 화해협력기의 사업으로 연합단계까지 지속

6) 전후 추진 사업

■ 검색기

- 제3국의 도서관, 도서관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도서관 교류
- 한편 화해협력기를 대비하여 학자(생)들의 단기간 여행 등 가능한 형태와 분야 조사

■ 연합단계

- 남북 학술대회가 지속되면, 도서관이 아니라 남북 대학 간, 학회 간 직접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기록물(자료집)은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함
- 남북 학자 장단기 체류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 자료수집 여행을 포함하여 1~6개월 기간으로 장단기 체류를 지원
 - 초빙교수 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장기간의 체류 지원
- 특화 대학별 MOU 체결, 학생 교환 프로그램 지원
 - 기존에 교류 이야기가 오갔던 서울대-김일성종합대²⁴⁶⁾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해외대학 등과 교류가 있었던 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과 교류) 등을 포함하여 교류대상 대학 간 협의체

246) 서울대 총학생회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간에 교류를 제안했고 김일성대가 회신을 보낸 바 있음. <UNN>(2018.08.25.), '김일성대, 서울대에 화답 "판문점선언 이행, 함께 하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557> (2021년 11월 9일 접속); 한편 서울대에서는 '서울대-김일성대 교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연합뉴스>(2019.07.29.), '서울대-김일성대 교류추진위, 학부생 대상 '통일학교'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9057600004> (2021년 11월 9일 접속); 2021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예비 대선주자였던 추미애 예비후보가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로 발표한 공약 가운데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하는 <NewDaily>(2021.07.29.), "김일성대→서울대,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208.html> (2021년 11월 9일 접속)

구성

- 남북 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 개설 및 공동연구 지원
 -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 공동학위 프로그램 개설 지원
 - 학자 간 장단기 체류, 초빙교수 제도 등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인원이 장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2-2. 남북 출판물(자료)²⁴⁷⁾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1) 사업 필요성 및 배경

- 출판물을 통한 남북 교류 시 구체적으로 어떤 출판물을 어떤 방식, 어떤 단계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향후 출판물 교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통일 및 북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실무자(도서관장)들은 북한 도서관과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출판물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함
 - 서울도서관의 경우 북한 도서관과 출판물 교류·협력을 위해 이미 납본 도서 1부를 추가로 더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 및 지침은 없다고 함
- 출판물 상호 교환의 점진적, 단계적 교류협력의 방안으로 미시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구상해 볼 수는 있음²⁴⁸⁾
 - 제 1단계: 순수학술서적, 기초연구자료 및 관련자료 목록
 - 제 2단계: 순수문학작품, 순수연극, 영화대본 및 일반연구논문
 - 제 3단계: 사회주의 이념서적, 잡지 및 선전 선동차원의 문학작품
- 과거 출판물 교류 방안으로 다음의 포괄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²⁴⁹⁾
 - 첫째, 북한 신문·방송의 국내 소개 확대
 - 둘째, 북한의 고전 국역, 농기구학, 고고학 분야의 전문분야 도서 구입 실시
 - 셋째, 탈이념적인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의 전문 서적과 정기간행물, 인기 소설, 오락

247) 도서 뿐 아니라 전자자료 등 일체의 도서관 자료를 의미함

248)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v쪽

249)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11~12쪽

서적의 전시회 상호개최

- 넷째, 순수학문 및 기초과학분야, 자연경관 및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체육·문화행사 자료 집 등 공동 제작 출판
- 다섯째, 과학·기술 용어사전 및 교과서 공동편찬
- 위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출판물 교류협력 계획이 필요함
-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 제재(UN, 미국, 남한) 상황에서는 악기, 골동품, 예술품 등도 반출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재의 단계적 해제 시 어떤 도서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절의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민간에서는 북한 도서 전시, 판매를 위해 몇몇 행사가 개최된 바 있으나 지속되지 못함
-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민간에서 북한 서적의 전시, 판매 등이 이루어진 바 있음
 - 2001년 교보문고에서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북한도서전시회’가 개최되어 140여종의 북한 책이 전시되었음²⁵⁰⁾
 - 특수서적취급증을 받은 민간인이 북한책 전문서점을 열어 전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음²⁵¹⁾
- 서울국제도서전(2018)에 참여한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도 부스를 설치해 북한서적과 사진 전시, 북한말 비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2020년 10월에는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파주에서 ‘북녘의 책 읽는 풍경’을 개최하여 북한관련 도서, 사진을 전시한 바 있음

2)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 북한과 출판물 교류협력에 대한 청사진 제시

- 북한과 출판물 교류협력을 해 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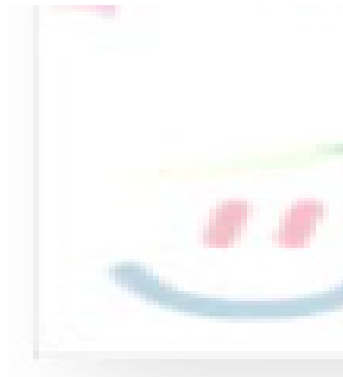
250) <NK chosun>(2001.6.18.), “도서교류 통해 남북 이해심 높여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4>(검색일: 2021년 11월 4일)

251) <한국일보>(2001.3.12.), “북한전문서점 연 김주팔씨 “책구입에 8억...남북화해 도움됐으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103120089046867>(검색일: 2021년 11월 4일)

- 북한 소설의 한국 출판, 예를 들어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는 북한 문학예술출판사의 책을 판매대행(대훈서적)하는 형식으로 2002년 출판되었고, 대훈서적에서 2004년 판(版)을 다시 계약하여 출판함²⁵²⁾
-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출판사가 저자에게 1만달러 위약금, 5% 인세 조정을 법원이 결정하고, 작가가 이를 수용함
- 출판물은 도서관 내 자료 교류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교류가 수월하고, 상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음
- 한편 UN, 미국, 남한의 북한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남북 사이에 교류가능한 출판물(종류)을 미리 설정하여 곧바로 출판물 교류 재개가 가능하도록 함



『황진이』 (북한 문학예술출판사 책을 판매대행 대훈서적, 2002년)

『황진이』 (대훈서적, 2004년)

자료: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Search?domain=ALL&query=%ED%99%A9%EC%A7%84%EC%9D%B4%20%ED%99%8D%EC%84%9D%EC%A4%91>(검색일: 2021년 10월 7일)

[그림 5-12] 북한 소설책 『황진이』 국내 판매 사례

252) 대훈서적은 대전·충남지역의 6개 서점을 운영했으며, 창업주인 고 김주팔 회장이 약 28억원을 들여 북한 서적을 중국과 북한에서 4천여종 14만여권을 들여왔는데, 2009년 부도처리 됐음. <조선일보>(2009.10.06.), “52년 전통 대전 대훈서적 부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6/2009100600197.html(검색일: 2021년 10월 21일), <연합뉴스>(2009.08.18). “김주팔 대전 대훈서적 대표 별세,” <https://www.yna.co.kr/view/AKR20090818038300063>(검색일: 2021년 10월 21일)

3) 사업 내용

■ 출판물 교류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교류대상 도서 선정: 단계별 도서 분류
- 납본 범위: 단계별 도서 분류와 관계없이 납본 도서 2~3부 추가
- 전시 방안: 북한 내 출판물 제공, 북한 출판물의 국내 제공 시, 북한자료실(또는 중앙도서관)에 비치하기 이전에 일반인을 상대로 북한 도서전 개최 등
- 공동 출판의 가능성: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 지역별 문화유산 사진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 자료를 합하여 공동 출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 고안
- 공동 번역 대상 작품 및 가능성: 제3세계 국가 문학작품 등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 번역(초역)할 수 있는 작품 선정

■ 북한제재 완화 및 변화, 또는 해제 시 교류 가능한 출판물 종류 제시

- 대북 제재 변화 시 단계별로 대응 가능한 정보 색인 구축

■ 도서관계-북한학 연구자-출판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 방안을 정해야 함

■ 단계별 도서분류

- 출판물 교류 단계 설정은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설정
- 과거 북한으로 출판물 반출 시, 사회주의 혁명 같은 책자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물이 반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론과 실무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단계별 교류물을 선정

■ 북한자료 전시 및 판매

- 북한 도서의 성격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북한 도서전 개최
- 북한 도서전에서 남북 유사도서에 대해서는 북한 도서관 내에서 남북 출판물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시할 수 있음(화해협력기 및 연합단계)
- 출판사 간 교류이므로 이것의 주된 목적은 판매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2절의 1-1에서 언급한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은 도서관 간 교류로서 판매하지는 않음

■ 공동 출판 가능성 검토

- 한반도 지도, 한반도 문화유산 등 남과 북이 각기 자세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사례를 공동

출판할 수 있음

- 남북이 모두 출판한 번역서, 고문헌 등을 현재 그대로 공동 출판하여 남북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공동 번역 대상 작품 및 가능성 검토
 - 제3세계 국가 문학 작품 등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 번역(초역)
 - 남북이 각기 번역한 경험이 있는 외국 문학작품, 고문서 등을 남북학자가 새로이 공동번역을 실시할 수 있음

4) 유의 및 고려사항

- 도서관계 및 출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저작권 관련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
 - 홍석중 소설 『황진이』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출판본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에서 새롭게 판본을 만들어 판매할지 등의 문제를 협의해야 함
 - 판매가 아닌 전시는 북한 출판본으로 하며, 납본은 북한 출판본, 남한 내 신판본 모두를 대상으로 함
- 현재와 같은 경색기, 그리고 대북 제재 기간 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 1절 4-2의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와 유사하지만 다름
 -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는 특수자료실을 운영 중인 도서관이 도서관 내에서 북한자료를 전시하는 것임
 - 반면에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출판사 간 교류협력으로 도서관 납본 이전에 전시회를 여는 것임(전시회 장소는 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2절 1-1의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과 유사하지만 다름
 -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은 남북 도서관 사이의 교류임
 -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남북 출판계의 교류로서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함(이 경우, 도서관은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출판사에서 관련 책자를 납본 받아서 도서관에 비치함)

5) 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

■ 추진 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별 출판사가 진행하고, 도서 납본과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함

■ 추진 기간(시점)

- 검색기에 가능한 사업임
- 직접 교류가 아닌 가이드라인 작성은 착수 시점은 빠를수록 좋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1~2년 소요 예상

6) 전후 추진 사업

■ 화해협력기

- 단계별 출판물 교류를 실시하고, 남북 교류 출판물 가운데 2~3부는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비치하도록 납본(비용 지불함)

■ 연합단계

- 공동출판, 공동번역 등을 실시하여 남북한 도서관 내 비치, 서점 판매, 해외 수출을 도모함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제6장 맺음말

제1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요약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주요 사업: 기존 계획(제안)과 비교

- 5장에서 제시한 교류협력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6-1>과 같음
- 주요 사업이 1차 및 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8년, 2019년), 그리고 남북한 도서관협회 만남에서 남한이 제안한 사업(2000년, 2005년)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봄
 - 남북 도서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업은 네 가지 계획(제안)과 영향을 주고 받음
 -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내용) 비교를 네 가지 계획(제안)으로 한정된 것은, 그것이 남한 도서관계의 공식적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연구에서 제시된 33개의 주요 사업은 종합계획과 남측의 제안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음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제안(계획)했던 사업 가운데 이뤄진 것이 거의 없음
 - 둘째, 네 가지 계획(제안)은 남북 도서관 교류에서 최소한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 약 20년 동안 제안(계획)했던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
 - 첫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교류사업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음
 - 2000년 일본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안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매우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음
 - 2005년 역시 남북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
 - 2008년은 남북관계가 경색기에 들어선 시점이며, 2019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국제정세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임
 - 남북관계가 좋아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면 적어도 한국도서관협회의 제안 가운데 몇 가지는 이뤄졌을 것임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점에서는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 교류가 많지 않음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둘째, 남북 도서관 교류의 제안(계획)은 실행계획보다 정책 어젠다 성격이 강해서 구체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음
 - 제안과 종합계획은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도서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에 ‘남북교류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18년인 데서 보듯이 도서관계에서는 남북 교류에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됨
 - 따라서 남북 도서관 교류에 대한 정책연구가 많지 않고, 정책연구 역시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제언이 많음
- 이번 연구는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안된 사업(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을 중심으로 수행됨
 - 따라서 연구에서는 교류사업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했음
 - 사업 필요성 및 배경-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사업 내용-유의 및 고려사항-추진 주체 및 기간(시점)-전후 추진 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설정함
 -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한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표 6-1〉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내용: 기존 계획(제안) 비교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제1절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남북 도서관 교류 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전담조직’ 구성이라고 인식함 • 도서관교류의 활성화(연구조사, 교류실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내에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약 10명 인원)을 구성 - 화해협력기가 되면 ‘남북도서관교류추진단’ - 연합단계에서는 ‘남북 도서관교류 공동추진단’을 구성, 재원의 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 	
	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수자료실 가운데 활발히 운영되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학교 정도인데 이 기관들은 거의 서울에 위치함 • 지역에서 북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 대표도서관에 통일자료실(특수자료실) 설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급기관 협의체 구성,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자료를 일반자료로 변경 실제 북한 영화 등은 특수자료이지만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북한특수자료의 점진적 개방'
	1-4.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특수자료취급지침 변경 및 완화)' 또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폐기, 북한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칭)「북한자료관리법」으로 대체 	
	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이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도서관 부분을 포함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서지 정보 등의 교환 출판물의 교환 및 온라인 출판 협력 도서관 현대화(정보화)를 위한 협력 사서와 정보 전문가의 상호 교류 국제도서전 및 국제도서관대회의 공동참가 및 정보교환 도서관의 공동 이용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및 정보분야 공동기구의 조직 기타 도서 및 정보분야 공동발전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남북한 자료교류협정 체결'
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 내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높지 않기에 하나의 창구를 만들려는 시도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북한자료센터의 <로동신문> 기사색인 검색 용이, 도서관 입장에서는 북한 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자료를 볼 수 있어 북한 도서관의 현재 파악에 도움이 됨 	
	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공동 자료목록 구축 이전에는 남한과 외국의 소장 북한자료 목록화 이후 북한 내 자료목록 작성 및 전자문서화, 북한 원문열람 서비스 추진(저작권 문제를 선해결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 주도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및 전거 DB 구축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경험: 남한의 전자도서관 시스템 적용 및 DB 구축 사례 등 검토 IT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역사 등 분야별 종합목록 구축 추진과 확장 남북 도서관이 세계표준 MARC을 준수하고 있어 목록데이터 통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통합 DB 검색을 위한 용어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시소러스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작성' 및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3.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도서관 교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북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실무분야 잡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원문으로 보는 북한 도서관』(가칭)을 발간하고, 발전하면 『북한도서관 연감』(가칭) 간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덧붙여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해 도서관 업무의 부문별 목록 개발, 우수사례 도서관 조사 등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평양 방문 시, 8가지 제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북한도서관 백서 발간』 사업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사업시 작성한 비교표 재검토 • 북한 문헌정보학 학술자료 및 신문의 도서관 기사 용어 분석, 남북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종합목록화를 활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남북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 및 연구
	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공통분류표 개발을 위한 북한 분류표 수집(구입) • 남북 공통 분류체계 개발 및 남북 통합 분류표(십진분류) 개발 • 남북 주제 분류체계(디렉토리 분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경색기 사업이며, 화해협력기에는 남북 양측 전문가로 남북 공통분류표 개발위원 구성하여 남한 개발안 검토 - 연합기에는 남북 종합목록 DB 구축, 남북 양측 데이터 반입 및 분류표 적용, 시스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도서관 관련 각종 표준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남북한 자료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공동 연구개발' •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통일분류법(목록규칙) 연구 및 제작'
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도서관 교류를 남한과 북한의 직접 교류(인적 교류를 통한 자료 교환 등) 뿐 아니라, 남북 도서관 교류 진행을 위한 우호적 사회환경 조성도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공공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개체수가 많은 공공도서관이 북한 이해, 통일문화 확산 관련된 사업(예: 북한 자료전시, 북한 문학작품 읽기, 북한 영화 보기, 접경시대 주민의 삶 알기)을 진행하여 시민의 통일 감수성을 증대에 기여 • 이 사업은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현재 북한자료는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접하기 쉽지 않는데,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북한 도서를 보고 통일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음(다만 특수자료실 아닌 도서관에서 전시회 개최는 통일부 승인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각종 도서관 자료의 전시회 개최'
	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단계적 사업으로 남한 작가의 통일 관련 문학도서 읽기부터 시작하여 『통일문학선집』 간행, 『통일문학선집』 저작권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한 문학 읽기 등으로 진행 • 독서 이후 후속모임을 통해 남북 비교, 북한 현실, 통일에 대해 토론함 	
	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초반에는 북한 주민의 일상, 북한 도서관이 소재가 되는 영화 관람부터 시작해서 남북 상호 대표작품 상영 등이 이뤄짐 • 상영 이후에는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와 토론시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신청하면 영화(파일, CD 등)를 제공할 수 있음 	
	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기록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분단, 통일, 평화 등을 일반인의 삶 그리고 마을의 일상과 역사를 찾아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기록사업	기록화는 작업으로 주로 접경지대 도서관에서 이뤄질 수 있음 ※ 파주중앙도서관 사례 참조		
제2절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1. 남북 자료· 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1-1.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으로 북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데서 시작하여, 서지목록 및 자료교환을 활성화하고, 중국에 고전적을 포함한 자료 교환 • 교환된 북한자료는 모두 디지털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소장자료 목록 및 서지교환',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환과 공동이용' •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북한소장 고전적 및 자료목록 전시회', '남북한 도서관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남북한 국가서지 상호교환을 통한 소장자료 파악', '남북한 국가문헌 종합목록 공동작성', '국가 문화재단 고전적의 복제 및 영인'
		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의 국제상호대차 서비스나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적용: 북한을 해외국가의 하나로 포함하여 국제상호대차 서비스 적용 •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이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국제)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북한 과학기술전당과 교류할 수 있음 	
		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용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어린이가 남한의 콘텐츠(수학과 과학 부문)를 향유하고, 남한 어린이는 북한의 애니메이션을 향유하도록 하여 통일 세대의 공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의 수학교육, 과학교육 콘텐츠와 같이 공동 원리 등을 다루는 내용은 약간의 가공(예: 남한 강사가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이 필요함 - 북한 애니메이션(전래동화, 과학)은 역시 전문가(북한 전문가, 아동 교육 전문가)가 1차 관람 후 적절한 가감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디지털 자료 교류 확대'
		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총 도서목록, 그 가운데 고전적 등 북한에만 있는 책자(또는 목록이라도)를 입수하여 영인본 또는 복각본 제작 이후 번역 • 고전적 원문, 번역문을 소재(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공모사업 진행 • 고전적 목록 및 실물 입수(남북 도서관교류준비단)-영인본 및 복각본(국립중앙도서관)-번역(한국고전번역원)-콘텐츠화 공모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고문헌 등 민족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교환과 공동이용' •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북한소장 고전적 및 자료목록 전시회', '남북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도서관 고전적 조사, 수집, 영인 및 소장목록 교환 • 1차 도서관개발종합계획의 '국가 문화재급 고전적의 복제 및 영인'	
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이 통일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의 북한 문화 및 북한 도서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남한 사서 대상 북한 도서관 이해, 북한(문화) 이해 강좌 실시 • 화해협력기 이후에는 북한사서 교육, 남북 사서 공동교육 등을 실시 		
	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사서/도서관일군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사서/도서관일군 자격 취득에 대한 설명 및 시범교육 • 북한 도서관에 도서관 직무 단위 매뉴얼을 모듈화하여 제공(다양한 매체 활용) • 북한 당국에서 제작한 북한 도서관의 현황과 변화를 알려주는 교육용 교재를 남한 도서관 사서에게 제공 		
	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도서관 간 정보서비스 협력창구 개설 • 가칭 '남북사서/도서관일군의 창'을 개설하고, Q&A 운영(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사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도서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뿐 아니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에 문의 - 북한 도서관 관계자는 인민대학습당(또는 과학기술전당)뿐 아니라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 - 서비스 전담 이메일 계정 개설 		
	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이 북한에게 선진적인 운영 및 경영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 교류가 될 수 있음 •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플랫폼 관리 노하우 전수 • 남한이 이 같은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상황에 따른 신속한 협의와 지원이 가능한 남북한 실무 창구 개설 •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은 원문 공동이용 등을 제안해야 함(지원이 아니라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안이 필수적임)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 지원'	
	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도서관이 도서관 건축과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경험과 사례 공유,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력 • 남북 도서관의 정보 교환은 공간구성, 시설 및 기기, 관리 및 활용, 공간별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자를 간행하여 교환하는 게 적합함 • 화해협력기에 상호 도서관 방문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도서관 정보화 등 운영기법의 상호 지원' •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도서관 상호방문'	
제3절 남북 도서관	1. 남북 도서관 교류의	1-1. 도서관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학술대회에 남북한 참여를 통해 현재와 같은 제재국면에서 남북 도서관의 비공식 자료 교환(간접 교류)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남북한 도서관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도서관 교류 국제화의 일환 북한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남북 교류(도서관계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연차총회와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여, 국제전문도서관협회(SLA)의 아시아지부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컨퍼런스(CoASL) 학술대회 참가를 통한 교류)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교류협력(북한이 IFLA의 PAC에 참여하여 남한과 자연스럽게 교류) 	<p>심포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남북도서관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동북아 도서관 자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2.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도서관 교류 국제화회의 일환임 연변대 주최 두만강 포럼, 한반도(조선반도) 포럼에 도서관학 세션 구성(남북연구자 발표 토론) 연변대 도서관 주최 남북도서관전시회 연변대 북한자료 목록 취합 및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음
	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대 자료 디지털화(한국도서관협회, 대학연합체, 디지털 관련 기업) 지원하여 자료를 통일교육에 활용 조선대 소장 북한자료 구입 도서관을 주제로 남·북·일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음
	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고려학술정보센터 서울지회에 특정도서관 내 공간 제공 국제고려학회 평양학술대회에 남한 참여 고려국제학(코리아학) DB를 도서관 중심으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음
	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에서 활성화된 한국학 학술대회를 남북 학술 및 도서관 교류의 계기로 활용 유럽의 한국학 학술대회에 문헌정보학 세션 마련하여 남북한 도서관 간접교류 유럽 대학 및 문서관리소의 한반도(특히 북한) 자료 발굴 북한의 국제 학술활동 촉진을 통해 북한 자료의 개방을 이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음
	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의 한계를 ODA 사업의 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임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모델을 북한 도서관 지원 사업에 변용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남북 도서관 교류를 실현하고자 함 남한이 ODA를 통해 직접 북한 도서관을 지원하기는 어렵기에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색 관련 법, 제도 적용가능성, 제3국 주체 ODA 검토 이후 작은(이동)도서관 모델 개발 및 조성 지원, (작은)도서관에서 원격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이동도서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기존 계획 및 제안
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남북 학술대회 개최 및 상호 교류 여행 • 도서관은 남북 학술대회에서 중개 기관 역할 담당 • 학술교류는 대학, 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 (도서관은 자료취합) • 연합단계에는 공동연구 및 공동학위, 학자(학생) 상호 장단기 체류 등으로 이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남북한 도서관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심포지엄' • 2005년 평양 방문 시, 제안한 '남북한 도서관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자료의 교류협력의 가이드라인 제시: 북한제재 완화 및 변화, 또는 해제 시 교류 가능한 출판물 종류 제시 • 단계별 출판물 교류 및 판매 • 공동출판 및 공동번역으로 남북한 도서관 비치-판매-수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별 출판사가 진행하고, 도서 남분과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 	

2.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주요 사업: 단계별 사업과 추진 주체

-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별 사업과 추진 주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기와 화해협력기까지임
 - 선행연구에서는 화해협력기 이전, 남북관계 경색기 사업을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봄
 -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기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화해협력단계의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1국가 2체제인 연합단계의 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화해협력기 사업의 일부가 계속 또는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간략히 사업내용을 제시함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화해협력기-연합단계-통일한국으로 이뤄짐에 따라 연합단계는 물론 1국가 1체제인 통일한국 시기의 도서관 운영(이때는 더 이상 도서관 교류가 아니라 한 국가의 도서관 운영임)과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는 게 체계적일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한국 시기의 사회 모습을 상상하기(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일한국 시기의 도서관 사업을 다루지 않았음
- 연구에서는 지금 현재, 곧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적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서관계가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음
- 지금 현재 도서관계에서 남북교류를 위해 할 일을 제시해야 화해협력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을 많이 제시했지만, 단위(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음
- 제안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를 기술한 것 역시 현장에서 사업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참여자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임
- 경색기인 지금 당장 도서관 교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추진주체를 설정해야 함
- 아래의 <표 6-2>에서 제시된 시점과 추진 주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경색기보다 화해협력기 이후에 많을 것임
- 따라서 경색기에 시작할 사업은 바로 착수하는 게 바람직함

<표 6-2> 남북 도서관 주요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점과 추진 주체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제1절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준비단(추진단)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으로 형성(예산 및 인력 지원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용
		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	○		
		1-3. 특수자료실	◎	◎		
		특수자료취급기관	특수자료의	극소수 자료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대학도서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운영 개선	협의체	일반자료화	제외하고는 일반자료화	• DB 구축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1-4. (가칭)「북한 자료관리법」 제정	특수자료실 운영실태 파악	◎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가칭)「북한자료관리법」으로 대체함		• 법 제정 주체는 통일부, 세부 사업 관리 등 운영 주체안은 다음과 같음 (1안)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2안)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도서관 통일문화 거점화, 제3국 활용 남북 교류	◎ 제안 및 협정 체결(문화협정 내 도서관 부분 포함)	세부적 남북 도서관 교류사업 개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남)-문화성(북) 또는 로동당 선전선동부(북)
	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 종합포털구축	남북협력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남북협력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 (1안)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 (2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 국내 특수자료실 소장 북한자료 목록화, 외국 소장 북한자료 목록화	북한 내 자료목록 작성 및 원문 전자문서화 (저작권 선해결)	북한 원문열람 서비스 (저작권 선해결)	• 문화체육관광부-통일정책연구협의회-대학도서관연합회(1차)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통일부 북한자료센터(2차)
	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남한 및 외국 소장 북한자료 목록화	◎ 경색기 구축한 종합목록의 북한 도서관 소장 정보통합 등 협의	남북 종합목록 기반의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 북한 도서관 전문인력양성 『원문으로 보는 북한 도서관』 발간	남북 대학 정기 학술대회, 『북한 도서관백서』 발간	남북공동학술지 『남북한 도서관 연구』 발간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에서 추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후원)
	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 김일성대 도서관 사업 시 작성 비교표 재검토,	남북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종합목록화에	문헌정보학계 공동연구 편의성 제고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헌정보학계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북한 문헌정보학 학술자료 및 신문의 도서관 기사 용어 분석	활용할 수 있음			
	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 북한 분류표 수집-연구-공동분류표 개발	◎ 남북 양측 전문가로 남북공동분류표 개발위원 구성하여 남한 개발안 검토	남북 종합목록 DB 구축 남북 양측 데이터 반입 및 분류표 적용, 시스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분류표 수집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공동) 공동분류표 연구개발(문헌정보학계 영역) 	
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 도서관 사서교육 및 특화도서관 탐방, 통일 및 북한 프로그램 실시	○ 남북 개별 도서관 교류(지역 역사문화 자원 소재)	남북 공동주제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업용역 수탁기관(길 위의 인문학 연계) 	
	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 특수자료실 보유 도서관 연계행사 국제도서전 북한참여 유도	○ 북한 도서 판매, 남북 공동책자 출간	남북 공동 국제도서전 참가, 남북 상호 발간자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 남한 작가의 통일관련 문학책활용	◎ 『통일문학선집』 및 『통일문학전집』 발간 및 읽기, 북한 문학작품의 일반자료화	북한의 모든 문학작품 대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회의 (국문학-북한학-도서관학) 문화체육관광부-국정원 협의 6.15 민족문학인협회 	
	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 일상 및 도서관 관련 영화 상영	◎ 남북 도서관에서 상호 대표작 상영	남북 도서관에서 상호 영화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 접경시대 및 수복지역 구술사, 관련 기록물 책자 상시 전시	북한입장의 접경시대 도서관 자료수집 남북공동	『(남북)강원도』, 『(남북)철원군』 같은 책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도서관(지자체 지원) 공모사업(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등) 실무행정(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제2절	1.	1-1.	○	◎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기증 및 교환 자료 수집 전담기관 지정 북한에 기증 의사 전달	기증 및 교환	상호 미소장 고전적의 영인본 교환 등	정부기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협력)	
	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 준비단계로 제안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할 수 있음	◎ 시범사업 및 본사업	개별 도서관 단위의 상호대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활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북한 과학기술전당과 교류 	
	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구축	교류 콘텐츠 확보 및 수요조사	◎ 북한 애니메이션 남한 도서관 상영, 남한 교육콘텐츠(수학, 과학 등) 북한 도서관 제공	남북 공동 교육용/어린이용 영상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남북도서관 교류준비단-콘텐츠 기업, 북한 조선도서관협회 중심 협의체 	
	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북한 자료 총목록 및 실물 입수: 특히 고전적을 중심으로(외국을 통한 입수 노력) 영인본(북각본) 제작 및 번역 준비	◎ 북한 자료 총목록 및 실물 입수: 특히 고전적을 중심으로(남북직접 교류) 영인본(북각본) 제작 번역 콘텐츠상품공모전 공모사업 수상작 콘텐츠상품화 지원	◎ 콘텐츠상품공모전 공모사업 수상작 콘텐츠상품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적 목록 및 실물 입수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번역(한국고전번역원) 콘텐츠화 공모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 남한 사서 대상 북한 도서관 이해, 북한(문화)이해 강좌 실시	○ 남한 사서 대상 일반교육 및 심화교육, 북한사서 대상 교육실시	남북 사서 공동교육 남북한 도서관 상호방문하여 실무교육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진행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협력)
		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남한 사서 대상 교육, 남북 도서관 체제 및	◎ 북한 사서 대상 교육 및 교육 매뉴얼 제공	남한 사서/북한 도서관일군 공동교육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제공	사서 역할 비교 연구				
	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남북 도서관 체제 및 사서 역할 비교 연구	◎ 남북 도서관 정보서비스 협력 창구 형성, 서비스 전담 이메일 계정 개설	남북 사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인민대학습당 또는 과학기술전당	
	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기술적 지원체계 계획 수립	◎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플랫폼 관리 노하우 전수, 남한은 북측 자료 원문 공동이용 제안	남북 양측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차 방문 확인, 종합운영기관 간 헬프데스크 운영	• 총괄 추진주체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협력)	
	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남한 도서관 대상 조사결과를 공유	◎ 정보공유 및 상호방문	남북에 적합한 공동도서관-미래원 신축, 두 도서관 간 직접 교류	•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사례 조사 • 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은 정보공유	
제3절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1.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1-1.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 국제기구(국제대회 개최국)와 의제 개발 및 북한 참여유도를 위한 협의	◎ 초반: 국제회의 남북 접촉, 후반: 남북한 사서가 국제회의에서 공통의제 해결방안 논의	남북에서 국제학술대회 공동주최, 문헌정보학의 특정주제 중심의 남북 공동연구	• 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ICoASL 회의개최 계획 수립(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지원), • 국제학술대회 참여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에서 담당(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은 후원하고 관련 자료 취합)
		1-2.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 연변대 주최 두만강 포럼, 한반도(조선반도) 포럼에 도서관학 세션 구성(남북연구자	○ 초반까지 연변은 물론, 심양, 장춘, 단둥으로 확산 후반부터는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	특정주제 중심으로 남북 공동연구	• 연변대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에서 담당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은 후원하고 관련 자료 취합) • 연변대 도서관 소장 북한 도서목록 및 남한 도서관 미소장 자료구입(남북도서관교류준비단) • 연변자치주 도서관 교류는 광역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발표 토론) 연변대 도서관 주최 남북도서전시회, 연변대 북한자료 목록 취합 및 구입			대표도서관의 참여
	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 조선대 도서관 학습기자재 디지털화, 조선대 소장 북한자료 구입, 남북 일 학술대회	○ 초반: 경색기 사업 지속 중반: 남북 도서관 직접 교류(조선대 참여유도) 조총련계 고급중학교 연계도 시도	남북학계의 공동연구(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대 자료 디지털화(도서관 관련 민간기관, 대학연합체, 디지털 관련 기업)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학회, 대학에서 담당(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은 후원하고 관련 자료 취합)
	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 국제고려학술정보 센터 서울지회에 특성도서관 내 공간 제공 평양학술대회 코리아학 DB를 도서관 중심으로 구축	○ 초반: 경색기 사업 지속 중반: 남북 도서관 및 남북 주요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남북 도서관 및 남북 주요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관련 학회 평양대회는 서울지부 협의 도서관은 후원자 역할(자료수집)
	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 유럽 한국학 학술대회에 문헌정보학 세션 마련, 남북 도서관 간접 교류 유럽 대학 및 문서관리소의 한반도(특히 북한) 자료 발굴	○ 초반: 경색기 사업 지속 중반: 남북 도서관 및 남북 주요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남북 도서관 희귀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세계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학회 중심의 참여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은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후원자 역할)
	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 관련 법, 제도 적용가능성 검토 제3국 주체 ODA 검토	◎ 작은(이동)도서관 모델개발 및 조성 지원	(작은)도서관에서 원격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추진 주체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국제기구, 제3국 통한 도서관 교류	◎ 남북학술대회 개최 및 상호 교류여행 도서관은 남북학술대회에서 중개기관 역할 담당	◎ 초반: 화해협력기 사업 추진 중반: 도서관 학술대회를 넘어 대학 간, 학회간 교류, 남북 학자 및 학생 장단기 체류 남북대학 공동학위 개설, 남북공동연구	• 학술교류는 대학, 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 (도서관은 자료취합)
	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 단계별 자료의 교류협력의 가이드라인 제시 (출판사 간 교류이지만 도서관 납본함)	단계별 출판물 교류 (국립중앙도서관-통 일부 북한자료실 비치)	공동출판 및 공동번역으로 남북 도서관 비치-판매-수출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개별 출판사 진행 • 도서 납본과정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

※ 5장에서 언급한 주요 사업을 재정리한 것임, 표시[◎ ○]는 사업 진행 시점(始點)을 말하는데,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함,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지만 관련된 사업의 진행을 의미함

제2절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시점

1. 단위 사업의 추진 시점(영역별)

- 5장에서 제시한 33개의 단위 사업의 추진 시점(始點)을 요약하면 <표 6-3>과 같음
- 5장에서 절(節) 구성은 행위주체에 따른 것이고, 절 아래의 1. 2. 3의 구성은 기능에 따른 것임
 - 행위주체별로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1절)과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3절)는 대체로 남북 직접 교류 이전의 검색기 사업이 많을 것임
 - 반면에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2절)은 화해협력기 사업이 많을 것임
-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검색기의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임
 -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연구에서 검색기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과 화해협력기 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연구에서 제시한 단위 사업의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임
- 첫째,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제1절의 1)은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 도서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교류협정 체결 제안’을 제외하고는 현재 당장 시행할 수 있음
 - ‘교류협력 체결 제안’은 남북 교류가 재개되고, 특히 일부 도서관 교류가 시행된 이후, 곧 화해협력기에 제안하는 게 현실적임
 - ‘전담조직 구성’은 일종의 거버넌스로 검색기부터 연합단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며,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과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은 둘 가운데 하나를 실현하면 되는 사업임
- 둘째,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제1절의 2)은 모두 현재와 같은 검색기에 도서관이 참여하는 사업임
 - ‘통일 및 북한 정보종합포털 구성’,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은 검색기에도 준비시행할 수 있음
 -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에서 목록화 사업은 검색기에, 종합목록의 북한

도서관 소장 정보통합 등 협의는 화해협력기에 진행함

- 셋째,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1절의 3) 내 사업은 검색기에 진행 가능함
 -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는 검색기부터 진행하며,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는 검색기에 북한분류표를 수집·연구하고 화해협력기에는 남북 공통분류개발위원회에서 남한 개발안을 검토함
- 넷째,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1절의 4) 내 사업은 검색기에 진행 가능함
 -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접경지대 역사문화 기록사업’은 검색기에 준비하여 시작하는 사업임
 -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은 검색기부터 화해협력력기까지 진행하는 사업임
- 다섯째, ‘북한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2절의 1)은 남북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으로 화해협력기에 본격화됨
 -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검색기인 현재 제안 또는 준비하여 화해협력기에 기증 및 교환, 상호대차 서비스의 시범 및 본사업을 실시함
 -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역시 검색기인 현재 콘텐츠 확보 및 실물 입수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가, 화해협력기에 남한 콘텐츠(과학, 수학 등)의 북한 도서관 제공, 영인본(복각본)제작, 콘텐츠 상품화 지원을 본격 실시함
- 여섯째,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2절의 2)은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해협력기에 진행할 사업임
 -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은 1절(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에 포함되는 게 적절할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및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곧 남북 사서 간 상호 이해 제고란 측면에서, 2절에 위치함
 -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및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은 화해협력기에 구체적으로 진행함

- 일곱째,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3절의 1)은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임
 - 남북 도서관 간 직접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도서관과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한 간접적 남북 도서관 교류는 현재도 진행할 수 있음
 -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교류사업은 도서관 교류의 공간을 한반도 내에서 전세계로 확대시킴
 -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경쟁기부터 준비하여 화해협력기에 구체적으로 진행함
- 여덟째,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3절의 2)는 경쟁기 사업과 화해협력기 사업으로 나뉘볼 수 있음
 -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는 남한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경쟁기에도 가능함
 - 반면에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는 경쟁기의 제3국을 통한 도서관 및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기에는 남북 학술 교류에서 도서관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단위 사업의 추진 시점을 살펴보면,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은 남북의 직접 교류뿐 아니라 남한 내의 준비작업,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간접 교류를 포함하기에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 없이 현재부터 시작해야 할 사업이 많음
 - 현재부터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남북 도서관 교류의 활성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음
 -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부터 도서관 교류를 실행해야 함

〈표 6-3〉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단위 사업: 추진 시점(영역별)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남한 도서관의 전문성 및 체계 구축	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1.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전담조직 구성	◎	○	○
	1-1-2. 지역별 통일정보실 운영	◎	○	
	1-1-3. 특수자료실 운영 개선	◎	◎	
	1-1-4. (가칭)「북한자료관리법」 제정		◎	
	1-1-5. 남북 도서관 교류협정 체결 제안		◎	
	1-2. 북한 자료·정보 공유 기반 구축			
	1-2-1. 통일 및 북한 정보 종합포털 구축	◎		
	1-2-2. 국내·외 보유 북한 자료 목록 구축	◎		
	1-2-3. 남한 중심의 남북 도서관 종합목록 구축	◎	◎	
	1-3. 북한 도서관 관련 연구 사업 활성화			
	1-3-1. 북한 도서관 전문 연구인력 양성	◎		
	1-3-2. 남북 도서관 용어 비교 연구	◎		
	1-3-3. 남북 도서관 분류표 개발 연구	◎	◎	
	1-4. 남한 내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거점화			
	1-4-1. 도서관의 통일문화(교육) 활성화	◎	○	
	1-4-2. 도서관의 북한 도서 전시회 개최	◎	○	
	1-4-3. 북한 문학작품 활용 통일문화교육	◎	◎	
	1-4-4. 북한 영화 활용 통일문화교육	◎	◎	
	1-4-5. 접경 지역 역사문화 기록사업	◎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진행	2-1. 남북 자료·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 구축			
	2-1-1. 북한 도서관 자료 기증 및 남북 도서관 자료 교환	○	◎	○
	2-1-2. 남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구분	주요 사업	추진 시점		
		경색기	화해협력	연합단계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및 타 분야 연계	2-1-3.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용 콘텐츠 제공		◎	
	2-1-4. 북한 도서관 자료(고전적 포함)의 보존·복원 및 콘텐츠화	○	◎	◎
	2-2.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2-2-1. 북한 도서관 이해를 위한 남한 사서 교육	◎	○	
	2-2-2. 북한 사서 교육 및 교육용 자료 제공		◎	
	2-2-3.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	
	2-2-4. 전자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유		◎	
	2-2-5. 도서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	
	3-1. 남북 도서관 교류의 국제화			
	3-1-1.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 도서관 교류	◎	◎	
3-1-2. 연변대학교·연변자치주 도서관 협력 사업	◎	○		
3-1-3. 일본 조선대학교 도서관 협력 사업	◎	○		
3-1-4.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도서관 교류	◎	○		
3-1-5. 유럽 내 한국학대회 및 한국학과 지원	◎	○		
3-1-6. ODA 사업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지원	○	◎		
3-2. 출판·학술 교류와 도서관 교류 연계				
3-2-1. 남북 학술 교류 매개자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	◎	
3-2-2. 남북 출판물(자료) 교류 가이드라인 제시	◎			

※ 5장에서 언급한 주요 사업을 재정리한 것임. 표시(◎ ○)는 사업 진행 시점(始點)을 말하는데,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됨, ○은 사업진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지만 관련된 사업의 진행을 의미함

2. 제도통합기의 도서관 운영 방향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의 순서로 구성되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⁵³⁾

○ 화해협력기

-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나가는 단계”
-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
-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됨

○ 남북연합단계

- “남북 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2단계로 설정”함
-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됨
-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가 운영”됨

○ 통일국가완성단계

-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임
-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함

■ 연구는 화해협력 이전 단계인 현재(경색기)부터 화해협력단계까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 시도임

- 단위 사업이 연합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 사업의 시점과 기간에서 일부 연합단계를 포함했음

253) 아래의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따옴(검색일: 2021년 11월 19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 다만 연합단계는 남북 공동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음
- 더욱이 통일국가가 완성되면(통일 한국)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대신하게 됨
- 통일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통독사례에서 보듯이 (남북)지역 간 격차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함
 - 둘째, 통일국가 도서관은 옛남한과 옛북한의 문화통합을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의 ‘통일문화 거점화 사업’을 ‘문화통합 거점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개될 수 있음
 - 셋째, 통일국가 도서관은 통일국가의 문화다양성 실현의 장(場)으로서 기능해야 함
 - 문화다양성은 이질성의 극복이 아니라 수용에서 비롯됨
 - 도서관에서 옛 자료를 열람하면서 옛 남한, 옛 북한 사람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
 - 넷째, 통일국가의 도서관이 학술-출판-콘텐츠와 연계하여 세계 속의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시도해야 함
 - 옛남한과 옛북한이 국제기구와 제3국에서 도서관을 기점으로 다양한 학술 교류를 시도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새로운 통일국가의 도서관은 세계와 함께 해야 함
 - 옛남한과 옛북한의 귀중자료를 중심으로 출판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하는 데 도서관이 참여하여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에 참여함
- 통일국가의 도서관의 구체적 정책사업을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사업들, 화해협력기 이전의 교류협력(준비) 사업 방향과 통일국가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서 보듯이, 지금부터 도서관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참고문헌

- 강대훈(1987), “통일운동의 일환으로써 남·북한 도서관 협력,” 『도서관정보논총』, (4)
- 강미정(2001), “북한의 군중도서관 도서분류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립중앙도서관(2019),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 국립중앙도서관(2021),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20』
- 국회도서관(2021), 『2020년 국회도서관연간보고서』
- 기철능(1991), “남북 출판물 교류 비밀 협상,” 『옵서버』, (23)
- 김경희(2017),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는 문화와 도서관 통합과정,” 『월간 국회도서관』, (2017년 06월호)
- 김광진(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 김면(2018),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문화교류와 시사점,” 『웹진 문화관광』, 2018년 4월호
- 김기현(2014),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남태우(2000),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 노명환(2019), “빌리 브란트와 에곤 바르의 투칭 연설의 시대적 배경과 동방정책의 사상 및 실천 전략,” 『역사문화연구』, 71
- 노문자(2008), “통독 후 15년간 동독 공공도서관의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 노문자(2002),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 도서관일군(2016),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겠다,”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 도서관일군(2016), “미래원관리운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 도서관일군(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도서관사업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 도서관일군(2016),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꾸려진 미래원들 - 황해북도 승호군미래원과 연산군미래원, 평안남도 안주시미래원을 찾아서,” 『도서관일군참고자료』, 2016년 제1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8),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0), 『제6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2021), 『2020 북한 동향과 분석』
- 마린 홀렌더·다니엘라 쾰핑(2021), “통일이후 독일도서관의 통합과 발전: 베를린 주립도서관에서의 경험,”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 문화관광부(2002),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 계획(안) 2003~2011』
-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 박상재(2019),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북한 전래 동화』, 함께자람(교학사)
- 박영정 외(2015),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협약서 체결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박정호·이원규·이태욱(2007),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내용 및 용어에 관한 남북한 비교 분석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0(3)
- 변희현(2013), “북한 수학 수업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3(2)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9), 『2019 통일의식조사 심포지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 『2020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1), 『2021 통일의식조사: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 자우어, 클라우스 G.(2013), “1990년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동서독 도서관 통합,”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문화통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68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국립중앙도서관)
- 전영선(2008), “북한 아동영화의 창작적 특성과 남북교류 방향,” 『한국문화콘텐츠학회』, 1
- 전영선(2017), “통일준비와 도서관의 역할,” 『월간 국회도서관』, (2017년 06월호)
- 정세종·나지연(2020), “북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내용지식(PCK) 요소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0(4)
-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

- 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연경 외(2014), 『통일대비 남북한 도서관계의 통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전략 연구』(국립중앙도서관)
- 정은미(2019),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부문을 중심으로,” 『Kinu Insight』(통일연구원), 2호
- 조명희(1991), “한국 도서관 네트워크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회도서관보』, 28(4)
- 조선로동당출판사(1979), 『김일성저작집3(1947.1~1947.12)』
-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김일성저작집5(1949.1~1950.6)』
- 조선로동당출판사(1983), 『김일성저작집25(1970.1~1970.12)』
- 조왕근(2007),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한양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한독도서관 컨퍼런스-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독일문화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한국도서관협회)
- 조현성 외(202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조현성(2021), “도서관계의 통일 인식과 통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년 도서관정책포럼
- 조현성 외(2021), 『남북 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손기웅(201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4(2)
- 송승섭(2008), “북한의 도서관법,” 『북한도서관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2008), “북한 도서관 운영체제와 봉사활동,” 『북한도서관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2010),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41(2)
- 송승섭(2014),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과 남북한 도서관의 협력 방향,” 『북한의 전자도서관 현황 및 남북 저작권 교류방안』
- 송승섭(2017), “통일시대의 도서관! 통일한국의 국가자료관을 세우자!,” 『국회도서관보』, 448호
- 송승섭(2018),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전자도서관의 협력 가능성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9(3)
- 송승섭(2020), “도서관계의 남북교류: 과거, 현재, 미래,” 『평화통일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정책포럼
- 이두영(2000), “남북한 도서관계 교류의 첫 걸음,” 『도서관문화』, 41(6)
- 이성우 외(2021), 『남북 문화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문화체육관광부)

- 이연숙·한영선·정민영(2016), “통일 대비 남북한 가정생활 용어 비교 분석: 소비자·가정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2)
- 이우영·손기웅·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 이우영·전영선(2009), “북한자료 공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2(2)
- 이우영(2021), “통일, 가까운 미래, 한민족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 『2021 도서관정책포럼: 남북한 도서관 네트워크의 통일 지향』,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년 도서관정책포럼
- 이상배·백명식(2018), 『북한 전래동화』(좋은꿈)
- 이석희(2001),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한 학술교류의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15(2)
- 이정현·김유미(2017), “북한 과학환상동화 ‘동굴섬의 새전설’에 나타난 북한의 정치사회화 맥락과 아동관,”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 이종문(2008), “북한 PUST 디지털도서관 모델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 이찬호(2017), “동서독의 문화통합과 한반도에서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21: 문화 분야 관련 정책 문서』(통일부)
-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현양·이재원 (2005),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4)
- 차금선(2017), “북한의 IT 산업과 전자도서관 현황,”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지방정부 학회)
- 통일대비정책연수단(1993),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통일부(2015),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제2015-4호)
- 통일원 통일정책실(1993),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 한국도서관협회(2005), 『한국도서관연감 2004년』
- 한국도서관협회(2014), 『한국도서관연감 2013년』
- 한국도서관협회(2015), 『한국도서관연감 2014년』
- 한국도서관협회(2021), 『2020 한국도서관연감』
- 한국도서관협회, 내부자료(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및 WLIC조직위원회 방북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0), 『독일통일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 한상완(1990), “한국과 중국·소련과의 민간학술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한·소·중·동구의 문화관계』(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 한상완(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13~32쪽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0(1)
- 한상완·곽동철·송승섭·한상길(2001),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도서관문화』, 42(6)
- 한스-요아힘 하인츠(2018),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의 기본조약(1972.12.21)에 관한 법적 의견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토론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 한승현(1993), 『영상 저작물과 저작권』(한국방송공사)
- 홍선표(2008),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자료 지정기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Chanlett-Avery, Emma & Taylor, Mi Ae,(2010),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Dankert, Birgit(2007), “뜻하지 않은 경험: 협력, 동반자, 그리고 통합(Unforeseen Experiences: Cooperation, Partnership and Integration with Libraries and Librarians of the Former GDR and FRG),”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 Gail P. Huetting(1982), “Book Publishing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52(3)
- Haldeman, James(2011), Cornell-DPRK Educational Exchanges: Assessment and Future Strategies,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 Schmidmaier, Dieter(1991), “Libraries in the GDR after November 1989. IATUL Quarterly, Vol.5, No.3
- 기사
- 〈노컷뉴스〉(2005.12.05.), “신기남 의원, 남북정상회담 “北 우호적 분위기 느껴,”

- <https://www.nocutnews.co.kr/news/104025>
〈동아일보〉(2002.06.06.), “[책] ‘서울국제도서전’ 7일 코엑스서 개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606/7828316/1>
〈동아일보〉(2003.09.05.), “MBC느낌표 ‘평양도서관’ 찬반 논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30905/7980321/1?comm>
〈로동신문〉(2011.01.16.), “(사설) 축구강국을 향하여”
〈로동신문〉(2016.01.24.),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1)”
〈로동신문〉(2016.01.26.),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고(2)”
〈로동신문〉(2020.01.23.), “우리 생활과 독서기풍”
〈로동신문〉(2020.04.21.), “책읽기와 인류문명의 발전”
〈로동신문〉(2021.06.15.), “도서를 활용한 화선식 사상교양사업”
〈로동신문〉(2021.08.11.), “전자도서를 이용한 학습”
〈머니투데이〉(2020.01.17.), “금강산관광은 정말 대북 제재에 저축이 안 될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616017683540>
〈매경프리미엄〉(2020.12.18.), “북한 어린이들의 아동영화 사랑,”
<https://www.mk.co.kr/premium/behind-story/view/2020/12/29427/>
〈부산일보〉(2020.05.19.),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 출범... ‘우리삶 바꾸는 도서관 만들 것’,”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1915161958020>
〈서울신문〉(2006.08.17.), “책으로 만나는 남북문화유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17022009>
〈시사저널〉(2005.09.23.), “책 얼음 밑에서도 ‘IT’는 흘렀다.”
〈아주경제〉(2020.05.19.), “신기남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남북한 도서관 교류, 미래 준비하겠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9172056850>
〈오마이뉴스〉(2019.11.08.),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북한에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086
〈연합뉴스〉(2009.06.19.), “북과 과학교류, 토슨 미 시라큐스대 교수,”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9130500014>

- 〈연합뉴스〉(2009.08.18.), “김주팔 대전 대훈서적 대표 별세,”
<https://www.yna.co.kr/view/AKR20090818038300063>
- 〈연합뉴스〉(2019.07.29.), ‘서울대-김일성대 교류추진위, 학부생 대상 ‘통일학교’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9057600004>
- 〈자유아시아방송, RFA〉(2004), “멸종위기의 시베리아 호랑이의 삶과 죽음,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
 남한교육방송 EBS-TV 방영,”
https://www.rfa.org/korean/in_focus/112973-20030816.html
- 〈조선신보〉(2017.11.24.),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인류의 보물고에 등록
 된 옛 무술도서”
- 〈조선신보〉(2019.08.29.), “wi-fi로 전민학습환경을 개선: 무선망판형컴퓨터가 호평”
- 〈조선일보〉(2003.11.18.), “통일문학전집 CD롬 5년만에 완성,”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11/18/2003111870392.html
- 〈조선일보〉(2009.10.06.), “52년 전통 대전 대훈서적 부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6/2009100600197.html
- 〈중앙일보〉(2006.08.15.), “조직위원장 신기남 의원 ‘문화-외교적 국위선양 기회 참가예정 북한 불참
 아쉬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8931#home>
- 〈통일뉴스〉(2001.07.30.), “북 인민대학습당, 100여개 국가와 교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6>
- 〈통일신문〉(2003.10.13.), “인민대학습당, 운영방식 현대화,”
<https://www.unityinfo.co.kr/2427>
- 〈파주뉴스〉(2020.10.14.), “‘북녘의 책 읽는 풍경’ 보러 오세요,”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2&newsSeq=234
- 〈프레시안〉(2003.02.06.), “평양에 독일문화원 도서관 건립,”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2560#0DKU>
- 〈프레시안〉(2010.12.28.), “김책공대-시라큐스대 쌍둥이 연구소 만드는 그날까지: 한종우 교수인터
 뷰 “IT교류 다시 시작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1542#0DKU>
- 〈한국경제〉(2021.04.23.), “통일부, 80억원 들여 목포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한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39604i>
〈한국일보〉(2001.03.12.), “북한전문서점 연 김주팔씨 “책구입에 8억...남북화해 도움됐으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103120089046867>
- 〈한국일보〉(2007.04.18.), “김일성大 도서관 자료 가을께 인터넷으로 검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704182387037477>
- 〈한국일보〉(2021.11.13.), “해방촌 희망촌 토막사...이름으로만 남은 '역사의 아픔' 피란민 거주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11160003853?did=NA>
- 〈Daily NK〉(2014.4.23.),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A%B5%90%EB%A5%98/>
- 〈Daily NK〉(2014.04.23.),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 〈NewDaily〉(2021.07.29.), “김일성대↔서울대,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208.html>
- 〈NK chosun〉(2001.06.18.), “도서교류 통해 남북 이해심 높여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4>
- 〈NK chosun〉(2001.10.23.), “北 평양서 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2>
- 〈SBS NEWS〉(2011.09.23.), “국정원 ‘북한자료 취급’ 보안대책 강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93075
- 〈SNU AC〉(2019.08.17.), “서울대학교-연변대학교 합동 학술대회,”
https://snuac.snu.ac.kr/?u_event=%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EC%97%B0%EB%B3%80%EB%8C%80%ED%95%99%EA%B5%90-%ED%95%A9%EB%8F%99-%ED%95%99%EC%88%A0%EB%8C%80%ED%9A%8C
- 〈SNU NOW〉(2019.11.20.), “아시아연구소, 서울대-연변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https://now.snu.ac.kr/past/50/2/1519>
- 〈UNN〉(2018.08.25.), ‘김일성대, 서울대에 화답 “판문점선언 이행, 함께 하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557>
- 〈VOA〉(2009.04.16.), “시라큐스-김책공대 교류 소강상태,”

〈The JoongAng〉(2009.08.29.), ‘[어린이 책] 북한 아이들은 어떤 동화 읽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49742#home>

●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국제상호대차 <https://www.nl.go.kr/NL/contents/N30302000000.do>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서비스 <https://books.nl.go.kr/PU/contents/P10206000000.do>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구축시스템 <https://kolis-net.nl.go.kr/KolisNet/LoginPage>

마포중앙도서관 <https://mplib.mapo.go.kr/mcl/index.do>

예스24 <http://www.yes24.com>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 TECH) <http://www.nktech.net/main/main.jsp>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연구DB <https://udbs.unikorea.go.kr>

통일부 UniTV <https://unitv.unikorea.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

통통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DBpia <https://www.dbpia.co.kr>

Research4life <https://www.research4life.org/about/>

TEEAL Project <https://www.teeal.org/>

부록1: 남북 도서관 교류 관련 기존 제안 검토²⁵⁴⁾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독일 사례

- 동·서독간 문화협정(1986) 제6조(도서관분야)에서는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데 대한 협력 확대”를 포함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괄함
 - 첫째, 대출교류의 확대
 - 둘째, 참고서지 및 그 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 셋째,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국내 연구자 논의

- 종합목록(union catalog)의 작성과 교환 논의²⁵⁵⁾
 - 남북한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협력 시 무엇보다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 남북의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도 높을 것임
 - 종합목록의 작성은 정보자료교류 및 도서관 상호대차의 전제가 되며 주요 도구가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논의²⁵⁶⁾

254) 부록1은 공동연구자 최재황(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정리한 것임

255)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재(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15쪽; 한상완(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10쪽

- 남북간 소장 자료의 서지 사항을 통일된 목록규칙에 맞추어 기술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은 분단 당시에 이미 동서독의 목록학자들이 공동목록규칙을 개발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모든 자료의 서지기술에 적용하였음
- 남북한도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목록 규칙만이라도 통일된 형태로 작성한다면, 통일이후 도서관 관계가 겪게 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북한 도서관계는 정보기술, 전자도서관 개발과 고도화에 관심이 많음²⁵⁷⁾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종합대학 도서관은 가칭 KPMARC 및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조선십진분류표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정리에 있어 더블링크어, MARC21 등 국제표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함²⁵⁸⁾
 -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전반에 걸친 현대화 사업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 주고 받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정보환경 개선뿐 아니라 남북 주민의 상호이해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남북한 도서관 협력 의제의 발굴 시 유용한 사업안건이 됨
 - 남북 표준 MARC 공동개발 및 이용 등 도서관의 정보화 표준화 규범화를 위한 사업은 체제, 이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동 사업임
 - 전자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술 동향에 대한 도서관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기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분희는 1994년 학위논문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통한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²⁵⁹⁾
 - 첫째,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목록을 작성
 - 둘째, 남북한이 상호 이용 가능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를 제도화
 - 셋째,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일된 목록규칙의 작성
 - 넷째, 학문연구의 중요한 성과인 학위논문을 양측이 상호교환 함으로써 연구 중복 방지
 - 다섯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통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 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남한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남북한 도서관 교류에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²⁶⁰⁾

256)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재(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15쪽

257)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32~333쪽

258) 조왕근(2007),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한양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한독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독일문화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한국도서관협회), 13~21쪽

259)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iv쪽

260) 한상완(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10쪽; 조명희(1991), “한국 도서관 네트워크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회도서관보』, 28(4), 6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표준화는 원활한 정보 교환이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표현 형식과 유통 절차의 표준화를 의미
- 출판물의 형식, 용어, 시소러스 작성지침 등 언어관계, ISBN, ISSN, 간행물의 표제나 도서에 사용되는 약어나 심볼, 번역문자, 서지기술과 목록규칙에 관한 것, 초록과 색인, 정보처리와 정보 교환에 관한 것, 정보경제, 문헌복제 등에 관한 표준사항 등
- 학위논문의 교환이 필요함²⁶¹⁾
 - 남북한이 각기 출판한 모든 자료를 상호 납본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학문연구의 중요한 성과인 학위논문을 교환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음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독일 사례

- 동·서독간 문화협정(1986) 제6조(도서관분야)에서는 “정보자료 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동·서독간 문화협정(1986) 제8조(학술분야)에서는 “협정 당사국들의 해당 국가기관들은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 등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²⁶²⁾
- 1987년 9월 8일 베를린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 이 협정에 따라 협력 분야에서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전 분야를 발전시키기로 함
 - 이 조약은 모두 8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는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에 부응하는 계획과 대책을 협의하고 그 수행을 지원’하고, 제2조에서는 ‘협력은 자연과학과 공학 및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전 분야를 포함’한다고 명시²⁶³⁾
 - 협정된 조약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학문·기술의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27개의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졌음²⁶⁴⁾

261)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15쪽

262) 통일원 통일정책실(1993),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342쪽

263)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4쪽; 통일원 통일정책실(1993),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344쪽

264)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5쪽; 신용철(1990), “독일 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4), 160~161쪽

국내 연구자 논의

- 학술분야 교류는 문화협정 이후 서독의 학자나 연구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므로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²⁶⁵⁾(정분희 1993, 24; 통일원 1990, 849; 한상완 등, 1996, 108)
- 한국도서관협회는 1990년대 남북한 도서관연구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2006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 WLIC 서울 조직위원회는 IFLA 회원인 북측 도서관관계자의 초청을 추진하기도 하였음²⁶⁶⁾
 - 그러나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사업의 취약성, 그리고 조직의 물질 기반과 정치적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함에 따라 큰 실효성 없이 제안만으로 종결되었음
- 정분희의 연구(1993)에 의하면, 북한의 도서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은 1900년~1970년 사이에 발간된 남측 미 소장자료, 해방 전 녹음자료 및 영상자료, 한국학 관련 고문헌 등에 학술적 관심이 많다고 함²⁶⁷⁾
 -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정보환경의 개선 및 공식적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단계적 과정으로서 비정치적 학술적 분야부터 국가서지에 대한 공동작성과 관리를 시작하여 주요 학술정보에 관한 전자정보를 교류하는 등²⁶⁸⁾ 다각적인 각도로 학술정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수행되고 추진되어야 함²⁶⁹⁾(한상완, 1990, 132-133)
 - 고급전문연구원이 양성되고 이에 따른 인적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를 활성화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정보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학술교류가 체계적이며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전문 문헌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과 각종 정보자료의 다양화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남북한 학술교류를 마련하는 것 중 하나로 문헌정보학 학자들 간 다음의 공동연구가 가능함²⁷⁰⁾

265)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4쪽; 한상완, 김태수, 전현준, 이승재(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08쪽

266)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30~331쪽

267)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31~332쪽

268) Dankert, Birgit(2007), “뜻하지 않은 경험: 협력, 동반자, 그리고 통합(Unforeseen Experiences: Cooperation, Partnership and Integration with Libraries and Librarians of the Former GDR and FRG),” 『도서관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5~9쪽

269) 한상완(1990), “한국과 중국·소련과의 민간학술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한·소·중·동구의 문화관계』(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5~147쪽

270)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11~12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첫째, 학술정보의 표준화
- 둘째, 표준통일분류표 제정
- 셋째, 표준통일목록표 제정
- 넷째, 국제기구나 제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공동참여(예, IFLA)
- 학술분야 교류는 학문의 상호 보완,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²⁷¹⁾
 - 1차적으로 제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나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 2차적으로 북한당국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남북한 학술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학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 토대 위에서 남북한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및 공동조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남북간 직접적 공동 세미나 개최가 어렵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유관 협의체나 기업 등과 협력하여, 북측 관련 실무자 및 책임자 등과 제3국에서 미팅하거나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²⁷²⁾
 - 이와 같은 경우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트렌드 소개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적 교육내용과 현안 이슈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출판물 교환을 통한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독일 사례

- 동·서독간 문화협정(1986) 제6조(도서관분야)에는 당사국간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를 강조함
- 동·서독간 문화협정(1986) 제5조(출판분야)에서는 “협정 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하고 있음²⁷³⁾
 - 첫째, 상업적인 서적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 보급 및 수입 확대
 - 둘째, 어느 한쪽이나, 쌍방 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 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271)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v쪽

272) 박미향(2017),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332~333쪽

273) 통일원 통일정책실(1993),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341쪽

간행

- 셋째,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 확대
- 넷째, 도서관람회 개최에의 참여
- 동독과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1972년) 이후부터 문화협정(1986년) 체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물의 교환을 통한 도서관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음²⁷⁴⁾
 - 동독 측의 서독 측으로부터 대출 희망은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의 최신판 서독 및 외국서적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서독측은 동독으로부터 주로 동독지역에 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도서대여 요청이 많았음
 -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독일어 도서목록은 상대편 출판사들로부터 매년 신간서적 목록을 제공받아, 동독측은 Leipzig에 소재한 Deutsche Beucherei에서, 서독측은 Frankfurt에 소재한 Deutsche Bibliothek에서 각각 작성하였음
- 서독정부는 서독 측 출판사들이 그들의 신간서적 목록을 Leipzig에 송부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독 출판사들은 목록을 송부하였음
- 문화협정 체결 이전, 동독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작품과 사회주의적 현대소설류의 유명서적들이 허가판(라이센스판: licensed edition)으로 서독의 출판업계에 의해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함²⁷⁵⁾
 - 그러나 동독에서는 서독 작가의 동시대 작품이 거의 허가판으로 출간되지 않았음
- 동서독은 정치와 이데올로기 분야가 아닌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지 및 연구논총, 사전류 등을 공동으로 발간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 출판비용은 서독에서 부담²⁷⁶⁾
 - 양독 간의 서적교류에 있어서 교양도서, 일간신문, 전문잡지 등의 교류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전문서적 등의 교류는 대부분 억제되었음

국내 연구자 논의

- 출판 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출판 교류는 남한의 당국을 유리하게 해 줄 뿐이며, 군사정 치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남북간 어떠한 출판계약도 어렵다. 남한의 비정치적 교류 우선 책동을 이해

274) 통일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608쪽

275)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쪽; 한상완, 김태수, 전현준, 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07쪽

276)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쪽;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08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할 수 없다”고 표명하고 있음²⁷⁷⁾

- 도서관간의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 출판물 상호 교환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협력 방안으로 다음 단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음²⁷⁸⁾
 - 제 1단계는 순수학술서적, 기초연구자료 및 관련자료 목록
 - 제 2단계는 순수문학작품, 순수연극, 영화대본 및 일반연구논문
 - 제 3단계는 사회주의 이념서적, 잡지 및 선전 선동차원의 문학작품
- 한상완은 출판물 교류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²⁷⁹⁾
 - 첫째, 북한 신문·방송의 국내소개 확대
 - 둘째, 북한의 고전국역, 농기구학, 고고학분야의 전문분야 도서구입 실시
 - 셋째, 탈이념적인 과학 기술 및 학술분야의 전문서적과 정기간행물, 인기소설, 오락서적의 전시회 상호개최
 - 넷째, 순수학문 및 기초과학분야, 자연경관 및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체육·문화행사 자료집 등 공동 제작 출판
 - 다섯째, 과학·기술 용어사전 및 교과서 공동편찬
- 남북이 저작권을 상호 보호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²⁸⁰⁾
 - 첫째,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각기 자기 측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남북 당국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법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호혜적이며 타당성이 있음
 - 북한은 아직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협약의 효력은 한반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음
 - 남북 당국자들 중 어느 한편이 기존의 협상전략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움
 - 둘째, 남과 북이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 보호법제를 갖추고 동일한 다국간 저작권 조약의 회원국이 되는 방안으로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는 것
 - 북한은 현재 과학기술서적의 경우 외국 서적을 무단 번역출판하고 있는 책이 많은 관계로 세계저작권

277)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11~12쪽; 기철능(1991), “남북 출판물 교류 비밀 협상,” 『옵서버』, (23), 450쪽

278)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v쪽

279)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11~12쪽

280)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11~12쪽; 기철능(1991), “남북 출판물 교류 비밀 협상,” 『옵서버』, (23), 463쪽; 한승현(1993), 『영상 저작물과 저작권』(한국방송공사), 89~93쪽

- 권조약 가맹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임
- 북한이 저작권보호법령을 갖추기 전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국간 조약에 가입 할 가망은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됨
 - 셋째, 남북간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새로운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 남북저작권을 상호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실정법의 전향적 개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 남북 간의 문화교류에 장애가 되고있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보완되어 지금까지의 금지와 제한 일변도의 제도를 과감히 개방하여야 함

특수자료(북한자료) 이용 확대를 통한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 특수자료 개방정책을 확대 필요²⁸¹⁾
 -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면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함
 -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임
- 특수자료취급지침의 분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수자료개방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함²⁸²⁾
 - 특수자료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자료를 대폭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함
 -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면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궁극적으로 동서독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도 서독이 동독에 대해 서독자료 이용을 전면 허용했던 것처럼 전면 해제하여도 무방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봄
 - 특수자료 분류기준(5개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분류기준(5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281)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14쪽

282)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iv쪽, 61~68쪽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둘째, 각 특수자료 취급기관별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특수자료의 분류 판단에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셋째,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상황 의존적이므로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특수자료의 분류기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줄여야 함
 - 넷째, 궁극적으로 ‘특수자료’를 없애므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이 마땅하지만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임. 따라서 차선의 방안은 기존의 기준들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거임
- 남북한 주민이 도서관을 통하여 모든 자료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²⁸³⁾
 -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남북한의 도서관은 모든 학술자료를 비롯하여 사회체제와 이념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수집하여 남북한 주민이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채널이 되어야 하고, 자료 접근의 평등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제도 및 정책적 고려를 통한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

- 강대훈은 남북한 도서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²⁸⁴⁾
 - 첫째, 정치적 책임감이 있는 해당 부서 차관급 이상의 인사와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이루어진 남북한 도서관협력위원회 설치
 - 정치적 영향력을 극소화하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 협의 하에 임기제로 임명
 - 둘째, 도서관 협력 창구로는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결정
 - 양측의 남북한 도서관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남한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대표적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이 협력체제 유지
 - 셋째,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에 실무자를 파견
 - 넷째,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공동세미나 및 연수회의 정기적 개최
 - 다섯째, 협력에 필요한 통신 및 교통의 편의 제공

283) 김광진(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2쪽

284) 강대훈(1987), “통일운동의 일환으로써 남·북한 도서관 협력,” 『도서관정보논총』, (4), 149쪽;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60쪽; 한상완(1994),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5(1), 8쪽;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0(1), 112~113쪽

- 여섯째, 교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검열하지 않음
- 남북한의 도서관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²⁸⁵⁾
 -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음
 -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남북문화협정(가칭)’이 체결될 때 도서관 분야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남북한 도서관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도서관 협력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도 관련 사업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확보 되도록 해야 함
-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보자료 교류협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²⁸⁶⁾
 -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업무에 대한 조사와 도서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
 - 남북한간의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협정’ 체결 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야 함
 - 문화협정의 조항 속에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 남북한 간의 도서관·정보자료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음²⁸⁷⁾
- 한상완은 통일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²⁸⁸⁾
 -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 인적 교류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남북한간 정보자료의 적극적인 교류
 - 학술정보교류망 구축과 실현
 -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변혁
 - 도서관 시설 장비류의 현대화와 정보기술의 이양 및 공동개발

285) 김광진(2007), “남북한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자,” 『도서관문화』, 48(10), 3쪽

286)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61쪽

287) 정분희(1994),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統獨)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63~64쪽

288) 한상완(1995),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특별강연, 『도서관문화』, 36(5), 237쪽;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116~120쪽

부록2: 북한의 도서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²⁸⁹⁾

주체87(1998)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제1조 (도서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다.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2. 출판물이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것을 말한다.

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도 속한다.

제3조 (도서관의 조직운영원칙)

도서관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4조 (출판물의 수집원칙)

출판물의 수집을 잘하는것은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고 도서관 리용자의 출판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289) 통일법제데이터서비스 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검색결과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 (장서보존관리원칙)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장서의 보존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도서관봉사원칙)

도서관봉사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봉사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이 도서관을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7조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도서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서실운영도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제9조 (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이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도서관을 내오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서관의 설립)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리용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서관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의 등록)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류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수 없다.

제12조 (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관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가 될수 있다.

제13조 (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

관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의 운영)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 (도서관운영의 개선)

도서관은 사회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개건, 설비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서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

제17조 (출판물수집의 기본요구)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출판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판물수집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판물수집계획은 장서편성기준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19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련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판물의 수집방법)

출판물은 주문예약, 기증, 납본, 구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21조 (출판물의 호상교환)

출판물수집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서관들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전자출판물의 수집)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수 있다.

컴퓨터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출판물의 등록)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

제24조 (목록자료기지의 구축)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제25조 (장서보존관리의 기본요구)

장서보존관리를 잘하는것은 출판물의 손상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장서의 보존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출판물의 보존)

도서관은 출판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출판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출판물의 보관)

도서관은 출판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열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은 자료저장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전파를 엄격히 막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2중보관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8조 (출판물의 보관조건)

도서관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출판물의 소독)

도서관은 광선, 유해곤충 같은것에 의하여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출판물에 대한 소독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화재사고의 방지)

도서관은 화기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애야 한다.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는 인화성물질을 보관할수 없다.

제31조 (출판물의 수복)

도서관은 손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복하며 신문, 잡지합본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출판물의 제적)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제적대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적하여야 한다.

제적된 출판물은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출판물의 실사)

도서관은 보관된 출판물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34조 (서고, 컴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

도서관은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 출입할수 없다.

제5장 도서관봉사

제35조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보장)

도서관봉사는 도서관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알뜰히 꾸리고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서관의 일보는 날자)

도서관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일보는 날자, 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37조 (도서관의 리용방법)

도서관에 보관된 출판물의 리용은 열람, 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판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열람, 대출)

열람, 대출신청을 받은 도서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판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대출하는 출판물은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열람, 대출한 출판물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판물은 열람실밖으로 내갈수 없다.

제40조 (통신대출, 이동문고)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통신대출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담한다.

제41조 (호상대출, 국제대출)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제42조 (출판물의 반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물리용의 실효제고)

도서관은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여러가지 실효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출판물리용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제44조 (출판물의 소개)

도서관은 출판물소개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출판물소개사업은 도서전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45조 (출판물소개자료의 편집발행)

도서관은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관 같은 출판물소개자료를 편집발행하여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서관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제46조 (과학기술보급)

도서관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같은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수 있다.

제47조 (원격강의)

도서관은 영상 및 음성전송을 쌍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리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수 있다.

제48조 (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도서관은 다른 나라 출판물에 대한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결심채택지원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49조 (전자인증대리봉사)

해당 도서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 대한 전자인증봉사를 대리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봉사료금)

도서관은 도서관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물의 대출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관에서는 출판물의 대출봉사료금을 받지 않는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1조 (도서관의 건물, 시설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을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영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3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5조 (도서관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서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손해보상, 리용중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분실, 손상시켰거나 도서관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관리용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서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 공동연구자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최재황(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소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원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은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연구협력관 : 김태경(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서기관)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www.clip.go.kr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7층

02-590-6243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처 | ㈜더크리홍보(02-737-5377)

© 2021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